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전공안내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01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과학기술대학

..... 01 응용수리과학부 데이터계산과학전공	2p
Division of Applied Mathematical Sciences - Data Computational Sciences	
..... 02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6p
Department of AI Cyber Security	
..... 03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	10p
Division of Display and Semiconductor Physics	
..... 04 신소재화학학과	15p
Department of Advanced Materials Chemistry	
..... 05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19p
Department of Computer Convergence Software	
..... 06 전자및정보공학과	25p
Department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ing	
..... 07 생명정보공학과	30p
Department of Biotechnology & Bioinformatics	
..... 08 식품생명공학과	34p
Department of Food and Biotechnology	
..... 09 전자-기계융합공학과	38p
Department of Electro-Mechanical Systems Engineering	
..... 10 환경시스템공학과	44p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ystemic Engineering	
..... II 미래모빌리티학과	48p
Department of Autonomous Mobility	
..... 12 지능형반도체공학과	50p
Department of AI Semiconductor Engineering	

응용수리과학부

데이터계산과학전공

첨단 수학으로 이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읽는다!
" 응용수리과학부 데이터계산과학전공! "

학과 소개

"수학은 만학의 여왕이다."

카를 F. 가우스가 한 말입니다. 고대 이집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학은 인류 역사와 함께하며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등의 자연과학은 물론이고 사회학과 심리학 등의 사회과학과, 심지어는 철학 등의 인문학까지에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즉, 수학은 전 인류가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블록체인과, 알파고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이 응용수학의 대표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과'로 시작한 응용수리과학부 데이터계산과학전공은 데이터를 수학적인 기법으로 분석하는 것을 넘어, 비트코인과 알파고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를 창조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많은 직업이 대체될 위기에 놓여있지만, '수학자'는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인류 최후의 직업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은 수학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모든 수학적 개념은 인간의 창의적 사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수학이 사물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은 첨단 과학 기술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21세기, 데이터(정보)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가장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 중요한 데이터를 계산하고, 예상하고, 활용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응용수리과학부에 진학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의 선두주자가 될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교육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해석학 계열 극한과 미적분을 엄밀히 정의하고 그 성질을 활용하는 학문	미적분학1,2	해석학1,2	복소수해석학1,2 수치해석학1,2	실해석학
대수학 계열 방정식의 근을 알아내는 학문		선형대수학1,2	대수학1,2	대수적위상수학
기하학 및 위상수학 계열 공간의 성질을 알아내는 학문		집합론 기하학 (편)미분방정식	위상수학1,2	위상데이터분석 수학적모델링 실무데이터분석1
통계 및 금융 계열 모호한 데이터, 특히 자본의 성질을 추정하는 학문		다변수함수론 확률론	수리통계학1,2 미분기하학 금융수학개론	수리금융파생상품론 실무데이터분석2
이산수학 계열 이산적인 데이터의 성질을 알아내는 학문		이산수학 정수론	그래프론	
응용수학 계열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실무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	전산수학 응용수리과학개론	계산수학	보험수학1,2 응용수학개론 산업수학1	산업수학2

교직 과정 및 실습 과목

교직과정은 2학년 2학기에 신청하여 3학년 1학기부터 이수하게 됩니다. 단 누구나 이수할 수는 없으며, 선발조건은 학점과 면접입니다. 높은 학점과 면접을 위해 1학년부터 학점관리 및 전공에 대한 공부는 필수입니다. 전산수학, 응용수리과학개론, 계산수학, 수리통계학, 수치해석학, 산업수학은 전산 실습을 포함하는 과목입니다.

졸업 후 진로

금융	재무설계사	재무설계사는 이자(복리)의 원리를 활용하여 자본을 관리하거나, 이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 보험계열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리적인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응용수리과학부 학생들은 수학 지식은 물론, 통계 및 금융 계열 과목을 이수하기 때문에 금융계로의 진출에 있어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IT	프로그래머	C, Python, Java 등 다양한 언어로 수학 원리(수치해석, 수리통계 등)를 구현합니다. 수학이 지니고 있는 엄격한 논리체계와 생각의 자유로움은 프로그래밍에 있어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실습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 주로 택하는 진로로, 각 기업의 연구소, IT기업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경영/마케팅	데이터 분석 전문가, 카피라이터 등	데이터 분석에 입각한 마케팅, 전략이 확대됨에 따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준 높은 정보 처리 능력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응용수리과학부 학생들은 수학적 사고력과 탄탄한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할을 넘어 데이터 활용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전략 구축, 광고 제작 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수학교사, 수학자 등	응용수리과학부 학생들은 교직 이수를 통해 수학교사가 될 수 있으며, 대학원 진학을 통해 수학 연구와 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문 수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투자자산운용사 / 인증기관: 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투자일임재산 운용 능력을 평가하며, 펀드 매니저로서의 활동을 면허합니다. 시험과목은 '금융상품 및 세제', '투자운용및전략2 및 투자분석', '직무윤리및법규/투자운용및전략'이 있는데, 각각 20, 30, 50문항이 출제됩니다. 응용수리과학부 학생들은 통계 및 금융 계열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해당 과목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보처리기사 / 인증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초 정보처리 능력을 평가합니다. 필기와 실기로 나뉘며, 필기 시험과목은 전자계산기 일반, 패키지 활용, PC운영체제, 정보통신일반이 있고, 실기 시험과목은 정보처리실무가 있다. 더 나아가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활용능력 / 인증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사무에서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평가합니다. 특히 스프레드시트(엑셀) 활용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1급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엑세스)를 추가로 평가합니다.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엑셀 활용능력은 기본이기 때문에, 응용수리과학부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편이며, 전공과목을 공부하며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미리보는 응용수리과학부

수학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있는 학생분들이라면, 진로 선택에 앞서 '숫자'와 관련된 영화나 도서를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꼭 '수학'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수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과학 활동을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수학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수학과목을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진로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학'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영화나 도서는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데이터 측정 및 계산, 이해와 해석에 있어서 '응용수학이란 이런 것이구나'를 바로,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영화를 하나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미테이션 게임'! 제 2차 세계대전, 암호 해독을 위한 수학자들의 필사적인 두뇌전쟁을 다룬 영화로,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영화가 실화라는 점입니다. 영화를 보고 흥미를 느낀다면 응용수리과학부에서 공부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공(학과) 프로그램 및 장학금

학술제

학술제 발표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라면 어떠한 것도 상관없으며, 학부생들 뿐 아니라 교수님들까지도 해당 발표를 듣습니다. 학생들은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도 하고, 교수님들께서는 해당 발표의 보완점이나 참신한 점을 칭찬해주시기도 합니다. 학술제가 끝난 이후에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다같이 뒤풀이를 가지며, 프로그램이 무사히 종료된 것을 축하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습니다.

수리과학 지원센터

응용수리과학부 데이터계산과학전공에서는 세종캠퍼스 재학생들을 위한 수리과학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들이 학년에 관계 없이 수리과학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며,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장학금이 제공됩니다. 자신이 배우고 있는 전공과목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답해주며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공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연구생 장학제도

특정 교수님의 연구를 돕는 연구생이 되어 연구를 진행하며, 별도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대학원 진학에 생각이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거의 필수적으로 밟는 코스이며, 꼭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이 없더라도 교수님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학생자치활동

크레이지

학부 내 축구 모임입니다. 학부생들 간 친목 도모를 위해 자체 경기를 갖거나 타 학과와 친선 경기를 갖기도 하며, 체육대회 때 학과 대표로 경기를 뛰기도 합니다. 1년에 한번씩 졸업한 선배 및 교수님들과의 이벤트 경기도 있습니다. 축구를 잘 하고, 못하고는 상관 없이 그저 축구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환영하는 모임입니다.

고인돌

축구에는 '크레이지'가 있다면, 농구에는 '고인돌'이 있습니다. 크레이지와 마찬가지로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으며, 친선 경기나 교내 다양한 경기에 참가하여 농구를 즐기는 것은 물론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가비

위 두 소모임과는 달리, 공부와 주를 이루는 모임입니다. 주로 전공관련 지식이 풍부한 선배가 후배들에게 개념을 알려주기도 하고, 시험대비로 문제를 풀어주는 등 학점관리에 도움이 되는 모임입니다.

학생회

학부의 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과행사 기획 및 지원을 담당하는 학과 내 자체 학생회입니다. 저희 학과의 얼굴이며, 학과 내 중심이 되는 일원이 되고 싶다면 학생회에 지원해주세요!

그 외

여러분이 학과생들과 함께 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또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모임이 있다면 주저 말고 소모임을 만들어주세요! 학생회가 부원 모집을 돕겠습니다!

특별취재 - 재학생 학술제 출품내역

취업만이 다는 아니야! 수학의 진면모란 이런 것!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전공안내서 취재기자단을 맡은 박신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전공안내서를 작성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우리 학과에서 졸업한 선배님들 대부분이 통계, 빅데이터, 경영 분야로 많이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학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제가 응용수리과학부 학술제에 낸 작품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는 작품들을 통해 오직 취업을 위해서가 아닌, 수학 그 자체에 흥미를 가질수도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의 1학년 때의 작품은 '삼진 컴퓨터에 쓸 논리 게이트의 이름 제안'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는 이진법을 쓰는데, 이진법 대신 균형삼진법을 사용하면 적은 양의 하드웨어로 저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진 논리 게이트가 NOT, AND, OR이라는 표준화된 이름을 가진 것과 달리, 삼진 논리 게이트에는 그러한 명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NEG, MIN, MAX, COMP, PRI라는 게이트를 제안했으며, 이들 5가지 게이트로 모든 삼진 논리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저의 2학년 때의 작품은 '가장 잘 구별되는 16가지 색상'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 NetHack이란 게임을 즐겼는데요, 검은 화면에 ASCII 문자들로 던전과 몬스터, 아이템들을 보여주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자가 너무 어둡게 표시돼서 플레이하기 불편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문자의 색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색 사이의 차이를 인지하는 원리는 LUV 색공간으로써 표현될 수 있는데요, 저는 수치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LUV 색공간에서 서로 가장 멀리 떨어진 16가지 색상을 찾아냈습니다.

저의 3학년 때의 작품은 'Haskell을 이용한 Symmetric Group의 구현'이었습니다. Haskell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실제 수학에서의 함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저는 당시 대수학을 배우고 있었는데요, 문득 모든 group을 Haskell의 자료구조로써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들었습니다. 모든 group은 symmetric group의 subgroup이므로, symmetric group만 구현하면 모든 group이 구현되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순열의 새로운 성질을 밝혀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술제에 출품하면서 느낀 점은 실제 실무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응용수학은 물론이고 순수수학도 그리 멀지 않은 데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자연계열에 진학하기를 망설이던 학생이라면, 저의 이러한 연구가 마음을 다잡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17학번 박신환 / 학술제 출품 내역

Q. 수학을 잘 못하는데 응용수리과학부에 진학해도 괜찮을까요?

A.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등과정 수학과 관련 없는 부분도 많으며, 관련이 있다 해도 1학년 때 처음 배워야 할 기본 지식부터 다시 배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졸업 후 취업하는데 유리할까요?

A. 2010년대, 취업에 영어가 필수였던 것처럼 이제 2020년대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코딩 능력이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학과는 순수 수학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과 실습 또한 병행하고 있기에, 취업에 매우 유리한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학과 분위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A. 저희는 타 학과에 비해 학생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학과생들은 학년에 상관없이 두루두루 친하고, 다같이 재밌게 노는 분위기여서 어떤 성격의 학생이든 간에 친해지려는 마음만 있으면 즐겁고 화목한 4년의 대학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특별취재

졸업생 인터뷰 - 취업에 관하여

Q.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금융감독원에서 근무중인 11학번 제○○ 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Q. 금융 관련쪽으로 취업하셨는데요. 이중전공을 하신건가요?

A. 그렇습니다. 융합전공으로 '금융공학'을 공부했습니다.

Q.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요. 평균 학점은 어느정도 셴나요?

A. 3.5~4점 정도였습니다. B+와 A의 사이네요.

Q. 공부를 열심히 하신 속에 속하셨네요. 그럼 학교 생활은 별로 즐기지 않고 공부만 하신건가요?

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학번인 11학번 대표로 학생회활동을 했고, 부 학생회장 또한 맡을 정도로 과 생활을 즐겼습니다.

Q. 대학 생활과 공부를 병행하셨다니 놀랍네요. 취업 준비기간과 따놓으신 자격증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A. 저는 1년이라는 취업 준비기간을 가졌구요. 따놓은 자격증은 없었습니다.

Q. 자격증이 전혀 없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취업하는데 자격증이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걸 증명하신 셈이네요.

A.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게 바로 그 점입니다. 아무 자격증이나 무턱대고 따는 것 보다는,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이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지 안하는지, 필요로 한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먼저 조사한 후에 따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많이 따는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Q. 신입생 뿐만 아니라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해당 학과의 고학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이네요. 그렇다면 현재 이 학과로의 진학을 고민중인 고등학생들에게 해줄 말씀이 있으신가요?

A. 저를 보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공부와 학교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대학생활을 즐긴다고 해서 취업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취업 준비를 위해 공부를 한다고 해서 대학생활을 즐길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도, 대학생활도 열심히 하셔서 빛나는 대학시절의 추억과 미래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 11학번 제○○ /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재직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Hacking, 그 찬란한 이름 속으로

학과소개

현대 사회의 발전

에 따라,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 해킹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해킹' 역시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킹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요?

영화, 드라마 등의 정보 매체에서 접할 수 있는 해커들은 흔히 게임 체인저로서 비유되며, 개인의 능력으로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디어 속 해커는 시스템에 침입하여 정보를 유출하거나, 시스템 무력화 및 수정 등의 작업을 하는데요. 이러한 활동이 흐름을 바꾸는 정도가 아닌, 그 목적이 옳지 않게 사용될 경우에는 크나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교통, 금융, 발전소와 같은 국가 기반시설들이 공격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 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에서는 이러한 해커들이 사용하는 기술의 근간이 되는 지식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실무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무중심형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해킹 동아리, 암호 동아리, 학부생 연구원 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 영역의 활동들이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었다고 자신합니다. 특히, 세계적인 해킹동아리인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해킹동아리 'Cykor'와의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은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며, 세계적인 수준의 해커들의 지도 하에, 그들의 지식과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2017년 새롭게 태어나 수많은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해 온 '사이버보안전공'은 2020년,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로 학과가 개편됨에 따라 최신 연구트렌드인 인공지능을 접목한 수업들이 신설되어, 인공지능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보안 전문가의 소양 역시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열정만 준비된다면 모든 것을 제공해줄 수 있는 곳,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사이버보안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수 있는 곳, 이곳은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입니다.

교육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기반수학 연구역량	암호수학 응용확률통계	선형대수학 이산수학과응용	수치최적화이론	대수학 I 양자계산과보안
컴퓨터이론 · 프로그래밍 기술역량	파이썬활용및실습 컴퓨터언어 컴퓨터언어실습 리눅스활용및실습	자료구조론 객체지향프로그래밍의기초와실습 컴퓨터구조설계이론 웹프로그래밍	운영체제의이해 데이터통신네트워크 시스템프로그래밍실습 데이터베이스설계및보안	모바일프로그래밍 블록체인과분산시스템 모바일핀테크보안 컴파일러
인공지능보안시스템 개발역량		데이터사이언스 인공지능개론	인공지능최적화기초 기계학습개론 심층학습	강화학습 인공지능보안시스템개발 신호정보해독및응용
암호 · 보안기술 연구역량	정보보호개론	현대암호	시스템보안 암호SW개발 네트워크보안 부채널분석 빅데이터응용및보안	컴퓨터보안론 사이버법과정책 무선이동시스템및보안 비대면시대의산업보안 고급프라이버시암호학 IoT보안
암호 · 보안기술 실무역량		사이버해킹기초와실습 I, II	역공학 데이터포렌식이론과실습 스마트시티보안관계 캡스톤디자인	악성코드분석 해킹방어이론과실습 취약점분석 산학연계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I, II, III 산학공동프로젝트

2021년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정보보호특성화대학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6년까지 총 32.6억원의 학과 운영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운영 예산은 학생 장학금 지급(매년 약 3억원), 교육 인프라 구축, 산학협력 교육, 글로벌 인재양성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참여 기업 및 협력 기관은 ADT캡스인포섹, 세인트시큐리티, 시스메이트, 에스엔티웍스, 쿤텍, 에스에스엔씨, ICTK홀딩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이 있으며, 지역인력 양성을 위해 지자체인 세종특별자치시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금 지급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채용연계프로그램 운영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에서는 사이버보안 신기술을 공동연구·개발하고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보장을 위해 KISTI, SK인포섹과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기 위한 3자 업무협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학생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의 인턴 기회뿐만 아니라 국내 보안업계 1위 회사인 SK인포섹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우선 제공됩니다.

졸업 후 진로

공공 및 기업보안 전문가	국가 공공기관 및 기업 내의 IT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기술적·물리적·관리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직군입니다.	
보안사고 대응 및 관제 인재	보안 관제	금융사, 기업, 공공기관 및 정부 기관 등의 정보기술 자원과 보안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이버 공격 정보를 탐지하고 분석하여 즉시 대응하는 직군입니다.
	침해 사고 대응	정보기술 자원과 보안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침해 사고에 처리 지원 및 예방, 피해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입니다.
정보보호 컨설턴트	기업,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의 IT 자산 현황 및 취약점을 파악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정보보호 조치를 안내해주는 직군입니다. 대표적인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 업체로는 SK인포섹, Ahnlab 등이 있으며,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부서에서도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안 기술 연구	정보보안제품 개발자	정보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제품 연구 개발자로서 국내외 정보보호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직군입니다. 삼성SDS, LG CNS와 같은 대표적인 SI기업 뿐 아니라 정보보호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벤처 기업, 기타 정보보호제품 개발이 필요한 웹서비스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안 기술 연구원	소프트웨어 제품의 새로운 취약점을 연구하거나 공격기법을 연구하는 직군입니다.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정보보안기사 /인증기관: KISA

IT 및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정보보안시스템 및 솔루션을 개발하고, 주요 운영체제 및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안 장비를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지, 또한, 조직의 정보보안정책의 수립과 대책수립 및 관리, 정보보호 관련 법규 적용 등의 직무 수행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안산업기사 /인증기관: KISA

IT 및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정보보안시스템 및 솔루션을 개발하고, 주요 운영체제 및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안 장비를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지 증명합니다. 정보보안기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정보처리기사 /인증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컴퓨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을 양성할 목적으로 제정된 자격증입니다.

CISA /인증기관: ISACA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의 자격으로 미 국립표준연구소(ANSI)에서 인증한 공신력있는 국제 자격증입니다. 응시 자격은 정보 시스템 감사, 통제, 보증 또는 보안 관련 분야에서 5년간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CISA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IS 감사, 통제, 보증 및 보안 전문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CISSP /인증기관: ISC

공인 정보 시스템 보안 전문가(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 자격으로, ANSI / ISO / IEC 17024 표준에 충족하는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인정되는 정보보안 자격증입니다. 응시 자격은 보안 관련 분야에서 5년간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며, 이 자격증을 통해 조직의 보안 상태를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 및 경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학과(전공) 프로그램 및 장학금

교내해킹대회 지원프로그램

학과에서 주최하는 해킹대회인 KCTF는 학생들의 해킹 및 대응기술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TF(Capture The Flag)란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풀면서 획득한 점수로 상대방과 경쟁하는 대회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Pwnable, Reversing, Forensic, Web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교내해킹대회 지원 프로그램은 대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장학금은 대회 운영비와 상금으로 사용됩니다. 대회는 전공 학생들 외에도 다른 학과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입상한 학생에게는 상금이 주어집니다.

전공학습도우미 프로그램

전공학습도우미 프로그램은 전공학습의 이해 및 활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학부생들끼리 튜터/튜티의 관계를 맺어, 학습에 도움을 주고받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과목의 기수강자로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부생은 튜터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과목을 이수하려는 학부생과 튜터링을 진행합니다. 튜터 1명당 4명 이상의 튜티로 구성되어 매학기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튜터는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습니다..

학부생연구원장학금

학부생연구원장학금은 대학원 진로를 생각하는 우수학생을 조기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학부생 연구원으로서 과제에 참여하는 재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프로젝트에 연구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연구내용들을 공부해가며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학부생 연구원은 프로젝트 참여 기간 동안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취득지원프로그램

자격증취득지원프로그램은 CISA, CISSP 등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주요 자격증의 취득을 권장 프로그램으로, 자격증 시험 비용, 책 등을 사는데 필요한 비용 등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한 심사 및 선별 과정을 거쳐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및 인턴십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는 학부생 연구원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학부생 연구원은 교수님들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국가 및 산업체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부생 연구원은 최신 기술 논문, 자료들을 통해 해당 연구 주제에 대한 이론적 학습과 해당 기술이 적용된 실무환경에 대해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맞추어 발전된 기술을 연구하는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SK인포섹, KISTI, Fasoo 등과 MOU를 통해 관련 기업 및 연구소에서의 인턴십과 현장실습의 기회가 제공되며, 사이버보안 관련 협력과제에 참여할 기회 역시 제공됩니다.

학생자치활동

해킹동아리 / Kuality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재학생들로 이루어진 정보보호 동아리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활동들은 총 세 가지로, 신입생 소양 교육, 내부 스터디, CTF 대회 참여가 있습니다. 동아리에 들어온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컴퓨터 공학 및 C언어, 어셈블리언어, 리버싱 등의 소양 교육을 제공하며, 재학생들을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시스템 해킹, 웹 해킹, 머신러닝, 안드로이드 등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CTF 대회에 출전하며, 현재 국내 해킹 팀 10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퍼런스 참여와 대외활동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실무능력이 중요한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Kuality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교과과정 외의 지식을 배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암호동아리 / KoRec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재학생들로 이루어진 암호 동아리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활동들은 신입생 소양 교육, 내부 스터디, 공모전 참여가 있습니다.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암호 수학, 다양한 암호 알고리즘, 암호 공격 기법 등의 소양 교육을 제공하며, 재학생들은 암호 기술 연구와 딥러닝 스터디 활동 등을 진행합니다. 그 외의 활동으로 암호분석경진대회 등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KoRec은 18년 대학 최우수 암호동아리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4년 연속 KISA 대학 암호동아리 지원 사업에 선정될 정도로, 암호 동아리로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KoRec 활동을 통해 암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보는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사이버보안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저는 일단 컴퓨터와 관련된 아무 공부나 시작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C++, Python 같은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셔도 좋고, HTML, CSS, Javascript 같은 웹 개발이나, 안드로이드, OS, 네트워크와 관련된 공부도 좋습니다. 해당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씩 분야를 넓혀가며 컴퓨터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이버보안이라는 것에 대해 갈피가 잡힐 것입니다. 사이버보안은 컴퓨터 전 분야에 걸친 지식들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하던지 결국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우선 무엇이든지 시작 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본인의 흥미, 적성 등이 잘 맞는지 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천 영상] 'The Secret step-by-step Guide to learn Hacking · LiveOverflow'

사이버보안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제작자가 해킹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설명하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본인은 어떻게 해왔는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영상입니다. 저 역시 저자의 의견에 동감하며, 보안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한 번쯤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영어 영상이지만 한글 자막도 제공되므로 영상을 보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Q&A

Q. 입학 전에 코딩을 배워야 할까요?

A. 미리 배워온다면, 학습하는데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시면 교과과정 중에서도 충분히 코딩 능력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Q. 컴퓨터에 관련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들어가서 잘 할 수 있을까요?

A. 물론입니다. 현재 재학생들 역시 관련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들어온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충실히 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등의 비교과 활동을 참여하셔서 부족한 지식을 쌓으실 수도 있습니다.

Q. 일반적인 컴퓨터공학과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A.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는 컴퓨터공학과와 커리큘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 이론에 집중하는 일반 컴퓨터 공학과와 달리, 저희 사이버보안학과에서는 사회적 수요가 많은 보안 실무기술과 이를 위한 기반 이론에 대해 배우며, 보안기술에 대한 실무적 역량을 갖추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의 세계에 오실 후배님들께,

인생에서는 순간의 선택에 따라 향후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중요한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대학과 전공 선택 역시 몇 안 되는 그러한 순간에 해당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큰 고민을 했듯이, 이 글을 보시는 후배님들 역시 신중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재학한 몇 년의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저는 과거의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학과의 커리큘럼, 면학 분위기, 교수님, 지원 등이 모두 만족스럽고, 재학하는 동안 저 스스로 많은 성장을 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이 학과에 와서, 최고의 교수님들에게 받는 교육과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묵묵히 노력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해킹동아리 Quality 회장 박찬희(17학번).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

세상을 여는 디스플레이, 세상을 바꾸는 반도체에 힘을 더하다.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

학과소개

4차 산업혁명기

를 맞아 자율자동차, 바이오·의료, 로봇, 5G 네트워크와 같은 민간 분야 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자율 주행 도로 인프라와 같은 교통 분야,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 분야, 범죄 및 재난 방지 시스템 분야 등 공공부문에서도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의 새로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욱 많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학문이 될 것입니다.

4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에 공헌하고, 복합화 및 다양화된 글로벌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반도체 소자 이론, 동작 원리와 공정지식 및 실제적 경험에 특화된 창의적 연구와 교육을 수행합니다. 또한, 학부 연수생 활동과 학술제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산업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의 핵심 연구원으로 활동하신 교수님과 함께 응집 물리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위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만의 강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응집 물리학을 기반으로 세상을 여는 디스플레이, 세상을 바꾸는 반도체 기술에 '차별화된, 새로운 가치'를 이곳,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에서 펼쳐 보이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디스플레이 융합 및 반도체 물리 공통 기본소양 학과 특성화의 기반이 되는 기초물리학부터 고체물리학 심화과정까지 학습하는 학문		수리물리학 I, II 고전역학 I, II 전자기학 I 전자기학/실험 I, II 현대물리학/실험	전자기학 II 양자역학 I, II 고체물리학 I 전자기학 II, II 전자기학/실험 광학 가속기물리	고체물리학 II 열 및 통계물리학 I, II 첨단과학세미나 I, II 인공지능소자개론 무제강좌 기업밀착형연구실 현장실습 I, II, III
디스플레이 융합 전공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위한 이론, 동작 원리, 소재, 공정, 소자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학문 + 디스플레이의 공정과정 및 기술을 적용한 실습 및 실험을 하는 학문	미적분학 I, II 일반물리학/실험 I, II 일반화학/실험 I, II 수학 없는 물리학 수리과학입문	디스플레이 공학 개론 융합재료화학 디바이스 계측 및 실습 유기물 반도체 소자	디스플레이 광학 컬러 및 영상처리 TFT* 공정 및 실험 캡스톤디자인 TFT 소재, 소자 및 분석 CAE 개론 및 응용 LCD 소자 및 공정실습나노 소재 및 소자 센서 소재, 소자 및 실험	인공지능 융합 디바이스 기술 광전자에너지공학 디스플레이 구동회로 AMOLED 소자 및 공정실험 공정실습 캡스톤디자인 플라즈마 물리개론 I, II
응집물리학 심화과정과 반도체 물리 전공 최신 반도체 기술 이해 및 개발을 위한 물리적 지식을 배우는 학문 + 신공정 및 설계기술을 반도체 양 산에 접목할 수 있도록 실습 및 실험하는 학문		컴퓨터기초 전자 재료 물성	실험물리학 반도체 물리 인공지능형 반도체 소자 전자기파와 에너지 반도체 공정 및 실습 캡스톤디자인	반도체집적 회로 설계 양자 물질 개론 자성물리학 양자정보이론개론 메모리 소자 나노 전자 소자

* TFT: Thin film transistor로 절연체나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여 박막 기술을 사용해서 얻어진 박막 구조의 트랜지스터

졸업 후 진로

반도체 분야	외국계 반도체 장비 업체	최신 장비와 반도체 칩 양산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며, 고객이 구매한 자사 제품의 장비들을 유지/관리해주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외국계 기업으로 ASML Korea, Applied Materials Korea 등이 있습니다.
	종합 반도체 업체	반도체 설계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모든 분야를 자체 운영하는 업체에서 학과에서 배운 물리적 지식과 공정 경험을 기반으로 반도체 설계 및 공정기술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개발(R&D), 제조, 기획 등	디스플레이반도체 물리학부의 특화된 수업을 통해 교육을 받고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사회에서 다양한 일들을 맡아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 분야는 크게 기획, 연구개발(R&D), 제조 3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획 분야는 현재의 기술과 앞으로 개발될 기술, 그리고 시장 변화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어느 시점에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지를 계획합니다. 연구 분야는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기술을 상용화시키고 제품을 설계하는 역할을 하며, 제조 분야는 연구 분야에서 설계된 제품의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제품을 제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외에도 전문지식과 전략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마케팅 분야까지, 전문가로서 진출할 수 있는 방향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으로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가 있으며, 이외에도 국내·외 소재, 장비 기업이나 국가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국내,외 대학원	대학원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으로써 연구 과정을 통해 연구방법을 습득하며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방법을 배워 특화된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에 추후 취업을 하여 연구를 할 때 전문가로서 주어진 일과 문제에 대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적용하며 연구를 진행해 갈 수 있습니다. 실험분야 혹은 연구관련 분야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공계 학생으로써 연구원이 되고 싶다면 대학원은 꼭 거쳐야할 단계 중 하나입니다. 우리 학과 내, 응용물리학 대학원은 기초 과학에서 원천 기술로 이어지는 응용물리학 분야에서 세계적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입지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산업의 핵심 기술을 선도적인 수준으로 향상 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Global”한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계된 국제적인 연구와 지역 산업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 과정을 마치고 보다 심도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기 위해 세부적인 연구 분야를 선택하여 대학원에 진학 할 수 있습니다.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전기기사(국가기술자격증) / 인증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기기사 자격제도는 전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설비의 운전 및 조작, 유지·보수에 관한 전문화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응시 자격요건으로는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 경력자'로 제한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는 관련학과 전공자로 분류되므로, 4학년 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과에서 전기기사 시험의 과목인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회로 이론' 과목의 수업을 들으니 시험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기기기제조업체, 전기공사업체, 전기설계전문업체, 전기기기 설비업체,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전기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전공(학과) 프로그램 및 장학금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 학술제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활동 내용을 발표 및 공유함으로써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매 학기 말 학부장님 주도로 학술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은 각 학생의 관심 분야 또는 연구실 활동 내용과 관련된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제로 진행되며,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통해 시상 및 상금을 매 학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장학금(융합인재)

학기마다 핵심 전공 및 주요 실습 교과목 교수님께서 탁월한 학업 성취도를 보인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선발된 학생은 추천 교수님과 협의 후, 학술제에서 자신의 연구 주제로 발표를 하며 그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과 연구개발 분야의 적성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학부 연구생

매 학기 선발하며, 소정의 장학금과 함께 지도교수님의 연구실에서 학부 과정에서 참여하기 힘든 연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험실 생활을 하며 전공 분야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학문 탐구 및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글로벌 기업탐방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와 관련된 글로벌 기업에 현장 견학을 가는 프로그램으로 최신 기술의 동향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 및 공정과정 등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탐방하며, 해당 분야의 식견을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튜터링 프로그램

디스플레이·반도체 물리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 중 특정 교과목에서 우수한 실력을 갖춘 튜터가 과목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들인 튜티에게, 학습지도를 통해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튜터는 전공과목에 대해 반복 학습 및 소정의 활동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튜티는 교과목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학업 불안감 감소, 학습 방법을 획득할 수 있어 서로 상호보완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자치활동

학술 소모임/M.A.F.I.A

학문의 방법이나 이론에 대해 의논하며 학문적 발전을 일으키는 M.A.F.I.A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목적 때문에 M.A.F.I.A 구성원들은 여러 분야에 진출해 있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세미나를 통해 핵심 전공과목에 대해 간단한 프리뷰부터 핵심 요약과 학습 요령까지 후배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또한, 힘겨운 한 학기를 끝내고 선배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며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술 소모임/ACE (Angels of Creative Eagerness)

에이스는 디스플레이·반도체 물리학부의 1990년대부터 시작한 창조적 열정을 가진 천사라는 의미를 가진 학술 소모임입니다.

소모임 학생들 간의 전공 스터디와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선배들의 전공세미나가 시험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배와 후배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정기적인 모임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학교생활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소모임입니다.

축구 소모임/등마

고려대학교 최고의 축구 소모임 등마는 서로 동글게 화합하자는 "등근 마음"의 약자로, 1995년 탄생으로 전통이 있고, 화려한 수상 경력의 실력 있는 소모임입니다.

등마는 축구를 매개로 선 후배 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성과 진로에 대한 조언과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소통의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미래의 설계,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로부터

처음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에 지원을 하였을 때에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에 대해 누구나 떠올리는 일반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만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과에 들어와 이론적인 수업부터 실습수업, 세미나 수업 등 다양한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배우며 다양한 길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학년 때 학과(전공)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담당 교수님과 진로나 학업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학부 연구생이라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학부 연구생으로 참여하는 동안 심화된 전공 학습은 물론, 좋은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셨던 교수님들 덕분에 보다 전문적인 디스플레이 연구를 체험하고, 세계적인 학회에도 참석하며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한 눈을 키워갔습니다.

이처럼 디스플레이 반도체 물리학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가들의 초청 강연을 들으면서 저 또한 디스플레이 분야의 한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어 현재는 박사과정을 밟으며 만족스러운 연구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반도체·나노과학 분야 관련 핵심 기술 연구의 꿈을 가진 학생분들이라면 세계 기업 디스플레이 전문연구원 출신의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에서 그 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응용물리학과 14학번 박사과정생 ○○○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 공정기술 개발, 차세대 산업혁명 등과 관련된 도서를 읽거나 세미나 및 전시회에 참여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수학, 물리, 그리고 화학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며 이공계생의 기초 지식을 탄탄히 다지고, 이공학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사고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자신의 흥미, 적성 등이 디스플레이·반도체 물리학부와 맞는지 알아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추천 세미나]

IMID 2020(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

디스플레이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글로벌 디스플레이를 선도하는 많은 기업의 프리미엄 가치를 담은 제품들이 전시됩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디스플레이를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해보며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호기심과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SEMICON KOREA(세미콘 코리아)

국내외 반도체 업체들이 한가득 참가하는 대표적인 반도체 전시회로 주로 매년 초 코엑스 열립니다. 세미콘 코리아에는 AI, Smart Manufacturing, 5G 등 업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장을 전망하는 세미나도 진행되므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반도체 장비/재료 회사들이 참여하여 최신 기술을 보여주므로, 최신 반도체 재료, 장비, 기술을 가득가득 만나볼 수 있습니다.

WISET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여성 과학 기술인 종합지원을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으로, 이공계 여성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여중·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공학 프로젝트 모집 등 실제 참여하여 다양한 도전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추천 사이트]

삼성전자 반도체 이야기/ SK하이닉스 뉴스룸

반도체에 대한 기초 지식과 최신 기술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양산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해결하는 엔지니어의 일상을 보며, 흥미와 적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진로 선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세계가전전시회)

미국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박람회로써 5G and internet of things(IOT), Robotics & machine intelligence, Augmented & Virtual Reality 등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로 묶인 최신 기술들을 볼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사이트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분야에 대해서 조사할 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추천과학 영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AI, 디스플레이 등의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는 아이언맨 시리즈부터 주인공이 커지고 작아지는 양자의 세계를 다루는 앤트맨까지 마블의 영화들이 다양한 기술들과 물리학적 개념들을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냥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양자역학, 전자기학 등의 물리를 재미있게 표현한 영화로 흥미를 유발하는 영화로 추천합니다.

[추천과학 서적]

“물질의 물리학” 한정훈저/ 김영사

한정훈 교수의 “물질의 물리학”은, 고대 자연철학부터 현대 물리에 이르기까지 물질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발전해온 역사를 수식없이 설명한 책입니다. 특히, 양자역학에서 등장하는 다양하고 어려운 물리를 탁월한 스토리텔링과 비유를 통해 풀어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은 전기를 잘 흘려보내고(도체), 어떤 물질은 그렇지 못하는지(부도체). 그리고, 어떤 물질은 그 중간의 성질(반도체)을 갖는지를 어려운 수학없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합니다. 반도체 및 다양한 물질을 연구하는 우리 학부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A

Q. 다른 물리학과와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A.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의 차별성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자 분야 특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응집 물리 교육을 바탕으로 소자의 다양한 적용 능력과 새로운 소자의 개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기초를 확고히 다지게 됩니다.

학부에서는 반도체 소자,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TFT 소자, Organic Micro-Electronic 소자에 관한 연구와 양산공정에 접목할 수 있는 신공정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학부 교육과 연계시켜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고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반도체 소자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나요?

A.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에서는 '반도체 공정 및 실습 캡스톤디자인', 'TFT 공정 및 실습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통해 반도체 공정 전반에 대해서 학습하고, 산업현장과 유사한, 뉴스나 영상에서 가끔 볼 수 있는 하얀 방진복을 입고 공정을 하는 공간, 클린룸*에서의 실험 및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한, 학과 내 '학부 연수생'이 되어 대학원 선배님들과 함께 연구실의 차세대 소자 개발 및 연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클린룸 : 반도체 소자나 집적 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미세한 먼지까지 제거한 작업실

Q.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이면 물리를 잘해야 하나요?

A.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의 물리는 기본 베이스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세부적인 공부에도 필요한 지식입니다. 많은 물리적 소양이 요구되지만 1학년부터 "수학없는 물리학", "일반물리학", "수리과학입문" 등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기초를 다질 수 있기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Q. 디스플레이융합전공과 반도체물리전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1학년 때에는 공통으로 수업을 같이 듣고 2학년 때부터 각 전공과목을 듣기 시작합니다. 디스플레이 융합 전공은 전자정보 디스플레이의 기초 원리와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디스플레이 공학 개론으로 시작하며, 반도체 물리 전공은 정보 소자에 사용되는 다양한 전자재료의 특성을 배우는 "전자 재료 물성" 과목을 시작으로 각 분야에 관련된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 3, 4학년 때는 디스플레이융합전공에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위한 이론, 동작 원리, 소재, 공정, 소자 등의 기초부터 구동 과정까지의 이론을 배우고, 교내 클린룸에서 디스플레이의 일부 공정실습을 진행합니다. 또한, 다양한 실습 위주의 수업들인 차세대 디스플레이, 3D프린팅, AR/VR, AI 등의 4차산업 기술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물리전공은 반도체, 초전도체, 응용 및 응집 물리학에 대한 기초과학지식을 기반으로 교육을 하며 소자 재료 물성 및 작동원리, 제작방법, 응용 분야 등 최신 반도체 소자를 학습하고, 설계와 응용을 통한 신개념의 소자 개발을 위한 창의성 그리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취재

디스플레이·반도체 분야의 경쟁력 있는 인재를 꿈꾼다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큰 어려움 없이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풍부한 산업체 현장경험을 갖추신 교수님들과 함께한 4년의 대학 생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후배님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물리학이란 교과목 특성상 배우는 과정에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교수님들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더 나은 미래가 다가올 것입니다.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를 선택한 후배님들이 준비된 엔지니어로서 세계기술 선도의 앞장설 수 있음을 상기하시고 정진하십시오.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을 따라가며, 자긍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졸업 후,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 10학번 000/삼성전자 재직

신소재화학

화학의 나의 케미(chemi)를 찾자! "신소재화학"

학과 소개

“누가 이 그림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친구?”

초등학교 시절, 과학수업을 하던 선생님께서 갑자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과학실에서 모둠활동을 하던 저와 친구들을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책 속의 그림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 대답이 없었던 선생님께서 “봐, 스포이드를 이렇게 거꾸로 들면 안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슨 이유에서 스포이드를 거꾸로 들면 안 되는지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지 않으셨지만, 어린 시절의 저는 책 속의 오류를 바로 눈치 챈 선생님이 멋있어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때가 화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저의 첫 기억입니다. 화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간단하지만 생각해보기 못한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 할 수 있나요?

화학이라는 학문은 생명, 물리, 수학 전반에 걸쳐 모든 자연계 학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의 디스플레이/반도체처럼 딱 들었을 때 멀리 느껴지는 것부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재미로나 탈모약까지 화학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학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소재화학에서는 도대체 어떤 화학을 배우게 될까요? 우선은 화학에 관한 기초인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및 분석화학의 이론과 실험의 과목을 배워야 합니다. 그 후, 화학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관심있는 분야의 담당교수님 지도하에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 중에 실제로 자신이 맡은 분야의 ppt나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면서 간접적으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학적 지식을 다른 차세대 화학자에게 전해줄 수 있는 교직이수 과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이드를 거꾸로 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구요? 고려대학교 신소재화학에서 알아보세요!

교육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전공연구실험 필수)	4학년 (졸업논문연구 필수)
유기심화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을 전자이동으로 분석하고, 분류하는 학문			유기화학3	유기특론
유기생명 생명현상과 관련된 화학식으로 표현하거나, 그 원인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법을 배우는 학문		유기화학1/2 유기화학실험	입체유기화학 생명화학	유기합성 소재의약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나 전지의 기본이 되는 반도체에 대해 다루는 학문	일반물리 일반화학		고체화학 고분자화학 유기광화학 무기화학 무기화학실험	고분자물성, 에너지소재화학, 유기금속화학
물리화학 화학적인 개념들을 수학적으로 해석하여 현상간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유추하는 학문		물리화학1/2 물리화학실험	물리화학3	화학수학
분석화학 화학물질에 다루는 기기들에 대해 이해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법에 대해 이해하는 학문		분석화학 분석화학실험	기기분석	전기화학

졸업 후 진로

연구·개발 분야 (R&D, Research and Development)	합성을 도와주거나 합성 후 나온 결과물을 분석하는 기구에 대해서 개발하고, 나온 데이터를 해석하는 일을 위주로 합니다. 합성이 잘 되었는지, 각각의 물체사이에 어느 점이 다른지 연구합니다. 이런 분야는 실험과정이 아닌 결과 분석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화장품, 신약같은 새로운 화합물을 만드는 법이나 이미 개발되어있는 신소재를 어떻게 하면 대량생산하는가에 대해 위주로 연구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약회사, 화장품 석유화학회사, 오송생명과학단지 석유공사, 가스공사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의 경우, 석사 또는 박사 학위가 최소조건이지만, 해당 연구주제와 관련있는 경험이 많은 학부생들 또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술 영업직	기술영업은 제품과 연관된 기술을 사고 팔거나 상담을 하는 등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며 최신 실험이나 기술동향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학에 대해 넓은 지식보다는 그 제품과 관련된 화학지식을 깊게 아는 것이 중요하며, 기술적 용어나 이론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QA, QC (품질보증, 품질관리)	품질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제품 및 공정 전 과정의 품질을 검사하는 일을 합니다. 화학과의 경우, 분석화학기사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교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채용이 되면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본인이 속한과의 학부생, 대학원생을 가르치고, 다른 시간에는 본인의 전공분야에 관련된 새로운 연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체로부터 일임받은 연구를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최신 논문을 읽으면서 최근 개발동향에 대해 연구 또는 관련 분야의 다른 대학 교수님과 함께 논문을 작성합니다.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위험물 산업기사 / 인증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소방법시행령에 규정된 위험물의 저장, 제조, 취급 조에서 위험물을 안전하도록 취급하고 일반작업자를 지시·감독하며, 각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실시 등 위험물에 대한 보안, 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2학년 이수 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산업기사자격증이 있습니다. 기사자격증은 관련학과 4학년 이상 취득 가능한데 위험물 관련 자격증에는 기사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학교 재학중 가장 보편적으로 준비하는 자격증입니다.

화학 분석 기사 / 인증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화학관련 의약품, 식품, 소재 등의 개발, 제조, 검사를 함에 있어 제품의 품질을 유지업무를 담당합니다. 구체적인 원재료나 제품등의 화학성분의 조성과 함량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계획수립, 분석항목을 측정하고 자료를 분석, 종합 평가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일, 새로운 분석기법을 조사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화학관련 업체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자격증입니다.

학생자치활동

겔

신소재화학과의 농구소모임 '겔'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농구에 대해 배울 뿐 아니라, 다른 학과 농구소모임과 시합 및 뒷풀이를 통해 친목도 다질 수 있는 소모임입니다. 농구를 못하는 초심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IBS

IBS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구소모임으로, 매주 일요일 마다 축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학교내 축구대회인 쿼즈마컵, 과기대컵등 다른 학과와 시합하는 대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휘몰이

휘몰이는 여행·여가 소모임으로, 1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며 동아리방에 있는 빔프로젝터로 영화를 보거나 보드게임을 하며, 다같이 노래방이나 영화관도 가기도 합니다. 또한 봄에는 꽃을 보기도 하고 여름엔 바다 가을에는 엠티 겨울엔 스키장등등 계절마다 1번씩 여행을 떠납니다. 친구를 사귀는 걸 좋아하거나 선후배와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 휘몰이와 함께하세요!

졸업논문 우수포스터상

신소재화학과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졸업하기 전,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의 교수님 연구실로 들어가 실험을 하고 논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4학년 2학기, 같은 시기에 졸업하는 학우들끼리 모여 자신이 연구한 주제에 대해 논문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수님들께서 상의 후에 우수연구성과발표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핵심교과목우수자장학금 / 전공학습도우미

신소재화학과에서는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이 4가지 분야를 핵심교과목으로 보고, 이에 맞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기초 과목을 배우는 1학년 때와 달리 2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화학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소재화학과에서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핵심교과목우수자장학금'과 '전공학습도우미' 입니다.

핵심교과목우수자 장학금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장려를 위해 위 4개의 과목 성적우수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형평성을 위해 재수강 학생들은 제외됩니다. 전공학습도우미의 경우, 어려움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 높은 학점으로 해당과목들을 수강한 선배들이 일정 장학금을 받고 시간을 내어 튜터링을 담당합니다.

학부연구성장학금(CURT프로그램 장학금)

학부연구생제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학부연구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학부연구생이란, 만약에 본인이 진로를 정하지 못하거나, 실험실이 잘 맞는지 알아보고 싶거나, 본인이 관심있어진 분야에 대하여 실제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싶다면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3학년 2학기에 교수님께 직접 찾아가 학부연구생에 대해 상의한 후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영어능력향상장학금

학과의 졸업요건중의 하나인 영어공인성적을 위한 장학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토익기준, 응시시험 800점 이상이거나, 전후대비 100점이상 상승 시 지급됩니다. 단순히 토익을 잘해서가 아닌, 성적이 오른다면 받는 장학금이기에 때문에 영어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에게 좋은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신소재화학과 입학을 준비하려는 예비 후배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신소재화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태양전지연구실에 다니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화학과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교에 존재하는 과입니다. 하지만 각 대학의 화학과가 집중하는 분야는 다릅니다. 어떤 화학과는 다른것은 거의 배우지 않고, 오로지 유기화학 및 합성만을 배우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려대학교 신소재화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신소재화학과는 유기화학을 기반으로 생명화학, 물리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등 많은 분야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이렇게 여러 분야에 대해 학습하며 나는 어느 분야의 화학을 좀 더 배우고 원하는지를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는 초중고등학교와는 다르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직접 스케줄을 조정하여 편하게 공부하고 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만큼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꼭 공부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아리활동도 하면서 선배들과 돈독한 사이를 가지며 진로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특히, 신소재 화학과는 4학년이되면 각자 원하는 분야, 유기 무기 분석 물리 쪽을 선택해 교수님을 선택해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의 경험이 취업이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유기분야를 선택했고 유기화학과 태양전지에 관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수를 만나 실험을 배우는 과정에서 실험하는 것을 한번 보고 그대로 따라서 실험을 진행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 원하는 반응이 진행되었을때 기분이 정말 좋았고 뿌듯했습니다. 중간에 실험이 잘 진행이 안되었을때는 반응에서 어떤 물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를 분석해 양을 조절하고 반응조건을 바꿔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기 및 고분자합성을 좀더 배워서 전공을 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소재화학과는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줄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소재화학과에 와서 꿈을 펼치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 고려대학교 신소재화학과 졸업생 13학번 김경민

Q&A

Q. 고등학교 때 화학을 선택하지 않아서 화학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당연히 화학을 모른 채로 입학을 했다면, 다른 학우들과 처음에 실력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학년 때 고등학교 화학1, 화학2에 해당하는 일반화학이라는 과목을 필수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학업에 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Q. 화학과가 다른과에 비해서 어떤 점이 더 낫다고 할 수 있나요?

A. 화학의 범위는 일반적인 생활용품부터 반도체나 장비설비까지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화학과에 큰 매력을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사실 대학교에 들어와서 과를 선택하면 그 외로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법인데, 좀 힘들긴 하지만, 생명이나 물리 등 다른 분야의 지식들도 같이 배우면서 내가 정말로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3학년때 전공지식을 배우면서, 실제로 물질을 합성하는 유기화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전공을 살리려면 대학원을 가야 하나요?

A. 학문에 뜻이 있다면, 대학원을 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하지만 대학원을 가지 않고도 자기가 원하는 바에 취업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사실 대학원과 취업은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3학년 2학기에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학부연구생'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부연구생은 대학원을 간접체험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학원과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취재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 신소재화학과 졸업생 인터뷰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SK하이닉스에서 품질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4학번 배OO라고 합니다.

Q. 입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이야기 해 주고 싶으신가요?

A. 저는 대학을 오는 이유중 큰이유중 하나가 취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되었는지와 신소재화학과에 왔을 때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Q. 그렇다면, 신소재화학과에서 공부할 때 팁 같은 게 있을까요?

A. 제가 신소재화학과를 재학하며 신경썼던 것들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학점, 영어성적, 동아리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학점이 낮은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소재화학과의 진로에는 대학원, 약대, 취업... 등 다양한 진로가 있지만, 어떤 길을 선택하든 간에 학점은 내가 1,2년뒤에 도전하고자 하는 일의 기반이 되며, 학점이 높을수록 유리한 고점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으니까요. 영어공부는 1학년때는 그렇게 중요한 지 모르고 좋은 기회를 놓친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험의 기회는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미리 점수를 따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학교에서도 제공되는 영어도 도움이 되지만, 방학 때 바짝 몰아서 하는 것이 저의 적성에는 맞았습니다.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게 공부하는 하되, 영어에 대한 감을 잃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신입생들이 학과생활에 대해 궁금해할 텐데 과 생활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A. 새로 학교에 오시게 되면 학과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후배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상 취업하는 데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서 꼭 필수로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신소재화학과에는 좋은 선배들이 많고 학과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익을 따지지 않는 좋은 선후배 관계나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보람있는 대학생활을 보내는 좋은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Q. 취업을 준비하셨을 때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요?

A. 회사를 정한 이유가 무엇이나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 째는 월급이고, 다른 하나는 적성입니다. 사실, 적성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직무를 고르시는 분이 많지만,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은 일을 하다보면 결국 다시 취업 준비를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경제력의 기반이 되는 월급도 중요하지만, 적성도 과시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의 경우, 품질보증이라는 직무에 매력을 느꼈던 이유 중 하나가 해외에서 일 할 수 기회였습니다. 이를 통해 영어와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었고, 회사의 제품을 알리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 미래의 후배님들.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보니 제가 처음 신소재화학과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힘든 일도 많았고 즐거운 일도 많았어요. 연애도 하고 동아리활동도 해보고 좋은 친구, 선배들도 만나고, 제가 입학한 곳이 신소재화학과여서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이 화학에 꿈을 가지고 있다면 신소재화학과는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소재화학과에 오셔서 꿈을 키워보세요.

- 신소재화학과 14학번 졸업생 배OO / SK하이닉스 재직

취재기자단: 박진우, 고민하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소프트웨어연구의 메카, "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

학과소개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우리는 더욱 더 컴퓨터 없이는 발전할 수 없는 사회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컴퓨터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고, 특정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친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컴퓨터는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는 융합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의 변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컴퓨터 융합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초 및 응용 분야의 심도 있는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기반 미래 융합 산업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는 창의력과 경쟁력을 갖춘 융합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첫째 '창의적인 기술인', 둘째 '글로벌 실천인', 마지막으로 '실용적 융합인'입니다. 창의적인 기술인은 소프트웨어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창의적 개발 능력을 갖춘 젊은이를 의미하고, 글로벌 실천인은 ICT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계가 없는 큰 비전을 향해 적극 도전하는 글로벌 리더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용적 융합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융합 역량을 갖춘 젊은이를 의미합니다.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에서는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 전공과목과 최신 기술을 반영한 다양한 전공 선택 과목들을 통하여 학생들이 전공 지식을 균형 있게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인턴십'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산업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의 설계부터 구현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컴퓨터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습을 통해 치열하게 고민하며 배우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내가 배운 내용을 이용한 코딩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보고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서 어느새 발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 확고하다면 다양한 분야로 성장할 수 있는 이곳은, 고려대학교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입니다.

교육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Ethics & Leadership Ethics : 직업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의식을 가진 IT분야의 전문성 확보 Leadership :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진취적인 리더십 함양	컴퓨터언어 I, II 컴퓨터언어실습 I, II	자료구조 확률 및 통계 이산구조및연습 디지털시스템 컴퓨터구조	알고리즘 운영체제 전산선형대수학 정보보호	캡스톤디자인 I, II 오토마타 최적화기법입문
Think & Technology Think : 창의적 사고능력 함양 Technology : 컴퓨터 관련 지식 및 기술 습득	파이썬	객체지향프로그래밍 및 실습 빅데이터개론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머신러닝실습 데이터마이닝 빅데이터분산처리시스템
Network & Application Network : 산업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Application : 습득한 기술을 통해 기술 관련 산업체에 실질적으로 응용하여 실무 능력을 습득		정보통신 IoT개론	컴퓨터네트워크 IoT인공지능 네트워크프로그래밍실습 블록체인개론	IoT웹프로그래밍 및 실습 클라우드컴퓨팅

졸업 후 진로

SI 분야	개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시작하여, 프로그래밍을 통한 개발과 구축, 사후 운영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담당합니다. 대표적인 SI 기업으로 삼성전자, 삼성SDS, LG CNS, AhnLab, SK인포섹 등이 있으나, 모든 산업 현장에서 SW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 채용 하고 있어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융계	디지털/ICT직무	전자금융의 확대를 비롯하여, 금융업계에서 전산 시스템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은 은행, 보험사 등에서 전자금융과 관련된 기획 업무,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 보안체제를 운영하는 업무 등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부기관	전산직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도 데이터의 활용 범위와 전산으로 처리되는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직군 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를 선발하지는 않지만 필수적인 직무로, 각 분야에 관련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등 많은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대표적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백엔드/프론트엔드 개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자로서, 웹페이지를 구축하는 프론트엔드 개발(UI, UI디자인 등) 또는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기능을 구현하고 서버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백엔드 개발(웹구축, 서버/DB 연동 등)을 담당합니다. 대표적인 관련 기업으로 NAVER, Daum, Kakao, Google 등이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고 진출하는 분야입니다.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정보처리기사 / 인증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컴퓨터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며, 컴퓨터학과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취득 하여야 할 자격증입니다. 4학년부터 응시할 수 있고, 필기와 실기를 모두 통과해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공기업에서 채용 시 가산점 및 필수 자격 요건으로 사용됩니다.

정보보안기사 / 인증기관: 정보보안국가기술자격검정센터

시스템 솔루션 개발 및 운영관리를 기반으로 IT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업무에 관한 자격증입니다. 정보처리기사와 마찬가지로 4학년부터 응시가 가능하며, 필기와 실기를 모두 통과해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리눅스마스터 1급 / 인증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리눅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웹, DNS, 메일, 파일 등 서버 구성 및 운영관리와 네트워크 및 보안 운영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스템관리자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증입니다. 응시 제한은 없으며, 1차 필기시험과 필기와 실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차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전공과목 중에 리눅스 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과목도 있어 취득해놓으면 유용합니다.

SQLD/SQLP / 인증기관: 데이터자격검정(Kdata)

SQL의 수행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평가하는 자격증입니다. 응시에 제한은 따로 없으며, 전공과목 중 '데이터베이스' 과목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금융계 기업에서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 금융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전공(학과) 프로그램 및 장학금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국내 ICT 기업체 현장실습을 통해 산업 현장 경험을 쌓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습득하며, 나아가 현장실습 기업체로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학금입니다.

학부 재학생 중 4학년이 대상이며, 학기 중 Full-time으로 기업체 인턴 수행, 기업체 담당자 및 지도교수를 멘토로 지정하고 인턴 과제를 선정하며 인턴 기간 동안 수행 하고 평가 하여 ICT 학점 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학점을 최대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Kuding 경진대회

Online Judge System(OJS)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프로그래밍 실력을 진단하고, 프로그래밍 실력에 대해 항상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장학금입니다. 학과 OJS를 구축하여 다양한 문제를 등록하고 운영함으로써 학과 학생들이 모여 경쟁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전공 성취 장학금 (학과프로그램장학금)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전공 역량을 증진시키고, 여러 분야에서의 성취를 장려하기 위하여 '전공성취장학금'을 운영,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전공과 관련한 성취를 한 학생에게 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눅스마스터 1급, TOMPAS, Oracle OCA, OCP, OCJP, 정보보안기사 등의 공인 IT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논문을 게재하거나 특허를 등록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전공관련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SW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인영어성적 취득 시 지급하는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이 마련되어 있어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공모전 준비 장학금

학과 학생들의 전공 관련 외부 공모전 참가 활성화 및 공모전 준비에 필요한 비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학금입니다. 전공 관련 외부 공모전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교수님들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를 통하여 지원 학생들을 선발하고 공모전 준비 비용을 장학금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학부연구원 장학금

대학원 연구실에 학부연구생으로 참여하여 전공 분야의 최신 연구 참여를 통한 논문, 특허 등 전공 성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학금입니다. 학기 중 part-time, 방학 중 full-time으로 대학원 연구실에 연구 참여를 통하여 지도 교수 및 대학원생들의 지도하에 관련 분야 최신 연구를 수행합니다.

학생자치활동

학술국

학술국은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이 공부를 목적으로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학술국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스터디, 공모전, 대외활동 중 하나 이상 참가해야합니다. 스터디는 재학생, 신입생으로 나누어 따로 운영됩니다. 시험기간을 제외한 일주일에 한 번 재학생은 전공과목 스터디를 진행하고, 신입생은 전공에 기초가 되는 컴퓨터언어인 c와 c++ 을 실습 위주로 배우게 됩니다. 재학생들이 운영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선배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며, 학년이 올라가면서 배우는 전공들에 대해서도 먼저 배운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NSOP

NSOP는 No Study Only Play의 약자인 소모임으로 대학에 들어와서 선배배들과 혹은 동기들과 공부를 하다가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 동아리입니다. 활동으로는 학기에 한 번씩 상금을 걸고 학과 내 e-sports 대회를 개최합니다. NSOP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서 많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학업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통해 해소하며 행복한 대학 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삼중살

야구 소모임 '삼중살'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야구 관람도 하고, 연습하여 직접 경기를 뛰는 모임입니다. 교내 야구 리그가 형성되어 있으며, 학교 근처 야구장에 모여 2주일에 한 번씩 경기를 하게 됩니다. 실력에 관계없이 야구를 좋아하고 경기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데드락

농구 소모임 '데드락'은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친목을 다지고 연습 및 대회에 출전하는 모임입니다. 주 1회 2시간씩 교내 녹지 앞 농구장에 모여 다 같이 가볍게 농구를 하며, 과학기술대학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에도 나갑니다. 실력에 관계없이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무한루프

무한루프는 축구 소모임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친목을 다지고 연습 및 대회에 출전하는 축구팀입니다. 주 1~2회 정도 모여 축구나 풋살 경기를 하며, 함께 땀 흘리며 선배배와 친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운동 후 즐거운 식사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낭족

배낭족은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내에서 사람들과의 만남과 여행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모임입니다. 1년에 1번 고복저수지로 여행을 가며, 선배나 동기들과의 친분을 쌓을 수 있고 좋은 추억도 쌓을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

에피소드는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와 전자기계융합공학과가 함께하는 밴드 소모임입니다. 악기, 보컬 등 여러 세션을 모집해서 밴드를 구성합니다. 매주 1회씩 조별로 연습을 하며, 공연 날짜를 잡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연습한 것을 바탕으로 공연을 합니다. 악기를 다루어 보지 않은 학생들도 각 세션별 대표들에게 레슨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아리실이 비어있다면 연습하고 싶을 때 마음껏 연습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연주 실력을 키운다면 연주의 즐거움은 물론, 공연 후 뿌듯함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보는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먼저, 신입생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영어, 화학이나 물리, 컴퓨터언어, 글쓰기 등 수업을 듣는데 이 중 신입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역시 컴퓨터언어 과목입니다. 아무래도 초, 중, 고등학생 때는 접해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신입생들이 어려워하지만 그 중 잘하는 학생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컴퓨터언어를 공부해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언어 공부를 어떻게 하게 됐나요?”라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답변은 ‘동아리 활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동아리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대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처럼 전문적인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 내용을 접해 보았느냐 접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 학과로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은 컴퓨터와 관련된 동아리가 있는지 잘 찾아보시고 컴퓨터언어에 대해 약간의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컴퓨터언어 공부를 한다면 대학교에 와서 컴퓨터언어 수업을 들을 때, 동기들이 해매고 있으면 도와주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아리를 신청할 기간이 지나서 참가를 못하는 학생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동아리를 들어가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책을 이용하여 공부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컴퓨터언어 관련 교재들은 과거에 나온 것들과 달리 더욱 알록달록해 잘 읽히고 설명이 쉽게 되어있어, 컴퓨터언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도 알기 쉽습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책을 한 권 사신 후 직접 공부해보셔도 대학교에 입학한 뒤 컴퓨터언어 시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 드리는 책은 윤성우님께서 만드신 ‘윤성우의 열혈 C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드리고 싶은 영화가 있습니다. 저희 컴퓨터언어 수업을 강의하시는 교수님께서도 컴퓨터의 역사를 알려주실 때 항상 말씀하시는 영화입니다. 바로 베네딕트 컴버배치 주연의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튜링 머신’을 개발한 앨런 튜링이라는 영국의 수학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컴퓨터의 역사 중 일부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영화이므로 추천합니다.

Q&A

Q. 컴퓨터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원해도 괜찮은가요?

A. 네, 괜찮습니다. 저도 입학할 때 컴퓨터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지원하였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뒤 컴퓨터언어 과목 수업을 빠지지 않고 잘 듣고 혼자 실습도 해보면서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컴퓨터언어 공부나 컴퓨터 관련 동아리 활동이 큰 도움은 되지만 그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입학한 뒤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Q. 수학이나 과학을 잘 못하는데 컴퓨터를 배울 수 있을까요?

A. 네, 1학년에 미적분학과 화학/물리를 배우긴 하지만, 사실상 2학년이 되면서 과학 관련 과목은 배우지 않게 됩니다. 다만, 컴퓨터가 수학의 여러 원리들을 이용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공과목 중 전공필수와 전공 선택 과목에 수학 관련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1학년에 배우는 컴퓨터언어/컴퓨터언어실습에서 사용되는 수학은 논리식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공과목에 들어가 있는 수치해석/전산선형대수학/이산구조및연습/확률 및 통계와 같은 과목은 교수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스스로 공부한다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Q.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와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A.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는 컴퓨터의 다양한 분야 중 보안 관련된 내용에 대해 더욱 깊게 배우는 학과입니다. 반면,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는 컴퓨터의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학년별 주요교과목 (이수체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기초가 되는 내용부터 시작하여 IoT, 머신러닝,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과목들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취재

입학을 꿈꾸는 예비 신입생들에게

게임 개발이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컴퓨터정보학과 11학번 졸업생 박예훈입니다. 저는 현재 크래프톤(구 블루홀)에서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와 전공과목을 듣게 되면 많은 양의 과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과제를 꼭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 수학문제를 안 풀어보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제도 수학문제와 똑같습니다. 답을 보거나 친구 것을 베껴서 문제를 푼 사람과 고민해서 스스로 문제를 푼 사람의 실력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난다는 것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과제들은 꼭 스스로 고민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게임 개발이 하고 싶어 컴퓨터정보학과(現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게임업계 취업을 준비할 때, 먼저 게임개발에서 중요한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게임 개발 경험, 두 번째가 협업, 세 번째가 개발 기초 지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공과목 프로젝트로 작은 게임들을 만들기도 했고, 동기들과 여러 공모전에 나가면서 협업에 대한 경험도 쌓았습니다. 그리고 취업준비 기간에도 인터넷 자료들을 참고하여 간단한 게임서버도 직접 제작해보면서 게임개발에 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게임개발과 관련된 것들을 다양하게 많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었고, 생각보다 수월하게 취업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공모전에 많이 나가보세요. 헤커톤도 좋습니다. 절대로 학과 안에 머물러있지 마세요. 자신보다 실력이 좋은 다른 사람들을 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세요. 그렇게 되면 좀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겁니다.

- 박예훈 / 11학번 / 크래프톤(구 블루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학과(現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11학번 졸업생 이창희입니다. 저는 한화 시스템/ICT 에서 웹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공부는 고등학교 공부와 달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제가 공부했던 몇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 과목별로 나만의 요약, 정리 노트를 만드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전공 서적과, 강의 자료, 교수님의 강의에 대한 필기를 바탕으로 요약 노트를 만들었고 설명이 모자라는 부분은 google, youtube 등의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만의 노트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면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개념을 실제로 코드에 적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임베디드, 웹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아이오에스 어플리케이션, 보안,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각 분야에 특화된 개발 언어와 개발 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속해있는 회사는 시스템 통합,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기존에 프로그램으로 수행되지 않아 비효율 적으로 진행되는 업무들을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효율적이고 편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슈퍼마켓에 방문해야지만 원하는 상품을 구매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컴퓨터 또는 핸드폰으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이죠. 프로그래밍을 통해 삶이나 일을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분들이 저와 같은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공 지식을 탄탄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처리기사 시험을 준비하며 4년간 학습한 전공 지식을 복습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현실에서 불편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를 컴퓨터를 통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모전에 참가하며 포트폴리오를 준비 하였습니다.

실행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학과에 매여 있지 마시고 다양한 분야, 전공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실제 시스템화하는 활동들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간단한 문제에서 부터 복잡한 현실의 문제나 일들을 해결해 보며 프로그래머로서의 꿈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 이창희 / 11학번 / 한화 시스템/ICT 운영부

프로그래밍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학과 12학번 졸업생 임태완 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ICT 운영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면 고등학생 때 갖고 있던 대학교 환상에 젖어 1년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제가 말한 낭비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능을 위해 오랜 기간 공부하였으니,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면서 컴퓨터의 다양한 분야 중 어느 분야가 자신에게 맞는 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게임 제작, 어플리케이션 제작 등 컴퓨터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으니 흥미가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조금씩이라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진로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보았는데, 공기업에 가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기업은 프로그래밍을 엄청 잘하지 않아도 볼 수 있고, 워라벨 즉, 일과 삶의 조화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 막상 컴퓨터 공부를 해보니 프로그래밍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론 공부와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산점을 받았고 인턴도 해보며 마침내 공기업에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많은 시간을 허투루 보냈다는 점입니다. 공모전도 나가보고 서포터즈 활동도 해보고 봉사프로그램(기업에서 지원해주는 봉사)도 해보고 해외여행도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스펙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태완 / 12학번 / 한국주택금융공사 ICT 운영부

다양한 진로에 대해 고민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학과(現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에 12학번으로 입학했고, 2020년 2월에 졸업한 졸업생입니다. 저는 현재 농업중앙회에서 근무하고 있고 근무지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NH통합IT센터입니다.

저는 대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듣는 전공 강의를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강의를 통해 이론을 배우고, 과제나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실습하며 공부 하는 것이 잘 맞았습니다. 강의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며 실패해보고, 실패를 통해 자신만의 지식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식을 찾으면 저처럼 더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컴퓨터공학은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필요한 지식도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과목을 말씀드리자면, '컴퓨터언어,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이 세 가지 과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에는 C, C++, JAVA와 같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Language)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학문이며, 데이터베이스는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불러오기 위한 저장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필요할 때 수업을 통해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떠한 분야로 진출하던 기본이 탄탄해야하기 때문에 위 3가지 과목은 배울 때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직 진로에 대해 큰 고민을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진로를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새롭게 출시된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아서 핸드폰의 운영체제나 애플리케이션은 어떻게 핸드폰에서 작동하는지 찾아보고, 공부도 해보았습니다. 핸드폰에 대해 공부하다보니 재미있어서 운영체제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그마한 관심을 가지고 컴퓨터 공학과에 진학했고,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보안 분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연히 생각만하고 취업시장에 뛰어들니 막상 내가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관련 자격증도 따고, 공모전에도 출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외활동이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진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았는데, 저는 프로그램 개발보다 관리가 더 맞는 것 같아서 그쪽을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수강신청을 하며 동기들과 학점을 잘 주는 과목, 재미있는 과목을 신청하며 철저한 예습복습을 꿈꾸지만, 1주일이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1학년 때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1학년 때는 수업 안 나가고 막 놀아도 돼'였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말입니다. 1학년 때 공부만 하기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생활을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새 게임도하고, 연애도하고, 관심 있는 동아리활동도 하구요. 다만 진로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분야는 없기 때문에, 저희 과의 진로는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더욱 더 전도유망한 학과가 되었습니다. 어떤 학과에 진학할지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김동한 / 12학번 / 농업중앙회 NH통합IT센터

취재기자단: 전용후, 백민정

전자및정보공학과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는 콜럼버스,
전자및정보공학과!

학과 소개

4차 산업은 공학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빠지지 않는 용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화두인 현대 사회에서 누구보다 빛날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를 공부해야 할까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발행한 「2020 ICT 10대 이슈」를 살펴보면, 10개 주제 중 전자·정보공학과 관련된 주제는 '1. 5G, 2. 인공지능, 3. 반도체, 4. 모빌리티'로, 전체 주제의 40%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전자·정보공학은 4차 산업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입니다. 실제로, 현대 전자공학은 AI와 빅데이터, 정보 통신, 반도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를 변혁시키고 있으며 미래 산업 사회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통신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눈부신 발전으로 광대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양한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정보'의 실생활 응용이 다양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정보공학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하며 그 영역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전자및정보공학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자및정보공학과는 크게 4개의 심화전공인 인공지능/컴퓨터, 바이오/헬스전자, 나노전자, 사물인터넷으로 나뉘며, 세부적으로는 하드웨어인 반도체 소자, 회로 설계, 디스플레이, 의료공학과, 소프트웨어인 AI, IoT(사물인터넷), 통신 등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직업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 장점이 있으며, 실제로 전자및정보공학과 재학생들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및정보공학과에서는 재학생 선후배 사이에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모전이나 연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더 높은 수준의 전공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학부연구생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와 '정보'는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원동력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생산성 향상과 인간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보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이곳은 고려대학교 전자및정보공학과입니다.

교육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인공지능/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익히고,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해석 및 설계 능력 함양		전기회로 전기회로실험 전자공학S/W실험 공업수학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신호및시스템 AI-빅데이터 공학수학	전자회로 전자회로실험 디지털시스템실험 확률과통계	강화학습 전산뇌과학 패턴인식과기계학습 인공지능개론 인공신경망 정보공학캡스톤디자인
나노전자 나노스케일 반도체 소자 및 집적회로와 3D 홀로그램 등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원리를 이해하고 설계	미적분학 일반물리학 교양화학 계산수학 프로그래밍언어의기초	전기회로 전자기학 물리전자공학 I 공업수학 디지털시스템	물리전자공학 II 반도체제작기술 전자회로 광공학 디스플레이공정 디지털회로설계 전자재료공학 광공학 센서공학 의용전자공학 디지털신호처리 생체전자 선형제어시스템	직접회로설계 통신회로설계 나노전자공학 나노/바이오공학개론 디스플레이광학 의료기기공학 디스플레이광학 영상시스템공학 나노바이오공학개론 생체전자공학
바이오/ 헬스전자 바이오/헬스 관련 첨단 의료 장비 및 생체 기기의 원리를 이해		전기회로 전기회로실험 전자공학S/W실험 II 공업수학 전자기학 신호및시스템		의료기기공학 디스플레이광학 영상시스템공학 나노바이오공학개론 생체전자공학
사물인터넷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물인터넷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통신 등의 원리를 이해		전기회로 전자기학 물리전자공학 I 공업수학 디지털시스템	컴퓨터아키텍처 광공학 디지털신호처리 통신이론 데이터통신	디지털통신 통신회로설계

[신설 과목]

다양한 인공지능 교과목들을 진입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관련 과목으로 'AI-빅데이터 공학수학'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적 개념을 갖추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행렬, 벡터, 행렬 분해, 다변수 미적분, 확률, 최적화 이론 등의 수학 개념을 설명하고, 이 개념들이 실제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를 학습할 강의를 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전자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해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고 최적의 효율로 구동할 수 있는 전자 소자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자재료공학'을 신설하였고, 이 과목에서는 최신 전자 제품/시스템에 사용되는 전자 재료들의 종류와 기능 및 특성을 학습한다. 이것을 통하여 학생들은 전자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자소재와 이를 활용한 전자 소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나아가 전자 산업 전반의 융복합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험 수업]

전자 및 정보공학과는 전공의 이해도를 높이고 프로그래밍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험 수업을 진행합니다. 1학년 때에는 일반 물리학 실험 1,2를 통해 측정 장비인 오실로스코프의 사용 방법을 익힙니다. 2학년 1학기에는 전자공학 S/W 실험 1을 통해 전자공학도가 필수로 다룰 줄 알아야 하는 소프트웨어인 MATLAB을 배우고, 2학기에는 디지털시스템 실험과 전기회로 실험을 통해 디지털 논리 회로를 구성하고 Verilog HDL로 디지털 회로를 설계해보면서 강의시간에 배운 이론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기회로 이론을 실험을 통해 확인합니다. 3학년 1학기에는 전자회로 실험 1에서 전자회로의 이론을 실험을 진행해보며 이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전자공학 S/W 실험 2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핵심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여기는 Python을 배웁니다. 2학기에는 전자회로 실험 2에서 Verilog HDL을 이용해 디지털시스템을 설계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Starter Kit에 프로그램을 구현함으로써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합니다.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연구	학부 과정을 모두 수료한 후 더욱 세부적인 전공을 선택하여 대학원에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관심사에 맞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나노전자	종합 반도체 회사 (IDM)	기획, R&D, 설계에서 제조 및 패키징과 테스트까지 일괄 공정 체계를 구축하여 직접 수행합니다. 삼성전자, SK hynix와 같은 국내 대기업과 Intel 등의 외국계 회사가 있습니다.
	설계 전문 회사 (Fabless)	제조라인(Fabrication)이 없어 반도체 설계만 하고 제조는 Foundry 업체에 맡기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Qualcomm, LION Semiconductor, AMD, 화웨이가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	반도체 공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ASML, SEMES(삼성)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디스플레이 제품 개발단계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제품 수율이나 특성, 품질 향상을 위한 구동/소재/공정/시스템 개선 등의 엔지니어 업무를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의 회사가 있습니다.
바이오/헬스전자	의료기기	바이오/헬스 분야에 걸맞게 사람의 건강과 신체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삼성 메디슨, 바텍 등의 회사가 있습니다.
공기업/연구소	연구 및 개발	공기업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력 공사 등의 공기업 또는 다양한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인공지능/컴퓨터	SW/게임/정보 개발	다른 분야들이 하드웨어에 대한 업무를 주로 했다면, 이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주로 다룹니다. 게임을 제작하거나 다양한 기기에 적용할 코드를 구성하여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넥슨, 게임빌, 한글과컴퓨터와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 장비 제조업	유무선 통신장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일 도는 사물인터넷과 같이 사물 간의 연결 및 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을 합니다. SK 텔레콤, KT와 같은 통신 회사들이 이에 속합니다.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전기기사 / 인증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기기사는 전기설비의 운전 및 조작, 유지 및 보수에 관련된 직무를 선택할 때 필요한 자격증으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기사 / 인증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 시스템 분석 전산 업무의 타당성 검토, 정보 시스템 분석, 시스템 설계 등 정보처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파전자통신기사 / 인증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명의 안전과 재화의 보존을 위해 무선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육상, 해상, 항공에서 조난, 긴급, 안전, 일반통신/운용통신 장비 유지보수, 무선통신시스템 설계,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방송통신기사 / 인증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중파방송과 유선방송, 라디오 송수신 등에 이용되는 각종 유선 통신장비 설치를 위해 방송망의 구성 및 시스템을 설계하고 장비 및 전송로 설치 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과정을 감독 관리합니다.

전공(학과) 프로그램 및 장학금

EXIT

방학 중에 연구 활동, 공모전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지만 공간적, 경제적 한계로 인해 부족함을 느낀 진취적인 학생들에게 활동 공간과 실험용 장비를 제공하고 장학금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D-SUM

학기 중에 프로그래밍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프로그래밍에 자신이 있는 재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프로그래밍 능력을 키워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한 학기동안 진행되며 선후배 사이의 학문적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멘토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학부 연구생

학부연구생의 연구 체험을 통해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 학기 동안 진행되며 학생들이 지도교수님의 상담을 통해 연구 분야를 설계한 후 지원서를 제출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과 도전성을 가지고 더 높은 수준의 전공학습을 할 수 있고, 실무 경험의 기회를 가지며 장학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전공 튜터링

전공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전공 학습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튜터링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교과목의 학점이 A 이상이고 직전학기 성적 평점이 3.5점 이상인 학생이 튜터가 되어 학기 중에 매주 2시간 이상씩 튜터링 활동을 진행하며, 튜터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자치활동

쿠하스(KUHAS)

안녕하세요. 저희 쿠하스(KUHAS, Korea University Hardware & Software)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학습과 교육 그리고 제작 모드를 진행하는 전자 및 정보공학과 소속 소모임입니다. 쿠하스에 처음 들어온 1학년은 웹프로그래밍과 하드웨어 제작에 관한 기초적인 부분을 간단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배우게 됩니다. 2학년부터는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크게 SW파트, HW파트로 나누어서 SW부서에 들어가서 자신이 만들고 싶었던 사이트, 앱,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HW부서에 들어가서 자신이 만들고 싶었던 전자기기들을 제작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공모전을 나가기도 하며 창업을 하기도 합니다.

[2020년 쿠하스 회장 하상우]

전축

전축은 일주일에 약 2번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운동하고 있는 전자 및 정보공학과 축구 소모임입니다. 교내 대회인 쿤즈마컵, 과기대컵에서 여러번 입상을 하였으며 MT, OB전 등 매년 여러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롭게 선후배사이가 돈독하여 신입생들이 항상 선호하는 소모임이며, 축구 이외에도 학업에 열의를 갖고있는 학생이 많은 만큼 학업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전축 회장 송혜성]

UTD

저희 UTD 소모임은 신입생부터 고학번까지 모두 모여 매주 월요일 수요일마다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모임인 만큼 같은 과 학우들이 모여 서로 친목을 다지고, 과 내에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어 운동뿐만 아니라 학업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학기가 끝나면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친선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배님들께 궁금한 여러 가지들을 질문하고 또 여러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UTD 회장 김우진]

미리보는 전자및정보공학과

[추천 도서]

반도체 제국의 미래 (정인선, 이레미디어)

반도체로 유명한 삼성, 인텔의 기업의 성공 역사 및 반도체 산업의 변화와 함께 메모리, 비메모리, 공정, 낸드플래시 등의 제품별 반도체에 관련된 원리, 기술을 풀어낸 책입니다. 비유와 예시를 통해 읽기 쉽게 서술되어 있어 반도체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 분야로 전공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책이라 생각합니다.

생활을 변화시키는 인공지능(다쿠치 카즈히로, 모리시마 료코, 영진닷컴)

AI의 최신 동향과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AI의 사례,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AI의 이론을 가볍게 설명하고 있어서 AI의 흐름과 원리를 알고 싶고 AI의 이론을 가볍게 배워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좋을 것입니다.

[추천 프로그램]

스크래치(Scratch)

전자 및 정보공학과는 전자공학과의 하드웨어적 특징과 컴퓨터공학과의 소프트웨어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딩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쉽게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스크래치'를 사용해 코딩을 접해보고 프로그래밍 사고방식에 익숙해진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스크래치를 이용해 간단한 프로그램이나 게임을 만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Q. 수능 때 과학 탐구 영역에서 물리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합격 후에 물리 공부를 해야 할까요?

A. 과학 탐구 영역에서 물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물리를 선택한 친구들보다 조금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학기 중에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과제도 성실하게 한다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합격 후 물리 공부를 하면 좋지만 하지 않아도 입학 후에 성실하게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전자 및 정보공학과 입학 전에 코딩을 배워야 할까요?

A. 저희 과에서는 1학년 2학기부터 4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비주얼 스튜디오, Matlab, Verilog VDL 등의 툴을 사용해 코딩을 합니다. 따라서 입학 전에 코딩을 배워서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하지만 입학 후 학기 중에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으며 D-SUM 프로그램 혹은 소모임에 참여하면 프로그래밍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입학을 꿈꾸는 예비 공학도에게

전자 및 정보공학과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내에 가장 많은 학우가 재학 중이며 현장에 나가 있는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반도체 소자 및 설계, 디스플레이 광학, 의료공학, 통신, 인공지능 등의 넓은 분야를 가르쳐주실 뛰어난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전자및정보공학과는 학문을 배우는데만 그치지 않고 실전문제연구단, 사회혁신 CBL, PBL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전에 접목할 수 있는 뛰어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과의 행사를 주관하는 학생회, 관심분야가 맞는 사람들이 모인 소모임등을 통해 꿈꾸던 대학생살로 20대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대학생활을 바란다면 전자및정보공학과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전자 및 정보공학과 제 25대 학생회장 이준석

생명정보공학과

인류와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 생명정보공학!

학과소개

"유전자 가위"

라는 말을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유전자 가위는 DNA를 자를 수 있는 단백질로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 부위만을 자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유전자를 원하는 대로 자르고 붙이며 조작할 수 있게 되었고, 현대에는 이를 이용해서 농산물의 성장을 증대시키고 가축의 근육량을 늘리기도 하고 유전병의 치료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유전자 편집기술'이라 부릅니다.

이 기술은 인간의 유전과 질병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며 비만, 암, 당뇨병, 감염병 바이러스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 배아에 적용한다면 질병 유발 유전자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도 있고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되는 변이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과학기술인 생명공학기술이 인류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와 함께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생명공학기술은 생물체의 유용한 물질을 개발해내 바이오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생명정보공학과에서는 생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바이오산업에 기여하는 기술들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면역학, 생물정보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직접 실험을 디자인하기도 하며 생명공학도로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과학분야와 IT분야와의 융합으로 바이오칩, 생명정보 빅데이터, DNA해석 소프트웨어 등 더욱 다양한 분야로의 길이 열려있어 국내 유사학과와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 과정과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명정보공학과만의 커리큘럼은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해 대부분의 주요 교과목이 영어 강의일 뿐만 아니라 기초이론부터 실습까지 이르는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졸업 후 다양한 바이오 분야로 진출 하여 연구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생명정보공학과만의 졸업생들은 제약, 의료, 환경,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 인류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기술로서 생명공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생물정보, 환경·에너지 등 타 기술과의 융합과 응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바이오 관련 시장 규모도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생명공학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더욱 발달하고 확장될 것입니다. 생명 현상에 관심이 많고 생물, 화학 등의 자연계열 과목에 흥미를 느끼고 실험 및 연구를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생명정보공학과에서 생명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점점 발전해 가는 생명공학기술을 가까이에서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생명과학 기본소양 생명 현상의 기본적인 개념 및 지식을 습득하는 학문	일반생물학 1,2 일반화학및연습 1,2	생화학 생물유기화학 분자세포생물학 분자세포생물학실험	분자바이러스학 면역학 1,2 분자생물학	분자바이러스학 종양학
생명정보학 생명정보공학과와 핵심인 '생명정보학'을 습득하고 응용하는 학문		생물정보학 생물구조학 생물통계학	유전체학	단백질체학
생명공학기술 생명공학의 첨단 의학기술을 이해, 습득하는 학문	일반화학실험 1,2	미생물학1,2 단백질공학	세포공학 응용미생물학 분자생명공학 발효공학	효소화학 생물화학공학 1,2 나노생물공학 유전공학
생명실험디자인 및 개발 생명공학 개념을 토대로 실험을 직접 디자인하고 진행하며 실무 역량을 개발하는 학문	일반생물학실험1,2			창의설계 캡스톤디자인연구설계1,2 캡스톤디자인종합설계1,2

졸업 후 진로

대학원	국내외석사/박사과정	학부 과정을 마치고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기 위해 더 깊이 배우고 싶은 세부 전공을 선택에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최근에는 깊이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들의 요구에 맞춰 많은 학생이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추세입니다.
	대학 교수	대학원 과정을 통해 기업체, 연구소 등에 취업을 할 수도 있지만, 대학에서 교수가 되어 학문적으로 더 깊이 탐구하고, 후학 양성에 힘쓸 수 있습니다.
연구소	연구원	생명 현상에 관한 기초연구와 바이오 신소재 등 첨단 생명공학 연구 수행을 비롯하여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공공 정부 기관의 생명 관련 연구소에도 진출할 수 있고, 각 분야에서 생물학 연구원, 의학학 연구원, 식품공학 기술자 등의 전문가로도 일할 수 있습니다.
기업체	바이오벤처 기업 제약회사 식품회사	연구소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도 생명공학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합니다. 진출 가능한 대표적인 분야로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이나 건강식품 분야가 있으며,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담당합니다. 본과 학생들의 기업 선호도가 높은 제약회사에서도 연구, 개발, 품질관리, 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변리사, 정부 공공기관	특히에 관심이 있다면 졸업 후 변리사가 될 수도 있고, 과학기술처,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같은 정부부처 공공기관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생물공학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인증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생물공학 분야의 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생물공학 기술을 이용한 의약, 화학, 식품 등 새로운 생물산업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하거나 기존의 생산 공장을 생물공장으로 개선하는 등의 업무를 합니다. 시험일정은 매년 비슷하며 1년에 한 번만 치루고 응시자격은 관련 분야에 대한 경력이나 학력이 필요합니다

화공기사 /인증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화공기사는 화학공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으로 화학 장치와 화학제품 제조공정 전반에 있어서 계측, 제어,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화학제품을 제조하고 취급하는 전 산업 분야로 진출 가능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 검사기관의 검사자로 고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과(전공) 프로그램 및 장학금

전공학습멘토링 장학금

전공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공수업에 학점이 좋았던 학우를 멘토로 정해 멘티들의 전공 공부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학기 동안 멘토와 멘티가 유연하게 학습계획을 맞추고 학습하며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정된 전공 도우미(멘토)에게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성적향상 장학금

성적이 향상된 학생들 중 가장 많이 향상된 학생들을 기준으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교수 멘토링 프로그램

학과에 입학하면, 본인의 지도교수님이 정해집니다. 지도교수님은 담당 학생을 4년 동안 집중적으로 맡아주시며 학기마다 진로 상담을 함께 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바이오기업체 현장견학 프로그램

생명정보공학과에서는 수업에서 배운 개념을 마주하고 학생들의 진로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매 학기 바이오기업체를 선정하여 탐방 및 견학을 진행합니다. 국립과학사연구원, 식품공장, R&D센터 등 학과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체를 견학함으로써 생명정보공학과 학생들의 폭넓은 경험과 진로설정을 위해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정보공학과 학술제

대학원생과 학부학생 또는 교수님들과 학부학생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학생자치활동

학생회

생명정보공학과 학생회에서는 신입생 O.T, 신입생 환영회, M.T, 과 체육대회, 고연전, 교우회 등 학과 내 각종 행사 및 교내 행사를 기획, 준비하며 학우들의 단합과 친선을 도모하여 면학 분위기 쇄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DNA

DNA는 학과에서 배우는 전공 개념을 넘어 더 심도 깊은 생명 현상들을 함께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토론하는 생명정보공학과와 대표적인 학술 소모임입니다. 전공에 관한 호기심과 열정이 큰 학우들이 모여 있는 작은 대화방입니다.

스파르타

스파르타는 생명정보공학과와 축구 소모임입니다. 과 학우들과 함께 축구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친목을 도모합니다. 학교에서 열리는 과 대항전에도 참가하고, 체육대회에도 참가하며 교내에서 실력 있는 축구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남 학우들은 선수로, 여 학우들은 스파르타를 응원하는 '아테네'라는 응원단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맥

한맥은 민중가요 소모임입니다. 보컬, 베이스, 기타, 드럼, 키보드가 함께 어우러져 민중가요를 부르며 민중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생각들을 자유로이 나누는 소모임입니다. 학교 축제에서 공연하기도 하고, 학기마다 '한맥의 날'을 만들어 공연하며 끈끈한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NEO-

NEO-는 생명정보공학과 창업 동아리입니다.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서로의 관심사 및 정보를 공유하는 소모임입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창업 분야로의 첫 출발을 같이 준비할 수 있게 하고자하는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미리보는 생명정보공학과

생명정보공학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바이러스, DNA, 질병 등 생명 관련 도서를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등학교 교내 실험 동아리나 과학 탐구 동아리에 참여하여 학과의 필수인 실험 수업을 미리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거나, 생명과 관련된 기술, 질병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제작해 보는 활동도 추천합니다. 이외에도 의료 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생명에 대해 생각해보고,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천 도서]

이기적 유전자 (저자: 리처드 도킨스)

인간의 형성부터 진화까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유전자의 모든 복잡한 현상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도서입니다.

[추천 영화]

아일랜드 (감독: 마이클 베이)

장기 이식을 위해 생산된 복제 인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공학 기술을 개발할 때 우선 되어야 하는 윤리와 철학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심어주는 영화입니다.

이외에도 컨테이션, 아웃브레이크, 아일랜드, 레플리카, 가타카 등 생명공학기술, 인간 복제에 관한 영화를 보면서 생명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생명정보공학과' 사이에 끼어 있는 '정보'는 무슨 의미인가요?

A. 본 과에서는 생명공학에 학문뿐만 아니라 생명정보학, 생물정보물리화학공학실험 등과 같은 생물정보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단백질의 구조를 확인하고, 신약을 개발하거나 파이센을 다루는 등의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Q. 생명공학과 생명과학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생명공학이란 생물체의 유용한 특성을 산업에 이용하기 위해 생화학적인 공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산업적으로 유용한 제품을 만들거나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생물과학이 단순히 생명 현상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생명공학은 이러한 생명현상 지식들 중 유용한 것들을 골라 산업 전반에 응용하고 적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Q. 공학대이면 공대인가요? 물리나 수학도 잘 해야 하나요?

A. 본과는 공학대학이 아닌 과학기술대학입니다. 따라서 물리나 전자, 기계 관련 학문을 따로 배우지는 않지만 수학, 화학, 컴퓨터와 관련된 전공 수업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기초과학은 1학년 때 학습하기 때문에 물리나 수학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명정보공학과,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생명정보공학과 입학을 준비하는 후배님들께,

현대에는 수많은 바이러스와 질병의 위협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명정보공학과에서는 이러한 바이러스와 질병 등에 관해 연구하고 인류의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공학기술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치열하게 공부하고 실험 연구를 진행하며 생명공학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수님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진로를 함께 고민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려대학교만의 타오르는 응원문화, 넘치는 학교의 격려와 지원 속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며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인류에 도움이 되는 기술에 관심 있다면 누구든지 환영입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생명정보공학과에서 후배님들의 빛나는 미래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생명정보공학과 18학번 김기원

식품생명공학과

잘 먹어야 건강하다,
우리 손으로 몸도 마음도 건강히!

학과소개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우리와 함께할 식품”

인류는 지구상에 나타났을 때부터 식품을 섭취해 영양을 흡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발전에 따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서 더욱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먹을거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광우병 파동’, ‘중국 가짜분유 파동’과 같은 바른 먹거리에 관한 사회적 이슈들이 자주 거론됩니다. 이처럼 사회는 식품이 우리의 삶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 더 좋은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실현해주는 것이 바로 식품생명공학입니다. 삶의 유지를 위한 영양을 제공하던 식품이 식품을 통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가지게 되면서 건강한 식품소재 개발을 위한 생명공학 분야 기술 및 식품의 건강 기능성 및 기능성 소재의 평가를 위해 의학분야 기술과의 접목이 이루어지면서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므로, 식품생명공학 전공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은 점점 확장되고 다양화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식품생명공학과는 식품공학의 전공지식과 생명공학 및 약학의 전공지식을 통합적으로 학습시키는 차별화된 커리큘럼이 장점입니다. 기초과학으로 생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미생물학, 식품영양학, 세포생물학, 유전학 등을 배우며 식품 관련 전공 교과목으로 식품화학, 식품미생물학, 식품가공학, 식품포장학, 식품소재학, 영양생화학, 식품위생·안전성과학 등을 배웁니다. 또한 분자유전학, 생명공학, 효소학, 독성학, 약리학 등의 생명공학 관련 전공 교과목으로 전공교과목을 구성하여 식품과학과 생명공학의 전공지식에 대한 융합적 학습을 바탕으로 미래식품산업에 종사할 식품전공자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공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산업체, 국가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국내·외 학회 및 협회 등을 통하여 정보교류 및 현장인턴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남과 세종시가 추구하는 식품 관련 특화 인력 양성을 목표로 식품기능 및 식품안전 분야로의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식품산업 분야의 사회적 수요와 분석을 바탕으로 식품의 기술적 특화를 통한 건강식품산업 선도를 목표로 하고 학문의 융합,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해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과에서 오랫동안 운영해온 다양한 학부·대학원 연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실무교육이 이루어지는 점 또한 장점입니다.

식품과 관련하여 누구보다 전문가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곳은, 고려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입니다.

실무에서도 강한 식품생명공학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식품생명공학과에서는 공학계열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캡스톤 디자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개최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식품개발’을 주제로 한 대회에서 본 과 교수님과 6명의 학우들이 팀을 이루어 전국 약 10개 대학 중 1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이처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식품생명공학과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실무역량이 중요한 공학계열 학생들을 위하여 이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만드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식품공학 기본소양 식품공학의 기본이 되는 학문	일반화학 및 연습 I, II 일반생물학및연습 I, II	식품생화학 I, II 생물유기화학 천연물유기화학 식품분석화학 미생물학	기기본석학	식품보존론
식품공학 심화역량 식품과학 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학문		식품영양학	식품화학 I, II 식품미생물학 I, II 식품가공학 I, II 식품물성학 식품위생안전성 과학 HACCP공정설계학 기능성식품학 식품첨가물학	식품공학 I, II 식품보존론 식품법규 발효식품공학
생명과학 융합역량 생명과학 분야와의 융합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학문		세포생물학 세포유전학	생명공학 독성학 생리학 식품의약학	천연물의약학 약리학 식품효소학 분자면역학 기능유전체학
실무개발 및 연구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연구 역량을 개발하는 학문	일반화학실험 일반생물학실험	식품화학실험, 식품가공학실험 식품미생물학실험, 식품생화학실험 기기본석학실험, 생리학실험 식품위생안전성과학실험		연구설계및실험 I, II 캡스톤디자인 I, II
식품공학 실무연계 식품바이오산업 문제점 분석 및 해결을 위한 실무능력을 습득하는 학문			식품개발연구론I, II	식품생명산업특론 I, II 식품바이오현장인턴쉽

졸업 후 진로

기업체	식품 회사 제약 회사 바이오소재 회사	마케팅, 영업	전문적인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영업과 마케팅에서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식품생명공학과에서 학습한 식품 트렌드와 전문적지식을 토대로 영업과 마케팅 분야에서도 활동할 수 있으며, 향후제품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연구 개발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 개선을 위한 제조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실험실에서의 예비제품개발과 공장에서의 대량생산을 연결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생산 관리	모든 제조사는 공장에서 대량생산을 하며, 올바른 공장 운영을 통해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산관리는 생산 현장에서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인력 관리 및 공정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품질 관리	식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품질은 가장 중시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실험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규격에 맞는 제품 생산 여부를 평가하고, 관련 서류 작업 및 관련 정부부처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연구기관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공커리큘럼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식품과학 및 생명과학 관련 지식을 토대로 다양한 식품 유관 국가기관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있으며 식품 가공 기술 개발 또는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분석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진학	대학원		학부 과정을 마치고 보다 전문적인 공부를 위해 원하는 연구 분야를 지원하여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에 식품회사 및 제약회사에서 제품 개발 및 연구를 위해 R&D 분야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식품기사 / 인증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식품기사는 식품제조가공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규모가 커지고 공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제정된 국가기술자격입니다. 필기와 실기로 구분되어 있으며 필기는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및 발효학 총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기, 실기 모두 합격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위생사 / 인증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위생사는 먹는 물의 수질을 감시하고 쓰레기·분뇨·하수 기타 폐기물의 처리하며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접객업소와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 식품·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 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를 담당한다. 필기와 실기로 구분되어 있으며 필기는 위생관계법령, 환경위생학, 위생곤충학, 공중보건학, 식품위생학 총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기, 실기 모두 합격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전공(학과) 프로그램 및 장학금

창의형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수강하여 우수 제품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품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입니다. 2019년도에 동결건조법을 이용한 'IQF(Individual Quick Frozen) 큐브형 이유식'을 개발하여 식품영양과학회에서 대상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부연구원 프로그램 장학금

대학원 연구실에서 3개월 이상 연구활동을 진행한 학부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입니다. 학부연구생은 주로 3~4학년때 많이 지원하며, 학부연구생은 실험실습을 통해 더 깊은 전공 이해를 도와주고 대학원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타

이외에도 전공 관련 자격증(식품기사, 위생사 등)을 취득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전공자격증 지원 프로그램'이나, 직전 학기 평점 평균 3.5이상으로 담당교수님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 해당 교과목을 튜터링 하는 '전공튜터링 프로그램', 공인영어성적 취득 학생에게 주어지는 '어학능력개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학금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리보는식품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에 입학を 희망하고 있다면 화학과 생물학에 대한 관심 증대와 식품과 식품산업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도서와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공학인은 공공의 안전, 건강, 복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직업윤리의식도 필요로 하기에 해당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봉사활동도 해보신다면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천 도서] '맛의 원리(저자: 최낙언)'

식품공학을 전공한 저자가 맛에 대한 이론을 감성의 영역보단 식품학, 생리학, 뇌 과학, 음식의 역사,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책이다. 식품을 공학적으로 접근해보기 좋은 책입니다.

학생자치활동

학생회

새내기배움터, MT, 사은회, 입실렌티, 고연전 등 다양한 연례 행사뿐만 아니라 간식행사, 과잠 공동구매 등 학우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하고 제공하는 식품생명공학과 학생자치기구입니다.

PUPA

축구를 사랑하는 모임으로써 축구 경기를 통해 같이 땀 흘리며 선, 후배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되고자 결성한 소모임입니다. 현재 매주 한 번씩 게임을 갖고 있으며 다른 과와의 친선 게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A.M.S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구소모임인 AMS는 Attack is My Style의 줄임말로써 공격농구를 추구하는 팀의 컬러를 부각시킨 이름입니다. 매주 1번의 정기적 농구모임을 갖고 있으며 그외 1~2번 정도 비정기 농구모임을 합니다.

HACCP

노래, 악기 등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 만든 어쿠스틱 밴드 소모임입니다. 다양한 악기들을 배울 수 있으며 같이 합주도 하여 학기에 한 번씩 공연을 진행합니다.

[추천 활동] 농촌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와 같은 봉사활동을 통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의 재배와 생산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며 먹을 것의 소중함과 같은 식품 관련 소양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A

Q. 식품생명공학과와 식품영양학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식품생명공학과는 식품의 제조·가공, 저장, 포장에 대해 연구를 하여 식품의 개발 및 생산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인체 건강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둡니다. 식품의 공학적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연구, 개발 분야로의 진출이 활발합니다. 식품영양학과는 식품의 영양소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연구를 하며 그것을 통해 인간의 건강 상태 개선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식품을 '어떻게 먹을지'에 초점을 두며 영양사로서의 진출이 활발합니다.

Q. 식품계열 분야로만 진출이 가능한가요?

A. 식품생명공학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식품산업과 연관된 분야로의 사회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리큘럼에서 볼 수 있듯이 생명공학 관련 융합 교과목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관련 역량의 개발을 통해 제약이나 화장품 소재 생산 회사로의 진출도 가능합니다.

Q. 식품생명공학과는 요리를 잘해야 하나요?

A. 음식조리와 식품가공은 모두 식품원재료를 요리하여 맛과 영양을 제공하는 식품을 만드는 공통점을 가지므로 요리를 잘 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식사대용제품 시장의 확대에 따라 특정식품산업 분야에서는 조리능력이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식품생명공학은 소규모 요리가 아닌 공장에서 양산되는 식품을 제조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에 필요한 역량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조리공정과 무관한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므로 요리를 못하더라도 전공 교과목을 따라오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Q. 화학, 생명과학을 못하는데 어떡하나요?

A. 식품생명공학과와 전공은 화학과 생명과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무런 지식이 없다면 타 학우들보다 조금 어려운 공부로 느껴질 수 있지만 1학년 과목으로 있는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이수를 통해 기초기식을 습득하고, 전공 커리큘럼을 성실하게 따라온다면 전공지식을 배우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찬란한 내일을 위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식품생명공학과와 함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식품생명공학과 입학을 준비하시는 후배님들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식품생명공학과는 식품공학과 의학, 약학, 분자생물학 등의 생명과학을 접목시킨 새로운 학문, 식품생명공학에 대하여 열정이 넘치는 최고의 교수님들과 함께 창의적이며 적극적으로 학문을 공부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소모임 활동을 통해서 잠재 역량을 계발하고 함께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을 통해 매 순간 발전하는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만의 뜨거운 응원문화, 끌어주고 밀어주는 선후배 간의 돈독한 관계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추구하는 건강장수사회의 구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예비 호랑이 여러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식품생명공학과에 오셔서 청춘을 불태우며 찬란한 내일을 이끌어갈 인재가 되어보세요!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식품생명공학과 제32대 학생회장 이동환(17학번)

전자·기계융합공학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콜라보레이션! 전자·기계융합공학과

학과소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융합기술이 핵심이다!”

과거의 산업은 경계가 확실했지만, 점차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융합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산업은 전통적으로 기계 산업으로 분류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개발로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등 하드웨어 뿐 아니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연결된 융합산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융합기술이 필요합니다.

1989년 설립된 전자·기계융합공학과(구:제어계측공학과)는 개설된 이래 산업과 학문 영역 모두에서 최고수준 인재의 산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자·기계융합공학과는 현대 산업의 기반기술인 전기전자, 기계, 컴퓨터 분야를 배우고, 이를 응용하는 최첨단의 센서, 로봇공학, 메카트로닉스, 바이오시스템 등을 다루는 융합학문을 배웁니다. 또한 4학년때 캡스톤 디자인 과정을 진행하면서, 학습한 전공지식을 활용해 자신만의 결과물을 제작하고 발표함으로써 이론을 실제 산업현장에서 적용해보는 실무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KIT(Kyoto institute of technology) 대학과의 학문적 교류를 통해 전공지식은 물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자·기계융합공학과는 이와 같은 우수한 연구역량 및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인정받아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조를 지원하는 사업인 BK21플러스 사업 (2013~2020년)과 4단계 BK21 사업 (2020~2027년)에 연속 선정되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수인력 양성에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자·기계융합공학과 학생들은 전자공학 분야와 기계공학분야를 동시에 섭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재다능한 공학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물론, 문제에 접근하는 시야가 넓어져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을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전자공학분야와 기계공학분야는 제조산업은 물론 대다수의 산업영역에서 요구하는 기초분야입니다. 따라서 요구하는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전자·기계융합공학과 학생들은 진출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또한, 세종시가 자율주행자동차 분야로 특화를 계획하고 있어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전자/기계융합 분야의 수요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기계융합공학과에 입학하여 배우게 되는 융합학문으로 이와 같이 넓은 분야에 진출할 인재로 함께하자는 어떨까요?

교육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자 전자에 대해 배우는 과목		회로이론 전자기학 및 연습 마이크로프로세서	전자회로 및 연습 기전응용 임베디드 시스템 개론	서보기기 인공지능시스템개론
기계 기계에 대해 배우는 과목		고체역학	자동제어 동역학	Capstone Design 로봇공학 메카트로닉스
실험 전공과목에서 배운 내용들을 직접 실험을 하며 이해하는 과목		계측공학실험 I, II	전자회로실험 I, II 마이크로프로세서실험 I, II	자동제어실험 I, II
코딩 작업의 흐름에(개발환경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법을 배우는 과목	전산프로그래밍언어 및 실습 (C언어)	컴퓨터언어 및 실습 (C++)	신호 및 시스템 (Python)	
기초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울 전공과목들의 기초적인 지식들을 배우는 과목	기초공업수학 기초역학 일반물리 일반화학 미적분학 및 연습	공업수학 I, II	기전공학세미나 I	기전공학세미나 II, III

졸업 후 진로

기업체	IT분야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자를 뜻합니다. 개발자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필요한 코드들을 짜고 그 코드로 실행했을 때 프로그램이 잘 작동되는지, 버그와 오류 등을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개발자는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장비	반도체 제품은 수백여 단계의 공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공정 설계자는 각 단계에서 최적의 공정기술을 제공하고, 해당 제품의 전반적인 공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공정설계는 크게 반도체 제품의 구조를 만드는 미세 패터닝, 반도체 제품의 특성을 관장하는 박막재료, 신설비/신소재/신계측 업무로 나뉘며, 공정설계자로서 다양한 반도체 제품에 대한 공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동차분야	자동차공학기술자로서 차량의 차체와 엔진, 제동장치 및 기타 구성품들의 개발과 제조를 계획하고 감독합니다. 자동차의 성능을 시험하고 설계 변경의 여부를 결정하며, 제조 공정에 일어나는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것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로봇분야	로봇하드웨어설계기술자 로서 로봇 제품에 요구되는 사항을 분석하여 로봇 하드웨어의 사양과 구조의 개념설계를 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액추에이터(actuator, 동력을 이용하여 기계를 동작시키는 구동장치)를 구동하는 드라이버를 요구사항에 맞게 분석하고 사양을 선정하여 드라이버 구동회로를 설계하는 역할, 로봇의 자세 및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동작 프로파일, 모션 제어 하드웨어 및 구조, 회로를 설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규격에 맞게 제작·조립 되었는지 시험·평가 합니다. 로봇 하드웨어의 안정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장 분석,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사용자를 교육하는 것도 기술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봇프로그래머 로서 로봇이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언어를 사용하여 로봇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로봇프로그램의 논리나 알고리즘을 설계하거나 프로그램을 작성하며 테스트를 하며, 좀 더 편하고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로봇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환경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전자·기계융합공학과 학생들은 선박구조물설계 및 제어, 태양광발전, 공기조화, 공정제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연구
(대학원)

대학원은 학부까지의 교과과정과는 달리 지도 교수의 조언을 받으며 스스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본 과에는 **자동제어연구실**(계산지능 이론의 개발과 제어시스템에의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 **비선형제어연구실**(비선형제어 시스템,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 유한시간 컨트롤러, 비선형 시스템의 모델링, 공정 모델링), **바이오시스템제어연구실**(인체 경/연조직의 구성방정식과 특성 파라미터 도출에 대한 기초 연구와 더불어 기존의 공학적인 원리와 방법을 생체-의학 및 그 관련분야에 적용하여 생체적합성과 안정성 및 상해치 등을 고려한 최적 설계 프로토크 및 제품 개발에 대한 응용 연구를 수행), **플라즈마응용연구실**(반도체, 플라즈마, 식각, 플라즈마 처리, 플라즈마 진단, 플라즈마 모델링,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인쇄 전자, 표면에너지 제어, TFT 디스플레이, 에너지 수확, 캔틸레버, 온도센서, 습도센서, 가스센서, 무선센서네트워크), **첨단로봇연구실**(기구학/동역학 모델링, 로봇 매니퓰레이터 분석 및 제어, 로봇/인간 grasping, 텐던 기반 & 텐세그리티 시스템, 산업 자동화 로봇 시스템,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 **정밀시스템연구실**(마이크로미터 수준을 넘어 나노미터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초정밀 생산장비, 가공기, 측정기, 정보저장기기 등의 핵심 요소인 정밀 구동시스템과 정밀 측정 시스템에 관하여 연구), **나노바이오역학연구실**(환경오염 및 질병 유발을 하는 나노 독성물질을 효과적으로 검출 할 수 있는 나노바이오기술 연구, 초기 암 진단 및 질병검진등을 위한 나노 기술등을 이용한 검출 플랫폼 개발 연구, 원자현미경을 이용한 생체분자 및 생체 조직, 나노 물질 등의 기계적 물성치측정연구), **초미세소자기술연구실**(COMSOL Multiphysics를 이용한 다양한 초미세 소자의 특성 시뮬레이션, 다공성 나노입자를 직접한 마이크로 질량 센서,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생체적합 소프트 폴리머 소자 개발), **차세대무선최적화연구실**(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신호처리 원천기술 개발 및 응용) 등이 있습니다.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전기기사, 전기기사 / 인증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기기사는 전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전기설비의 운전 및 조작, 유지보수에 관한 전문 자격제도를 실시해 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해 안전성을 높이고자 자격제도를 제정한 것입니다. 전기기사 시험은 응시 조건이 있는데요, 전기, 전자, 통신, 기계, 컴퓨터 등을 전공으로 하는 4년제 대학교에 다닌다면 4학년 부터 기사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전자기계융합공학과에서는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자회로', '계측공학', '자동제어' 등 필기 과목과 유사성이 높은 학문을 배우므로 필기 과목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전기기사 또한 전기전자공학도라면 반드시 취득해야 할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공기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NCS도입, 블라인드 채용 확대로 직무역량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공(학과) 프로그램 및 장학금

주요과목 헬퍼장학금

전자기계융합공학과는 전공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3~5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학구열이 높아지게 합니다.

교과목 프로젝트 활동 지원

전자·기계융합공학과는 과 특성상 전공과목을 배우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밍하여 직접 아이템을 만드는 팀 프로젝트들이 진행됩니다. 교과목 프로젝트 활동 지원 장학금을 신청하게 되면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재료를 일정 수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생 연구실 체협

전자·기계융합공학과는 대학원진출율도 높은 학과인데도, 학문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학부연구생 인턴쉽'을 하게 되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 장학금은 본교 CURT프로그램과의 통합 운영으로 지원됩니다.

전공멘토링 장학금

전공멘토링을 필요로 하는 해당과목의 성적이 A학점 이상일 때, 전공멘토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과목을 배우는 후배들에게 멘토로서, 이해를 돕는 활동입니다. 1학기 7회이상 활동해야하고 대회 사진 촬영으로 증명해야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학술제 우수작 장학금

전자·기계융합공학과에서 매년 '학술제'라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뽐내어 전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대회가 열리는데 이 때,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되면 학과에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교내외 공모전&학술제 참여학생에 대한 재료비 지원

전자·기계융합공학과에서는 매년 '학술제'라는 교내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학생들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직접 아이템을 제작하게 되는데, 이때 소자비라던지,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한 재료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장학금을 신청하면 사용한 재료비에 대해 일정 수준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공 멘토링 활동 장학금

전공과목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이 해당 전공과목에서 다른 학생들의 공부를 도와주고 받게 되는 장학금입니다.

토익스피킹, 오픽 응시료 일부 지원

오늘날 많은 기업에서 글로벌 인재를 필요로 함에 따라 영어 스피킹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전자기계융합공학과에서는 필수로 수강하는 기전세미나 학생들에게 토익스피킹, 오픽 점수 확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기전세미나수강생들을 우선적으로 1인 1회 지원됩니다.

학생자치활동

다가치

전자기계융합공학과 학술 소모임인 다가치(KUCIRA)는 1991년 3월 3일 학업 및 연구 개발 실력 증진을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열정이 있는 학우들이 모여 서로 힘을 합하여 교육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가치의 주요 활동내용은 정기적으로 1학년 신입생 대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 비정기적 활동으로는 주로 전국 마우스 대회에 개최 및 참가를 많이 하였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대회 참가 및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개인 및 팀의 실력 향상을 위해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 과에서 열리는 학술제에 참여하여 교수님들 앞에서 1년 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발표합니다.

학생회

새내기배움터, 졸업식, 스승의날, 체육대회, 고연전 등 다양한 연례행사뿐만 아니라 E-Sports, 간식행사, 공동구매 등 학우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하고 제공하는 전자·기계융합공학과 학생자치기구입니다.

Episode

에피소드(episode)는 고려대학교 전자·기계융합공학과 Group Sound 소모임으로써 정기공연, 대중제, OT(Orientation) 등에서 공연을 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 이외에도 엠티, 개강총회, 활발한 친목활동을 통해 동기들, 선후배와의 두터운 친분을 쌓을 수 있습니다. 공연 팀은 보컬(Vocal), 기타(Guitar), 베이스기타(Bass Guitar), 드럼(Drum), 키보드(Keyboard)로 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 본인의 특기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악기를 처음 접하더라도, 과가 다르더라도, 누구든 환영합니다. 저희는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음악을 자유롭게 즐기고 있으며, 잘하기 보다는 항상 열심히 하는 소모임이 되려고 합니다.

JNJ

전자·기계융합공학과와 농구 소모임인 JNJ(지랄&제계)는 04학번 선배님들과 05학번 선배님들이 농구를 좋아하는 과 사람들을 위해 2005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소모임이 만들어진 이래로 JNJ는 매년 과기대 컵 KUBA 컵 등에 참가하고 있으며 06년도에는 과기대 컵 준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매주 정기적인 JNJ활동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며 농구를 즐기고 있으며,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JNJ 참여하여 농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C.I.S

전자기계융합공학과 소속의 축구동아리로 축구를 통해 학번의 벽을 넘어 선후배간의 우애를 돈독히 다지는 소모임입니다. 전자·기계융합공학과 특유의 정이 있는 소모임이며 축구를 좋아하는 '전기용'이라면 남녀를 불문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타과 동아리와 경기를 치르고 있으며 교내 축구대회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2019년도에는 과학기술대학 컵에서 준우승을 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선배 vs 후배 같은 자체 경기도 진행하면서 선후배간의 친목도모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미리보는 전자기계융합공학과

저희 전자·기계융합공학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컴퓨터언어인 c,c++를 예습해보거나 과 물리, 수학을 복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c언어,c++은 '전공관련교양'이라고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저희 과에서 꼭 들어야하는 과목인데, 어떤 내용인지 훑어보시고 자신의 흥미, 적성에 맞는지 확인해보신다면 실제로 배우게 될 때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학, 물리의 복습 같은 경우에는 저희학과에서 앞으로 배울 내용들에 기초가 되는 과목들로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오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천 도서] '윤성우의 열혈 c 프로그래밍', '윤성우의 열혈 c++ 프로그래밍(저자:윤성우)'

전자·기계융합공학과 학생들이 실제로 c, c++을 배울 때 많이 참고하는 도서입니다. 그만큼 c,c++에 대한 개념설명도 잘 되었고, 책을 구매하시면 12개월간 무료강의가 제공됩니다. 또한, 이 책을 보실 때 단순히 개념을 읽어 익히기보다는 같이 있는 연습문제들을 풀어보시면 c, c++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A

Q. 전자·기계융합공학과 여자 정말 없나요?

A. 여느 공대가 그러하듯이,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학우가 남학우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최근 3년의 경우에, 남녀비율은 18년도에는 전체 75명중, 여학우 5명으로 남녀비율은 15:1, 19년도에는 전체 75명중, 여학우가 15명으로 남녀비율이 5:1이며, 20년도에는 전체 76명중, 여학우가 6명으로 남녀비율이 13:1입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한 다른 과와의 교류의 기회는 많이 주어지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Q. 공대는 공부양이 원래 많다고 알고 있는데, 유독 이 학과는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나요?

A. 저희 학과가 전기전자, 기계, 컴퓨터 분야를 융합한 학과이다 보니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소화해야할 학습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자·기계융합공학과'의 희소성은 확실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면 다양한 공학 역량을 획득해 뛰어난 엔지니어로 성장한 본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전자공학, 기계공학 둘 다 배우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요즘 학문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융합된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전자·기계융합공학과에서는 전자, 기계 둘 다 가르치며 두 분야를 잘 어우러지게 할 방법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전자공학과 기계공학을 따로따로 배우기도하고, 융합해서 다루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접했을 때 열린 시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두가지를 모두 배우는 만큼 역량을 살려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넓어질 것입니다.

Q. 고3때 배웠던 물리, 수학 복습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네. 이것은 필수는 아니고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물리, 수학은 저희 과에서는 기반이 되는 과목으로, 실제로 1학년 때 미적분학및연습, 일반물리학및연습 등의 과목을 배우며 물리, 수학에 대한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그러니 미리 복습을 해서 오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겠죠?

고려대학교 전자·기계융합공학과 입학을 준비하려는 예비 후배님들께

임익균 / 08학번 /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S/W 프로그래머

- 국회주관 "오픈소스플랫폼융합" 토론 및 전시회 대상
- 제13회 지능형 창작로봇 경연대회 대상
- 제16회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 우수상

안녕하세요. 저는 제어계측공학과(現 전자·기계융합공학과) 08학번 임익균 입니다. 어려서부터 조립이나 뭔가 만드는 것을 좋아했고 그 스타일을 살려 제어계측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다양한 분야의 전공 수업과 '다가치' 소모임 활동을 통해 저의 적성을 찾게 되었고 15년도에 졸업하여 현재는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의 S/W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설비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설비는 수많은 로봇과 장치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설비를 원활하게 동작시키기 위해선 복잡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설비를 잘 동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 학과시간에 배운 회로, 로봇, 제어 등 많은 이론들이 설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대 전자·기계융합공학과는 특성상 전자, 기계의 이론은 물론이고 로봇과 제어에 관한 전공수업을 모두 들을 수 있으며 이론뿐만 아니라 많은 실험과목을 통해 이론을 직접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런 커리큘럼은 저에게 로봇의 설계부터 제어까지 하나의 로봇을 완성하는 큰 그림을 그리게 해주었고 '다가치' 라는 학과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선배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로봇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이때 만든 작품이 삼성소프트웨어 멤버쉽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었고 제가 지금 이 회사를 다닐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저희 학과에서 배운 전공지식과 조금의 노력만 있다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를 다니며 배운 지식과 동아리 활동을 하며 했던 많은 경험은 지금도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이 힘으로 앞으로 회사생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혁 / 12학번 / 한국전력기술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기계융합공학과(舊 제어계측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전력기술에 재직중인 양준혁입니다. 우선, 전자·기계융합공학과에 대해서 생소한 후배님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교 공대에는 많은 학과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학과로는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공학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전자·기계융합공학과는 문자 그대로 이 두 학과와 추가로 컴퓨터공학이 합쳐진 학과입니다.

다른 학과에서 4년 동안 배우는 전공을 3개나 배운다면 깊이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후배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가 전공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사회로 나가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 전공을 수강하는 것이 자신의 진로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여러 전공을 배우으로써, 제어계측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고 현재 계측직무로서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기들은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자신들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직무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기계융합공학과는 전공과목과 함께 실험과목을 통해 이론을 통해 배운 내용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하는 커리큘럼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센서를 통해 읽은 데이터를 통해 원하는 퍼포먼스를 출력하는 자동제어, 소자를 이용해 회로를 구성하여 전기적인 신호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하는 전자회로와 같은 전공과목을 통해 정확한 지식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 진학을 위해 고민하는 모든 후배님들 중, 공학계열을 선택하여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앞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전자·기계융합공학을 통해 진로를 설정하고 나아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형 / 18학번 / 18학번 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전자·기계융합공학과에 재학중인 18학번 대표 이준형 학생입니다. 전자와 기계과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교에 있는 과입니다. 하지만 전자·기계융합공학과는 전자와 기계 두 개를 동시에 배워 최근 경계가 모호해진 산업에 적합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융합적인 학문을 배우면서 나는 어느 분야의 학문을 좀 더 배우고 싶고, 갈망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로에 대한 깊은 탐구,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융합이 쉬운 이유는 전자/기계공학이 기본적으로 산업기술에서 밑바탕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배우고 동역학과 함께 조합하면 메카트로닉스라는 로봇 학문이 탄생하고, 재료역학에서 재료를 조합하면 신소재 학문과 엮일 수 있듯이, 전자/기계공학의 과목 하나 하나는 다른 학문과도 충분히 융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기계융합공학을 기본적으로 전공하면 다른 분야와의 조합을 통해 융합형 공학도로 성장하기가 더욱 더 용이하고, 넓은 분야에서 활약 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유리합니다.

전자·기계융합공학과는 지식과 공동체의 열정이 넘치는, 나의 꿈을 향하여 하루하루 발전하는 나를 만들어 갈 계단이 되어 줄 것입니다. 저희 과 학생들은 최고 수준의 교수님들의 높은 수준의 교육과 지도를 바탕으로 항상 치열하게 공부하고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미래 융복합적 인재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전자·기계융합공학과에 오신 후배님들께 빛나는 미래가 펼쳐질 것을 확신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특별취재

황동하 학과장 교수님 인터뷰

Q1. 전자기계융합공학과를 소개해주세요!

전자기계융합공학과는 우리나라 국가기반 제조 산업의 기반인 전기·전자, 기계, 컴퓨터 분야를 융합하여 지역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배출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고전적 학문 경계가 모호해지며 이를 융합한 학문과 산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자동차 산업입니다. 불과 수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는 기계 산업으로 분류되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 자동차를 목표로 자동차에서 전자장치의 가치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등의 하드웨어뿐 아니라 IoT, 인공지능 등의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융합된 산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자기계융합공학과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를 복합적으로 공부하며 두 분야를 잘 어우러지게 할 방법을 탐구합니다.

Q2. '전자기계융합공학과'만의 장점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전자기계융합 공학의 응용 범위는 우리나라 국가기반 제조 산업을 대부분 아우르며, 미래유망산업인 지능형 로봇/커넥티드 자동차, 3D 프린팅/첨단제조, 스마트 ICT/AI, IoT 센서/모바일 테크놀로지 분야를 포함합니다. '대학 전공별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전기/전자와 기계/금속 분야는 전공자보다 일자리가 더 많은 직업군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주요한 분야입니다. 국내 200여개 4년제 대학 중에서 전자 및 기계공학의 융합학문을 표방하는 학과는 극소수이며, 이러한 희소성으로 우리 학과의 졸업생을 원하는 산업수요는 매우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학과 교수진은 전공별로 전기전자공학 4명, 기계공학 5명, 제어계측공학 1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들의 주 전공 분야는 융합교육에 맞도록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 센서 및 초소형 시스템, 스마트자동차, 바이오 시스템, 지능 시스템 등을 고루 포함하는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Q3. 우리 전자기계융합공학과에 기대되는 성과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국고용정보원 전망에 따르면 2015~2025년 전기·전자 및 기계·금속 분야 인력수요는 14만여 명에 이릅니다. 사회적 여건에도 큰 변화가 있어서 정부는 2018년 7월 세종시를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로 선정하고 7000억 투입 계획을 하였으며 세종시는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의 특화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전자기계융합 분야의 수요는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학과는 전자기계 융합 공학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국제적 수준의 교육 역량을 갖추고, 지역 산업 분야와 연계된 현장실무역량을 갖춘 우수인재 배출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선순환을 형성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를 통해서 여러분은 산업과 학문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첨단 산업 고급 전문가로서 발전할 것입니다.

Q4. 우리 학과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 전망은 어떤가요?

우리학과를 졸업한 후 진출 가능한 분야는 IT산업, 자동차, 국방, 로봇, 중공업-엔지니어링, 통신-계측 분야의 R&D 및 공공 기관 엔지니어 및 대학 등 연구기관의 제어계측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분야의 교수 및 연구원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진로지도의 1차 목표를 체계적인 전공지식과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으로 삼고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공 지식의 내실화와 종합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매년 교육과정의 점진 개선을 통하여 교육의 성과와 수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학생 1인이 수강해야하는 필수 실험실습과목을 8과목으로 지정하여 실험실습을 통해 실무능력을 내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이론과 실기가 잘 융합된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하는데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 학년 모든 학생들에 대해 지도교수를 지정하고 매학기 최소 1회 이상의 개별 진로 상담뿐 아니라 졸업 전 세 학기 동안의 필수 교과목인 기전공학세미나 과목을 통한 진로 지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결과에서도 우리 학과는 지속적으로 평균 80%대의 높은 취업 성과를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Q5. 지금 현재 고등학생인 저희가 어떤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을까요?

시험과 진로 고민으로 수험생 여러분의 걱정이 많을 줄 압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대학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앞날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자신감과 패기를 가지고, 수학과 물리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우리 학과에서의 멋진 미래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졸업할 때는 커다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겁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Q6. 지금까지 하셨던 연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는 무엇인가요?

저의 연구 분야는 초미세소자개발입니다. 학부 4학년 때 학부 연구생이라는 기회를 통해 처음으로 '진짜' 연구라는 것을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아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콤 액추에이터(comb actuator)가 제가 인가하는 전압 신호에 따라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실제로 관찰했을 때의 경이로운 느낌이 기억에 납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한 그 환희는 책에서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살아있는 연구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간 친화적 소프트 로보틱스(soft robotics)를 실현하기 위한 초미세 액추에이터와 이를 이용한 로봇 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패기 넘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연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시스템공학과

"거론"이 아닌,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학과
국제적인 공학도를 양성하는 "환경시스템공학과"

학과소개

수많은 생명체

중 사람은 살면서 반드시 물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인류는 생존을 위해 수자원 확보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콜레라'라는 질병을 들어보셨나요? 한때, 인도 전역에 큰 공포와 혼란을 주었던 전염병입니다. 하지만 전염경로가 오염된 물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한순간에 위험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고, 이는 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더욱 발전한 세계는 물 부족 현상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오염된 물을 해결하여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처리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스템공학과는 환경공학에서 주요하게 다루지는 대상인 물, 토양, 대기 중에서도 물 환경(water environment) 관련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 1990년에 설립된 학과입니다. 환경시스템공학과의 교육은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화학, 물리, 생명과학에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토대로 학과 특성화 교육비전에 맞는 'AQUA 교육'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AQUA' 교육이란 물 특성화 학과를 강조함과 동시에 학과의 교육과정을 Availability(물 가용성), Quality(수질적합성), Utility(물 산업 서비스), Adaptability(미래 대응 적응성)로 세분화하여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각 항목은 유체역학(Availability), 수질환경화학(Quality), 하폐수처리(Q), 토양 및 지하수 복원(Q), 정수 처리(Utility), 대기(Adaptability)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분야 학문을 배우고 캡스톤디자인으로 직접 설계해보는 적용 과정까지 거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험 과목들을 수강하며 2019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쾌적한 실험실에서 직접 실험을 해봄으로써 전공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환경시스템공학과는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산업계 관점 최우수 학과로 지정되었으며 이외에도 전공 관련 기관에서 실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실습 인턴십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스템공학과는 2016년 기준으로 과학기술대학 취업률 1위로 선정됐으며 2015년 취업률 78.9%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82.8%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특색있는 AQUA 커리큘럼은 학생들을 국제적인 인재양성에 일조하고 있으며 나머지 몫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렸습니다. 환경시스템공학과는 여러분과 같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서부터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그 끝까지 같이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교육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수질관리및연습 하폐수처리시스템캡스톤디자인
			구조역학및연습	폐기물처리시스템
Availability (물 가용성) 지표수, 지하수, 해수 등 지속가능한 용수 관련 분야	일반생물학1,2 일반화학및연습1,2	환경유체역학및연습 응용역학및연습	환경수문및통계 하천수리및지하수공학 유역관리 I	캡스톤디자인 정수시스템 캡스톤디자인 유역관리 II 지반환경오염복원 캡스톤디자인
Quality (수질적합성) 상수, 하폐수, 수생태계 등을 포함한 물환경시스템 수질 관리 분야	환경공학개론	환경미생물학및실험 수질환경화학 도시폐기물처리공학 처리공학및연습 하폐수처리공학 유해미생물폐기물처리공학 수질환경화학실험 환경공정실험 환경생물공학	생물지구화학 슬러지처리및연습 고도처리공학 지하수오염및복원 토양오염및복원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Utility (물산업서비스) 상수도, 관망/관거, 용수의 안전 하고 편리한 공급서비스 분야		정수처리공학 상하수도계획및연습		철근콘크리트공학
Adaptability (미래대응 적응성) 기후변화, 물-에너지 넥서스 등 물안보 관련 적응 분야		환경공학입문설계 대기오염	대기오염방지공학 폐기물자원화 환경에너지공학	환경수자원 캡스톤디자인 환경생태및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현장실습 및 인턴십

환경시스템공학과는 현장실습 및 인턴십(실습학기)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인턴십은 전공 관련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적응력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이며, 향후 협약체결 기업 확대를 통해 학생 참여를 더욱 독려하고자 합니다. 학생 비율은 3년 평균 6.0%이며, 전공학점 인정 및 다양한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설계 · 시공	건설사	자연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가발전의 토대를 세우는 것을 주 목적으로 토목·건축 사업 등을 기획, 설계, 시공,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설계사	환경 배출업소의 오염물질 측정분석 및 점검, 관리, 환경설비의 설계·시공을 하며 환경영향평가 대행 등 환경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사	공사 · 공단	환경시스템공학과는 물 산업을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주로 물 분야 공사, 공단에 진출을 많이 합니다. 광역상수도 시설의 건설·관리처럼 시설운영 업무와 환경정책 지원업무, 처리 시설설치 업무 등이 있습니다. 진출 가능한 대표적 공사·공단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입니다. 물론, 수질 외 기사자격증을 취득하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진출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공무원	졸업생들 중 9급, 7급 환경직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주로 환경 문제를 관리, 감독을 하며 세부적으로는 관할 지역 청소관리 및 수질관리와 대기가스 배출신고 업무 등을 하게 됩니다. 선발과정은 1차 필기, 2차 서류, 3차 면접을 통해 진행되며, 7급 시험과목 수가 2개 더 많고 경쟁률 또한 높습니다.
연구원		지역 관청 산하기관 소속의 공공분야 연구원과 기업체 연구원으로 진출이 가능하며, 자원이용/환경문제들을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해결책을 제시함을 목표로 두고 고효율 기술 개발을 연구합니다. 연구직은 석사 또는 박사 학위가 최소요건이며 다소 높은 개인역량(외국어, 전문능력, 대외활동 등)이 요구되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으로 진출합니다.
교수		학부 졸업 후 대학원 석 · 박사 혹은 해외 유학 등을 통해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추어 국내외 유수의 대학(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등)에 전임교수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수질환경기사 /인증기관: 산업인력공단

수질환경기사는 수질오염 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계하고, 시공, 감리하며,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는 시험입니다. 활용 범위로는 관련 기업 혹은 환경직 공무원으로 진출할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사 /인증기관: 산업인력공단

대기환경기사는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계, 시공, 감리하며,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취득 방법과 활용 범위는 수질환경기사와 동일합니다.

토양환경기사 /인증기관: 산업인력공단

토양환경기사는 토양오염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험, 분석하고 중금속 및 기름 등의 오염분포도를 파악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취득 방법과 활용 범위는 수질환경기사와 동일합니다.

학과(전공) 프로그램 및 장학금

교육활동현장견학

전공 과목 특성에 맞게 수업으로 배우기에 한계가 있는 공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수도권 매립지, 하수처리장, 발전소 등 매해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기업탐방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느낄 수 있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외부강사초청세미나

다양한 분야의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고학년의 경우 NCS 채용 프로세스 이해와 취업 준비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전담 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합니다.

환경공학현장인턴십

학과와 협약을 맺은 여러 기관에서 실습을 통해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적응력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이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며 차후 진로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튜터링장학금

해당 과목 성적이 A이상인 학생들 중, 담당교수의 추천을 받아 전공 학습도우미 역할을 우수하게 수행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기사취득장학금

전공 관련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공모전장학금

대내·외 공모전(환경 관련 포스터·UCC 제작, 설계 등) 참여하여 수상한 학생(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캡스톤디자인장학금

캡스톤디자인과목 수강생이 공모전형태로 설계한 후 산업체 경력을 가진 교수님께서 평가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역봉사장학금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에 시간과 재능을 제공하여 사회공익에 기여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학생자치활동

AWWA

AWWA는 환경시스템공학과 학생과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내 젊은 기술자(Young Professional, 이하 YP)들과의 교류를 통해 리더십을 배양하고, 학과 프로모션 및 논문 작성 등 글로벌 역량을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AWWA와의 교류 프로그램은 현재 학과 교수님 지도하에서 소수 인원(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으로는 해외에 있는 YP와 지속적인 웹 세미나를 통해 세계의 이슈에 대해서 정보 교류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목표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남권 중, 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공학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아우르는 자료집을 만들고 인근 학교와 협업하여 방문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뚜렷한 만큼 소수인원인 규모를 넓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20년 2학기부터 소모임 형식으로 인원을 늘려 운영할 예정입니다.

리퍼스

리퍼스는 축구소모임이며 축구하는 스포츠에 대한 자신감이 없더라도 학우들과 연습경기를 통해 개인의 자기개발을 높이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소모임 내 연습경기 말고도 단과대학에서 진행하는 축구대회에 참여하여 타과 학우들과 경기를 할 수 있으며, 노력한 만큼의 성과도 있습니다.

스크린

농구소모임인 스크린은 경기 시작 전 필수적으로 연습을 진행합니다. 훈련을 통해 서로 간의 농구실력을 향상시키고 타과의 경기에서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구를 잘 모르던 학우들도 갖추어 놓은 시스템에서 실력을 갈고 닦으며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HRT

HRT는 야구를 같이 즐기고 훈련하는 야구소모임입니다. 야구라는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직접 즐기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HRT는 야구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연습하고 타과와 경기도 진행하였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미리보는 환경시스템공학과

환경오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과학기술자들의 노력, 환경오염 실태 등 환경 '현황'을 알 수 있는 도서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환경시스템공학과는 일반 실험(물리, 화학, 생명과학)과 전공 실험(환경미생물학실험, 생물공정실험)이 많은 만큼 실험정신, 그리고 꾸준히 탐구하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험 동아리에서 안전 수칙이나 실험기구 사용법 등을 익혀 기초적인 지식과 소양 다지는 것은 물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실험을 해본다면 환경 공학도로서 필요한 끈기와 인내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며 실험 분위기에만 익숙해져도 대학교 실험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본격적인 실험 수업의 기반을 갖추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추천 도서]

1.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들, 저자: 이경선

그 나라의 문화와 환경 등을 고려한 기술을 만들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적정기술'을 제시합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수질 문제와 구강위생 문제도 주의 깊게 다루며, 해당 나라의 현지 문화교류·지속가능성의 중요성도 깨닫게 해줍니다.

2. 침묵의 봄, 저자: 레이철 카슨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으로 생태계 파괴를 고발하는 자각적인 책임입니다. 오염물질의 폭넓은 경로와 미치는 영향을 심각히 다루며, 인간과 자연환경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고의 출발점을 제시합니다.

Q&A

Q. 환경시스템공학과를 입학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무엇인가요?

A. 대부분의 학생들은 환경공학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과학 교과목 중 지구과학이 가장 가까우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입학하고 공부를 하면 주로 미생물과 화학반응을 배우기 때문에 지구과학보다는 화학과 생물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만의 특별한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여타 다른 환경공학과와는 달리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는 큰 범위의 환경을 모두 다루기보다는 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과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어떠한 대학교보다 조금 더 세밀하고 방향성이 뚜렷하며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America water works association'과 협약을 맺어 세계 곳곳에 있는 전문가와 학생들과 교류를 맺을 수 있으며 현재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2020년 2학기부터 지원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Q. 졸업 후 진로는 물 분야에만 치중되어 있나요?

A. 학과 소개 글을 보시면 주요하게 다루지는 대상이 물 환경(Water Environment)이지만 토양, 대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학문도 병행하여 배웁니다. 관련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물 환경 외 분야에 진출하는 졸업생도 많습니다.

Q. 커리큘럼을 보면 영어로 수업하는 과목이 많은데 영어가 많이 중요하나요?

A. 대학교 수업 시간에 영어로 수업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환경시스템공학과도 영어로 된 원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영어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기 때문에 영어 실력 향상은 물론, 본격적으로 전공을 배우는 시기는 2학년이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천천히 준비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를 준비하는 후배님들께.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는 나와 내 가족이, 더 나아가 우리의 후손들이 미래의 쾌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을 쌓아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최고의 지식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교수님들로부터 넘치는 열정과 애정으로 교육을 받고 학생들은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가며 최고의 환경 공학도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는 선, 후배간의 끊임없는 교류와 행사가 이루어지며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목적한바, 이루고자 하는 이상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저희는 환경시스템공학과에 오실 후배님들의 의지와 열정이 좀 더 빛나는 미래를 만들 것이며 우리 삶을 한층 더 밝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환경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성호연(16학번)

취재기자단: 문준하, 이예진

미래모빌리티학과

이동수단을 넘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할 미래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

학과 소개

고려대학교 미래모빌리티학과는 **4차 산업혁명** 과 **뉴노멀 시대** 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세계적인 기술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래모빌리티학과는 인공지능/빅데이터/IoT센서/통신/전자/로봇/기계 등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원천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롭게 탄생되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배움터가 될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이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분야도 기존 내연기관 기술을 넘어 지능형 스마트카, 하이브리드카,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차, 자율주행자동차, 모빌리티 서비스플랫폼과 같은 미래형 자동차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차세대 이동 수단과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모빌리티학과는 세계적으로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특정 대기업이 독점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블루 오션인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스마트 분야를 세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것입니다.

교육목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미래모빌리티학과는 우리나라의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이끌 인재로서 체계적인 미래모빌리티관련 이론 교육을 수행할 뿐 아니라 실무적인 역량을 겸비하기 위해 1학년 2학기 부터 매학기 Project 기반의 교육을 수행하는 것으로 미래모빌리티 산업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는 창의력과 경쟁력을 갖춘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역량	컴퓨팅사고및파이썬 기초 미적분학 및 연습	확률통계 행렬 및 벡터 일반 미적분학 및 연습 인공지능개론 빅데이터개론	딥러닝 데이터분석 영상처리	모빌리티시뮬레이션
ICT 기술개발 역량	컴퓨터언어 I 컴퓨터언어 II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자료구조 Linux시스템및실습 IoT개론 공학수학 통신및네트워크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컴퓨팅	ICT응용기술 IoT보안 디지털트윈개론
첨단 모빌리티 개발역량	미래자동차개론 일반물리학및연습 I 일반물리학및연습 II	기초역학 전기회로 임베디드시스템 로봇제어	자동차센서 로봇공학 모터제어 차량네트워크 스마트자동차공학	차량운동학
신기술 문제의 자율해결 역량	IoT기초 PBL I (라즈베리파이기초)	IoT기초 PBL II (로봇 센서 심화) 로봇설계/주행 PBL	자율주행차 플랫폼 기반 AI 및 IoT융합 PBL 차량네트워크기반 모터제어PBL	정밀지도기반자율주행PBL 모빌리티운행데이터분석PBL

졸업 후 진로

미래모빌리티학과를 졸업한 후에는 자동차, IT, 로봇 등 관련 분야 기업으로 진출하거나, 국내외 대학원 진학, 벤처기업 창업, 국가연구소 전문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기업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만도, Continental, 유라코퍼레이션 등
IT기업	Google, NAVER, SK텔레콤, KT, 삼성전자, kakao mobility 등
인공지능SW기업	NAVER LABS, NAVER Clova, kakaobrain, NC Soft, TmaxSoft 등
로봇기업	한화테크윈,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YUJIN ROBOT, ROBOTIS 등
국가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지능형반도체공학과

"국내 최초 인공지능 반도체(AI Semiconductor) 개발 인력 양성 학과"

학과소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에 의해 새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즉, 인간과 동일하거나 훨씬 뛰어난 수준의 지능을 가지면서도 24시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로봇이 등장함으로써, 2000년대 모바일 혁명에 이은 AI 혁명이 일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생산력이 증대되고, 인간과 컴퓨터가 감정 소통하며, 윤택한 생활이 가능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원천으로서, 전 산업의 지능화를 통해 차별화된 부가 가치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회를 이끌어 갈 것 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컴퓨터의 제작에는 중앙처리장치 (CPU), 메모리 (Memory) 등의 기존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인지능력의 비약적 향상, 계산처리 능력의 효율화, 정보 활용의 고신뢰성을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인공지능반도체 (AI Semiconductor)가 요구됩니다. 인공지능반도체는 고도의 지능 컴퓨팅(Intelligent Computing)을 실현하는 반도체 기술로서, 전세계 반도체 업계는 정보통신 시대를 넘어서 인공지능 컴퓨팅을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시대로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시기를 맞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별, 글로벌 기업별로 혁신적 반도체인 차세대 인공지능반도체의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차세대 인공지능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1조원을 투자하는 국정사업을 시작하였고 삼성전자는 2019년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인공지능반도체의 일종인 신경망처리장치 (Neural Processing Unit: NPU) 칩 개발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연구인력을 현재의 10배 이상인 2000여명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반도체 개발에 특화된 인력을 양성하고자 2021년 3월 지능형반도체공학과 (Department of AI Semiconductor Engineering)를 국내 최초로 개설합니다. 지능형반도체공학과에서는 기존 시스템반도체 및 메모리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과목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개론', '인공신경망과딥러닝' 등의 소프트웨어 과목,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컴퓨팅을 위한 '인공지능시스템설계' 등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구현에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론강의뿐만 아니라 실험/실습 과목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중심 수업**, 기업체 인턴쉽 등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현장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적/융합적/실용적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교육목표

지능형반도체공학과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특화된 역량을 가진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물리학, 화학, 인지과학, 뇌공학, 통계학 등 다양한 학제간 융합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또한 실험/실습, 프로젝트 중심 수업, 기업체 인턴쉽 등의 실무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창의적/융합적/실용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창의적 역량

디지털 컴퓨팅(Digital Computing) 시대에서 인지 컴퓨팅(Cognitive Computing)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창의적 역량을 가진 인재

융합적 역량

기존의 전자공학, 물리학, 생물학 등의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적 역량을 이끌어 갈 융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

실용적 역량

디지털 컴퓨팅(Digital Computing) 시대에서 인지 컴퓨팅(Cognitive Computing)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창의적 역량을 가진 인재

전공 기초 교과목 (2학년~3학년 1학기) 전공기초를 통한 지능형반도체공학 입문	- 인공지능개론 - AI시스템설계 - 전기회로1, 2	- 전기회로실험 - 디지털시스템 - 디지털시스템실험	- 반도체소자공학1,2 - 전자기학1,2 - 데이터구조	- 공업수학 - 이산수학 - 신호및시스템1
	지능형반도체시스템	- 신호및시스템 - 임베디드시스템 - 마이크로프로세서1,2 - 디지털영상처리 - 확률과통계 - 운영체제	- 집적회로1,2 - 강화학습 - 인공지능신경망과딥러닝 - 현대암호 - HW보안 - 사이버법과정책	- 산업보안 - 인공지능보안시스템개발 - 지능형반도체산업의이해
	지능형반도체설계	- 신호및시스템 - 임베디드시스템 - 마이크로프로세서1 - 확률과통계 - 집적회로1,2	- 강화학습 - 인공지능신경망과딥러닝 - 현대암호 - HW보안 - 사이버법과정책	- 산업보안 - 인공지능보안시스템개발 - 지능형반도체산업의이해
	지능형반도체소자-공정	- 반도체공정 - 반도체공정실습 - 센서소재,소자및실험 - 유기물반도체소자 - 광소자 - 나노전자공학	- 전산물리학 - 강화학습 - 인공지능신경망과딥러닝 - 플라즈마물리개론1,2 - 전자재료물성 - 현대암호	- HW보안 - 산업보안 - 지능형반도체산업의이해 - 인공지능형반도체소자 - 인공지능소자개론 - 인공지능소자수치해석

졸업 후 진로

종합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파운드리(Foundry)	DB하이텍, 삼성전자 등
팹리스(Fabless)	실리콘웍스, 실리콘파일, LG전자, 현대오트론, 한국아이비엠, 제주반도체, 하나텍 등
패키지(Package) & 테스트(Test)	매그나칩, ATsemicon, 앰코테크놀로지, 큐알티, 하나마이크론 등
장비(Equipment)	ASML 코리아, 도쿄일렉트론코리아, 램서치코리아,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 세메스, 주성엔지니어링, 원익IPS, 테스 등
소재(Material)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삼성SDI, LG화학, 솔브레인, 웅진에너지, 효성화학 등

[참고] 반도체업체분류

구분	사업 특성	주요 기업
일관공정(IDM)	- 칩 설계에서 제조 및 테스트까지 일관공정체제 구축하여 직접 수행 - 메모리제조는 가장 성숙한 모델 - 기술력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 확보 - 거대투자의 고위험 고수익 형태	삼성, Intel, TI, Micron, SKHynics
설계전문 (Fabless)	- 칩의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 - 고위험의 거대 투자를 회피할 수 있으나, 위탁제조 비용 부담 필요 - 고도의 시장예측이 필요하며, 주문생산의 최소물량수준 예측 필요	Qualcomm, Broadcom, Meadia Tek
제조전문 (Foundry)	- 주문 방식에 의해 칩 생산만 전문 - 직접 칩 설계하지 않고, 설계전문업체로부터 위탁제조	TSMC, UMC, Global Foundries
패키지(Package) & 테스트(Test)	- 메모리제조는 자체적으로 조립하지만, 시스템반도체분야는 다양한 제품을 모두 패키징 할 수 없어 외부에 위탁 - 반도체 테스트는 조립업체에서 수행하지만, 검사장비가 고가이므로 다양한 칩을 모두 검사할 수 없어 테스트전문 업체에 위탁	ASE, STATS Chip PAC
IP전문 (Chipless)	- 설계기술 R&D 전문 - IDM이나 Fabless에 IP제공 - 칩 설계용 Architecture IP, Chip 생산용 Physical IP, System IP, 일반 기술 IP 등	ARM
공정 장비	- 반도체제조 장비 개발 및 생산 - 제조공정 기술개발도 주도	AMT, ASML, TEL, ULVAC

(Source: 산업연구원, 2017)

02

COLLEGE OF PHARMACY

약학대학

..... 01 약학과

Department of Pharmacy

54p



" 세계를 바꾸는 도약(藥)의 힘, 이곳에 준비되어있다! "

학과 소개

"질병이 있는 곳에 약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질병이 인류에게 주는 위압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뿐만 아니라 암과 만성질환을 비롯한 수많은 질병을 겪고 있는 인류의 역사에 약은 언제나 함께해왔습니다. 약학은 세상을 바꾸는 한 알의 약이 만들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약이 환자의 건강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약사는 국가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의 전문가이자 보건의료인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임상약료, 제약산업, 보건정책, 신약개발 등 넓은 스펙트럼에서 전문역량을 펼칠 수 있는 약학의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2011년 신설된 고려대학교 약학과는 6년제 교육과정으로 개편된 이래 세계적으로 연구중심의 약학대학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기화학, 미생물학, 물리약학, 통계학, 등 종합적으로 배우는 자연과학을 토대로 의학화학, 약물학, 약제학, 임상약료학, 약무행정, 등 약의 발굴부터 적용까지 필요한 소양을 배웁니다. 고려대학교 약학과 연구실의 체계적인 학부 인턴과정을 통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의 개발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기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암, 구로, 안산에 있는 본교의 3개 의과대학과 함께하는 병원 실습의 연계는 고려대학교 약학과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입니다. 고려대학교 약학과는 국제적 소통능력을 갖춘 글로벌리더형 인재양성을 위해 많은 교과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글로벌 장학금과 같은 학생 지원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를 바꾸는 도약(藥)의 힘이 준비가 되어있는, 이곳은 고려대학교 약학과입니다.

인재상 및 교육과정

인재상	미래를 선도하는 약과학자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약사		글로벌 소통과 협력의 리더	
핵심역량	미래기술 활용	창의적 연구	전문 직업성	환자중심 약료	관리 및 경영	소통과 협력
	과학기술 융합	과학 리더십	지속적 자기계발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약학윤리와 법규	교육과 훈련
교육과정	약학기초/전문약학 생명약학(약품생화학, 미생물학), 약물과학(약물학, 예방약학, 면역학), 산업약학(물리약학, 약품분석학, 생약학, 약품제조화학, 약제학) 약학실습, 약학연구개론 AI약물설계, 신약개발론		약학기초/전문약학 의약정보학, 임상약학		약학기초/전문약학 약사윤리, 사회약학 의약빅데이터, 약학통계 약사법규, 약과보건의료체계 약업경영, 약물경제학 창업과 기업가정신	
	실무교육 약학연구, 융합약학 심화연구약학실습 심화생명약학실습 심화약물과학실습		실무교육 의료기관임상약료실습 의료기관임상약무실습 의료기관임상약제실습 지역약국약료실습 지역약국약무실습 제약생산실습 제약관리실습 약무행정실습 심화임상약학실습		실무교육 심화사회약학실습 약학캡스톤디자인	

실습교육

전국 약학대학은 약사의 직무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6년제로 개편되면서 실습 교육이 도입되었습니다. 고려대 약학과 또한 1년 간 실습을 통해 약사의 직능을 몸소 배우고,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학교마다 시작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5학년 2학기 ~ 6학년 1학기를 맞이하는 모든 고려대학교 약대생이라면 반드시 실습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실을 다져야합니다. 매 실습 시작 전, 실습기관목록이 공지되면 학생들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3지망까지 지원하고 교수님은 학생평가와 기관의 특성, 학생의 선호도를 반영해 실습기관을 배정합니다.

5학년 2학기는 필수 실무실습 기간입니다. 제약공장과 지역약국,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이론교육과 연계된 실제 약사의 업무를 배우고 약사로서 기본 태도와 소양을 기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정제를 타정할 때 결합제의 양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데, 실제로 제약공장에서 결합제가 과다하거나 너무 적으면 정제가 깨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약사의 필수 덕목 중 하나입니다. 약국에서 베테랑 약사님의 지도 아래에 직접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면서 이를 몸소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처방 약과 OTC 약물, 의약품까지 다루면서 무수히 많은 약을 배우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내린 처방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입원환자에게 제대로 투여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약물 중재과정에 직접 참여도 하며 정말로 약이 간절하거나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를 위한 약사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6학년 1학기는 심화 실습 기간입니다. 대학원, 제약회사, 제약공장, 대학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 다양한 실습기관 중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의 필드에 참여함으로써 졸업 후 어떤 분야로 진출할지 내실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졸업 후 병원의 약제부에 일하고 싶은 학생은 한 학기 동안 대학병원에서 실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평소에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학생은 회사의 마케팅부서로 인턴ships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무와 노하우를 배우기도 합니다.

졸업 후 진로

대학원	대학원	학부 과정을 마치고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 세부 전공을 선택하여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를 선택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임상약사	병원약사	병원 내의 의약품 관리, 처방 검토 및 조제, 투약, 복약지도, 의약품 정보제공, 임상시험연구, 팀의료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합니다.
	지역약국약사	약국을 개국하여 개국약사(약국장)로서 약국을 운영,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리약사로서 처방전 검토 및 조제, 투약, 복약지도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약사	제약회사	영업, 마케팅, 개발, 허가, R&D, 의약품 품질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지역 주민의 질병을 예방, 관리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바이오, 의료기기 및 임상시험 대한 허가 및 심사와 사후 품질관리를 합니다.
공직약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새로운 약제에 대한 보험등재, 급여기준 설정, 비급여 약제 사용 승인 등에 대한 검토 및 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약품 관련 제도 운영 및 관리, 약제비 분석 및 모니터링, 약가 협상, 약가 사후 관리, 요양급여비용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 합니다.
기타	변리사, 법조인	졸업 후 약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변리사, 법조인 등 다른 분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약사면허 / 인증기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국시원)

약사 국가시험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으면 약사법에 의해 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직능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해 약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생명약학, 산업약학,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관계법규, 총 4과목을 응시해 합격기준을 충족하면 면허가 발급됩니다.

전공(학과) 프로그램 및 장학금

약학대학 글로벌 장학금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인 “미래를 선도하는 약과학자,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약사, 글로벌 소통과 협력의 리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 스스로의 학업/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자기설계 지원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이 탐구하고 싶은 약학 분야와 해외 연수 국가를 직접 선택하여 계획서를 작성해 공모에 참여하면, 연간 1개 팀을 선정하여 팀당 약 200만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연구 분야, 연구 기관, 연수 국가 등 모든 사항들을 학생들이 직접 계획하고 컨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에 맞게 탄력적으로 장학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선배의 후기]

저는 개발도상국의 의료시스템, 국제 약학대학생 교류에 관심이 많아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열리는 국제약학대학생 세계총회에 참가했습니다. 르완다에서 근무하시는 국제 봉사단체와 의료진들과의 인터뷰도 진행하며, 의료 체계가 국가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발전하는지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 능동적으로 조사하고, 현지에 가볼 수 있다는 것이 글로벌 장학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8기 송지원

약학대학 연구실 학부생 인턴 프로그램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은 학부생 인턴십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약학대학 중 하나입니다. 신약개발부터, 임상약학, 사회약학까지 약학 전반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교수님께 지원하면 방학 기간 동안 연구실에서 학부생 인턴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과의 면담으로 진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평가하여 학부생 인턴으로 선발되며, 선발인원은 각 연구실마다 3~4명 정도입니다. 방학기간 동안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별도의 거주 지원은 없지만, 학부생 인턴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약과학자 육성장학금”을 신청하면 월 30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수님들께서 진행하시는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지식, 실무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선배의 후기]

평소에 유기합성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한번의 인턴으로 아쉬움이 커 여러 번 의약화학 연구실 인턴생활을 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어가며 약리 활성이 있는 후보물질을 만들었을 때에는 엄청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부생 인턴을 하면서 힘든점도 많았지만 대학원 선배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맛집도 많이 다닐 수 있었고, MT도 가면서 재밌는 추억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대학원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7기 한재진

학생자치활동

학생회

새내기배움터, 졸업식, 스승의날, 체육대회, 고연전 등 다양한 연례행사뿐만 아니라 E-Sports, 간식행사, 공동구매 등 학우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제공하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학생자치기구입니다.

비상

교수님, 졸업하신 선배님, 또는 다양한 업계에 계시는 분들의 취재부터 촬영, 교열, 디자인까지 체계화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지편집부입니다.

고고파

전인지 골프선수의 후원을 받아 운영중인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봉사동아리입니다. 매달 고려대학교 안산, 안암, 구로 병원 약사님들과 함께 진행하는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해 아동센터, 경로당에서 지역 봉사도 진행합니다.

그외

이외에도 Klap(댄스 동아리), NKB(농구동맹), SCV(축구동아리) 등 다양한 학과 내 동아리가 있으며, 타 대학 학생들과 함께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KPSA), 한국약학대학생연합(KNAPS)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KPSA는 약 30년간 이어져 온 약학대학 학생들의 대표기구로, 약학대학 학생이라면 별도의 지원 없이 누구나 회원이 됩니다. KNAPS는 전 세계 약학대학생들이 소속된 국제약학대학생연합(IPSF)에서 한국약학대학생을 대표하는 비정부, 비종교, 비정치적 학생 단체입니다.

미리보는 약학과

약학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제약 산업, 신약 개발, 보건 의료 서비스 등과 관련한 도서나 영화를 미리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의료 봉사활동, 유기동물 봉사활동 등과 같은 봉사 동아리에 참여하여 약학도의 기본 소양인 생명존중 및 봉사정신에 대해 직접적으로 느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의 흥미, 적성 등이 약학과와 맞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추천도서] '마법의 탄환: 의학 역사를 새로 쓴 주황색 알약 글리벵 이야기(저자: 로버트 슬레이더)'

한 제약회사가 신약 개발하는 과정을 그린 도서로, 치료제의 개발과 의학적 의미, 출시에 이르기까지 제약 산업과 신약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천영화] '컨테이션(감독: 스티븐 소더버그)'

원인 불명의 전염력 높은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가 비상상태에 빠지고, 이를 신약 개발을 통해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최근 나타난 COVID-19와 영화 속 상황이 비슷해 이런 상황에서 약학 전문가의 역할을 알고 나아가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Q. 생명과학, 화학을 한 번도 공부해본 적이 없는데 약대를 준비해도 되나요?

A. 2+4년제의 경우 약학대학에 늦게 관심이 생긴 학생 또는 생명과학, 화학 계열이 아닌 학생이라도 선수과목 이수, PEET 공부를 통해 약학 전공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지만 열심히 공부한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6년제가 되더라도 1학년 때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등 선수과목으로 요구하던 과목이 1학년 과목으로 개설될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에 입학 후 성실히 노력한다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Q.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약사가 사라진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A. 약국에서 약사가 하는 일에는 약을 제조하는 일처럼 AI가 대체 가능한 영역도 있지만 복약 상담, 처방 중재 등 대체할 수 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단순 업무 처리 및 약사 고유 기능 강화 도구로 활용하여 AI와 약사의 장점을 융합한 co-work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I가 몇 가지 업무를 대체하는 만큼 약사는 환자와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더욱 중요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국약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가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약사가 사라진다는 말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Q. '편입학'으로 입학하고자 할 때, 전적 학과가 중요한가요?

A. 현 재학생 대부분 전적 학과가 생명과학, 화학 계열이긴 하지만 어문 계열이나 공학 계열 등과 같은 전공을 하다 온 학생도 있습니다. 전적 학과보다 선수과목이나 여러 전공에 대해서 학점 관리를 선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대는 어떻게 입학하나요?

A. 약학대학이 '통합 6년제'로 개편됨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2021학년도까지는 PEET시험 성적을 통한 '편입학'으로만 입학이 가능하고,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는 '신입학'과 '편입학'을 병행하다가 2024학년도부터는 '신입학'만 가능합니다. 만약 '편입학'으로 약대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전적대학에서 2학년까지 수료해야하기 때문에 2020년 현재 고3 학생분들은 2023학년도(2022년)에 편입학을 통해 입학하실 수 있고, 현재 고2 학생분들은 2023년에 2학년을 수료하시기 때문에 신입학을 통해서만 약대에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입학방법	2021학년도 (2020년)	2022학년도 (2021년)	2023학년도 (2022년)	2024학년도 (2023년)
편입학	가능	가능	가능	-
신입학	-	가능	가능	가능

비상약학! 돌격약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은 화려한 비상을 위한 활주로입니다. 우리 약학대학은 21세기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약학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최고의 교수님들과 최첨단 연구시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이 매일매일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은 함성이 울리는 열정의 공간입니다. 우리 대학만의 뜨거운 응원 문화와 끈끈한 선후배 관계, 그리고 따뜻한 사제 관계가 여러분의 미래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의 한복판에서 자신을 두드려 보세요! 더 오래 걸리는 만큼 더 단단해 지리라 생각합니다. 후배님들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제12대 학생회장 박예지 드림

특별취재

이호재 약학 전공 변리사를 만나다

Q. 변리사는 보통 어떤 업무를 하나요?

A. 변리사는 누군가 발명을 하면 특허 출원을 하도록 도와주는 대리 업무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명세서를 작성해 특허를 출원시키는 것인데, 심사관이 거절한다면 이를 반박하고 다시 등록시키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부분 특허 사무소에서 일하지만 제약회사 및 다른 기업에게도 변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소속되기도 하며, 또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Q. 약사 출신으로 변리사가 된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A. 이공계에서 변리사는 과학을 기반으로 하되 자신만의 남다른 영역이 있는 직업인데 특히 약학은 대형 로펌에서 선호하는 전공입니다. 변리사는 크게 전자, 기계, 화학, 생명 4가지의 분야로 나뉘는데, 우리가 약대에서 공부하는 전공과목은 변리사 일을 할 때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약학 전공 출신은 생명 관련 지식은 물론, 화학 및 유기합성에 관한 지식도 골고루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상 분야와 약물학 지식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아스피린이 진통제였는데 이후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것을 발견해 해당 의학 용도에 대해 특허를 냈지요? 이러한 업무에 대해선 의학 용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이는 당연히 우리 약사들이 잘 할 수 있습니다

Q. 변리사 시험 준비의 평균 기간과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보통 2~3년 준비합니다.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하지 않아도 변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공계에서 많이 도전하는 직업이 되어 경쟁은 치열합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1차 시험에는 4가지 과목(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과 더불어 민법, 특허, 상표디자인 등 과목이 있습니다. 약대생에게 1차 시험을 붙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전공자보다 화학, 생물의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시험에는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그리고 선택과목이 있습니다. 선택과목은 Pass or Fail이기 때문에 선택과목에 대한 메리트는 많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Q. 국내에서는 아직 신약개발이 많지 않은데, 이 분야와 관련된 바이오 변리사에 대한 수요는 어떤 상황인가요?

A. 현재 정부 주도하에 바이오산업은 성장 중이며, 요즘에는 신약개발을 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1, 2 상까지 임상 시험을 진행한 뒤 3상을 진행할 수 있는 대형 제약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벤처 기업에게 특허는 중요한 요소이고, 이에 따라 바이오 변리사의 수요도 점점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특허가 있어야 해당 회사의 기술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변리사라는 직업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A.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이 많습니다. 기술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기술을 해외로 출원하는 일의 경우 외국어와 법학지식 모두 능통해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니 열심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첨단 기술을 많이 접하게 되니 이러한 것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고객인 대학교수 혹은 제약회사 연구원분들이 기술에 대해 잘 설명을 해주시고, 변리사인 저희는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논문 등을 읽어 이 분야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경험과 지식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단점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사는 좋은 스펙이지만 결국 변리사의 능력에 따라 평가되니까요. 글을 정말 많이 읽어야 한다는 점도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Q. 어떠한 성향 혹은 능력을 갖춘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하는 데 적합할지 궁금합니다.

A. 서비스 정신, 과학적인 호기심, 외국어 능력, 꼼꼼함입니다. 첫 번째, 서비스 정신의 경우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 시켜 드릴 수 있도록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문지식을 계속해서 넓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호기심을 가지고 지식을 쌓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외국어 소통을 할 수 있으면 해외에 나가서도 영업을 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변리사는 글을 쓰는 직업이고, 문서상 하나의 실수라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치밀함과 꼼꼼함을 요구합니다.

※ 인터뷰 전문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지 'VISANG' 2019. Vol. 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LLEGE OF GLOBAL BUSINESS

03 글로벌 비즈니스대학

..... 글로벌학부

Division of Global Studies

..... 01 한국학전공

60p

Division of Global Studies - Korean Studies

..... 02 중국학전공

64p

Division of Global Studies - Chinese Studies

..... 03 영미학전공

68p

Division of Global Studies - English Studies

.....

..... 융합경영학부

Division of Convergence Business

..... 05 글로벌경영전공

78p

Division of Convergence Business - Global Business

..... 06 디지털경영전공

83p

Division of Convergence Business - Digital Business

한국학전공

" 한국학전공, 우리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다 "

학과소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류의 바람'이 불어오며,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탄소년단' 같은 K-POP 아이돌 그룹, 그리고 <기생충>과 같은 한국 영화 산업에서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국문화가 확산되며,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으로 유입되는 유학생들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한국학전공에서는 우리 문화, 우리말에 대한 전반적인 탐구를 통해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국어국문학과에서 한국학전공으로 개편되며 많은 것들이 변화하였습니다. 단순히 국어국문학 관련 문헌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교환학생이 아닌, 정규학생으로 한국학전공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 속의 한국"을 탐구해보는 것은 다른 어떤 전공도 아닌 한국학전공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학전공에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과정과 공직 진출에 도움이 될 만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진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문화□대중문화□미디어 문화□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통해 지식의 융합, 실용적인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와 한국어로 세계와의 소통을 꿈꿀 수 있는, 흥미진진한 탐구가 가능한 곳,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한국학전공입니다.

교육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한국학 지식 융합 한국학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확장	한국어의 이해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의 구비문학 한국의 민속예술	한국 대중문화의 이해 한국어의 뿌리와 역사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학 실무 활용 공공직무 수행에 필요한 한국학 실무 지식	실용 한국사 I, II 실용 한자 I, II 실용 한국어		한국 문화와 미디어 한국 아동문학 감상 한국문화 비평 연습	한국학과 정보화
한류 문화 산업 문화, 산업기획의 창의적 역량을 발굴하는 학문		한국 문화산업의 이해 한국 고전문학사 한국 고전소설의 이해 한국의 문화원형	스토리텔링 연습 한국 현대사의 이해 한국 현대소설의 이해	지역문화산업 개발연습 문화캐릭터 기획과 개발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관련 이론과 실제적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학문	언어의 이해 응용언어학 한국어 교육개론	대조 언어학 한국어 이해 교육법 한국어 표현 교육법 한국어 문법론	한국어 발음 교육법 한국어 문법 교육법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수법 한국어 평가론 한국어 교재론 한국어 교육 실습

교직 및 실습

한국학전공에서의 실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한국어교원자격' 취득 과정 중에서의 강의 참관, 두 번째는 '국어 교직' 과정 중의 교생 실습입니다.

'한국어교원자격' 취득 과정에서는 1영역(한국어학), 2영역(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3영역(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4영역(한국문화)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이수한 후, 5영역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하면 '2급 한국어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생 개인마다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주로 4학년 1학기에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센터에서 강의 참관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한국어교육에 대한 이론과 현장에 대해 학습합니다. 해당하는 영역의 과목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 뒤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이 때, 교육실습에서는 10시간 이상 강의 참관을 통해 현장 교원의 효율적인 수업 운영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이후로 동료 수강생 앞에서 모의 수업을 시연하고, 교수자와 함께 수업에 대한 피드백이 진행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자신의 수업을 꾸릴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됩니다.

'국어 교직' 취득 과정은 3학년 1학기부터 시작되는 과정으로, 2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을 바탕으로 면접을 거친 뒤 최종으로 교직과정에 선발 되었을 때 이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학과 내에서 2-3명 정도 선발되며, 주로 4학년 1학기에 교생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국어 교직을 완벽히 이수하기 위해서는 전공 50학점(기본 이수 과목 21학점), 국어교과교육영역 8학점, 교직과정 22학점을 수강해야 합니다.

졸업 후 진로

한국어 교육 분야	국내 한국어 강사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 외국계 기업,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에서 외국인을 가르치는 한국어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국외 한국어 강사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세종학당,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한국어교원파견사업,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한국어봉사단, 해외 주재 한국문화원 등을 통해 해외에서 한국어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공공 기관 및 문화 산업 분야	공립 학교 교사	국어과 교직 과정과 관련된 교과목의 이수를 통해 국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공립 중,고등학교교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사립 학교 교사	외국어 및 사회, 역사 등의 전공을 복수로 이수하여 관련 과목의 정교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고 사립 중,고등학교의 국어 교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사설 교육기관의 전문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문화 단체, 공공 기관	문화 관련 기업 및 산업체, 콘텐츠 관련 기관, 정부 및 지자체 산하의 문화재단, 민간 문화 단체 및 공공 기관 등에 문화코디네이터, 기획자, 운영자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	전공을 심화시켜 대중문화 비평가, 문화 칼럼리스트, 한류 문화 창작자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	응용학문과의 결합	한국 문화의 원형에 대한 전공 지식을 토대로 응용학문과의 결합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창의적인 진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문 연구자	일반대학원의 한국학, 국어국문학, 한국어 교육, 문화콘텐츠, 문화학 관련 학과에 진학하여 전문 연구자의 길을 밟을 수 있습니다.
	교육 정책 분야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직에 진출하거나 일반대학원의 교육학을 전공하면 교육 정책 분야에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학과 내 과정을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증	한국어 교원 자격증 / 인증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재학 중에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 인증기관: 교육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 과목 또는 그 이상의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재학 중 교직 이수 과정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관련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인증기관: 국가편찬위원회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사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며 공기업에 취업할 때 가산점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KBS 한국어능력시험 / 인증기관: KBS	올바른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1급부터 4-급까지 총 7개의 등급으로 나뉘며 공기업 취업, 승진과 교원, 강사 선발에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전공(학과) 프로그램 및 장학금

한국어 문화 보급 사업 참여 지원 장학금

한국학전공 학생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진로 설계를 위한 장학금으로, 세종학당재단 혹은 국립국어원에서 진행되는 한국어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참여하였을 때 이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한국어문화 보급 기관 인턴'과 관련 기관 '자원봉사자', '해외 파견 사업 참가자'가 20~5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학전공 공모전 장학금

해당 학기 말에 진행되는 한국학전공 공모전은 주로 학교 및 학과 생활과 관련된 한국어교육, 한국어 사용과 관련된 주제를 공모합니다.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주제로의 탐구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응한 학생 가운데 참신하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학생(팀)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 학기 산정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주로 1등은 50만 원, 2등은 30만 원, 3등은 1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학생자치활동

다시 쓰는 '글사랑'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글을 쓰는 한국학전공 문학 소모임입니다. 매주 있는 작문 활동을 기반으로 문집을 발간하며 문학의 뿌리를 찾는 문학기행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연극반 '터'

우리 문학에 대한 학습을 목적으로 하여 작품을 선정, 공연하므로 연극반이 공연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작품은 우리나라 작가가 우리의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 글로 쓴 작품이며 사회풍자, 현실비판, 역사 고찰을 통한 교훈적 내용의 민족극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열린 '넋'

대중가요 노래 소모임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공연을 가장 큰 사업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고, 학교의 축제와 같은 행사에서도 종종 공연을 합니다.

한국학전공 학생회

새내기 배움터, 체육대회, 입실렌티, 고연전과 같은 연례행사와 더불어 개강총회, 종강총회, 학번모임 등 학과 내 소소한 행사까지 주관하고 진행하는 고려대학교 한국학전공 학생자치기구입니다.

미리보는 한국학전공

한국학전공에 관심이 있다면 대중 문학, 한글의 역사, 한국 문화, 언어 교육 등과 관련된 도서나 영화를 보기를 추천합니다. 교육 관련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 동아리나 봉사활동을 해보면서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닌 학습자와 교류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추천 도서] 아트로드, 한국을 담다 (저자: 김물길)

아티스트 김물길이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경험한 것들을 담은 책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전공에서 배울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천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감독: 피터 위어)

미국의 명문 웰튼 아카데미에 취임한 새 영어 교사의 가르침 속에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난 교육자의 존재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볼게 해 교육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영화입니다.

Q. 국어국문학과와 한국학전공의 차이점이 있나요? 입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A. “국어”라는 학문은 자국을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 한국인에게 국어란 한국어, 중국인에게 국어란 중국어가 됩니다. 하지만 “한국학”이라는 학문은 융합적이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개념으로, “한국”에 대한 다채로운 접근과 열린 시각을 중시하는 학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목하는 요소에서 큰 차이가 있기에 입시를 준비할 때 ‘국어 과목이 재미있어서’라는 마음가짐도 좋지만 한국 문화와 한국어로 세계와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다면 충분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한국어교원과 국어교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한국어교원과 국어교사의 가장 큰 차이는 교육 대상과 교육 목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한국어교원은 외국인 등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두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칩니다. 반면에 국어교사는 중, 고등학생들이 국어를 통한 소통 능력을 길러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창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Q. 어떤 역량이 요구되나요? 글을 잘 쓰거나 남에게 잘 가르칠 줄 알아야 하나요?

A. 약간의 창의력을 발휘하려는 노력, 그리고 외국인들과 소통하려는 의지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입학할 하게 되면 1학년 필수 교양인 ‘글쓰기’라는 교양과목을 통해 리포트, 서평, 발표문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양식의 글을 쓰는 법을 배우게 되고, 전공과목 중 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통해 기본적인 교육의 틀을 배우게 되니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만을 지니면 충분합니다.

특별취재

배움을 기반으로 가르침까지, 고려대학교 한국학전공

자랑스러운 민족 고려대학교 한국학전공 재학생 및 함께 갈 미래의 후배님들께, 국문학이 좋았고 더불어 급우들에게 모르는 내용을 알려주며 즐거움을 느낀 청소년을 선생님이 되게 도와준 한국학전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입학 전 전통이 깊은 고려대학교만의 문화와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교수님들을 보고 입학할 결심했습니다. 학부 과정 동안 지금까지 제자라는 입장에서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고 다양한 활동 및 지원을 받은 끝에 현재 태국 중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원석이 다듬어져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차후 무엇이 될지 모르는 여러분이 한국학전공을 선택해서 누군가의 스승이 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을 저와 같이 함께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닦아 놓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한국학전공에서 함께 하는 후배님들을 응원하며 강단에 서는 그날이 오길 고대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한국학전공 졸업생, 해외 파견 교원 한덕희(12학번)

중국학전공

세상의 중(中)심에서 당당히 꿈을 외치다!
중국학전공!

학과소개

세계 언어 인구의 4분의 1 이 바로 중국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이렇게 중국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이며 이제 명실공히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을 알고 중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곧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며, 글로벌 시대에 필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아시피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학부 중국학전공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중국어에 능통하고 중국 문화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학전공은 이러한 교육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본 캠퍼스의 다양한 교육과정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7+1 과정, ESP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수기간 동안 중국 여러 명문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어의 현지학습 및 실습은 물론이고, 중국문화 및 통상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연수 기간 동안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7+1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타 각종 연수 프로그램으로 중국 현지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중국어, 중국문화, 중국통상 및 중국경제 등 중국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제 GI, 초강대국으로 비상하는 중국, 그 광활한 대륙을 배경으로 자신의 꿈과 포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젊은이라면 고려대학교 중국학전공에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기본소양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학문	실용중국어입문 I, II 실용중국어연습 I, II	중국문화기초독해 중국사회기초독해 중국어문장구조의이해및작성법입문 중급중국어문장구조의이해및작성법 중급중국어회화 I, II	중국어문법특강 HSK작문 한중문화기행중국어	
중국미래발전전망예측 글로벌중국의 미래발전 방향과 전망을 예측하는 학문			중국시사읽기 중국경제론 중국기업의발전전망탐색 현대중국의국제관계	21세기중국경제정책고찰 글로벌시대의중국경제이슈
중국정치·경제·사회 중국의 정치·경제·사회 방면의 현황을 이해하고, 구조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학문	현대중국개황	중국사회정보정독 현대중국역사개관 현대중국사회와영화문학의명작 정치지도자와중국정치	중국경제세미나 21세기중국사회의주요문제 21세기중국정치철학유평	
중국정보취득·생산 기존 중국 관련 지식과 정보를 취득·소화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직접 생산하는 학문	중국학입문	중국정치체제의구조와특성	신조어로중국사회읽기 중국어번역연습 중국고급정보정독 사회주의시장경제와 중국영화산업의발전	중국어프리젠테이션연습 시사이슈중국어토론
중국역사·문화 중국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에 적용 및 실천하는 학문		중국문화정보정독 실용한문특강 I 실용한문특강 II 고대중국역사개관	중국문화지리개설 중국문화특강 중국음식문화 80후·90후시대의중국영화 중국역사현장탐구 중국문화현장탐구	중국어교과교육론 중국고전문학사 중국현대문학사 캡스톤디자인

교직 및 실습

중국학전공은 교직 과정 설치학과로 교원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직은 재학 중 한 번, 2학년 학생만 신청이 가능하며, 시기는 1년에 1번, 매년 2학기 말(12월 중)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직은 성적과 면접을 통해 소수 인원을 선발합니다. 교원 자격증 취득 필수학점 이수과 마지막 학기에 실습 과정까지 마쳐야만 교원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며, 졸업 마지막 학기 소정 기간에 포털을 통해 무시험검정원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졸업 후 진로

교육	중국어 교육 분야	중국학전공에서는 교직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교과목의 이수를 통해 중국어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졸업 이후 사립 중, 고등학교에 중국어 교사로 취업할 수 있으며 사설 교육기관의 전문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공립 중, 고등학교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대학원	중국학전공은 중국의 정치·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학과이므로 진학할 수 있는 대학원의 전공 분야도 넓습니다. 일반 대학원의 관련 학과에 진학하여 전문 연구자의 길을 밟을 수 있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직에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관광업	항공 승무원	객실 승무원으로 비행기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기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상직 승무원으로 공항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가 갖춰져 있는 만큼 국내 항공사뿐만 아니라 외항사까지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여행안내원	여행사에 취직하여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인솔을 하고, 여행지를 소개하며 특히 중국 여행의 경우 통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역회사	무역회사의 해외 마케팅 분야로 취직할 수 있습니다. 해외(특히 중국) 바이어들과 소통하고 친분을 쌓아가며 수출입 업무에 관한 거래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	중국 현지 기업 또는 국내 기업의 중국 지사	중국기업에 취직하여 영업, 마케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	일반 기업의 영업팀이나 마케팅 분야로 취직할 수 있습니다. 영업팀이나 마케팅 분야에서는 매출 창출 활동, 시장 개척 활동 같은 매출 증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경영학과 같은 상경계열 학과를 복수전공이나 이중전공으로 선택하여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번역	통역사	국가 정상 모임 등에서 중국어를 번역하여 뜻을 전달하는 전문인으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시 통역사의 경우엔 국제회의에서 활동하며 연사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을 합니다.
	번역사	출판 분야에서 중국어로 작성된 콘텐츠를 한국어로 혹은 반대로 한국어로 작성된 콘텐츠를 중국어로 바꾸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영화나 드라마 등 미디어의 자막을 만드는 번역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新 HSK / 인증기관 : HSK 한국사무국

HSK는 표준중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의 중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국 정부 교육부 지정 유일한 국제 중국어 능력 시험입니다. 1급부터 6급까지 급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관 및 업체의 직원 채용 및 승진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되기도 하고 중국어 관련 교육부문, 연수 기구에서 교육 혹은 연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HSKK / 인증기관 : HSK 한국사무국

HSKK (중국어 말하기 능력 검정 시험)는 중국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초급, 중급, 고급 시험으로 각각 실시되며, 시험은 녹음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공(학과) 프로그램 및 장학금

중국 남경사범대학 7+1 해외연수 프로그램

중국학전공에서는 해외 학습경험을 목표로 학기당 1회 (연 2회) 학교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아 남경사범대학교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남경사범대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후 본교에 돌아오면 한 학기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인 투 더 차이나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매 학기 공모전 형식을 통해 중국학전공 재학생들에게 중국 현지에서의 팀 프로젝트 수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도전정신, 글로벌 마인드, 리더십, 공유협력 정신 등을 배양합니다. 4인 1팀으로 중국 현지에서 4~6일 안에 수행할 수 있는 자체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선발하고 팀당 장학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인 100만 원)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학장 명의의 입선 확인증도 발급됩니다.

차이나 플러스 프로젝트(CPP)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4~7명이 팀을 이뤄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여 매주 활동하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주제로는 HSK 스터디, 지역 사회활동, 봉사활동 등이 있으며, 각 팀의 인원수, 주제에 따라 프로그램 장학금액이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학생자치활동

학생회

학우들을 대표하여 새내기 배움터, 체육대회, 고연전, 입실렌티, 스승의 날, 졸업식 등 각종 연례 행사 뿐 아니라 간식 행사, 개강총회, 종강총회 등 학우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직접 기획하고 제공하는 중국학전공 학생자치기구입니다.

한길

민중가요를 노래하는 노래 소모임입니다. 매년 11월 정기공연은 중국학전공의 큰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각종 행사 무대에서 민중가요를 알리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호봉우

'好朋友, 좋은 벗'이라는 뜻을 가진 호봉우는 중국어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중국 노래 소모임입니다. 매년 5월 정기공연을 가지며 중국학전공의 또 하나의 큰 행사입니다.

민사랑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와 역사, 철학 등을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는 사회과학 세미나 모임입니다.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대학생에 걸맞는 사고력과 함께 타인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 리더쉽까지 기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책 속에서 우리의 삶을 찾는 순수 문학 소모임입니다. 문학과 더불어 영화감상 활동도 하고 있으며, 매주 한 번씩 모여 문학 세미나 조별 활동, 책과 관련된 영화를 주로 감상합니다.

미리보는 중국학전공

중국학전공에 관심이 있다면 우선 가벼운 마음으로 중국과 관련된 도서, 영화, 드라마, 예능 등으로 미리 중국과 중국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서를 통해 중국에 대해 이해하고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중국어가 귀에 익숙해지도록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중국어는 입학해서 배우면 됩니다.

[추천 도서] 삼국유사 (민음사, 일연, 2008) / 중국이야기 (민음사, 헨리 키신저, 2015) / 허삼관 매월기 (푸른숲, 위화, 2007)

[추천 드라마] 치아문단순적소미호(致我们单纯的小美好) / 삼생삼세 십리도화 (三生三世 十里桃花) / 봉신연의 (封神演义)

[추천 영화] 송가황조 (宋家皇朝, 1997) / 산사나무 아래 (山楂树之恋, 2010) / 인생 (活着, 1994)

청춘은 바로 여기 중국학전공에서!

고려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중국학전공을 준비하는 후배님들에게,

우리 중국학전공은 여러분들의 꿈과 청춘이 단합되어 글로벌 세계로 향해 나아가게 하는 도르래입니다. 훌륭한 교수님들과 체계적인 학습시스템을 갖춘 중국학전공에서 중국어에 능통하고 중국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추어 세계로 나아가는 우수한 인재가 되어보세요. 그리고 선배들과 동기들이 만들어가는 고려대만의 축제와 응원문화, 그리고 중국학전공에서 후배님들의 청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여기에서 써나가기길 바랍니다. 각자의 청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빛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꿈을 가지고 잊지 못할 캠퍼스 생활을 꿈꾸며 피나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후배님들에게 빛나는 미래만이 있을 것을 확신하며 짧은 인사를 드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중국학전공 4대 학생회장 18학번 김세하

Q. 중국어를 잘해야만 중국학전공에 입학할 수 있나요?

A.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학전공에는 개인에 따라 다른 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중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던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중고등학교 때 중국어를 조금 배워 본 게 전부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한 적이 있어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입학하고 나면 전공 수업으로 기초 중국어부터 차근차근 배우기 때문에 중국어의 기본조차 모르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중국학전공에 들어와 익혀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중국학전공에서는 앞에 있는 교육과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문화, 역사, 문학 등에 대해서도 한국어로 배우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입학 후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충분히 중국어 실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Q.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는 꼭 필수로 다녀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아무래도 외국어를 배우는 전공이기 때문에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가 도움이 많이 되기가 하겠지만, 희망하지 않으신다면 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학생들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어 같은 경우는 대화를 많이 해보고 많이 들어보아야 실력이 늘기 때문에 중국학전공에서 진행하는 7+1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실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학생들을 위해 잘 갖추어진 프로그램이라 추천 드리고 실제로도 많은 학생들이 중국어 구사 능력 향상과 현지 체험을 위하여 한 학기 정도는 많이 가고는 합니다.

Q. 중국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수업이 있을까요?

A. 당연하죠. 중국학전공에는 중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먹어보며 중국의 음식 문화를 조금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어 토론 수업이나 신조어 수업 등 여러 가지 중국어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수업들이 많습니다.

특별취재

현재와 미래의 먹거리, 중국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중국학부(現 중국학전공) 졸업생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가볍게 소개할게요. 제가 처음 고려대학교 중국학부를 진학한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고등학교 때 저는 중국어, 일본어 등 언어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문계열 학과로 대학을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대학에 입학할 당시 중국이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면서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과 관련된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학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려대라는 네임 벨류와 함께 고려대 명성에 걸맞는 커리큘럼과 더불어 고려대 안암과 세종 간 교수님들의 교차 수업 및 교환학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암, 세종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메리트를 느꼈습니다. 타 학교들의 중어중문과는 '어문계열'로서의 중국어 위주의 교육이지만, 고려대 중국학전공의 장점은 어학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중국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커리큘럼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학 전공의 학우들은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길로 진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변 학우들을 보면 전공을 살려 무역회사나 쇼핑몰 혹은 항공사나 여행사에 입사하여 각 분야에서 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설령 전공을 살리지 않더라도 은행이나 공기업 등을 이미 다니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학우들도 여럿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 관심이 많고 무역과 해외 근무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무역회사 해외 영업팀에 취업하여 중국 지사로 발령을 받아 주재원으로 광둥성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해외영업 직무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전날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온 이메일들을 보며 오늘의 업무 계획을 설정하고 바쁜 하루를 시작합니다. 외국 바이어들과 지속적으로 이메일 서신을 주고받으며 오더(주문)가 들어오면 생산 및 선적 진행사항을 꾸준히 체크하며 바이어에게 알려준과 동시에 납기를 준수하여 고객에게까지 안전하게 도착시키는 것이 전반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중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사 들여와서 국내에 파는 오픈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인생의 길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계기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매 순간 선택의 기로 속에서 여러분들도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더불어 G2라는 타이틀과 함께 세계를 이끌어가는 한 축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일을 하며 중국의 저력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영토와 인구 파워를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국의 영향을 앞으로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전, 10년 전과 달리 이제는 중국에 아시아계 학생뿐만 아니라 서양 및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중국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양인들이 미국을 동경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외치며 넘어갔다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서양인들이 중국으로 '차이나 드림'을 외치며 아시아로 넘어올 날이 도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고자 한다면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후배가 되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려대학교 중국학부 졸업생 조항재(II학번)

취재기자단: 이수진, 장우정

영미학전공

"21세기 국제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동적, 개방적, 세계적 글로벌 인재 양성"

학과소개

새로운 세기

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국제 사회의 획기적인 변화는 어느 시기보다 영어를 공용어로서 필요로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정치현황, 문화교류, 경제발전은 영어가 특정 지역의 언어로서만 남아있기 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언어로서 자신의 위치를 재조정하도록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영미학전공은 국제화 시대에 공용어로서의 영어의 이해와 영어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영국미국의 언어·문학·문화·사회·역사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함양합니다. 또한, 영미권에 대한 문화·역사적 인식과 안목을 갖추게 하여 국내외 국제화 관련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21세기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영미학전공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전문적 인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영미학전공만의 준비된 인재상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미학전공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크게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인포메이션,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리더십'의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영어소통능력 습득을 위한 훈련을 통해 능숙한 영어구사능력을 발휘하게 하는데 근간이 되는 역량을 가진 자(**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영국과 미국의 언어·문학·사회·문화·역사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의 습득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세계무대에서의 활동에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가진 자(**글로벌 인포메이션**). 영어와 영미권 사회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영국과 미국에 대한 인식과 안목을 갖추어 국제적 감각과 능력을 개발하는 역량을 가진 자(**글로벌 마인드**). 영어 구사력 및 영미 지역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화 시대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질을 개발하는 역량을 가진 자(**글로벌 리더십**).

1980년에 영어영문학과로 신설된 영미학전공은 지금까지 1,000여명 이상의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들 졸업생들이 다른 대학의 학생들과 달리 각자 사회에서 주요한 인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영미학전공의 4대 인재상과 함께 단순히 영어를 기능적으로만 숙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영어와 관련된 문화적인 배경까지 습득하도록 하는 영미학전공의 우수한 교육적 환경이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에 이바지하고 자신의 발전을 증진하도록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국제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동적·개방적·세계적 전문 지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시작점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영미학전공입니다.

교육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기본소양 기본적인 영어활용 능력과 번역 능력을 함양함	영작문화화 1, 2 영어회화 1, 2 영미권 생활의 이해	시사영어 영미언어 영어권 영어업무	미디어영어 번역연습 대중매체번역	일반번역 한영번역
문학 영국과 미국의 문학에 대한 작품 이해와 독해 능력을 함양함	소설과 영화 셰익스피어	영미아동문학읽기 우리시대영미소설	영미산문 영미소설 영미시 영미대중예술 문학과 영화	영미희곡
영어학 언어학의 한 분야로 영어를 다루며, 영어의 음성/음운적 체계, 문장의 구조와 의미 체계, 실생활에서의 언어사용과 언어습득 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함	-	영어학개론 영어습득과문화	영어응용학 영어습득론	영어실습
교육학 영어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터득함(교직이수시 필수)	-	영어교육학개론 영어교과교육론	영어교육방법론 영어교육평가	영어교육실습
역사, 문화 영국과 미국의 문화와 역사 학습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전공	영미문화배경 미국사 영국사	영미인물사 세계속의영국과미국	미국문화 영국문화 영연방연구	영어발달사

교직이수

영미학 전공은 교직이수를 통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직 이수란 인간의 긍정적 변화와 사회적 진보에 대한 교육의 기여 가능성을 신뢰하고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적 품성과 전문적 자질을 갖추는 과정으로,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직생활에 필요한 선진 전문 지식과 기능을 구비한 중등 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직신청 시기는 1년에 1번이며, 매년 2학기 말(12월 중)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재학 중 1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 조건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면접을 통해 선발됩니다. 추가적으로 영미학 전공에는 졸업을 위해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이 없지만, 교직이수 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영미학 전공과목이 있으므로, 교직이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전공을 미리 수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응용언어학과 통번역학과 정치외교학과	학부 과정 이후 진학하며 전문적인 지식 습득, 논문 작성, 연구 진행 등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과 연구를 진행합니다. 주로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 진학을 하며, 취업 후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 병행하여 진학하여 학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	교수 교사 학원강사 논술 지도사	학부 때 습득한 영어 지식을 바탕으로 졸업 후 대학원을 진학하고 졸업하여 교수가 되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학부 때 교직 이수를 병행하고 임용고시를 통해 교사가 되어 초,중,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어전문 학원 혹은 전과목 통합학원에서 학원강사(일반사회, 외국어)가 되는 경우와 영어 논술을 가르치는 논술 지도사도 있습니다.
통번역	전문 통역사 전문 번역가	통번역 대학원을 진학하여 전문적인 통역(순차, 의전, 수행) 업무 혹은 번역(영화 자막, 도서 번역, 해외 시상식 자막) 업무를 하는 전문 통역사나 번역가가 되어 본인의 영어 능력을 바탕으로 기업 혹은 기관에 취직(인하우스 통역)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송·언론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아나운서	영어가 필요한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에 취직하여 영어 업무를 전담하여 일하거나 방송사 아나운서(영어 담당)에 취직하여 방송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기구	UN 및 산하기구 WHO NGO	학부 졸업 이후 영어 능력을 사용하여 다년간 UN 산하기구 혹은 NGO(비정부기구)에서 인턴 활동을 진행하여 경력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UN 혹은 WHO와 같은 국제기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TOEFL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 인증기관 : ETS

TOEFL 시험은 대학 수준의 영어를 사용하기 위한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실제로 수업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학업적인 영어 실력을 측정해 성공할 준비가 되었음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총 4가지 영역인 Reading, Listening, Writing, Speaking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로 시험이 진행되며, 기본적인 난이도가 토익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이 더 많은 시험입니다. 따라서 영미학전공의 전공과목 학습과 연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 인증기관: 인증기관 : 영국문화원, IPD에듀케이션

IELTS 시험은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캠브리지, IDP 에듀케이션 에서 함께 개발한 시험으로 TOEFL과 유사하게 주로 영국이나, 영연방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 등에, 유학이나 이민을 가기 위해서 영어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TOEFL과 마찬가지로 Listening Writing Reading Speaking 총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난이도는 토플과 비슷하거나 비교적 쉽습니다.

TESOL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 인증기관: 국내 특정 대학

TESOL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교수법)'을 배웁니다. TESOL은 '국제 영어교사 양성 과정'으로 대부분 석사 과정은 실용적인 수업과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내에서는 외대, 이대, 숙대, 성대 등에 TESOL 석사과정이 있으며 외대 일반대학원에는 TESOL 박사과정까지 있습니다. TESOL 석사 과정 이상을 전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립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이거나 영어 콘텐츠 개발자, 영어 관련 창업자 등이 됩니다. 교육부 산하 기관이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연구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박사 과정을 위해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어 교육과 연구 혹은 영미학전공의 교직이수에 관심이 있다면 취득하는 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ITT(Interpretation & Translation Test) / 인증기관: 국제통역번역협회

ITT는 법무부가 공인한 국제통역번역협회에서 주관하는 외국어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통역 및 번역 시험입니다.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타 시험과 다르게 외국어 사용의 능숙성, 유창성, 적절성, 가독성, 논리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절대평가로 평가됩니다. 시험은 대학생 및 일반인들을 위한 비즈니스 통번역 시험 과정과 프리랜서, 전문가를 위한 전문 통번역 시험으로 나뉘며, 비즈니스 급수는 3등급으로, 전문급수는 2등급으로 총 5개 등급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외국어 구사 능력을 측정하고, 세계적으로 공인된 자격증인 만큼, 외국계 기업이나 국제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기본 발판이 되어 줄 자격증입니다.

전공(학과) 프로그램 및 장학금

학생자치활동

영미학전공 5G 프로그램

5G(5 Global)프로그램이란 영미학전공의 특성화 장학금으로서, 총 5가지 글로벌 항목 중 본인이 해당되는 영역 1가지에 지원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미학전공 학생들이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5G 프로그램을 통해 첫째, 다양한 교외활동을 경험해봄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둘째,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영어성적을 취득하고, 셋째, 취업 시 활용할 수 있는 경력을 갖추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달성하면 영미학전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매우 유용하고 영미학전공이 내세우는 특성화 프로그램입니다. 5G 프로그램의 5가지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Global Multi-lingual Speaker Program Scholarship

영미학전공 특성화 전공 3대 핵심역량인 '글로벌 소통능력' 함양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금입니다. 공인영어시험(TOEIC, TOEFL, IELTS 등)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유효한 점수를 보유하고, 대학 입학 이후 영어 이외의 제2외국어 능력 공인시험 점수 혹은 등급을 취득한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2. Global Experience Program Scholarship

영미학전공 특성화 전공 3대 핵심역량인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공인영어시험(TOEIC, TOEFL, IELTS 등)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유효한 점수를 보유하고, 글로벌 문화 또는 글로벌 역사체험 프로그램(예, 교환학생 프로그램, 어학연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정상 수료한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3. Global Volunteer Program Scholarship

영미학전공 특성화 전공 3대 핵심역량인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교내 사회봉사단, 멘토링 프로그램(멘토), 홍보대사, 기자단 프로그램 혹은 유사한 교외 사회봉사 프로그램(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혹은 사회적응보조 등) 활동을 수행한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4. Global Internship Program Scholarship

영미학전공 특성화 전공 3대 핵심역량인 '글로벌 소통능력'과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국내·외국제열 기업, 국제기구, 정부·민간 사회단체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정상 수료한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5. Global Leader-hunting Program Scholarship

영미학전공 특성화 전공 3대 핵심역량인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보유하고, (1) 기업/공무원/언론/교육/연구/통번역 분야의 취업을 위해 사설기관, 혹은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무료 인터넷 강의 수강은 제외)을 수강 완료한 경우이거나, (2) 일정 이상 수준의 공인 영어말하기 능력시험 성적(TOEIC Speaking/OPIc)을 취득한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매 학기 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영미학전공 교수님들께서 직접 검토하여 장학생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영미학 전공 학생회

영미학 전공의 시작과 함께 생긴 학생회는 영미학 전공 학생들을 위한 개강총회, 종강총회, 새내기배움터, MT 등 다양한 학과 행사들을 기획 운영하고 입실렌티, 학교축제, 고연전 등의 학교축제에서 학생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에서 활동하게 되면 선후배들과 친목을 다지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구 동아리/ 크레이지

크레이지는 영미학 전공 농구 동아리로 농구를 좋아하는 영미학 전공 학생들이 모여 함께 농구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내 체육대회와 같은 대회에도 참여하여 성과를 낸 경험도 있습니다.

축구 동아리/ 발롱도르

발롱도르는 영미학 전공 축구 동아리로 축구를 좋아하는 영미학 전공 학생들이 모여 함께 축구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내 체육대회에도 참여하며, 축구 외에 풋살 경기도 자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악 동아리/ 비포즈

비포즈는 영미학 전공 음악 동아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무대 연출에 관심이 있는 영미학 전공 학생들을 위한 소모임입니다. 주로 랩과 발라드를 좋아하는 부원들이 많고, 매 학기마다 작은 콘서트도 열고 있습니다.

[추천도서] 허클베리 핀의 모험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크 트웨인의 걸작으로 “이 소설을 읽지 않고서 미국 문학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작가들의 작가로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미국의 모든 현대 문학은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책 한 권에서 비롯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명언가로도 유명한데 “최악의 외로움은 자기 자신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인간에게 정말 효과적인 무기가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웃음이다.” 등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인간적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한 평생을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차별, 여성차별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그의 작품들을 입학전에 영문으로 읽어본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천영화] 작은 아씨들

미국의 소설가 올컷이 1868년 발표한 장편소설을 기반으로 최근 2020년 2월에 개봉한 영화이다. 가정소설이자 성장소설로 성격이 각기 다른 네 자매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꿈을 키우면서 아름답고 당당하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따뜻하면서도 감동적으로 연출한 작품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로 전장에 나간 아버지가 있어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가운데서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극복해 나갑니다. 이웃들 사이에 오가는 잔잔하고 감동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도 작품 곳곳에서 펼쳐지며, 마침내 네 자매는 각각의 단점을 넘어서 독립된 인격체로 거듭나는 내용이다. 최근에 개봉한 영미 문학 작품을 기반으로한 작품 중 가장 수작이라고 생각되고, 미국 아카데미 상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작품으로 미국문학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추천 강연] TED

TED라는 사이트를 아시나요? 미국의 비영리 재단으로 정기적으로 기술, 오락, 디자인 등 다양한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Patti Dobrowolski의 Draw your future라는 강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대학교 선택에 앞서 여러분은 어떤 꿈 혹은 비전을 현실화시키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힘든 현실을 마주하면서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고, 내 꿈을 이루고 싶다고 말하지만, 연구에 의하면 변화를 원한다고 해도 실제로 삶에 변화를 주는 사람은 9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9분의 1의 확률을 올리는 방법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강연을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토익이나 토플과 같이 공인영어성적이 많이 중요하나요?

A. 토익과 토플과 같은 공인영어 성적은 대학교 졸업 이후 취업을 위해서도, 영미학전공 졸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때 혹은 입학 이후 1학년 새내기때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영어성적을 획득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토익의 난이도는 수능 영어보다 쉬운 편이며, 토플은 그 이상 혹은 난이도가 요구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토익 위주로 공부하여 일정 수준의 점수를 획득하고, 대학교 입학 이후 1~2학년 때 목표로 하시는 토익 성적을 획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플은 수능영어보다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을 요구하는데요, 학부 입학 이후 3~4학년 때 전공 공부를 진행하면서 공부를 하시던 목표하는 성적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실용 영어 회화능력이 중요해 지면서, 채용 시 토익스피킹과 같은 영어회화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영미학전공 학생들은 전공 공부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회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따라서 1~2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신다면, 목표하시는 영어회화 점수를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영미학전공 교수님들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질문은 대부분의 대학생도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질문입니다.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는 학교 강의 시간 이외에 본인이 노력하여 교수님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교수님과 만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과 매우 가까이 지내고 학생들의 일상까지 의무적으로 챙겨주는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개인의 자유와 의사가 존중되는 성인들이 모인 대학교는 대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개인적으로 본인의 학업에 집중하여 공부하고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의무적으로 대학생들을 일일이 챙겨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교수님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친해지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강의 시간 외에 교수님을 찾아뵙거나 연락을 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생각과 다르게 정말 연구 혹은 프로젝트 등으로 바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직접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면 반겨주시거나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이런 상황에 매우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강의 시간 이외에 교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매우 대단하신 분들이어서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학교는 무엇이든지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곳이며, 사회에 진출하기 전 사회생활을 습득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수님처럼 친해지는 가장 우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 연락을 취하거나 교수님의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Q. 교내 혹은 교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은 어떻게 찾나요?

A.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고, 알아보고,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학교는 고등학교 때와 달리 성인이 된 대학생들이 스스로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고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내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 사이트의 공지사항, 학교 커뮤니티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교수님, 학과 사무실 등에 문의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외 프로그램의 경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나 대형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정말 다양한 교외 활동(인턴십, 공모전, 프로젝트)들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관심있는 영역을 설정하여(예를들어, 통역, 번역, 미디어) 해당 영역에 맞는 교외 활동들을 직접 포털 사이트나 SNS에서 찾아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혹은 교수님들을 통해서 교외 활동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미학전공과 만들어가는 21세기형 글로벌 인재!

안녕하십니까! 민족고대 선진글비 불패영미 영미학전공 비상대책위원장 16학번 이덕규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고 새내기 호랑이가 될 모습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미학전공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여러분들의 청춘의 첫 걸음인 새내기 생활이 즐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리고 학생회에서 주도하는 다종다양한 행사에서 열린 만나보고 싶네요. 또한 영미학전공의 경우 국제화 시대에 공용어로서의 영어의 이해와 영어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영국·미국의 언어·문학·문화·사회·역사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함양하고 영미권에 대한 문화·역사적 인식과 안목을 갖추게 하여 국내외 국제화 관련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21세기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모두 영미학전공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다가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영미학전공 비상대책위원장 이덕규(16학번)

특별취재

영미학전공 Conrad Brubacher 교수님 인터뷰

Greetings and many thanks for your interest in coming to study with us in English Studies at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My name is Conrad Brubacher, assistant professor in English Studies, where I teach courses in academic English communication and writing, and sociocultural-oriented courses that address life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In the current era, with the world increasingly shifting into a global ecosystem of industry, education, business, and tourism, the need for competence in English as a tool for universal communication has also been assuming greater importance. If successful participation in a specific sphere of this new and interconnected global village is something you aspire to in terms of a future career, then English Studies at KU Sejong Campus is certain to provide you with the ideal stepping-stone to that future. The curriculum underpinning the courses available to you here and the family of professors tasked with implementing it are collectively focused on equipping you with the literary and linguistic knowledge, the social, cultural, and intercultural understanding, and the communicative skills required to competently engage in a diverse range of interactions across a diverse range of contexts on the global stage. For any of you who have that stage in mind as part of your vision for your future self, then look no further than what English Studies has to offer you. After giving your decision the consideration it deserves, I hope very much to be able to welcome all of you to one of my classes someday and to have the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helping you realize your full global potential!

- Conrad Brubacher, 영미학전공 교수

글로벌경영전공

해외 진출과 전문직 자격증 취득, 이제는 꿈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글로벌경영전공에서 완성하라!

학과소개

'경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기업'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경영학은 20세기 산업 구조가 복잡해지고 수많은 기업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실제 회사 경영에 필요로 하는 지식의 체계화와 이의 전달을 위해 경제학에서 독립한 학문입니다. 경영학은 생산관리, 인사조직, 마케팅, 재무, 회계 등으로 분류됩니다. 기업이 21세기 세계화와 정보화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경영학은 다른 어문학 또는 인문학 지식을 융합하여 국제 시장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경상대학에 속했던 경영학부가 경영 지식과 더불어 국내외를 넓게 바라보는 시각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17학년도, 글로벌비즈니스대학의 융합경영학부 소속 글로벌경영전공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글로벌경영전공은 국내 취·창업 뿐만 아니라 해외 인턴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국외로 진출할 기회 또한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일본, 베트남, 미얀마, 태국, 필리핀 등의 아시아 지역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본교와 LA에 있는 물류 회사들이 협업해 인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경영전공은 자격증 취득을 특징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본교는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 18명을 배출하는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고 최근 3년간 10명 이상의 1차 합격자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그에 맞는 커리큘럼과 시험 준비반인 '지관정'이 개설되어있습니다. 지관정은 약 3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2011년부터 공인회계사 25명, 세무사 14명으로 총 39명의 학생이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지관정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정 좌석을 배정하고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서울캠퍼스의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반 '정진초'와 협력하여 모의고사도 제공함으로써 시험장 분위기와 긴장감을 익힐 수 있도록 합니다.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 갈 리더이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이곳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글로벌경영전공입니다.

교육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인사/조직/노사 인적 자원과 조직을 관리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분야	경영통계	조직행동론 인적자원관리 기업경영과 노동법	인간관계와 소통	
회계 회계현상에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IFRS중급회계 I 관리회계 세무회계	고급회계 IFRS중급회계 II 세법개론	회계감사
재무 국가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조달 · 관리 · 운용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	기업과 경영	재무관리	기업재무 투자이론과 실제	
마케팅 상품 혹은 용역을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데 관련된 경영 학문		마케팅	서비스마케팅의 이해 마케팅 조사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사례연구
생산운영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학문		생산운영관리 경영수학	품질경영 공급사슬관리	경영과학
국제경영 다국적기업이나 세계기업을 효과적 ·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기업경제학	국제경영론 다국적기업론	국제통상론 글로벌제품혁신관리	국제경영사례연구

졸업 후 진로

대학원	대학원	학부 교육의 연장선으로 한층 더 심화 과정을 학습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공인회계사	회계기록이나 서류가 적절하게 작성이 됐는지, 허위나 부정은 없는지를 검사하며 경영진단 및 경영제도의 개선과 원가 계산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세무사	의뢰인을 위해 세금과 관련된 조언을 하거나 세무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노무사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대행 또는 대리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 중재하는 일을 합니다.
	관세사	수출입 과정에서 통관업무 대행을 맡거나 물류 관련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투자자산운용사	고객별 종합적인 자산 운용 전략을 수립하여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창업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로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기업체	인사조직분야	기업 내 직원들을 관리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마케팅, 기획부서	고객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상품을 기획하거나 홍보전략을 세우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생산부서	제품 생산에 있어서 품질 관리 등 생산 관련 업무를 합니다.
	회계 및 경리부서	기업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여 회계 기준에 따라 기록하는 업무를 합니다.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공인회계사(CPA) / 인증기관 : 금융감독원

CPA 시험을 통해 합격하면 회계감사와 세무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회계학 및 세무 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1차(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 객관식 시험과 제2차(세법개론,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 주관식 시험에 합격하여야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취업하거나 개인 회계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 인증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시험을 통해 합격하면 조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제1차(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 영어) 객관식 시험과 제2차(회계학, 세법학) 논문형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기준을 충족하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세무사는 일반기업이나 회계·법무법인 등에 입사하거나 세금 관련 컨설팅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 인증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인노무사 시험을 통해 노동 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 전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제1차(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객관식 시험과 제2차(노동법, 인사노무관리법, 행정쟁송법,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논문형 시험과 제3차(면접)을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개인사무소나 노무 법인에 취업할 수 있으며 행정관청, 공공기업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CFA / 인증기관 : 미국 CFA 협회

CFA 시험은 증권금융, 재무관리분야의 자격시험을 말한다. 응시 자격으로는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한 사람입니다. 윤리, 통계, 경제, 회계, 재무, 주식투자, 채권, 파생상품,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총 10과목을 응시해 합격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CFA는 국제자격증으로, 대기업과 공사 공단 등 취업과 실무 수행 시 우대받는 자격증입니다.

AFPK / 인증기관 : 한국 FPSB

AFPK 시험을 통해 재무설계업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한국 FPSB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AFPK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재무설계 개론, 윤리관련 기본규정, 은퇴설계, 부동산설계, 상속설계,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투자설계, 세금 설계 총 8과목을 응시하여 합격 기준에 충족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AFPK 자격증을 취득하면 재무설계사, 은행원, 보험설계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공(학과) 프로그램 및 장학금

글로벌경영전공은 학생들의 전공역량 배양을 위해 요구되는 글로벌 마인드, 타전공과 비즈니스 지식을 융합하는 사고의 유연성, 전문가 수준의 비즈니스 지식,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기마다 프로그램의 명칭도,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심화된 학습부터 실전 역량 향상까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글로벌경영전공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전공역량을 활용하고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는 학습도우미, 글로벌리서치 등의 **교과 프로그램**과, 전공 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교수-학생 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특히, 비교과 프로그램은 **교수님들께서 직접 프로그램을 설계**하실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경험을 하는 것은 물론 교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케팅 지식을 재능 기부하는 '세종시 지역 소상공인과 마케팅 산학협력', '회계자격증 취득을 위한 스터디 모임', R, SAS 등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융합경영과 통계(BUSTAT)', 외국인 학생을 매칭해주고 외국 기업·문화를 조사하는 '글로벌 프렌드십을 통한 타국 문화 이해', 인문학 서적·특강 모임을 통한 '경영, 경제와 인문학의 융합',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와 국제대회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술사업화 방안 연구' 프로그램 등이 실시되었고, 올해도 이와 유사하거나 더 발전된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글로벌경영전공은 그 이름에 걸맞게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수요에 발맞춰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글로벌경영전공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고, 매년 어떤 프로그램이 개설될지 기대하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학생자치활동

학생회

'민족고대 선진글비 무적경영'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경영 학생회는 학우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제공하는 고려대학교 글로벌경영전공 학생자치기구입니다. '새내기배움터, 개강총회, 대면식, MT'같은 과 행사와 '입실렌티, 고연전'등의 학교 행사를 글로벌경영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림슨

크림슨은 글로벌경영전공 축구 소모임으로 과 선후배들과 축구를 하며 친목도 다지고, 함께 맘을 흘리며 축구에 대한 열정을 펼치는 소모임입니다. 각종 대회에 참여하며 매년 교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글로벌경영전공 최고의 축구 소모임입니다.

레전드

레전드는 글로벌경영전공 농구 소모임으로 매주 2~3회씩 연습 및 경기를 진행합니다. 매년 교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졸업한 선배들과도 끈끈한 친목을 유지해 많은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글로벌경영전공의 전통적인 소모임입니다.

MMC

MMC는 Marketing Mad Club의 줄임말로 마케팅, 공모전, 대외활동 등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모인 고려대학교 유일의, 최고의 중앙마케팅 학술회입니다. MMC 2006년 경영학부 소모임으로 출범하였으며 2016년, 동아리연합회 소속 중앙동아리로 승격되었습니다.

시작은 경영학부를 대표하는 소모임이었으나 현재는 학교를 대표하고 전국에서 순위권에 드는 마케팅 동아리로 글로벌경영전공의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미리보는 글로벌경영전공

글로벌경영전공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경영, 경제, 마케팅, 창업, 광고' 등과 관련된 도서나 강연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고등학생 때는 경영학과 경제학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경영학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엔 인터넷, 광고에 나오는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현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본다면 경영학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추천도서] '경영학 콘서트(저자: 장영재)'

가격 책정, 마케팅 등 경영학이 다루는 다양한 주제를 개인이 현실에서 직접 접할 수 있는 문제에서 시작해서 기업의 효과적인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추천도서] '블루오션 시프트(저자:김위찬, 르네 마보안)'

이 책은 가치와 비용의 경계를 돌파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 비파괴적 창출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임을 설파한다. 실전에 강한 메뉴얼인 동시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놓는 이 책을 통해 경쟁으로 가득 찬 레드오션에서 무한한 기회가 잠든 블루오션으로 옮겨갈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디지털경영전공과의 차이점이 뭔가요?

A. 글로벌경영전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케팅, 재무, 회계 등의 학문을 심화적으로 배우게 되고, 디지털경영전공은 프로그래밍에 특화돼 있습니다. 글로벌경영전공은 다양한 학문을 아우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어느 분야로든 진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Q. 글로벌경영전공은 수학, 영어를 많이 사용하나요?

A. 글로벌경영전공은 글로벌비즈니스대학의 다른 학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학적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기업경제학, 경영통계, 회계정보의 이해, 생산운영관리, 재무관리' 등 필수 이수과목에서도 수학을 쓰고, '경영과학, 경영수학'같은 전공 선택 과목에서도 수학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글로벌경영전공은 졸업요건을 채우기 위해선 영어강의를 일정 개수 이상 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영어로 수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면, 수학영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큰 문제는 없습니다.

Q. 글로벌경영전공을 나오면 CEO가 될 수 있을까요?

A. 글로벌경영 졸업생 선배들을 보면 인사관리, 마케팅, 영업관리, 회계사 등의 일반적인 직무로 진출하신 분도 많지만 창업을 해 스타트업의 대표로 활동 중인 분도 있습니다. 글로벌경영전공은 학과 프로그램부터 교과수업까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학업과 병행하면서 이론 창업,

그리고 더 나은 일상으로 만들기 위한 도약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글로벌경영전공 입학을 준비하는 후배님들께,

저는 현재 지역 중심을 대상으로 라이프 스타일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먼저 서비스를 출시하여 창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료 인쇄 서비스 제공, 핫 클럽 광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클라우드를 통해 USB, 이메일 등으로 파일을 옮기는 번거로움 없이 인쇄가 가능한 서비스 준비 중입니다. 일상의 기쁨을 향해 그리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둥근 마음들이 모여 꾸준히 나아가고 하는 마음을 담고자, 'Mild Minds(마일드 마인즈)'로 상호명을 지어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 내 프로그램 중 하나인 '프로젝트 학기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창업을 준비하거나 연구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전공 선택과목으로 대체 가능한 수업인데, 학교에서도 창업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공 과목 중에선 '융합경영캡스톤디자인' 수업을 통해 세상에 필요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공 수업을 통해 팀원들과 함께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고, '마케팅' 수업을 통해서 마케팅에 대한 식견도 얻어 갈 수 있습니다.

각자 다른 꿈을 가지고 글로벌경영전공에 입학한 동기들과 함께 학문을 배우면서 어느새 넓어진 시야와 남다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본인만의 아이템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만으로도 여러분이 원하는 경영학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수한 교수진들과 끈끈한 선후배 네트워크는 글로벌경영전공만의 장점입니다. 저희와 함께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갈 후배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글로벌경영전공 재학생 김형준(16학번) / Mild Minds 회사 운영

특별취재

내가 직접 가게를 컨설팅할 수 있는 글로벌경영전공의 대표 비교과 프로그램

‘세종시 지역 소상공인과 마케팅 산학협력’ 담당교수, 박철 교수님 인터뷰

글로벌경영전공에는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세종시 지역 소상공인과 마케팅 산학협력’이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이 직접 지역 가게와 접촉을 하여 컨설팅을 하는 형식의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담당 교수님이신 박철 교수님에게 직접 탄생 배경에 대해 물어보았다.

Q1. 안녕하세요, 교수님! 해당 비교과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우선, 해당 프로그램이 교과가 아닌 비교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활동위주로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걸 해보자’가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왕 하되, 재능기부나 배웠던 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걸 해보자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고민해왔고, 우리 주변에 소상공인·영세 상인들을 도우면서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활동 경험을 통해 교과에서 배울 수 없는 마케팅 실전경험을 쌓게 하자’가 이번 비교과프로그램의 탄생 배경입니다.

Q2. 프로그램 대상을 세종시 소상공인·영세상인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이라는 게 지역사회를 도와야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Q3. 해당 프로그램이 학생들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기존에 학생들은 이론에서만 배웠던 마케팅지식이나 경영지식을 적용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업 인턴은 부족품처럼 쓰여서 하는 일이 되게 적은 것에 반해, 이 프로그램은 작은 규모지만 모든 애로사항과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반적인 경영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짜여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홍보 같은 경우, SNS 개설, 전단지 제작 등을 통해 학생들이 배운 바를 실제로 응용할 수 있었고 오히려 인턴보다 배우는 일이 많았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지역상인은 경영 지식보단 감으로 장사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곳에 글로벌경영전공 학생들이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시장조사도 하고 광고홍보, 영업에 도움을 주니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 못한 고객이 SNS를 통해 방문하기도 해 소상공인들이 놀란 적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장님들은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고대 학생들과 교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장사를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먼 줄만 알았는데 직접 도움을 줘서 좋았다. 특히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학생들과 교수님이 알아서 해줘서 고맙다’, ‘사회에서 우리 영세 상인을 지지해주고 있구나, 그런데 그 그룹이 고려대학교 학생과 교수구나’ 라는 얘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객관적 지표로 봤을 땐, ‘실질적 매출상승, 인지도 상승, 고객증가’ 등의 효과가 있었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Q4. 혹시 이 외에도 전공 수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마케팅사례연구’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전반부는 마케팅 사례·컨설팅 등, 이론을 가르치고, 후반기엔 팀플을 통해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 등을 컨설팅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비교과 프로그램처럼 ‘매출·인지도 상승, 홍보효과’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인증 재능기부인정, 봉사활동확인증 지급, 활동비 지급, 신문 보도’ 등, 지역상인과 학생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Q5. 학생들이 마케팅 과목을 통해 어떤 점을 얻길 원하시나요?

마케팅은 완전 실전 학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케팅을 통해 실질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선 많은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단 문제를 풀겠다는 열정, 기업에 대한 관심,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겠다는 열린 자세를 가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창의적·혁신적으로 풀 수 있게 하는 게 교수의 철학,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6. 다음 학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신가요?

이번학기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지만, 다음 학기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창업과 소셜미디어 마케팅’, ‘마케팅 창의혁신전략’이라는 전공과목도 다음 학기나 내년 1학기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Q7.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나요?

우리가 지금 조치원에 있지만, 세종시가 됐기 때문에 눈을 들어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또한, IT시대 변화와 언택트 문화의 강세 등으로 마케팅이 바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에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명예, 출세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더 아름답게 해야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본인의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지역 소상공인과 마케팅 산학협력’프로그램의 담당 교수님이신 박철 교수님을 인터뷰해보았다. 박철 교수님의 말씀처럼 전공에서 배운 지식을 습득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를 위해 활용하는 사람이 진정한 글로벌경영전공학생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글로벌경영은 위 프로그램 외에도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오직 글로벌경영전공만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의 잠재력을 펼치기 바란다.

디지털경영전공

비즈니스 혁신의 비밀, 디지털경영전공으로 오라!

학과소개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AI 까지. 다양한 용어의 등장과 함께 변화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영역은 다시는 디지털기술 없이는 생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집에서 다양한 음식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배달 시켜먹을 때,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함께 연락할 때조차도 우리는 이미 다양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디지털경영전공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발전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디지털경영전공은 사회 기반에 모든 부분에서 정보기술이 적절히 배치되어,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더 편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어떤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기업의 가치가 더 상승할 것인지를 항상 고민합니다. 더하여 우리가 사는 시스템 안에서 디지털경영전공은 매 순간 발전되는 디지털기술을 발 빠르게 다양한 분야에 접목해, 어떠한 분야든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경영전공은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절실히 필요한 경영과 정보시스템 지식을 균형 있게 갖춘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된 학과로서, 경영학과 IT의 창의적 융합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비즈니스 IT 융합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따라서 디지털경영전공에서는 컴퓨터 공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전공지식과, 경영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전공지식을 겸비하여 배웁니다. 그렇기에 많은 졸업생을 IT 분야로의 취업, 경영분야로서의 취업, 그리고 둘을 겸비하여 대입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차별성을 가지고 진출시킵니다.

최종적으로 디지털경영전공은 분야를 한정 짓지 않고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자 강점입니다. 고려대학교 디지털경영전공 졸업생들은 보건, IT 기업, 금융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진출하여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홈커밍데이'를 통해, 디지털경영전공 학부생들은 졸업생 선배들과 소통할 수 있고, 졸업 이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졸업생들 간 사회적 연결고리가 탄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이곳은 고려대학교 디지털경영전공입니다.

교육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IT/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활용 중심의 학문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중급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설계 IT기반구조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베이스 관리 웹어플리케이션 웹어플리케이션II	알고리즘 투자전략 정보시스템 관리
비즈니스 경영학 중심의 핵심 학문	마케팅 경영통계 회계정보의 이해	디지털마케팅 조직행동론	생산운영관리 재무관리	공급망관리 디지털비즈니스와 법규 정보화사례분석
디지털 비즈니스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비즈니스 융합 학문	스프레드시트의 활용 디지털비즈니스기술	시스템분석 및 설계	마케터를 위한 데이터분석	디지털융합서비스 정보시스템 감리
실무중심 핵심역량 경영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프 로젝트 방식의 학문	디지털비즈니스의 이해	디지털창업 디지털디자인사고 디지털비즈니스 모델	핀테크와 지불시스템	디지털창업과 지적 재산권 디지털창업프로젝트

졸업 후 진로

정보시스템 개발	IT분야의 개발 직무	디지털경영전공에서는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절실히 필요한 경영과 정보시스템 지식을 균형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혁신형(innovative) 인재로서, IT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개발자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영업/마케팅	국내영업, 해외영업, 영업지원, 마케팅 등	디지털경영전공은 경영과 정보기술 지식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업 직무는 다양한 직무 중에서 자기 주도적 업무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디지털경영전공 강의를 통해 의사소통력과 도전정신, 고객지향, 진취성 등 영업 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IT관련 직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업/마케팅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벤처 기업 창업	기획, PM, 디자인, 개발 등	디지털경영전공에서는 산학 연계를 통해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지식을 고루 갖춘 기업형 (connected)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창업 기반 수업도 존재하기에 많은 학우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담당 지도 교수님의 지속적인 피드백과 본교 창업교육센터의 도움으로 실제 창업을 이룬 사례가 존재합니다. 또한 실습교육을 강화하여 실무중심의 교과과정을 편성, 대부분의 과목에서 팀 프로젝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팀원들과 협력하고 의견을 조정해 가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하여 다른 팀의 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실무 역량을 강화하여 실제 창업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학원 진학	경영관리, 경영정보, 회계금융, 조직관리 국제경영, 창업	디지털경영전공은 비즈니스와 IT의 창의적 융합교육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비즈니스 IT 융합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때문에 진학할 수 있는 대학원의 전공 분야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본교 일반대학원 디지털경영학과는 e-business 전공이 활성화 되어있어 진학시에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사례분석 및 연구를 통해 전공을 심층 학습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경영인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고려대학교는 제2전공 이수를 필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경영전공 외에 다양한 전공을 제2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T, 경영 직무에 국한되지 않고 제2전공을 접목시킨 직무를 설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디지털경영전공 학생이 제2전공으로 안암캠퍼스의 보건정책관리학부를 이수한 학생이 보건계열 공기업에서 IT직무에 취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정보처리기사 / 인증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자격증으로, 정보시스템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로서 계획수립,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기사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관련 학과 학사 학위, 또는 현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지털경영전공학생들은 4학년이 되는 시점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필기와 실기로 구성되며, 자격을 취득하면 IT직무 또는 일반 사무직 진출 시 도움이 되며, 필수 조건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정보보안기사 / 인증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스템 및 솔루션 개발, 운영 및 관리, 컨설팅 등의 전문 이론과 실무능력을 기반으로 IT 기반시설 및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업무 수행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기사 시험 응시 자격은 관련 학과 학사 학위, 또는 현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종사를 요구하며, 디지털경영전공학생들은 4학년이 되는 시점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인증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컴퓨터활용능력 1급이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컴퓨터활용능력 시험은 필수조건이 되어버린 시대에 전공과 무관하게 획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Data Architecture 전문가 & 준전문가 (DAP & DAsP) / 인증기관 : 데이터베이스진흥원

Data Architecture 전문가는 효과적인 데이터아키텍처 구축을 위해 전사아키텍처와 데이터품질관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요건분석,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이용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말합니다. 기업의 정보화 전략을 둘러싸고 이를 전문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DAP 자격검정제도를 응시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DAsP는 DAP에 비해 전문성은 조금 떨어지는 준전문가 시험입니다. 따라서 디지털경영전공 내 프로그램이나 교내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비교적 쉽게 자격증을 획득 할 수 있습니다.

전공(학과) 프로그램 및 장학금

DM역량강화장학금

디지털경영전공 학생들의 전공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장학금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 강의를 지원하며, 둘째, 자격증 취득에 대한 비용(응시료)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경영전공 관련 학회인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를 방문한 학생 중 우수한 보고서를 제출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실무능력성취 장학금

매 학기 개최되는 학과 행사인 MIS Forum에서 특정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하고 탐구결과를 발표하는 학생과 MIS Forum 행사를 주관하는 대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학부생 연구원 장학금

대학원이나 연구소에 진로 희망을 가진 학생들에게 학과 교수들의 연구를 보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학습도우미 장학금

학습도우미 제도는 디지털경영전공 개설 과목 중 수강생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에 한하여 기존 수강생 중 우수학생으로 하여금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여 질문/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성공적인 수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로, 학습도우미로 선발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Q&A

Q. 디지털경영전공과 글로벌경영전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글로벌경영전공은 경영학에 중점을 둔 학문이라면, 디지털경영전공은 경영과 IT가 적절히 배치된 전공입니다. 따라서 글로벌비즈니스대학의 글로벌경영전공과 같이 경영학에 관한 학문을 배우며, 데이터베이스, 웹 프로그래밍과 같은 IT 관련 학문을 디지털경영전공에서 따로 배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 디지털경영전공에서는 취업은 어느 쪽으로 하나요?

A. 디지털경영전공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디지털경영전공의 취업 분야는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분야로 취업할 수 있으며, 보건 계열, IT 계열, 공학 계열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Q. 디지털경영전공 입학 전에 코딩을 배워야 할까요?

A. 코딩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1학년 때 들을 수 있는 과목의 범위가 넓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학한 뒤 필수과목인 비즈니스프로그래밍이란 과목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때문에 입학 전에 코딩을 학습해야 한다는 부담은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학과(전공)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모임들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래밍에 대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코딩과 프로그래밍을 잘 몰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자치활동

MITP

Make IT Possible의 약자로, 각자의 목표인 IT를 찾고 실현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로설정을 위해 기업을 탐방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팀플을 하며 분야별 공모전을 준비합니다. 나아가 디지털경영전공 전체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사회에 계신 선배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기도 하며, 학기별 1회 MIS Forum을 주최합니다.

S.2.B

S2B는 Soul to Basket의 약자로 서 농구를 통하여 선, 후배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모임입니다. 2003년 air-ball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2005년 S2B로 이름을 변경하고 팀을 재정비하여 새롭게 시작한 후 현재까지 크레이지킵, 경시대 체육대회 등 각종 교내대회에서 많은 우승경력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F.C.K.U

FCU(Footbal Club Korea University)는 디지털 경영전공과 내 축구 소모임 동아리로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최소 1주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여 운동하며 친목을 다지는 모임으로 축구를 잘하지 못해도 열정, 의지만 있으면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Web.PD

Web PD는 Web Programming and Design 의 약자로 Web기반의 프로그래밍과 디자인에 대해 공부하는 학습소모임입니다. 1998년 시작하여, HTML, 자바스크립트와 포토샵, 파워포인트 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선·후배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경영학부를 대표하는 소모임이었으나 현재는 학교를 대표하고 전국에서 순위권에 드는 마케팅 동아리로 글로벌경영전공의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Maven

Maven 은 사전적 의미로 '전문가'라는 뜻으로, 개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 전문적인 개발 능력을 키우기 위한 'IT 기술 학습 소모임'입니다. 웹, 모바일,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IT 기술을 습득하고 서로 공유하며 모두가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O.P.B.C

OPBC(One Pin Bowling Club)는 디지털 경영전공 볼링 소모임으로서,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 소모임입니다. OPBC 는 2 주에 1 번씩 정기전의 형식으로써 모임을 진행합니다. 볼링에 관심이 있으면 실력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활동을 통해서 볼링을 배울 수 있고, 친목을 다질 수도 있는 좋은 소모임입니다.

미리보는 디지털경영전공

정보화가 고도로 진전된 사회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정보시스템에 관한 지식을 겸비한 경영자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디지털경영전공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서비스 지향의 정보화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려는 의지를 가진 미래지향적인 학생이면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경영전공에서는 경영정보 및 정보기술 과목과 경영 과목(인사조직, 회계, 재무, 마케팅, 생산운영 분야)을 개설하여 경영과 정보기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 후의 다양한 진로를 고려하여 정보관리, e-business, business IT(Information Technology)의 세 전공 트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경영전공을 꿈꾸는 학생분들은 입시를 준비하면서 **IT관련 이슈**를 틈틈이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급변하고 있는 현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되려면 변하고 있는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관련 동아리로는 NIE(Newspaper In Education)활동이 있겠습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이슈를 참고하면서 지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자신감, 여러 방면에 폭 넓은 지식, 열린 토론을 통한 논리적인 사고, 끈끈한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자부심 강한 동아리 활동을 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입학을 꿈꾸는 예비 디지털경영전공인에게

안녕하세요. 경영정보학과(現 디지털경영전공) 졸업생 11학번 송용준입니다. 현재 티웨이항공 IT 고객센터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무를 선택하는데 있어 학과에서 배우는 전공과 관련 활동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를 입학에 희망하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진실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학술제 개최 및 창업프로그램 활동을 지향하는 디지털경영전공 학술 소모임인 MITP(make it possible) 회장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경영전공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을 IT기술에 접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냈습니다. 학술 소모임에서 연구했던 비즈니스모델을 본교 창업경진대회에 생활체육 플랫폼비즈니스모델로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과 소모임, 전공 수업 이외에도 본 과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실무능력성취(학술제 Forum 참여)에 적극 참여하여 많은 학우들에게 발표했던 경험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학과 소모임과 학과 생활들이 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로설정을 하는 진지한 시기 동안 디지털경영전공과 함께 하였기에 이겨내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래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절실히 필요한 인재를 희망하는 예비 입학생 분들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디지털경영전공과 함께하여 경영과 정보시스템 지식을 균형 있게 배워 비즈니스IT 융합 인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 디지털경영전공 졸업생 송용준(11학번) / 티웨이항공 재직

특별취재

E-Commerce Track

2020년도부터 융합경영학부 디지털경영전공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전자상거래 중점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학과(전공)의 특성화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E-Commerce Track을 실행합니다.

E-Commerce Track이란 실무적응력을 갖춘 실무전문가를 양성하고, 신사업 영역이나 모델을 개척하는 혁신가를 양성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디지털경영 전공 재학생들은 학과에 개설된 수업을 이수하게 되면, 실제 기업의 제품을 통해 E-Marketplace 상에서 제품 마케팅을 실습해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E-commerce에 대한 솔루션을 활용하여 마케팅 전략 및 기획, 실행하여 해당 실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경영전공에서는 재학생들이 많은 경험과 실무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경영 전공에서 배우는 모든 강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현재 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을 즉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배운 전공지식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발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단: 김은식, 강예원

04

COLLEGE OF PUBLIC POLICY

공공정책대학

..... 01 정부행정학부

88p

Devision of Public Administration

..... 02 공공사회학 전공

93p

Division of Public Sociology and Unification Diplomacy Security - Public Sociology

..... 03 통일외교안보전공

98p

Division of Public Sociology and Unification Diplomacy Security - Unification Diplomacy Security

..... 04 경제정책학전공

103p

Divisio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 Economic Policy

..... 05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107p

Division of Big Data Science

정부행정학부

"행정의 중심지에서 미래 글로벌 리더를 준비하다!"
고려대학교 정부행정학부!

학과소개

정부행정학부는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지에서 행정을 공부** 하는 학부입니다. 행정은 흔히들 국가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행정학부에서는 국가 기관에서 사용되는 세부적인 행정 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 회사, 사기업, 소모임, 동아리에서 사용되는 포괄적인 행정까지 배우는 학부입니다.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훈련을 하면서, 국제시민으로서의 발돋움 하는 것 역시 학부의 중요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부생으로서 공법(행정법, 헌법, 민법, 형법 등)을 공부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를 구성하는 법에 대한 생각의 변화와 지식의 습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정부행정학부는 전공 학문과 밀접한 정부의 주요 부처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으로써 행정이 실질적으로 작용되는 부분을 몸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부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공부를 한 후 실제 정부 부처에서 작용되는 정책과 행정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학문의 연장으로 현장을 답사하면서, 공직과 사회에 대해 꿈꾸며 정부행정학부 특성에 맞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학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aw School'반을 운영함으로써 학부생들이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학년 때부터의 성적 관리와 이후 로스쿨 진학에 필요한 시험과 자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자서 하기 힘든 부분을 교수님과 학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와 연계된 세종시 정부 부처와의 연구협약을 통해서 인턴과 연구지원으로 공직을 미리 체험해 보는 경험 또한 큰 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학부 내 다양한 소모임과 선후배 사이에 소규모로 만들어진 스터디는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은 평생 동안 이어질 자신의 꿈을 이루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찾고 선택하는 기초 과정이기도 합니다. 교수님들은 제자들에게 그 꿈을 찾기 위해 도와주고, 힘들지 않도록 지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정부행정학부에 오신다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꿈을 설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꿈꾸는 글로벌 인재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교육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국가 기본 행정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행정 리더를 만드는 학문	행정학의 이해	공공인적자원 관리론 행정과 리더십 도시행정론 정부 조직 진단론	공공관리론 행정계량분석 공공성과 측정의 이해 공기업론 공공전략관리론 인적자원 개발과 CDP	정부성과관리론 갈등관리와 협상
사회 구성 행정 사회 구조 및 법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학문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정책과 법	공공감사론
심화 행정 과정 행정 이론을 응용하는 과정		행정학개론 공공정책론 정책설계론	규제정책론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조사방법론	행정학특강 정책학 특강 정책사례연구

졸업 후 진로

공공분야	공기업	공기업은 사회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정부행정학부의 과목들은 국가와 사회의 행정을 습득하고 연구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이는 행정을 친숙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기업으로 많은 학우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공기업으로 진로를 선택할 시에 행정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기획, 인사, 총무, 법무, 회계, 홍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행정관료 및 공무원	우리나라의 기초행정과 심화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행정관료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기초행정이란 보통 시·군에서 다루는 민간을 상대로하는 행정을 말하며, 심화행정은 정부부처 또는 중앙자치단체에서 주로 다루는 행정을 말합니다. 이처럼 행정의 폭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앙자치단체, 정부청사 등에서 행정관료 뿐 아니라, 공립학교,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교도소, 우체국 시청, 군청, 읍사무소 등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행정학부에서 배우는 '행정법'과 '행정학'은 행정관료 및 공무원이 되기 위한 필수과목이며 그 외의 전공과목들이 모두 공직에서의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정부행정학부 학생들은 공직으로 진출하는 데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언론분야	프로듀서 신문기자 방송기자 아나운서	흔히 언론인이라고 하면 물적 기반을 갖춘 회사에 소속되거나 회사와 관계하여 뉴스나 신문 등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로 인식됩니다. 주로, 기사나 뉴스보도의 내용을 만드는 사람, 또는 그런 사람들을 총괄하는 편집장 내지는 언론사 사장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보장된 기본적 권리라는 점에서 사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조계	노무사	노무사(勞務士)란 노동과 관련된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노무사는 부당해고나, 산재신청, 임금체불 등에 관한 노동사건을 대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업주나 노동조합의 의뢰로 노사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사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하고, 노사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대학원	행정전문 대학원	학부 과정을 마치고 '행정'에 보다 전문적인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전문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행정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전문 대학원에서 심화 행정을 공부함을 통해 국가의 정책과 조직, 인사 부문에서 자문을 줄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합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이를 통해 국가 중요 부서나 조직 등에서 전체적인 인사 관리, 조직 구성 등을 담당하며 활약하고 계십니다.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행정사 / 인증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행정사'란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 목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해 주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행정사 시험에는 민법, 행정법, 행정학개론 등의 과목이 출제되는데, 정부행정학부에 이와 관련된 전공 과목들이 주된 과목으로 공부합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는 점도 장점이지만, 행정사사무소를 개업하거나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자격증 등 다른 자격증을 함께 취득하여 개인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분석평가사 / 발간 및 배포 : 한국정책능력진흥원 / 시험시행 : 권역별 주관 대학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정책/사업의 현황분석과 미래예측, 정책의 개발과 집행, 평가 등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획·분석·평가분야의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정책분석평가사 시험에는 조사방법론,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등이 출제되는데, 정부행정학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과목들을 연구하고 습득하고 있습니다. 학과 전공 수업을 통해 정책분석평가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쌓고 심화 과정을 학습을 통해 다른 이들보다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 인증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전문인력으로, 내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세무사는 회계학, 세법학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며, 1차와 2차에 걸친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데, 정부행정학부에서 배우는 행정법에서는 이러한 과목 외에도 행정심판, 심판청구 등 실제 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을 통해 개인 세무사무소를 개업하거나, 회계·법무법인·컨설팅사에 입사할 수도 있고, 세무직 공무원으로 응시할 시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 인증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무사(勞務士)란 노동과 관련된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시험과목들은 정부행정학부에서 배우는 민법총칙, 행정법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실제로 많은 정부행정학부 졸업생들이 노무사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관련된 업무는 분야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기업, 기관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개인 사무소를 개업하거나 법인이나 사무소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나 기업체에 취업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전공(학과) 프로그램 및 장학금

글로벌 리더십 장학금

우수한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갖춘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학금입니다.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선발되며, 선발 학생들은 미국과 일본 공공기관 현장학습 및 사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정책설계 및 분석경연대회 지원 프로그램 장학금

연 1회 학부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공정책에 대한 설계 및 분석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 순위를 판정하여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정책에 대해 탐구하고 분석법을 익히기 위한 프로그램 장학금입니다.

학습 도우미 장학금

우수 학생들로 하여금 후배들이 수강한 전공과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장학금으로 중요 교과목에 대한 강의 교재 정리, 보완, 개발을 하여 추후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참고자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직진출 장려 장학금

5, 7 급 공직시험 준비 및 국가 고시 장려를 위한 공직진출시험 장학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 장학금입니다. 재학 중 5, 7, 9급 공직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행정사, 정책분석 평가사, 세무사 등 정부행정 관련 분야의 자격증 취득시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많은 학우들의 학업과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모의 국무회의 참가 지원 프로그램

연 1회 한국행정학회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모의국무회의에 참가하는 학부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무회의에 대해 알고 다른 행정학과와 경쟁을 통해 행정학도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공공기관 인턴십 장학금

학부학생들의 공공기관 현장실습 취업을 제고를 위해 인턴십 수행이 활발해질 필요가 있어서, 세종시 및 전국 각지 공공기관에 인턴십을 수행하는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포함한 기본비를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학금입니다. 인턴십 계획서와 종료 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활동 경과를 점검합니다.

학생자치활동

학생회

새내기 배움터, 신입생 대면식, 개강총회, MT, 입실렌티, 고연전, 교우회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생 자치단체입니다. 첫째 학생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며, 둘째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활동하며, 셋째 미래의 리더의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조직 활동입니다.

형설재

형설재는 행정고시 및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만들 고시실이자, 하나의 공동체 집단입니다. 공무원시험에 필요한 강좌들을 제공하고, 행정고시 준비반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공직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설재’ 학생들은 행정학, 경제학, 법학 등 최고의 교수님들로부터 특강과 함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공무원시험 합격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행정학부에서는 학생들의 공직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졸업생들이 각 정부기관의 고급관료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싸이클론(CYCLONE)

안녕하십니까! 정부행정학부 축구 소모임 ‘CYCLONE’의 회장 16학번 김정원입니다. 싸이클론은 현재 30명 이상의 정부행정학부 회원들뿐만 아니라 타 학과 회원들이 활동 중인 캠퍼스 내 최고의 축구 소모임입니다. 교내 최대의 축구대회 KUSMA컵에서 우승, 준우승을 모두 경험하고 그 외 여러 대회에서 항상 수상을 하는 등 수많은 수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여러 회원들과 즐거운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항상 가족 같은 분위기로 반겨드리겠습니다!

캣츠(CATS)

안녕하십니까! 정부행정학부 농구 소모임 ‘CATS’의 회장을 맡고 있는 16학번 윤민입니다. ‘CATS’는 올해로 23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역사가 깊은 소모임으로 농구에 관심이 있고, 즐길 수 있는 학우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빠지지 않고 소모임 MT, 개강·종강총회 등 여러 행사를 진행하면서 선후배간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교내대회 모두 우승컵을 들어올린 실력까지 겸비한 소모임, ‘CATS’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미리보는 정부행정학부

행정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되는 학문입니다. 크게 정부와 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동아리, 소모임 활동에서도 행정은 존재합니다. 행정을 어렵고 부담스러운 학문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친숙하고 접하기 쉬운 학문으로 받아드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동아리 혹은 소모임에서 주도적으로 임원역할을 해보는 등 활동을 해볼 것을 추천 드립니다. 활동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관리하고 인원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격과 능력이 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추천도서> 박경호 저자. 재미있는 행정학.

현재 이슈가 되는 행정 부분을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책으로서 행정을 입문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추천강연> 'JTBC'에서 방송하였던 '썰전'을 추천드립니다.

유시민 정치평론가, 김구라, 박형준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한국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의 이해에 맞게 편한 분위기에서는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시청하는 과정에서 정치와 행정에 대해 기본 소양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정부행정학부는 무엇을 배우는 학부인가요?

A.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정'을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 중에서 공행정에 관한 정의이고 크게 사용하는 행정의 의미는 '고도의 합리성을 지닌 협동적 인간 노력의 한 형태와 조직 구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현대 지식인들이 살아가면서 구성해야 하는 기초적인 조직부터 한 국가를 구성하는 원리까지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토대로 국가와 기업으로 나아가 자신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Q. 학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A. 정부행정학부 분위기는 아주 활발하고, 진취적입니다. 선후배의 관계가 매우 두텁고, 소모임내 혹은 소규모 학생들의 모임에서 따뜻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학부입니다. 매년 3월 신입생이 입학하는 축제스러운 달에는 신입생들은 선배님들이 사주시는 밥 약속에 정신 없이 바쁠 것입니다. 또한 학문적으로도 생각이 깊은 학부생들이 많습니다. 미래와 국가, 사회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하고 이를 나눌 수 있는 모임도 많습니다. 자신이 남들에게 따뜻하고 다가가기 좋아하는 성격이시라면 우리 학부의 분위기는 최상일 것이고, 반대로 소극적인 성격이시더라도 동기들과 선후배들과 분명 큰 어려움 없이 어울릴 수 있을 것입니다.

Q. 어디로 취업을 많이 하시나요?

A. 행정은 다양하게 사용되는 학문입니다. 정부행정학부 과 특성상 정부기관으로 많이들 취업하곤 하지만, 모든 학우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기업, 은행, 공기업,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배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으로는 세종청사, 5급 행정고시, 일반직 7급, 9급 공무원, 법원, 교육청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입학을 꿈꾸는 예비 정부행정학부생에게

미래의 리더가 될 후배님들! 하루하루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세요!

먼저 저는 국가 5급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현재 행정사무관으로 근무 중인 11학번 박경찬이라고 합니다. 먼저 후배님들 모두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정부행정학부에 입학하셨거나 입학할 예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의 후배님들에게 원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여 하루하루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셔야 한다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에 중점을 맞추어 대학 생활을 하신다면 어느 순간 발전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 생활에서 '행정과 리더십'이라는 과목을 통해 리더십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리더십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고, 우리는 어떠한 리더십을 가진 채 생활하여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처럼 정부행정학부 훌륭한 강의들이 후배님들의 생각의 발전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사회에서 훌륭한 인재가 될 예비 후배님들을 기다리며 저도 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공행정학부(現 정부행정학부) 11학번 박경찬 사무관

고려대학교 정부행정학부에 입학을 준비하시는 모든 예비 후배님들!

정부행정학부는 한국의 행정 수도에 위치한 명문 행정학과입니다. 행정 수도와 걸맞는 실력 있고 유능한 교수님들이 교수직과 정부기관에서 근무 중이시고, 학생들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으십니다. 또 '고려대학교'하면 끈끈한 선후배 관계를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학부는 교우회 활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교우회와 재학생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 사이에서 사회에 진출한 선배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통해 자기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밝은 미래의 글로벌 리더가 되실 후배님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고려대학교 정부행정학부 제35대 학생회장 김민석

특별취재

정부행정학부 졸업생 인터뷰 - 지역인재 행정직 7급 합격

정부행정학부에 입학を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는 '공직자'를 꿈꾸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으로 선발되어 현재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부행정학부 선배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되셨나요?

A. 저는 소위 '지역인재 7급'이라고 불리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을 통해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지역인재 7급 제도는 일반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차이가 있는데요,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을 대학에서 추천하고, 추천된 학생들이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필기 및 면접전형을 통과하여 수습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보나요?

A. 이 선발시험의 경우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대신하여 5급 1차시험과 동일한 공직적격성평가(PSAT)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PSAT은 크게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PSAT을 통과하게 되면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Q. PSAT의 경우 문제를 빠르게 푸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무엇을 위주로 공부해야 하나요?

A. 1차 필기시험에 해당하는 PSAT은 기업에서 실시하는 적성시험과 유사한데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 위주의 공부보다는 독해와 계산능력 중심의 문제해결방식을 체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Q. 전공 수업도 많아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A. 학교를 다니며 강의 이후의 시간을 활용하였고, 약 9개월 동안은 오직 필기시험에만 몰두하며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6개월(6월~11월)은 온라인 기본강의를 포함해 평일 10시간 이상을 PSAT에 매진하며 문제 유형과 풀이방법을 습득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3개월(12월~2월)은 학원에서 모의고사 강의를 수강해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실수나 부족한 점을 파악해 해결책을 찾고 이를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문제풀이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Q.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공이 도움이 되었나요?

A. 7급 공무원 채용과정 중 특히 면접시험에서 행정학 전공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면접 때 행정학 수업 경험을 연계하여 발표함으로써 타 지원자에 비해 우위에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귀감이 되는 공직자가 누구인가?'라는 간단한 질문에서도, 정책사례연구 강의의 조별과제를 수행하면서 만났던 공직자를 언급하며 기존의 행정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정부 행정학부에 입학하고자 하는, 그리고 공직자의 꿈을 꾸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하루를 열심히 사는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주변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열심히 해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취재기자단: 김민석, 정인영

공공사회학전공

" 현대 사회의 중심에서 미래 사회의 새 지평을 열다! 공공사회학전공 "

학과소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는, 사회의 구성원이지요. 우리가 속한 사회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사회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은 종합적인 통찰력과 날카로운 비판력을 통해 세계화와 정보화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의 현상과 이면을 분석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합니다.

공공사회학전공은 이러한 사회학의 역할이나 범주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사회학과와 달리 사회정책, 사회적 경제, 사회조사분석 등 새로운 분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사회과학 분야의 학과들과 차별성을 두어 새롭고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해나간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학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유행을 선도하는 트렌드세터(trend setter)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 사회학이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문으로서 발전과 개혁을 지향하고, 사회의 문제들에 정면으로 대결하며, 미래를 전망하고 준비하는 학문이 되어야 한다면, 공공사회학은 공공영역의 현장&실천, 사회학의 차원 높은 이론이 통합된, '내게 힘이 되는 학과'가 될 것입니다.

눈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인재상은 융합과 통섭 능력을 갖추고 있는 개방적 성향의 전문가입니다. 하나의 전공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 공공사회학과는 학생들에게 광범위한 영역을 보여주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학, 인류학, 역사학, 정책학, 경제학 등 인접 학문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사회학입니다. 공공사회학전공에서는 사회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해 더 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더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사회학전공을 통해 진로의 폭을 넓혀 미래 세계의 새 지평을 개척하는 지성인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사회학 이론 사회학의 이론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전공	사회학 개론 고전사회학이론	현대사회학이론 시민사회론 사회계층과 불평등 대중문화연구 미디어와 사회 사회경제론	사회심리학 종교와 사회 문화와 사회 도시와 사회 예술과 사회 소비와 사회 경제와 사회 정치사회학	사회변동론 법과 인권 노동과 사회 한국사회론 몸과 사회
공공 정책 다양한 사회문제들의 정책적 방안을 공부하는 전공	사회문제론	사회적기업론 공공사회학	빈곤론 범죄정책	교육정책 정보사회와 정책 사회발전론
사회 복지 사회 복지 개념과 복지정책을 공부하는 전공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개론 가족복지론	여성복지론 복지국가론 사회운동과 NGO 노인복지론 사회보장론	문화정책
사회 조사 자료를 수집·분석을 통해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전공		사회조사방법론 사회심리측정과분석	사회통계 자료분석프로그램 서베이방법론	사회인구학 지식정보사회의 빅데이터 사회복지조사론 사회조사캡스톤디자인

실습과목

1) 사회조사실습(PUBS352)

사회조사실습은 사회조사 및 서베이의 기본을 이해하고 실천적인 지식과 기법을 현장 적용하기 위한 과목이다. 서베이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 표본 선정, 조사문항 및 조사표 개발, 자료 분석과 보고에 대한 절차적인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수업의 주요 내용이다. 사회조사분석사, 리서치 마케팅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필수적인 과목이다.

2) 사회조사 캡스톤디자인(PUBS485)

본 강의는 캡스톤 디자인이란 프로그램을 공공사회학에 적용한 것이며 학생 스스로 어떤 사회현상이나 이슈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를 발견·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 설계, 분석, 결과 및 제안까지 직접 수행하고 완성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목적을 가진 과목입니다.

졸업 후 진로

사회이론	대학원	보다 전문적으로 사회학을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사회 현상들과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 분석할 수 있으며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연구원	인간 집단의 행동, 발달, 구조 및 사회 집단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조직 및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 및 정책적 대안을 탐색합니다.
	기자	국내·외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 사고 및 정보를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합니다.
	사회교사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사회 분야의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일반사회, 세계사, 국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과목을 전문으로 교육합니다.
사회정책	국회의원	입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개정 제안·의결하고, 국가재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며, 일반 국정과 관련하여 감사와 조사를 합니다.
	정책연구원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정당과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개발합니다.
사회 통계, 조사	사회조사분석사	사회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으로 각종 단체의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조사를 수행합니다.
	광고·홍보·마케팅 전문가	특정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광고, 홍보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방안을 계획하며 실행합니다. 또한 고객을 위한 광고물의 제작 및 광고 행사를 기획·감독하고 조정합니다.
	시장 및 여론조사 전문가	정당이나 기타 공공단체를 비롯한 각 단체가 국민의식의 변화에 대한 정보나 유권자 의식정보, 투표행태정보, 단체에 대한 이미지나 이용행태 등 각 단체가 원하는 여론조사 자료를 설문법 등을 통하여 수집·분석하여 제공합니다.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학교, 병원, 수용시설, 비수용 시설, 국가기관 등에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사정, 진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기획, 실시, 평가, 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회단체활동가	정치, 경제, 환경, 복지, 고용, 여성, 청소년, 건강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국제NGO활동가	국제기구와 협력해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인권·환경·보안·성차별 등의 특정 부문을 중점적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인도주의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사회조사분석사 / 인증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조사분석사는 각종 단체에 필요한 사회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하며 그 결과를 통계 및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가입니다.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지며 응시 제한이 없는 2급과 달리 1급은 실무 경력 3년 또는 사회조사분석사 2급 취득 후 실무 경력 2년을 갖추어야 응시할 수 있고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은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통계직 공무원 8·9급의 경우 1, 2급 모두 5%의 가산, 6·7급의 경우 1급은 5%, 2급은 3%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사회복지사 / 인증기관: 한국사회복지협회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한 진단, 평가를 통해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전문가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지며 2급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이수하고 실습 160시간을 진행하면 무시험으로 취득 가능하며 1급의 경우 사회복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경력 3년 이상이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민간 사회복지관, 학교, 교정시설, 기업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고 사회복지 자격증은 사회복지공무원 응시 조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공(학과) 프로그램 및 장학금

사회이론논문경연

공공사회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전공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사회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과 내 학술동아리 '호사'에서 주최하는 <사회학 연구논문 및 에세이 공모전>에 사회학이나 사회현상을 주제로 한 결과물을 제출하고, 결과보고서를 학과에 제출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작은 '호사'에서 매년 출간하는 문집에 실려 다른 학생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계교육

공공사회학과와 대표 진로 유형에는 사회조사 분석사, 마케팅 홍보회사, 리서치 회사 등 사회통계, 조사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분석&실천적 사고 역량을 축진하기 위해 통계교육을 권장합니다. 국가기관이나 사설 기관에서 주관하는 통계학 관련 강의에 참석하거나, 통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이수증을 첨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토론

공공사회학과와 대표 진로 유형에는 정치인, 사회협동조합, 정책연구원 등 사회정책 분야나, 사회복지사, NGO 및 국제기구, 복지관 등 사회복지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변동에 관련된 사회학 이론을 토대로 하여 다가를 미래를 전망하고 준비할 수 있는 미래 비전 역량을 축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토론에 참여하기를 권장합니다. 정책 관련 학회, 토론, 포럼 등을 참석하는 경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참가비 및 소정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공공사회학과에서는 사회학 분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사회학 관련 교내외 공모전에 참가할 경우,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프로그램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사회복지사, 통계 관련 자격증 등 사회학과 관련된 자격증을 학기 중에 최종적으로 취득한 경우, 학과에서 30만 원(2020년 기준)의 프로그램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학생자치활동

학생회

새내기 배움터, 개강·종강총회, MT, 교류전, 학도의 밤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며 취업, 장학금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주며 교수님과 학과에 공공사회학과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표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락이바디

“노래를 노래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가락이바디는 민중가요 소모임으로 '노래잔치'라는 뜻의 소모임 이름처럼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거나 민중가요를 좋아하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합창하는 활동을 진행하며 다른 소모임과 달리 유일하게 새내기와 바로 위에 학번만 활동하는 동아리로 매년 연말 정기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비투스

“다양한 기질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곳”

아비투스는 락밴드 소모임으로 공공정책대학축제 공연, 학교 축제 공연, 정기공연, 연합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소모임 중 유일하게 소모임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연습 및 합주를 할 수 있고 다른 학과 학생도 가입할 수 있어서 다양한 학과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앙가쥬망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정으로”

앙가쥬망은 농구 소모임으로 1991년에 창설되어 오랜 역사를 가진 소모임으로 공정대 체육대회, 교내대회에 출전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 부원들이 모여 YB팀과 OB팀, 신입생과 재학생 등 다양한 연습경기를 진행하면서 농구 실력향상과 부원 간의 친목을 다지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뽕

“건강한 대학 생활을 우리와 함께”

뽕은 축구 소모임으로 학교 최대 축구 토너먼트인 KUSMA CUP, 공공정책대학 체육대회 및 축구 리그, 통일외교안보학과와의 교류전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목 도모와 실력 증진을 위해 매주 연습경기를 진행하며 특히 다른 학과와의 친선경기도 활발히 진행해 다양한 학과의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호사

“지를 성취하다”

호사는 학술 소모임으로 토론, 전공세미나를 통해 공공사회학도가 가져야 할 다양한 능력들을 향상하며 시험 기간에는 전공 및 교양 스터디를 통해 학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공공사회학전공 사회학 연구 및 에세이 공모전을 진행하며 수상작과 참여작 모두를 문집으로 제작해 공공사회학도들의 1년간 학문적 자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보는 공공사회학전공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사회탐구과목인 '사회문화'를 공부해보신 적이 있나요? 사회문화 과목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은 사회학의 기본으로, 공공사회학과 전공필수과목인 <사회학 개론>과 직결됩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사회 불평등, 사회화, 사회계층, 사회집단, 사회복지, 사회변동까지, 사회문화 과목에서 배운 하나의 소주제를 공공사회학과에서는 각각의 전공과목으로 깊이 있게 배우게 됩니다. 사회학은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현상이 연구주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폭넓은 활동을 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회 문제연구동아리나 신문 제작동아리에서 여러분이 속한 학교, 지역, 사회에 대해 탐색하는 기회를 갖거나, 정치/경제/독서 토론동아리의 부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피력해보세요. 발표와 토론 수업이 중심이 되는 공공사회학전공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정책토론이나 정치경제 포럼에 참여해보세요. 사회학은 정책연구, 정치학, 경제학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통해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아동 봉사나 노인봉사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공사회학전공의 <사회복지 정책론>, <노인복지론>, <교육정책>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모든 활동은 사회학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회학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까운 일부터 사회학적 시각으로 색다르게 바라보세요. 공공사회학전공의 연구가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추천영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설국열차

'계층 불평등'은 사회학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층 불평등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 <기생충>과 <설국열차>를 보면서 계층 간 빈부격차와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 빈부격차의 해결방안을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 현대 사회에서 소외되어있거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주제로 하여, 사회적 문제에 대해 시사하는 영화를 관람하고 연구 주제를 고민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추천도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정의란 무엇인가

'사회정의'를 달성하는 것은 사회학의 여러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공사회학전공에서는 정치학, 경제학, 복지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연구를 통해 토론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이라 와닿지 않으시나요? 마이클 샌델 교수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과 <정의란 무엇인가>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에게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사회학과와 전공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취재

공공사회학전공 졸업생, 전명수 교수님 인터뷰

공공사회학전공은 기존 사회학의 역할이나 범주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전통적 사회학과와 달리 사회정책, 사회적 경제, 사회조사분석 등 새로운 분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사회학과와 취업 분야로 거론될 수 있는 공공기관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보사회진흥원, 정보문화진흥원 등에 진출을 강화하면서 여론조사 및 시장조사 기업, 기업체 조사 분석실, 방송사, 신문사, 잡지사, 광고기획사 및 사회조사연구소, 사회여론연구소, 사회정책연구소, 노동 사회연구소 등에의 진출 가능성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실천중심의 사회복지학과 현장 중심의 사회 정책학을 포괄하면서 고차원의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시각을 부여함으로써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사회학전공은 공공영역의 현장실천, 사회학의 차원 높은 이론이 통합된, 그야말로 '내게 힘이 되는 학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학과에 오셔서 사회학도로서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마음껏 펼치고 거침없이 새로운 도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사회학과(現 공공사회학전공) 졸업생 전명수 교수님(94학번)

Q. 기존의 사회학과 달리 공공사회학과의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A. 공공사회학은 시대를 반영한 학문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매우 새롭고 독창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사회학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과들과는 확실히 차별성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 및 정책을 포괄하면서도 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에까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공공사회학은 개혁을 지향하고, 사회의 문제들에 정면으로 대결하며, 미래를 전망하고 준비하는 학문으로서 한국 사회학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공공사회학과의 취업전망이 궁금합니다.

A.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미래 유망직종으로 꼽히는 사회통계 및 조사 분야의 사회조사 분석사와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정책인 사회복지 분야의 사회복지사 등 공공사회학과는 취업 가능한 다양한 유망한 분야가 존재하기 때문에 취업 전망은 좋습니다.

Q. 고등학교 때 사회문화 과목을 공부하지 못했는데 공공사회학 전공과목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A. 사회문화 과목이 사회학의 기본내용과 유사해서 사회학 개론 등 기초이론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사회문화를 배우지 않아도 교수님께서 사회학의 기초부터 천천히 잘 설명해주셔서 이해하는데 문제없고, 수업을 듣다가 이해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교수님께 질문하면 친절하게 대답해주시니 큰 걱정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지식의 유무보다 전공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공사회학과에서는 발표와 토론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A. 공공사회학과에서 개설되는 전공과목에서 발표와 토론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발표와 토론은 끊임없는 사유와 다양한 경험에서부터 나옵니다. 우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새로 시행된 정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영화에서 본 사회적 소외와 차별이 실제로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겁니다. 공공사회학전공의 연구주제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주제라도 사회학적 시각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질문에 스스로 답하면서 종합적인 통찰력과 날카로운 비판력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습관은 여러분이 전공 수업을 들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풍성하고 유익한 발표와 토론의 밑거름이 됩니다.

입학을 꿈꾸는 예비 공공사회학도에게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과의 예비 후배님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사회문화 시간에 사회실재론과 사회명목론에 관해서 공부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 둘 가운데 무엇이 맞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나요? 이렇게 치열하게 대립하는 두 관점에 대해 논리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그 분석력을 기르는 것이 사회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은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학은 인문학 가운데서도 사회과학이며, 이 학문은 문과적 세계를 과학적 방법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사회학은 과학의 발달에도 빛을 잃지 않을 학문이며, 여러분이 사고하는 직접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전공입니다.

전공에 대한 것 말고도 소개해 드릴 점은 우리 공공사회학과는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의미를 더해줄 많은 소모임, 200명이 넘는 재학생과 그들을 대표하는 학생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의미와 즐거움, 뿌듯함과 보람, 낭만과 감성을 더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전공 제39대 학생회장 오형종(17학번)

취재기자단: 서지훈, 손미옥

통일외교안보전공

" 한반도 평화, 우리에게 맡겨라, 통일외교안보전공! "

학과소개

하루도 배아직업이

뉴스에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대통령의 행보, 그리고 해외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대표적이죠. 그만큼 정치, 외교, 안보는 국가의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니까요.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 6·25전쟁부터 2018년 남북정상회담까지, 파란만장한 역사가 서려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과 얽히고설킨 사례가 자주 있었지요. 소모적인 설전, 크고 작은 도발, 뜬금없는 대화 제안, 그리고 반복. 북한의 속내는 알다가도 모르겠고, 이제 그들과 '밀당'하는 것도 지치네요. 불안에 떨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면 좋을 텐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자리잡을 수 있을까요? 시작은 북한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우리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평화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통일, 외교, 안보 세 영역을 공부하고,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깊이 탐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는 당장 지금도 화두이지만, 향후 우리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제이니만큼 해당 분야의 지식이 앞으로든 꾸준히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전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 38선의 철책선은 녹슬었지만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의 가슴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평화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정녕 풀 수 없는 숙제인 걸까요? 아닙니다. 오랜 세월 가슴 속에 품어온 꿈을,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실현하리라 믿습니다.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통일외교안보전공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북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	북한정치론 북한학개론	북한인권문제 북한리더십연구	북한지리 조선로동당사	북한의사회생활 북한관광연구
통일 통일 한국을 준비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	남북한관계사연구	북한이탈주민연구 북한외교론	남북한통일정책론 북한협상전략론	남북통일세미나
외교 국제 정세를 이해하고 우리 나라와 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함	국제관계이론 한국외교사	유엔과국제기구 국제협상연구	이주및난민문제세미나 국제분쟁해결연구	한반도주변정세세미나
안보 안보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학습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방법을 연구함	국가정보학개론	전쟁과평화연구 안보연구	한반도평화체제 북한군사론	사이버안보정책세미나

현장연구(FIELD STUDY ON UNIFICATION/DIPLOMACY/SECURITY)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던가요? 우리 전공은 학생들이 교수님 설명을 들으며 공부하는 데 그치게 하지 않습니다. 전공과목 중 하나인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통일·북한·외교·안보 관련 정부조직, 민간단체, 연구소 혹은 기업체에서 현장 체험을 하며 심화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졸업 후 실무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판문점’을 답사하며 분단사의 비극을 몸소 느끼고, 이해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통해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해당 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 통일, 외교, 안보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대학원	북한학전공 통일정책전공	학부를 마치고 보다 깊이 공부하기 위해 세부전공(북한학전공, 통일정책전공)을 선택하여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할 한반도 통일문제를 두고 남·북한 간의 정치와 경제, 군사, 외교,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등을 총체적이고 학제적인 시각에서 연구함으로써 올바른 대북관과 통일관을 지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여러 기관	통일외교안보전공 학생들은 북한과 향후 통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통일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다양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거나 정책연구를 포함한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시험을 통해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북한인권정보센터 는 순수비영리 NGO로서 북한의 인권개선과 진실을 규명하는 기관입니다. 통일부 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국가정보원 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국가정보원 내에는 ‘국정원 대북 정보부’라는 별도의 부서가 있습니다.
	통일, 외교, 안보 관련 협회	이외에도 북한, 통일에 대한 전문 역량을 쌓아 관련 회의체나 협회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족통일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 국가안전보장회의 는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책수립을 하는 대통령 자문기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는 민주적 평화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제반정책을 수립합니다. 민족통일협의회 는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준비사업’, ‘국민계도사업’, ‘지역중점사업’ 등의 사업을 합니다.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외교관 후보자 시험 / 인증기관: 외교부

외교관을 꿈꾸는 경우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치른 뒤 국립외교원에 입학합니다. 그곳에서 1년 동안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선발 과정을 통과할 시 정식 외교관으로 임용됩니다.

외교관 후보자 시험은 필기, 서류, 면접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통일외교안보전공에서 전공 공부와 더불어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면 외교관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증기관 : 외교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인증기관 : 국가편찬위원회

통일외교안보전공의 전공 특성상 졸업생들이 공공기관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가산점 또는 우대 요건을 적용하므로, 자격을 취득할 경우 취업 및 관련 분야로의 진출 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 능력 시험 / 인증기관 : ETS, TEPS관리위원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통일외교안보전공 관련 진로 중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거나 외국 자료를 연구하기도 하고, 외교관의 경우 국제 회의에 참여하는 기회가 자주 있기 때문에 기본 어학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토플, 토익, 텡스,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등 기관마다 요구하는 시험의 종류와 수준이 상이하므로 지원하는 기관에 적합한 자격증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전공(학과) 프로그램 및 장학금

양병희 장학금

양병희 장학금은 학업지원장학금, 대외활동장학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학업지원장학금은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학생 중,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학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2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고 직전학기 2.75이상의 성적이 필요합니다.

대외활동장학금은 통일·외교·안보 관련 외부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성적증명서, 대회 입상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1인당 최대 수혜금액은 100만원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옴니버스 프로그램

연천군 DMZ 서부를 직접 탐방하고,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평화안보, 북한, 임진강, 상송OP, 고랑포구, 고구려유적 등의 주제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통일외교안보 전공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Unification+ Program 장학금

전공동아리 연계 프로그램장학금(UNIS, WOORI, 북세통)과 전공 연계 프로그램장학금(전공스터디), 진로개척프로젝트 특강 연계 프로그램장학금(취업절벽극복장학금)이 있으며, 학업 증진 및 북한학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나아가 진로 설정 및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 장학금입니다.

통일외교안보 졸업생·전문가 초청 특강

통일외교안보전공에서는 졸업생을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함으로써 재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외교관에게 직접 생생한 외교 정보와 현실적인 외교관 생활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문가로부터 '취업 절벽 극복, 전략적 지원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들으며 통일외교안보전공 학생으로서 나아가 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이외에도 통일외교안보전공 학생들은 다양한 학술회의, 평화 포럼, 안보 대회 등의 통일·외교·안보·북한과 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시아 청년 DMZ 평화 포럼은 DMZ 평화안보투어, 비정상회담, 한국문화체험, 초청 강연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및 통일에 대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주최 세계 장병, 청년 안보 비전 발표 대회에서는 "튼튼한 안보와 평화통일을 위한 청년의 사명과 역할",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글로벌 안보협력방안", "안보위협에 대한 국제공조방안과 대응전략" 등을 주제로 팀별 발표를 하고 약 2억 원의 상금과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학생자치활동

J.S.A

J.S.A.는 'Jazzy Sound Acoustic'의 약자로 다양한 어쿠스틱 악기로 연주를 하는 밴드입니다. 캠퍼스 내에서 어쿠스틱 음악에 대한 필요성과 음악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2012년 5월에 결성되었습니다. 악기 본연의 울림과 보컬과의 조화,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형태의 음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 말, 정기공연을 하고 있으며, 교내외에서 버스킹도 합니다.

FC남조선

FC남조선은 고려대학교 북한학과와 축구 동아리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통일외교안보전공 학생들이 매주 화요일, 다른 학과 축구팀과 정기 교류전을 펼칩니다. 공정대체육체대회나 쿼츠마케팅 등 크고 작은 대회에 참가해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외교안보전공 내 유일한 운동 동아리로서 학우들의 스트레스 해소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소모임입니다.

UNIS(대학생통일북한연구회)

UNIS는 '실천하는 지성, 통일을 위하여'라는 구호 아래, 북한 및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학술단체입니다. 통일문제, 북한문제 등과 관련한 학술연구 및 대외활동을 통해 대학사회 내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술지식/연구발표회, 정기토론회, 학술제, 연합포럼, 토론회, 학회지발간, 북한전문가 초청 강연회, 중국어수업, 프레젠테이션 대회, 북한인권사진전, 아카데미,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국내 통일관련 대학생단체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로도 유명합니다.

WOORI

WOORI는 Wain Of Our Reunification Inducement의 약자로 통일을 이끄는 복두칠성이라는 뜻입니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천안드림학교에 찾아가서 1:1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사회와 대학생 봉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힘쓰는 모임입니다.

미리보는 통일외교안보전공

통일외교안보전공을 준비하는 학생이 읽을만한 책으로는 『한국의 외교 안보와 통일 70년』, 『칼날 위의 평화: 노무현 시대 통일외교 안보 비망록』, 『토끼 투 노스 코리아』, 『외교는 감동이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와 정치 체계 및 안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소양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천 영화로는 '공동경비구역 JSA', '태극기 휘날리며', '연평해전', '인천상륙작전', '강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개봉한 영화부터 최근에 상영한 영화까지 다양합니다. 각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많은 걸 느끼고 깨닫는 기회가 될 테니 꼭 한번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

Q. 정치를 잘 알아야 하나요?

A.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뉴스와 신문을 꾸준히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치 및 외교 소양을 쌓는 방법으로 관련 활동에 참여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 활동으로는 '시사토론 동아리', '신문 읽기', '정부 부처(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견학', '시사고양 TV 프로그램 시청'이 있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개인 혹은 단체로 참여 가능한 활동이 많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여러 활동을 체험해보세요. 특히, 외교부에서 주최하는 '외교관과의 대화'라는 간담회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현직 외교관을 초청해 대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 자리인데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한 번 참석해보세요!

Q. 강의 외에 전공 관련 체험활동이 있나요?

A. 네. 우리는 책으로만 공부하지 않습니다. 안보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학생들이 교수님과 함께 판문점과 같은 남북한 접경지역을 방문하기도 하고, 통일·외교·안보 전문가를 초청하여 생생한 특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8년, 주UN 대사를 역임한 오준 대사를 초청해 특강을 들었고, 2019년에는 통일외교안보전공 교수님과 학생들이 경기도 연천의 군사 지역을 방문해 해당 부대 간부로부터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정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Q. 영어를 잘해야 하나요?

A. 외국인 교수님이 영어로 진행하는 전공 수업이 있습니다. 영어를 잘 하면 도움이 되지만 못하더라도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영상과 사진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업 내용을 알아듣는 데 문제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전공에 대한 관심입니다. 해당 분야에 열정만 있다면 수업 시간에 다루는 화제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특별취재

통일외교안보전공을 빛낸 인재들

- ◆ 2014년, 한국위기관리연구소에서 주최한 제 4회 전국 대학생 국가안보 국방정책 우수 논문발표회에서 북한학과(現 통일외교안보 전공) 김진원(09학번) 학우의 논문이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 ◆ '2014 대학생 통일을 그리다' 프레젠테이션 경연대회에서 '통일 후 통일을 위한 마인드 테라피스트'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북한학과(現 통일외교안보전공) 이지윤(13학번) 학우가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 ◆ 2015년, 고려대학교 북한학과(現 통일외교안보전공)가 전국 대학생 토론 경연 대회에서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 ◆ 2018년, 북한학과(現 통일외교안보전공) 채홍윤(16학번) 학우가 18회 「2018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습니다.
- ◆ 2018년 북한학과(現 통일외교안보전공) 백승국(15학번) 학우가 「2018 국방부 정신전력강화 연구논문 공모전 일반부 우수상(국방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양병희 목사에 대하여

통일외교안보전공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양병희 장학금'의 기부자, 양병희 목사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북한학과(現 통일외교안보전공)를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정치학 석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명예신학박사), 감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목회학 박사)에서 학업을 이어왔으며 현재 동북아한민족협의회 대표회장, 영안복지재단 이사장, 기독교연합신문사 사장, 영안장로교회 당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병희 목사는 남북화해와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20여 년간 북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약품(결핵, 영양제, 항생제 등) 지원 등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는 체계적인 대북접근과 올바른 대북지원 그리고 북한지역의 선교교양을 위해 대북지원 NGO 매뉴얼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고, 이러한 고민과 함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북한학과(現 통일외교안보전공)에서 학업을 마쳤습니다.

입학을 꿈꾸는 예비 통일외교안보전공 학생들에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군 입대를 선택했습니다. 군 복무 중, 관제사로 근무했는데 관제실 모니터에 있는 군사분계선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그곳에 막대한 비용과 수고가 들어가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북한과 통일에 관한 책과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북한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現 통일외교안보전공)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학과 내 북한이탈청소년 교육봉사 소모임 'WOORI'에서 활동했습니다. WOORI는 2013년 시작된 통일외교안보전공 소모임으로, 성장배경 특성상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아이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미술, 과학, 체육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어렵게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통일을 미리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가올 통일 한국을 이끌어 갈 주역이기도 하니 그들과 함께 꿈을 그려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활동하다 보니 대표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통일문화센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통일문화센터는 통일부,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남·북한 화합을 위한 복합 문화·교육 공간입니다. 통일문화센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통일문화센터 개관 후 운영 방식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통일부와 서울시, 남한 주민과 북한 출신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해당 기관이 위치한 서울 마곡지구의 특성을 활용했습니다. 통일전망대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문화시설이 거의 없는 환경, 그리고 이곳을 농업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서울시 정책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체험관, 지역주민 열람실, 다문화·탈북청소년 멘토링 공간 등 총 10개의 운영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DMZ 연계 안보 견학, 도시농업 교실, 한국어 교실 등 총 8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관련 기관과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도록 구상한 아이디어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전공 수업 중 '북한 엘리트연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수업은 북한 정권을 세운 정치세력들을 비롯해 현재 북한을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을 모두 다루는 수업입니다. 조직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사람에서 나오기에 그 인물들을 이해하는 것이 해당 조직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북한을 이끄는 엘리트 그룹을 4세대로 나누어 분류·분석한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북한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지도층도 대부분 세습이 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몇 세대에 걸쳐 겪은 대내외 사건과 끼친 영향을 큰 흐름으로 읽어 북한을 더 큰 틀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법조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1단계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인권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 약 3만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있는데, 그들을 품지 못하면 3천만 명의 북한 주민들과 화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2단계로 '사회적 기업 로펌' 설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분쟁 해결과 지역사회 기여에 재능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북한학·법학 전문가로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싶습니다. 마지막 3단계로 통일 한국의 법과 제도를 연구할 것입니다. 특히, 분단 상황으로 제한된 남북 주민 개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통일 한국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사회의 틀을 새롭게 짜고 싶습니다. 나아가 '법'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법을 지키려는 사람의 '가치'에 중점을 두는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통일을 '나의 일'로 여깁니다. 통일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통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잠시나마 고민해보면 통일을 향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통일을 꿈꾸는 청년
통일외교안보전공 소모임 WOORI 회장 출신
16학번 채홍윤

경제정책학전공

" 경제 연구와 정책의 대안, 경제정책학전공 "

학과소개

경제학은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재화와 용역에 대한 행위와 사회제도이기도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기 위해 희소성을 갖는 재화와 용역을 비교하고 선택하여 구매하거나 판매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최소 비용, 최대 편익의 원칙', '자원의 희소성', '기회비용',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원칙에 따른 결과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또한 **경제원칙에 따른 경제활동의 결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 '경제학과'로 출발한 경제정책학전공은 경제학의 기본은 물론 경제사, 경제사상사, 경제체제론 등 다양한 과목을 통해 경제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물론, '정책학'과의 융합을 통해 사회와 경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직관과 분석 능력을 갖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학전공 학생들은 경제정책학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자료를 분석하고, 세계 경제이슈에 대한 시각을 확대해 나가며 국제, 국가, 사회, 기업, 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정책학전공 졸업생의 상당수는 대기업, 은행, 증권회사 등 기업체, 정부투자기관, 연구소, 언론계 등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일부 졸업생들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경제학을 보다 깊이 있게 공부하고 경제전문가로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를 '經濟' 또는 'Economy'라고 부릅니다. '經濟'의 어원은 '經(지날 경), 世(세상 세), 濟(건널 제), 民(백성 민)'의 줄임말로,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구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Economy'의 어원은 집이라는 뜻의 'Oikos'와 규칙이라는 뜻의 'Nomos'의 합성어 'Oikonomia'로, '집안 살림을 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경제학은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구제하는 것'과 '집안 살림을 관리하는 것' 즉, 국가와 국민, 가계의 행복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학도로서 경제학을 통해 거시적으로는 '經世濟民'을, 미시적으로는 'Oikonomia'를 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주도하여 오늘날 국내외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적 학문인 경제학과 정책학을 배울 수 있는 이곳은 고려대학교 경제정책학전공입니다.

교육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미시 및 산업조직 개별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과 시장 배분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학문	경제학원론:미시	시장경제의 원리 도시경제이론	게임이론입문 노동경제이론 산업조직론	법과 경제 자원환경경제학
거시 및 화폐금융 국가의 인플레이션, 실업, 경제성장 등과 같은 거시경제 문제들의 설명 및 관련 정책 등에 관해 분석하는 학문	경제학원론:거시	거시경제학	정보사회와 경제 화폐금융과 경제활동 경제개방과 국민경제 경제성장의 이해	경기변동입문 한국경제의 거시분석
경제사 및 지역 경제활동의 변천을 사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그 구조적 특징을 논의함으로써 현대 경제학의 토대와 흐름을 이해하는 학문	한국경제의 이해	서구경제사 경제사상사 한국경제론	경제발전과 경제제도 한국경제사	동북아경제론 비교경제제도론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재정학 공공부문의 경제활동을 통해 배분이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 공부하는 학문			현대재정의 이론과 현실 경제정책론 조세와 국민경제	소득재분배와 사회보장제도
계량 및 수리 수학 지식을 경제학에 어떻게 응용하는가를 설명하는 학문	경제수학	경제통계학	계량경제학입문 수리경제이론	계량경제학연습 금융시계열입문
국제경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조사하여, 미래 발전 방향 및 산업전략을 분석하고 경제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학문		해외경제사례분석 I 해외경제사례분석 II 시사경제영어 I 시사경제영어 II	국제경제학:금융 국제경제학:무역 Global Economy I Global Economy II	경제학세미나 I 경제학세미나 II

졸업 후 진로

기업체	대기업 은행 증권회사	주식 펀드 판매를 통해 유입된 자금 또는 고객이 일임한 자산을 활용하여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고 투자전략에 기반을 두어 매매를 실행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연구소	금융협회 정부 출연연구소 경제학연구원 노동 분야 연구원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에 관한 체계적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국가 경제와 기업의 장단기 발전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분석, 현장 중심의 조사를 토대로 실천적 대안을 개발·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학원	대학원 교수진	대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경제학에서 심화된 경제학을 공부하여 전문화합니다. 특히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통계학부는 BK21+사업으로 선정될 만큼 뛰어난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 지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관경(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여 충남권 1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 준비반도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언론계	경제부 기자	언론계에서도 경제부를 담당하는 기자로써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공인회계사 / 인증기관: 금융감독원

세무, 회계 분야 전문자격증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자격증입니다. 대형 회계법인, 로컬 회계법인, 증권사, 투자회사, 금융권에도 취업이 가능한 굉장히 유리한 자격증입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에서는 2020년에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위원을 1100명으로 정해 앞으로 CPA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회조사분석사 / 인증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현상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 결정, 의사결정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증입니다. 기업, 정당, 정부 등 각종 단체에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의 통계처리 및 분석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 인증기관: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이며, 금융상품과 투자전략 그리고 재산 운용 능력을 평가합니다. 경제학에서 다루는 화폐 금융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으로, 증권사 취직을 희망한다면 꼭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TESAT(테셋) / 인증기관: 한국경제신문 경제연구소

TESAT(테셋)은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취준생들의 취업 준비,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승진평가에 가산점, 학점 은행제에서 경영학점으로 인정 등. 활용도가 많은 자격증입니다. 경제 현상을 이해하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으니, 현대를 살아가면서 자격증 취득이 아니더라도 공부해두면 도움이 많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전공(학과) 프로그램 및 장학금

김기화 장학금

학과 명예교수 김기화 교수님께서 제공하시는 장학금으로 경제정책학전공 학생들의 전공역량 향상과,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 수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상의 민간 및 공공기관이 주최한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외탐방 프로그램

경제정책학전공의 대표적인 해외 탐방 프로그램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를 방문하여 현재 경제를 고찰하고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연구합니다.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 실제 기업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인만큼,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외부 초청 명사특강

경제정책학전공에서는 학생들의 전공역량을 제고하고,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명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특강을 지식의 폭을 넓히고 전공에 대해서 한층 더 성숙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미래의 직업에 대해 탐구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에 진출한 졸업생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실제 직무는 어떠한지에 대해 알 수 있어 진로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격증 지원 장학금

사회조사분석사와 환경 TEAST 자격증 취득 시 축하격려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경제리더십 프로그램

교과 과정 내의 학문의 심화 과정을 통해 현실 및 해외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추가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재학생들의 학문적 탐구능력을 고취 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경제정책학전공의 발전 가능성과 졸업 후 진로 방향성에 대한 탐색해볼 수 있습니다.

학생자치활동

학생회

경제정책학과 학생을 위해 새내기 배움터, 개강총회, 종강총회, 학과 MT, 야식행사 등 경제정책학전공만의 연례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새내기부터 선배님까지 다양한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과 학우를 위한 봉사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학생자치기구입니다.

신새벽

어둠을 뚫고! 되살아나는! 신새벽에! 노래하라 그대! 민중가요 노래패 신새벽입니다. 매주 민중가요를 연습하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축제인 대동제에서 공연을 합니다. 연말에는 정기공연을 통해 졸업생과 선배님과 친밀한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숨소리

생각하는 정신! 최고의 지성인! 앞서가는 숨소리! 독서토론 소모임 숨소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도서를 한 권 선정하여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경제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사회학 등 여러 학문을 다루고 있으며, 학술적인 토론을 통해 선후배 간의 관계를 지적이면서도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EcoTigers

도전하는 정신! 강인한 체력! 최고의 테크니션! 농구 소모임 에코타이거즈입니다. 매주 농구 연습을 통해 학기마다 열리는 교내 농구 대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20대의 패기를 운동으로 표현하며, 농구라는 연결고리로 선후배 사이의 관계를 두텁게 하는 힘찬 소모임입니다.

여명

뜨거운 감성! 냉철한 지성! 행동하는 여명인! 정치경제학 학술토론 소모임 여명입니다. 매달 세미나를 개최하여 경제적 이슈나 사회 정치적 이슈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선후배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중요시합니다.

냉철한 이성,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경제학을 공부하다

제가 학생 홍보대사로 활동할 때 코엑스 정시 박람회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가장 안타까웠던 적은 17~19살의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과를 가야할 지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나의 진로에 대해 꿈 꾀보고 계획을 세워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계획한 대로 인생이 실현되라는 법은 없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 계획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대학 입시, 자신에게 맞는 전공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등학생 때, 수학 과목을 좋아했지만 다양한 학과 중에서 경제정책학전공에 지원하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에 입학하여 3년 동안 경제학을 전공으로 공부하며 19세기 경제학자 Marshall, Alfred가 경제학에 대해 내린 정의인 “경제학은 인간의 일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경제학은 사람이 먹고 사는 본질적 문제를 다루고 있고, 우리는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 효율적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제정책학전공 교수님들의 최고의 강의는 ‘경제’라는 학문을 점점 더 공부하고 싶고, 원리를 이해하고 싶게 만듭니다. 학과 내에 튼튼한 선후배 관계와 교수님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밝힐 것을 확신합니다. 경제정책학전공에 입학한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자부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파이팅!

- 백현주(18학번)/학생 홍보대사 홍랑

미리보는 경제정책학전공

경제정책학전공을 진학할 때 도움이 되는 다큐멘터리와 도서를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정책학은 시장의 자율성과 정부의 정책 사이 중 경제를 주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다루고 있는 '커맨딩 하이스'와 고전학파부터 행동경제학까지 다양한 학파의 경제학자를 소개하고 있는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추천합니다.

[추천 다큐멘터리] '커맨딩 하이스'

커맨딩 하이스란 1922년 레닌이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한 국가의 경제를 주도하는 기간산업 또는 주도 세력을 의미합니다. 100년간의 세계 경제 속에서 시장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위기의 과정에서 시장과 정부 중 경제를 주도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해 고찰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추천 도서]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국부론'을 써낸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부터 '인구론'의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 '수요공급곡선'의 앨프리드 마셜, '합리적 기대가설'의 로버트 루커스, '행동경제학'의 대니얼 카너먼까지 고전의 경제학부터 현대의 경제학을 총망라한 도서입니다.

Q&A

Q. 고등학교 사회탐구로 경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A. 고등학교 때 경제를 공부한다면 경제정책학전공 1학년 전공강의의 배경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공부하지 않고 오는 학생들이 대다수이며 1학년 전공강의에서 기초부터 탄탄히 학습할 수 있으므로 경제를 공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수학을 잘해야 하나요?

A. 경제정책학전공은 문과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전공 중 수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입니다. 수학에 자신 없더라도 1학년 전공강의 중 '경제 수학'이라는 강의를 통해 경제학에 필요한 수학을 공부할 수 있으나, 행렬과 미적분 그리고 확률, 통계에 대한 기초지식을 알고 있다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경제정책학전공의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A. 상계열인 만큼 다른 전공에 비해 취업의 제한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권사, 언론사, 연구원,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자, 대학원, 로스쿨 등 특정 진로만을 언급하기엔 다양한 분야의 진로가 존재하며, 경제학에도 세부 전공들이 존재하므로 자신이 자신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취재

경제정책학전공 졸업생 인터뷰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제정책학전공(舊 경제학과) 졸업생입니다. 저는 졸업 전 금융권 취업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선배로서 경제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경제학과를 선택을 한 건가요?"

단지 성적에 맞춰 입학을 하신건가요? 진정한 진로에 대해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신 건가요?

진정으로 진로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고 경제학과에 입학을 희망한다면, 여러분이 경제학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과는 여타 이공계처럼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입까지 이끌어주는 학과는 아닙니다. 딱히 정해진 진로가 없으며 스스로 자신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학과입니다. 실제 취업 시장에서 경제학과는 단일 분야로는 어느 파트도 가기 힘든 학과입니다. 전문적인 특색이 있는 학과가 아니며, 무난한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다른 학과 및 다른 분야와 연계를 하여 준비를 한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학 및 통계학을 연계하여 리서치 회사에 취직한 주변인들도 있으며, 미디어 학과와 연계하여 경제부기자가 되신 분, 스스로 로스쿨로 진학을 선택한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누군가가 읽게 된다면 부디 10분이라도, 아니 5분이라도 자신이 왜 경제학을 공부하고자 하는지, 앞으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부터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학과(現 경제정책학전공) 졸업생 ○○○ /금융기업 재직

취재기자단: 정기문, 백현주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데이터 폭증 시대, 진정한 빅데이터 분석! 고려대학교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학과소개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아주 작은 행위 하나까지도 모두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쌓여지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다양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근원적인 목적은 쌓여진 정보들을 분석해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여 결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는 기존의 국가통계전공과 빅데이터전공이 하나의 학부로 통합된 것으로 2006년 국내 통계학과 중 유일하게 BK21사업에 선정되어 운영되었고, 통계청과 고려대학교간의 국가통계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체결하였습니다. 국가통계 분야는 국내 대학에서 유일한 전공이라 할 수 있으며, 2019년 과학기술정보부의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구축사업'을 수주하는 등 대외적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학과입니다. 빅데이터 분야의 경우,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4년 '빅데이터융합창의연구센터'를 개설하여 통계청과 함께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분석 이론 뿐 아니라 실무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실습과 이론을 병행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 역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최신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관련 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환경을 대학 생활 중에 경험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험은 빅데이터 전문가로 사회에서 활약하는데 좋은 양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는 통계학을 활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통계이론뿐만 아니라 실무해결에 필요한 통계적 방법론, 그리고 통계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사용이 수반되는 통계 실습을 강조하고 있어, 졸업 후 현장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열풍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업 경쟁에서의 승패는 빅데이터 분석을 누가 더 잘하는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빅데이터는 기업의 영리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정활동에도 그 쓰임새가 많으며 향후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실무 중심의 탄탄한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진정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분야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고려대학교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핵심 교육역량	권장이수 학년/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데이터기반 기초 지식 이해 능력	빅데이터사이언스 입문 컴퓨터언어입문I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수학	통계학입문 컴퓨터언어입문II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행렬이론	수리통계학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초급 데이터사이언스 방법론	최적화방법론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중급				
데이터기반 기초 지식 이해 능력					데이터 사이언스 세미나I	데이터 사이언스 세미나II	데이터 사이언스특강 I	데이터 사이언스특강 II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능력			공공데이터와 표본설계 데이터시각화입문	회귀분석 국가통계지표의 이해 생명과학 데이터분석입문 최적화방법론	실험설계와최적화 공공데이터활용 배지안통계학 비모수통계학 데이터프로세싱 데이터마이닝	데이터시각화방법론 공간데이터 분석방법론 머신러닝	일반화선형모형 방법론 딥러닝이론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능력						다차원자료분석 PBL 시계열자료분석 PBL 데이터마이닝 PBL	경영경제 PBL 통계학과머신러닝 PBL 공공데이터분석 PBL 소셜네트워크 PBL	통계학과 딥러닝 PBL 범주형자료분석 PBL 서베이실습 PBL 생명과학 PBL 텍스트마이닝 PBL
빅데이터 사업화능력					프로젝트학기 I	프로젝트학기 II	프로젝트학기 III 현장실습 I, II, III	프로젝트학기 IV 현장실습 I, II, III

현장실습(Field Study)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는 기업체 채용이 늘어나는 등 갈수록 취업에서 현장실습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부생 인턴/현장실습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습기간동안 학부생들은 전세계적으로 통계패키지를 제공하는 SAS korea(한국 지사), 전세계 시청률 조사 기업 닐슨 코리아, 금융권, 사회조사 기관, 경제/경영분야, 전산/정보처리분야 등의 현장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인턴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학점인정 절차를 진행하면 계절학기, 정규학기 수업으로 등록되어 학점또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에서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연구 인턴 수행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특히 학부과정에서 참여하기 힘든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대학교 4학년 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좀 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전공을 택하여 대학원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및 통계 전문가로서 활동하며, 통계 이론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하며, 교수 또는 연구직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학원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늘면서 전문직에 취업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IT	IT컨설턴트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및 다양한 조건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 또는 분석하여 기업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마이너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며, 분석 결과를 업무적인 측면에서 결과에 대한 유용성을 판단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금융기관	보험계리사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위험에 대해 분석 및 평가하며,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료 및 준비금 등 비용을 산출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CRM(고객관계관리)전문가	고객 특성에 기초한 기업 마케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업 내 관련 고객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연구 및 설계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정부기관	통계청	국가통계 업무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며 통계 기준을 설정하는 등 국가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수집 및 해석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기획	6시그마 전문가	오늘날 기업에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는 품질관리입니다. 6시그마는 기업이 최고의 품질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객에 초점을 맞추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6시그마 전문가는 이러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과정을 통제하고, 불량을 최소화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통계컨설턴트	연구 기획 및 사업 계획 시, 필요한 통계기법 및 표본 등에 대해 조언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ADsP, ADP / 인증기관: 한국데이터진흥원

데이터 이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획 및 분석을 수행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봅니다. ADsP: Advanced Data Analytics Semi-Professional는 데이터분석준전문가로 필기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ADP: Advanced Data Analytics Professional]는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거나 ADsP를 취득해야 응시가 가능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ADsP와 ADP 자격증은 취득하기 어려우나, 빅데이터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회조사분석사 1급, 2급 / 인증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 정책결정 및 기업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장, 사회, 여론 등 다양한 조사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자격증입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년 정기 3회 실시합니다. 사회조사분석분야는 현재 수요가 크게 확장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보험계리사 / 인증기관: 보험개발원

보험계리사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보험과 관련된 요율이나 금액을 수리적/통계적으로 계산하는 직업으로 보험개발원이 시행하는 보험계리사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산업기사 / 인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

대용량의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찾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목적에 따라 분석기술과 방법론을 기반으로 정형/비정형 대용량 데이터를 구축, 탐색, 분석하고 시각화를 수행합니다..

전공(학과) 프로그램 및 장학금

통계학술활동 참여

고려대학교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가 추구하는 “경제사회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본과 교과과정과 관련된 이론적 설명에 아울러 관련 분야의 연구 및 조사발표를 학생들은 한국통계학회, 한국 빅데이터마케팅 학회 등 다양한 학회의 통계학술활동 참여를 통해 통계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법 등을 통하여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입니다.

졸업생 초청 취업-진로 멘토링

본과 졸업생을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함으로써 진출가능 분야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2019-1학기, 농협은행에 입사한 선배를 초청하여, 농협은행에서 추구하는 기업인재상과 입사에 필요한 역량들을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전문가특강

학부생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통계분야 특강을 진행합니다. 특강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계획 및 학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취업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비교과프로그램입니다.

국제공인자격증 특강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수용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향상 사회수요 변화에 관심을 갖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졸업 후 사회 진출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교과프로그램입니다.

국가공인 데이터 자격시험 프로그램 장학금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데이터아키텍처 준전문가 및 SQL 개발자,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등의 국가공인 데이터 자격시험에 응시한 학생에게 응시료 지급 해주는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자치활동

학생회

학생회에서는 새내기 배움터를 시작으로 MT, 통계체전, 입실랜티, 고연전 등 다양한 학교 행사에 있어 학과 운영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모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과 학생들을 대표하여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교내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SCR

SCR은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의 학술 소모임입니다. 대학교 전공의 경우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스스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SCR에서는 정기모임을 통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선후배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졸업하신 선배님들을 만나, 평상 시에 알기 힘든 졸업 후의 진로나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청울림

청울림은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의 밴드 소모임입니다. 청울림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고등학교에서는 하기 힘들었던 음악 활동과 모임을 통해, 매년 정기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음악과 밴드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그 꿈을 청울림에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보는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1학년 과정은 기본적인 통계학의 개념을 잡고 필요한 수학지식을 쌓는 시기로 통계적 사고, 기초통계학, 통계수학 그리고 행렬 이론등을 수강하게 됩니다. 전공 공부에 어려운 편이지만, 그만큼 기억에 많이 남고, 또한 사회 여러분야에 통계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배운 만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수학과 정보활용과 관련된 교과목을 공부하고 오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직접 통계 분석을 돌려보는 것은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져 보고, 그러한 이슈들이 어떤 통계와 관련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통계나 빅데이터에 대해 감이 잡히지 않는 학생분들이라면 '빅데이터를 지배하는 통계의 힘(니시우치 히로무 저)', '벌거벗은 통계학(찰스 월런)'등 통계나 빅데이터와 관련된 도서들을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Q&A

Q. 어떤 학생이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에 입학하면 좋을까요?

A.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갖추며 국한되지 않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시야를 겸비한 학생이라면, 데이터 및 통계분석에 적합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수학을 좋아하고 컴퓨터와 친하다.
- 분석적 사고력이 뛰어나다.
-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 세 가지 항목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로 진학하시길 바랍니다!

Q.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부해 두면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A.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는 통계를 기초로 하므로 통계 분석 프로그램과 친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R이나 파이썬 등 다양한 통계프로그램을 미리 공부한다면, 다른 학생들보다 전공 수업에 있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 학부는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전공 뿐만 아니라 시사상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는 습관이 타 전공과의 교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수학을 잘 못하는데,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에서 수학이 많이 중요시되나요?

A. 통계학과 수학은 서로 다른 학문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학을 충실히 배우고, 통계학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전공 수업을 잘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Q. 빅데이터의 미래는 어떠한 지 궁금합니다.

A. 4차 산업혁명으로 IT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필요한 자료만을 분석하는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빅데이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도 점차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세분화 되고 있어, 앞으로 빅데이터와 관련된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려대학교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의 입학을 희망하시는 예비 호랑이 데이터 전문가에게

안녕하십니까, 제41대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학생회장 박기범입니다. 최근 미래 전망에 가장 큰 관심과 기대가 되는 분야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앞으로 그 활용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AI,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로봇, 빅데이터는 모두 결합하여 산업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빅데이터는 모든 기술에 꼭 필요한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기대되오니 저희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의 훌륭한 교수님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학부의 지식 배움과 현장에 나가기 전 실습 경험을 취득하고, 선배들의 경험과 노하우에 시너지효과를 얻음으로써 미래의 빅데이터 전문가로 성장하시길 응원하며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저희 재학생들은 끊임없이 예비 데이터 전문가들을 응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박기범(18학번 재학생)/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41대 학생회장-

05

COLLEGE OF CULTURE & SPORTS

문화스포츠대학

..... 01 국제스포츠학부
Division of Global Sport Studies

112p

..... 02 문화유산융합학부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 Convergence

117p

..... 03 미디어문예창작전공
Division of Cultural Creativity - Media Creative Writing

122p

..... 04 문화콘텐츠전공
Division of Cultural Creativity - Culture Contents

127p



국제스포츠학부

'Sport for All'

글로벌 스포츠 리더의 산실! 국제스포츠학부

학과소개

'대한민국의 스포츠산업,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가 이끌 것이다.'

국제스포츠학부는 21세기 글로벌 스포츠 리더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스포츠학부는 스포츠비즈니스전공과 스포츠과학전공으로 나뉩니다. 하나의 학부에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아우르는 전문적 교육과정을 두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개인 소득의 증가와 여가시간의 확대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대됨에 따라 스포츠 산업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포츠와 관련된 비즈니스 기회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스포츠비즈니스전공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스포츠산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단순히 스포츠를 이론으로 배우는 단계를 벗어나 스포츠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하우와 지식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전공입니다.

스포츠과학전공은 신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전공학문의 과학적 연구에 헌신할 수 있는 유능한 학자, 다양하고 심도 있는 실기 수업을 통해 전문적인 운동기능을 습득하여 우수한 실기 지도 능력을 갖춘 전문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인체의 기능과 신체에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등 스포츠의 기술적 측면에 대해 주로 학습합니다. 더불어 스포츠를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 상해 예방과 대처 방법을 배우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관한 지식을 함양합니다.

국제스포츠학부는 학생들이 실무에 대한 경험을 쌓고, 실제적인 스포츠 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실기·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분야로는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업탐방, 기업인과의 미팅, 인턴십 등이 있고, 과학 분야에는 재활실습, 테이핑 실습, 의무지원, 연구 활동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여가 스포츠인 승마, 캠핑, 등산, 요트 등 수업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 외에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모임(학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선·후배, 동기들과 취미를 공유하고, 전국대학 스포츠 관련 대회나 공모전에 참가하는 등 전공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포츠는 이제 단순히 신체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형성된 거대한 문화이자 시장입니다. 스포츠를 보고 즐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그렇다면 국제스포츠학부의 구성원이 되어보시길 권합니다!

교육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글로벌 리더십 글로벌 스포츠 인재로서 기본 소양 습득	글로벌스포츠 커뮤니케이션 글로벌스포츠과학산업의 이해	스포츠 비즈니스 영어 국제스포츠문화의 이해	국제스포츠외교 글로벌스포츠비즈니스 환경의 이해	스포츠전공제2외국어
스포츠 과학 스포츠와 관련된 과학적 지식 습득	스포츠 생체역학 스포츠 트레이닝 운동 생리학	근골격계기능해부학 운동기능 해부학 환경 운동생리학	운동과 스포츠 의학 운동처방 스포츠 손상 및 관리 프렉티컬	스포츠 상해의 병리학 및 평가 노인운동처방가이드 심장재활을 위한 가이드
스포츠 비즈니스 스포츠 비즈니스 관련 지식 습득 및 시장의 이해를 위한 학습 과정	글로벌스포츠 비즈니스환경의이해 스포츠경제학 스포츠경영 국제스포츠행정	스포츠 마케팅 미디어스포츠론 스포츠사회학 스포츠프라퍼티스	스포츠소비자행동 스포츠저널리즘 스포츠시장조서론	스포츠빅데이터분석 스포츠투어리즘 스포츠에이전트실습 스포츠법률

실습교육

국제스포츠학부는 여러 스포츠를 직접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실습 과목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트, 수상스키, 테니스, 골프, 낚시, 캠핑 등 쉽게 접해보지 못하는 스포츠를 포함하여 다양한 스포츠 실습 기회가 제공됩니다. 나아가 실무적인 능력측면에서는 스포츠과학의 경우 재활, 테이핑, 마사지, 트레이닝 등 직접 해보고 가르칠 수 있는 실습이 있으며, 스포츠비즈니스는 스포츠 행사를 어떻게 만들고 관리하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이벤트에서 스태프로 실습을 하며 강의실이란 공간을 뛰어넘어 현장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강의 외에도 전공필수 과목이지만 학생자치로 이루어지는 소모임 활동이 있습니다. 크게 운동소모임과 학술소모임으로 나뉩니다. 운동소모임은 직접 운동을 하고, 전국대회에 참여하며 종목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쌓는 활동이고, 학술소모임은 스포츠 비즈니스, 스포츠과학, 스포츠저널리즘 세 분류로 나뉘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실습하며 전문성을 더하여 공모전에 참가하는 활동입니다.

졸업 후 진로

대학원	학부 과정을 마치고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 세부 전공을 선택하여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으며, 대학원 과정을 통해 스포츠과학 및 스포츠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교육자(교사, 교수, 강사)와 연구원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과학	헬스 프로모션	헬스 프로모션이란 보다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영양, 체력 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건강상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직업군에는 헬스 트레이너(PT), 건강운동관리사, 스포츠센터 경영 및 관리자 가 있습니다.	
	스포츠 의학	스포츠과학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운동을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운동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근육들과 뼈, 생리학을 배워 졸업 후 스포츠의학분야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수 트레이너(AT), 스포츠재활 전문가, 코치가 있습니다.	
스포츠 비즈니스	스포츠 비즈니스	스포츠 용품 및 의류, 스포츠과학 장비 등을 기획하거나 홍보, 마케팅 전문가로 나이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나 스포츠 기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여 기획과 기업운영, 마케팅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	스포츠와 관련된 기관에서 사무, 행정, 개발,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스포츠행정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대한체육회, 한국야구연맹, FIFA 등 스포츠 협회에서 활동하거나,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전공(학과) 프로그램 및 장학금

리더십장학금

국제스포츠학부에서 학생 대표자로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입니다. 세부 대상자로는 학생회, 학번대표, 소모임 리더이며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게 학기에 1회 장학금 수여합니다. 학기 말에는 장학금을 통한 성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부연구원장학금

대학원 진학 혹은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를 도전하려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서류 통과 후 면접 시에는 연구에 대한 브리핑을 해야하며, 장학금을 통한 연구보고서를 최종 제출해야합니다.

창업준비장학금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입니다. 서류 통과 후, 면접 시에는 사업계획서,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해야하고 장학금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 연계 프로젝트 장학금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 관련 연구 참여를 통해 실습을 경험하고, 방학에는 기업의 취업 연계형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4학년이며,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됩니다.

학생자치활동

ATLAS

학생끼리 자신만의 전문성을 서로 공유하며, 해부학과 생리학을 기초로 인간의 구성과 기능을 탐구하는 학술소모임으로, 대한운동학회에서 운동학기술경진대회 학술발표와 해부학 경시 수상, 세계 운동사 대회 학술 발표 등 화려한 공모전 입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의학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이 모여 학술대회나 학술활동을 하는 대학스포츠의학연합회 본부가 고려대 국제스포츠학부입니다. 또한 스포츠과학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선배들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경험이 있고, 운동소모임에 의무 지원을 통해 실습 경험도 가질 수 있습니다.

K-smarting

스포츠비즈니스와 스포츠저널리즘에 특화된 소모임입니다. 스포츠산업의 기업가를 초청하여 특강 통해 마케팅, 홍보, 토론, 발표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경험을 쌓고, 인터뷰를 통해 간접적인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분야의 이슈를 직접 뉴스로 만들어 발표를 하는 등 하나의 주제를 두고 토론을 하고 사무능력에 필요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소모임입니다. 또한, 스포츠비즈니스 분야의 자격증인 스포츠경영관리사, 컴퓨터활용능력 등 사무적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KUGT (골프부)

국제스포츠학부는 엘리트 선수들과 일반 학부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의 엘리트 선수들이 있는데, 골프부는 국제스포츠학부 소모임 중, 유일하게 선수들과 대면하여 스포츠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소모임입니다. 프로선수들에게 골프를 배워볼 수 있고,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SFA(Sport For All, 농구부)

매년 열리는 전국 대학 농구 대회에서 항상 입상을 해온 소모임입니다. 또한, 교내에서 농구를 제일 잘하는 소모임으로 고연전 이벤트 경기로 자주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스포츠학부 소모임 중 트로피가 가장 많은 소모임입니다. 농구를 배우는 것 외에도 선배들로부터 경기분석기록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SFA(Sport For All, 축구부)

전국 대학대회에서 64팀이나 참가하는 가장 규모가 큰 축구대회인 양구 국토정중앙기 U리그와 영월동강기 U리그에서 명성이 높은 소모임입니다. 전국대회를 준비하며 학창시절 친구들과 했던 축구와는 다른 축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경기기록분석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으며, 선수들이 부상 방지를 하기 위해 몸에 특수 테이프를 붙이는 테이핑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흑호(Black Tiger, 댄스부)

교내외 각종 행사 무대 댄스 준비 및 무대 기획을 경험할 수 있는 소모임으로, 교내외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댄스 소모임입니다. 실제로 교내 K-pop을 좋아하는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안암-세종 모든 학생들이 모여 축제를 즐기는 고려대의 제일 큰 행사인 입실렌티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종캠퍼스의 행사에서는 절대 빠지지 않는 소모임입니다. 젊음의 때에 무대를 경험하고 싶고, 색다른 경험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추천합니다.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생활체육지도자 / 인증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생활체육관련 체육지도자를 말하며 특정 대상에게 스포츠를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생활체육에서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와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나뉩니다. 필기시험-실기시험-연수-실습 과정을 거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국민체육활동의 체계적인 지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역할입니다.

건강운동관리사 / 인증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해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하는 역할에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필기 및 실기시험, 구술면접을 통과한 후 200시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사 / 인증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유소년이나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지식을 갖춰 해당 자격종목에 대해 유소년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필기 및 실기시험, 구술면접을 통과한 후 90시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선수트레이너(AT) 자격증 / 인증기관: 사)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축구 경기 등에서 부상 선수 발생시 의료자격을 들고 필드로 들어가는 스태프 등을 말합니다. 이들은 스포츠의학을 선수에 직접 적용하며, 선수가 상해를 입은 시기부터 경기 복귀할 때까지의 선수를 관리하는 역할로 협회나 팀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필기 및 실기시험(이학적검사, 테이핑, 실기), 구술면접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운동사 / 인증기관: 대한운동교육평가원

개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알맞은 운동의 계획·상담·지도·감독·평가 등에 관한 복합적인 교육 전문 기술·기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에게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운동학지식 평가시험과 현장적응능력 평가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의학과 재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며 보건소나 병원에서 볼 수 있는 직업군입니다.

스포츠경영관리사 / 인증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리나라의 스포츠 경영분야의 유일한 국가 자격증으로서 스포츠경영관리 분야에서의 올바른 직무 활동을 위해 신설되었으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에 대해 마케팅과 관리하는 직업으로서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거나 스폰서, 광고주를 유치하여 스포츠클럽이나 선수들이 나은 환경에서 본인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공공기관의 종합체육시설이나 프로스포츠 구단 또는 각종경기단체, 일반기업체, 교육기관에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는 국제스포츠학부

[추천영화]

머니볼(2011)

이 영화는 메이저리그 만년 최하위 오클랜드의 단장인 빈이 경제학 전공 분석가 피터를 영입하며 팀을 꾸리는 영화입니다. 학문을 크게 돌로 나누면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있습니다. 이를 야구라는 스포츠에 적용하여 스포츠비즈니스와 스포츠 시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골!(2005)

영화의 주인공 산티아고 뮈네즈는 다른 아이들처럼 축구 스타플레이어라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라, 엄청난 궁핍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산티아고는 개인적인 희생을 감내하고 꿈을 향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산티아고는 우연히 전직 축구 선수이자 스카우트 담당인 글렌포이 눈에 들어왔고, 이때부터 이들은 꿈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글렌포이는 산티아고를 영국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입단시키고, 여러 과정을 통해 산티아고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축구선수가 됩니다. 실력 입증에 어려운 선수를 명문 프로 구단에 입단시키는 과정, 연봉과 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과정 등 이 영화를 통해서 스포츠 에이전트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추천드라마]

스토브리그(2019-드라마)

스포츠 프로구단의 프론트(사무직)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제일 잘 담겨 있는 드라마입니다. 팬들의 눈물마져 마른 꼴찌팀에 새로 부임한 단장이 낯선 시즌을 준비는 뜨거운 겨울 이야기를 담은 이 드라마는 여러분께 간접적으로 스포츠 프로구단 사무직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제공할겁니다.

Q&A

Q. 국제스포츠학부에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만약 학교 생활을 하면서 스포츠 관련 동아리나 교내대회 등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면 '미래인재전형'이나 '글로벌스포츠인재전형'으로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인재전형과 글로벌스포츠인재전형은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활동증빙서류(선택사항)를 통해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틀은 유사하지만, 글로벌스포츠인재전형은 조금 더 '외국어'와 '스포츠'에 중점을 두고 학생을 선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한 활동은 없지만 스포츠를 좋아하고, 스포츠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 학생분들이라면 학업능력과 사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지원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Q. 국제스포츠학부는 어떤 인재를 원하나요?

A. 학교 홈페이지에 적힌 여러 인재상보다도, 국제스포츠학부에서는 능동적인 학생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고, 본인 발전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끊임없는 고민을 하는 학생이요. 단순히 성적에 맞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스포츠 관련 일을 꼭 하고자 하는 의지와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전공에 대한 관심과 애착도 많이 있어야겠죠.

Q. 국제스포츠학부는 전공을 어떻게 정하나요?

A.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자신이 지원했던 전공으로 정해지고 정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2학년 때 본인이 가고 싶은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운동을 잘 할 수 있을지, 선수 재발, 트레이닝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스포츠과학전공을, 스포츠마케팅과 행정, 실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이라면 스포츠비즈니스전공을 추천드립니다.

Q. 국제스포츠학부는 영어를 잘해야 하나요?

A. 국제스포츠학부는 학부 이름처럼 글로벌에 최적화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수업과 발표도 진행되지만,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어 수업은 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어를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 문화가 자리가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포츠 제2외국어 수업이 전공 필수 수업이 되면서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국제스포츠학부 학생들은 스포츠 영역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영어나 다른 외국어 역량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포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취재

국제스포츠학부만의 길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를 졸업하고 위피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세원입니다.

여러분들께 '위피크'를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고양·하남 스타필드에 있는 스포츠몬스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피크는 스포츠를 넘어선 새로운 놀이문화 공간을 창조하여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를 기획·운영합니다. 또한 체육교구, 체육교육 사업 등 스포츠와 관련된 사업을 다양하게 하는 기업입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좋아하는 것을 전공으로 삼고 싶어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스포츠학부는 특별히 스포츠 비즈니스와 스포츠 과학 전공을 나누어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학부입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전문분야를 세밀하게 공부할 수 있어 좋은 기회의 장이었습니다. 국제스포츠학부는 강의실에서 이론적인 부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실습수업 커리큘럼 또한 탄탄한 학부입니다. 개인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 종목을 실습으로 배우기도 하고, 직접 스포츠이벤트 현장에 스태프로 참여하여 일을 배우기도 하고, 스포츠기업에 방문하여 기업가들을 인터뷰를 하는 등 현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들이 열려있습니다.

또한, 국제스포츠학부만의 문화, '소모임'활동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자치제로 운영되는 소모임은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을 같은 학생들끼리 모여, 같이 운동하고, 대회를 준비하고 이곳저곳 놀러 다니며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국제스포츠학부는 학부생의 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에 소모임을 통하여서 사람을 만나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스포츠학부는 특별하게도 엘리트 선수와 학부생으로 구성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고려대 여자축구부, 국가대표 방상선수들과 골프선수들 등 여러 종목의 엘리트 선수들과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트 선수들을 통해 현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는 특별함이 존재합니다.

저는 특히 국제스포츠학부만의 '학생연구원'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산업 실무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스포츠 산업의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면서, 실무경험을 쌓고, 취업 연계형 인턴으로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취업까지 보장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처럼 비즈니스와 과학을 큰 틀을 나누어 이론과 실무,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스포츠학부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스포츠를 통한 비전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의 길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 국제스포츠학부 13학번 고세원 / 스포츠 네트워크 기업 '위피크' 재직

취재기자단: 박재덕, 홍혜림

문화유산융합학부

과거와 현재를 담아 미래를 향해 발돋움하는 문화유산융합학부

학과소개

문화유산은 단순히 옛사람들이 남긴 흔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유산은 **인류가 쌓아온 지혜의 축적**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활용해 미래를 설계하며 발전해왔습니다. 문화유산융합학부에서는 인류가 남긴 유적과 유물이라는 물질문화를 통하여 시대상과 문화상을 탐구하는 고고학과 미술사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고학, 미술사학을 통해 학습한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문화유산융합학부는 전공분야 최고의 교수진과 30년 동안 쌓아온 탄탄한 커리큘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학술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중국, 터키, 베트남 등에서 **답사 및 해외 유적 발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국제적 역량을 제고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습 기관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고고학 연구소, 박물관, 박물관, 전시 기획 업체 등과 협력관계를 맺고 현장실습을 정식 교과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사회로 나아가기 전 업무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과과정 외에도 강사를 초빙하여 외국어, 3D 맥스, 드론, 프리미어, 포토샵, 일러스트 등 실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비교과과정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에서 발표한 '**2020 세계 대학 평가**'에서 문화유산융합학부가 고고학 분야에서 **세계 50위, 아시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훌륭한 교과 과정과 더불어 학생 중심의 교육과 글로벌 교류 및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학과의 노력이 이룩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담아 미래로 발돋움해나가는, 이곳은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입니다.

교육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고고학 유물, 유적을 통해 과거의 문화를 복원하고 규명하는 학문	고고학이란무엇인가	한국고대문화 한국선사고고학 한국역사고고학 고고학실습 교류의고고학	한국의문화유산 고고학연구방법론	동아시아고고학 고고학특강 고고학과지형 환경고고학 일본고고학 중국고고학
미술사학 한국 및 동서양의 회화, 조각, 공예, 건축 등 미술작품을 통해서 사회문화상을 탐구하는 학문	미술사란무엇인가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 세계의문화유산 박물관실습	한국회화사 한국공예사 한국불교미술사 미술사특강 동양도자사 미술사연습	한국도자사 중국회화사 중국불교미술사 동서미술교류사
문화ICT융합 문화유산과 디지털 활용기술을 접목해 문화 콘텐츠를 창출하는 학문	문화ICT란무엇인가 문화GIS개론	문화유산앱디자인 문화유산컴퓨터그래픽스 매스미디어시대의문화유산 디지털박물관의이해 문화유산영상실습	문화유산3D실측의이해 디지털아카이브개론 VR-AR의이해와문화유산 디지털융합전시론 홀로그램의이해와문화유산	문화ICT벤처스타트업 미술사콘텐츠응용실습 문화유산융합합기획론 3D프린터응용탐구

실습교육

문화유산융합학부는 다양한 실습 기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 업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습득한 지식을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문화유산융합학부는 고고학, 미술사학, 문화ICT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만큼 다양한 실습 기관과 MOU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실습 기관은 유적 조사 및 발굴을 하는 연구조사기관, 전시를 기획하고 소장품을 관리하는 미술관, 박물관, IT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는 ICT 전시 기획 업체 등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정된 실습기관 중에서 희망하는 기관을 3순위까지 기입하고 학과회의에서 학점, 학생의 지원 신청서 등을 고려하여 실습 학생을 선발합니다. 재학 중 최대 4개월 즉,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고, 학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주로 3, 4학년 학생들의 지원율이 높습니다. 지정된 팀에 들어가 업무를 보조하고,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현장실습을 하는 학기에는 월 40만 원이 지원금으로 지급되며, 방학 중 실시하는 계절학기에는 월 40만 원의 지원금과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졸업 후 진로

대학원	대학원	학부 과정을 마치고 더욱 전문적이고 심화된 전공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전공 분야를 선택한 후 담당 교수님 지도 아래 선택한 전공분야를 심도 있게 연구합니다.
학예사	국립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국립박물관, 미술관에서 소장품의 수집·관리·연구·보존·전시 등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문화재청 학예사	문화유산 정책 및 조사 연구, 보존 관리, 활용방안과 관련된 폭넓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각 시도 지방직 학예사	지방직 공무원으로 각 시·도에 산재한 문화재를 관리, 보존하고 시·도의 박물관, 미술관에서 전시 및 학예 업무를 담당합니다.
	기업 내 문화재단 및 사립 미술관·박물관	기업 내 문화재단 및 사립 미술관·박물관의 소장품을 관리하고 전시를 기획하여 설치, 운영합니다.
	갤러리	갤러리를 운영하고 전시를 기획하며 작품을 판매합니다.
연구원	발굴 조사 전문 기관	발굴 조사를 의뢰 받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가 마무리 된 후 발굴 진행 과정 및 결과를 보고서로 간행합니다.
	문화재 조사 및 연구 기관	문화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재를 조사, 연구, 관리하고 조사 진행 과정 및 결과를 보고서로 간행합니다.
기획자	전시 기획 및 문화 기획 업체	전시 및 문화 행사를 기획, 설치, 관리합니다.
	디지털큐레이터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시하고, IT기술과 예술을 융합시킨 전시를 기획합니다.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박물관및미술관 정·준학예사 / 인증기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자격증 제도는 박물관의 전시와 운영, 자료 연구까지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학예사로서의 자격을 충족하는 전문 인력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준학예사, 3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1급 정학예사 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등급별 자격 기준은 학력과 실무 경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준학예사 자격을 통과하고 등급별 실무 경력을 충족하면 정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에게는 3급 정학예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물론, 공무원 시험을 통해 문화재청이나 지자체 기관 혹은 관련 연구소 진출에도 활용이 됩니다.

CURT 프로그램

전공과 관련된 독창적이고 새로운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공 수업에서는 고고학·미술사학의 연구자료나 ICT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등 완성된 결과물을 위주로 학습했다면, CURT 프로그램에서는 계획부터 과정까지 스스로 구성해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기 초에 선발해 한 학기에 걸쳐 진행되며,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멘토가 올바른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도록 이끌어 주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 전공분야를 위주로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월 1회 이상 지도 교수 면담과 중간 및 최종 연구 결과 제출 조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에서는 문화유산 콘텐츠 기획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리미어, 포토샵, 일러스트, 3D 맥스 등 프로그래밍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수업이 진행됩니다. 한 학기 동안 두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수업 종료 후에는 자격증 시험을 모두 응시하여야 합니다.

문화유산 콘텐츠 교육 및 기획 프로그램

전공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유산을 주제로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프로그램 기획서를 바탕으로 선발되며, 교육 프로그램부터 전시 기획, 게임 제작, 공모전 활동까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다양한 방향의 기획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고고학이나 미술사의 전문 지식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세종시 소재의 중·고등학교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이런 실질적 기획 작업을 통해 '문화유산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융합'에 대해 직접 체감하고 고민하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결과 보고서와 완성도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국제문화재산업전 부스 기획 프로그램

국제문화재산업전전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문화유산융합학부의 소개와 연구 결과물을 전시하는 부스 운영에 대한 기획과 진행을 지원합니다. 학교 외로 운영되는 연구소와 함께 협업하여 진행되며, 문화유산융합학부에서 'ICT기술과 융합한 문화유산'에 대해 어떤 연구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결과물을 전시합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결과 보고서와 부스 운영 결과물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발굴 조사 프로그램

문화유산융합학부에서는 고고학 인재 양성을 위해 직접 발굴조사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발굴조사 프로그램은 터키 발굴조사 프로그램으로, 터키 앙카라 대학 근동고고학과와 체결한 MOU에 따라 매년 하계 방학을 이용하여 앙카라 대학에서 조사 중인 히타이트 관련 유적 발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부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지원자의 학업 성적, 전공 관련 경력 사항에 따라 면접을 거친 후 선발됩니다. 유적에 따라 터키의 차낙칼레, 콘야, 초름 등의 지역으로 배치되며, 개인 소요비를 제외한 터키 왕복 항공료, 숙박비 등이 지원됩니다.

올:림

“좋은 전시는 무엇일까”에 대해 탐구하는 전시·기획 소모임입니다. 정기적인 전시회 탐방과 전시 관련 서적 발제 스터디를 통해 다양한 방식과 주제로 '전시'에 접근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 외에도 효율적인 기획과 홍보에 도움 될 수 있는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터득한 배움을 바탕으로 매 학기 직접 정기 전시를 기획하고 구성하는 활동을 통해 오랜 기간, 오랜 노력을 통해 완성되는 전시의 구성 과정과 큐레이터의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답사준비위원회

답사준비위원회는 매년 과에서 진행되는 정기답사의 기획과 진행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답사지 선정과 관련 문화유산 조사, 일정 조율 등 정기답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합니다. 문화유산융합학부 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정기답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후배가 한 팀을 이뤄 답사지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답사지를 제작한 후 답사를 진행합니다. 단순히 서적이거나 인터넷을 통한 자료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답사하기 때문에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본질적인 과정에 대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고학스터디

고고학의 역할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를 바탕으로 고고학자의 시선에 관해 연구하는 소모임입니다. KOCW (대학 강의 사이트)와 고고학 관련 서적을 통해 고고학 연구에 대한 기본 지식을 터득합니다. 고고학적 의미가 깊은 유적지 답사와 함께 고고학적 연구 방향에 대한 가치와 역할에 대해 실감할 수 있습니다. 사수, 부사수 제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고학이 낯선 학우도 쉽게 고고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 것은 물론, 고고학에 대해 탐구하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 터득할 수 있습니다.

미술사스터디

미술사에 대한 큰 흐름과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 연구 방법에 대해 탐구하는 소모임입니다. 미술사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위주로 KOCW(대학 강의 사이트) 수업을 선택해 학습하고, 각 주제에 대한 조사와 서적 발제를 바탕으로 학술 발표를 진행합니다. 사수, 부사수 제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술사가 어려운 학생도 사수의 도움을 받아 미술사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 외

문화유산융합학부에서는 전공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소모임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소모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밴드 동아리 '시나브로',댄스 동아리 'AOM' 축구 동아리 '트리플 A'와 농구 동아리 '스쿼' 등이 있으며, 관심사를 공유하며 선후배가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미리보는 문화유산융합학부

문화유산융합학부 진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국립박물관·미술관 및 문화재 담당 기관에서의 다양한 강연과 세미나에 참여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문화재 기관에서의 세미나에 참여하고 다양한 전시들을 관람하며 전공 지식을 쌓을 뿐만 아니라 전시 기획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한 전시, IT기술과 예술을 융합시킨 전시 등 다양한 전시 기획 방식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더불어 문화콘텐츠 기획 분야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도서]

『한국 고고학 강의』, 한국고고학회

이 책은 한국고고학회가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방을 아우르는 한국 고고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입문서입니다. 시대에 따라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 원삼국시대,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와 발해를 항목에 따라 나누어 소개하였으며, 아울러 고려~조선시대에 해당하는 한국 중·근세고고학의 현황까지도 살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문화유산융합학부 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 책을 통해 한국 고고학의 현황과 쟁점을 파악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문화내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도자기로 보는 조선왕실문화』, 방병선

이 책은 본교 고고미술사학과 방병선 교수님이 저술하신 책으로 '2017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조선왕실의 도자기를 통해 왕실의 문화를 살펴보는 책으로, 왕실용 도자기의 제작과 배계, 왕실의 혼례와 연회에 사용된 도자기와 왕실의 기원을 담은 태항아리, 조선 왕실용 도자기의 고유성과 독창성 등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추천 드라마]

『빛을 그린 사람들』

영국 BBC TV에서 3부작으로 방송되었던 드라마로 과거 프랑스 출신 인상파 화가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림과 삶을 소개한 드라마입니다.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라면, 분명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Q&A

Q. 다른 문화유산 관련 학과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A. 문화유산융합학부는 고고학, 미술사학, 문화ICT융합 전공 분야가 합쳐진 학부입니다. 문화유산의 중심축을 이루는 고고학과 미술사학 분야를 연구·교육하며, 이러한 학문 분야에 ICT플랫폼을 융합하여 문화유산의 새로운 콘텐츠 생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유산을 연구하는 일반 학과와는 달리, 디지털 기반의 ICT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Q. 전공 수업에서 컴퓨터를 많이 다루나요?

A. 컴퓨터를 활용하는 전공 수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공필수 과목이 아닐뿐더러 수업에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기 때문에 입학 전부터 크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Q. 역사를 잘 모르는 이과생도 지원할 수 있나요?

A. 역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으면 좋지만 입학 이후부터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역사를 잘 몰라도 관심만 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과생의 경우 ICT 관련 플랫폼에 익숙하다면 더욱 새로운 콘텐츠 생산을 도모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문화유산과 ICT를 어떻게 접목하나요?

A. 문화유산과 관련한 4차 산업 기술은 가상현실(VR/AR/MR), 디지털 복원/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브 및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로봇)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과학기술 및 ICT 분야에서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타 분야 산업과 연계를 통한 신규 사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들을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문화유산 및 전시 관련 서비스의 수요를 고려한 기술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Q. 문화ICT란 무엇인가요?

A. 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은 일상생활, 학문, 산업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문화유산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란 IT와 Communication의 합성어 개념으로,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처리·검색·송신·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의미합니다. 즉 가상(VR)·증강(AR)·혼합현실(MR), 스마트 헬스케어, 핀테크, 스마트카, 3D 프린터 등 다양한 IT 시스템 관련 기술이 포함됩니다.

문화ICT는 이러한 ICT를 활용하여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학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토털 스테이션, GPR(Ground Penetration:지중탐사), GPS 등 각종 디지털 측량 장비가 도입되고 있으며, 캐드, 일러스트레이터 등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자도면의 작성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D 스캐너, 사진측량 등 3D 측량장비 도입을 통한 고고자료의 3D 모델링 또한 활용되고 있으며, 고고학 연구에 있어 각종 통계학적 분석 및 GIS 분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융합학부에서는 3D 스캐너와 GIS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공 수업 과정을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을 접목하여 문화ICT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를 준비하는 후배님들께,

안녕하세요. 문화유산융합학부 예비 신입생 여러분.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는 기존의 고고학, 미술사학을 가르치던 고고미술사학과에서 더 나아가 현재 각광받는 ICT기술을 접목하여 문화유산 분야에서 최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방학에 진행되는 터키 히타이트 발굴 현장 참가를 비롯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 분야 최고라 할 수 있는 교수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은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고려대학교만의 끈끈한 선후배 관계와 고연전, 입실렌티 등 뜨거운 응원문화를 통해 여러분이 최고의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융합학부에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제4대 학생회장 장주석(15학번)

특별취재

문화유산융합학부 김윤정 교수님 인터뷰

고고미술사학과 91학번,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김윤정입니다. 이 학과를 졸업한 후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와 느꼈던 바가 있습니다. 사회와 시스템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도 대학은 잘 바뀌지 않지만 우리 학과는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과는 1989년에 창립되어 2019년에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많은 것들을 쌓아왔지만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은 버리며 시대에 발맞추어 변화해 왔습니다. 2017년에 고고미술사학과에 문화ICT융합전공을 새로 개설하여 문화유산융합학부로 개편했습니다. 고고학과 미술사학의 커리큘럼을 일부 양보하고 문화ICT융합전공의 커리큘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고고학, 미술사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옛날 학문, 비실용적인 학문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학과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화유산과 ICT기술을 융합하는 과정을 신설하여 실용적인 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문화유산융합학부는 더 좋은 방향을 모색하며 적극적으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융합학부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전체에서 대학원 진학률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50% 이상이 자교에서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융합학부가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학과의 분위기는 교수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수들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자주 나누며 독려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학과의 운영을 잘 따라오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융합학부는 학교 내에서 단독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수 연구실, 강의실, 대학원생 연구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어서 서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특유의 학구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우리 학과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는데, 학과 창립자인 윤세영 선생님을 필두로 학과 교수, 졸업생들께서 1억 5천만 원의 학과발전기금을 모아주셨습니다. 윤세영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과를 창립하신 만큼 학과에 대한 애정이 크시고 후학들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십니다. 문화유산융합학부는 교수, 학생, 졸업생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루며 학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려는 의지, 우리 문화유산융합학부만의 특유한 학구적인 분위기, 재학생들에 대한 학과 교수진과 졸업생들의 애정과 지원 등이 잠재된 학생들의 가능성을 끄집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학과의 열의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김윤정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급변하는 현대 속, 변하지 않는 것을 움직이는 방법

학과소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날에도 **늘 여전한 것**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외로워하고, 후회하고, 또 그리워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편지나 인터넷 댓글이나 문자 메시지 등은 모두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 위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문예창작 활동입니다.

글 한 줄로 누군가의 단단한 마음을 꿰뚫기 위해서는 단어들에 주어진 각각의 **좌표(이미지)**와 나아가려는 통일된 **방향(서사)**에 대한 섬세하고 동시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는 결코 하늘에서 내려오는 재능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배움과 시도를 통해 단련되는 예술적 감각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뒤흔들고 싶으세요?

고려대학교 문화창의학부 미디어문예창작전공은 1998년 신설된 이래 시, 소설, 희곡, 드라마 및 시나리오를 다루는 순수문예에서부터 첨단기술과 결합된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문예창작 역량이 필요한 모든 부문에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배출해왔습니다.

문단, 평단, 극단에서 중추로 활동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이끌어줍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장학금 및 세부 전공과 연계된 학과 내 소모임들이 밀어줍니다.

문인으로 등단하거나 방송사를 비롯한 각종 기관과 기업에 진출한 선배들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줍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고려대학교 문화창의학부 미디어문예창작전공에서 배웁니다.

교육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창의적 창작 인문학적 교양을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창작 이론과 실습	시의 이해 서사의 이해 아동극 이론	시 창작 세미나 소설 창작 세미나 희곡 창작 세미나 시기법론	시 창작 워크숍 소설 창작 워크숍 공연 제작 워크숍 영화론 및 연습	시 창작 특수과제 소설 창작 특수과제 아동 문학 연습
통합적 사고 문학과 세계를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론과 실습	비평의 이해	현대 시 분석 현대 소설 분석 문학과 미디어	문화와 비평 비평세미나 광고론 및 연습 1	비평론 특수과제 광고론 및 연습 2
미디어 역량 증진 방송 미디어 매체를 기반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통찰력으로 창작 능력을 개발시키는 학문	영상문학의 이해 시나리오기법 미디어의 이해 애니메이션의 이해	게임의 이해 한국영화사 디지털 스토리텔링 방송 창작 세미나	게임 기획 및 시나리오 방송 제작 워크숍 TV드라마의 이론 및 연습 문화와 장르	영상작가론
문학 이론 다양한 문학과 이론을 접하고 자신만의 견해로 작품을 분석하는 학문	희곡의 이해 세계의 문학 세계의 희곡	문예학개론 아동문학론	현대문학사	

졸업 후 진로

방송·언론분야	프로듀서, 방송작가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연출을 담당하거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본(스크립트)을 작성합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뉴스 및 저널 기자	국내외적으로 주요 사건들을 취재하고 인터뷰하여 기사문을 작성하거나 보도합니다.
광고·홍보 분야	출판 기획, 편집, 영업	출판을 기획하는 것에서부터 출판사로 들어온 원고를 교정·교열하는 일, 책 표지와 띠지에 들어갈 문구를 선정하며 책을 매대에 올리기 위한 영업을 하는 등의 출판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기관 및 기업 저널·사보	기관 및 기업에서 출간되는 홍보물이나 사보를 기획하고 편집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광고사	카피라이터가 되어 눈에 띄는 한 줄을 만들어 제품을 홍보하거나, 광고기획자로서 30초 내외의 CF 및 광고 포스터의 전반적인 컨셉과 의도를 기획합니다.
문화기획·창작 분야	게임회사	컨셉 기획서를 토대로 게임 기획안을 제작하고, 게임 시나리오 및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독창적인 게임 스토리를 개발합니다.
	문화기획사	각종 문화공연예술 및 영상콘텐츠를 기획하고, 홍보·배급합니다.
	창작자	각종 웹사이트에서 웹소설·웹툰작가로 활동하거나 영화나 드라마 시나리오작가 혹은 노랫말을 붙이는 작가사로 활동합니다. 문인으로 등단할 경우 대학 재학 중 또는 대학원 진학 후 신춘문예나 각종 문예지 공모전을 통해 등단하여 시인, 소설가, 극작가, 비평가로 활동합니다.
기타	공무원, 사서, 문화산업 행정직원, 교직원 등	공무원으로 진출할 경우 주로 도서관에서 근무하며, 이 외의 방법은 사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서가 되거나 각종 문화산업 행정기관 혹은 교직원으로 취직합니다.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신춘문예 / 인증기관: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총 28개의 신문사

중앙지, 지방지를 포함한 신문사에서 매해 개최하는 신인 작가 발굴 공모전입니다. 주로 시, 희곡, 단편소설, 문학평론 등으로 나뉘어 연말에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당선이 된다면 문예지를 통해 작가로서 등단할 수 있습니다.

KBS 한국어능력시험 / 인증기관: 한국방송공사 주관, 국립국어원 인증

정밀한 언어 수행 능력 측정을 목표로 하는 시험입니다. 한국어로 된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은 미디어문예창작 전공과 관련된 진로 분야에서 선호하는 조건입니다. 문법, 이해, 표현, 창안, 국어문화 총 다섯 가지 영역에서 80~100문제가 나오며, 1급부터 4-급까지 총 7가지 등급을 부여합니다.

사서자격증 / 인증기관: 한국도서관협회

미디어문예창작전공생이 공무원을 준비한다면 한번쯤은 도전하는 사서자격증입니다.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로 종류가 나뉘어있습니다.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공(학과) 프로그램 및 장학금

문예창작활동 및 학습 지원 장학금

미디어문예창작전공에서는 학생들의 문예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 역량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판아카데미, 영화제작프로그램, 기타 전공관련 강좌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수강료 지원 장학금'과 문예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문예창작 지원 장학금'은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이외에도 전공이론의 현장구현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 및 영화 관람비를 지원해주는 '현장견학 지원 장학금'과 각종 대외공모전에 참여하거나 수상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외공모전 지원 장학금' 등이 있으며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이나 외국어 시험 점수 취득 시에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문화예술대회 지원 장학금

매년 2학기 창작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학과 자체 문예공모전을 통해 우수작품을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며, 수상작은 학과 문집에 게재됩니다.

연구 소모임

매 학기 운영하며, 사·소설·비평·영화·광고·연극·작사 등을 연구하는 6개의 연구 소모임이 있습니다.

창작문집 - 글눈

매년 2학기, 1년 동안의 창작품을 모아 우수작을 선정하고 문집으로 발간합니다.

문학기행

매년 방학 중, 문인들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문학기행을 통한 창작의욕을 고취합니다.

교수멘토링

매 학기 운영하며, 지도교수 및 관심분야 전공지도교수님으로부터 매학기 1회 이상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제-문노리

매년 2학기, 재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활동 결실을 뽐내고 학과 간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예술제를 진행합니다.

초청특강

매 학기 운영, 현장 문화인(방송사 프로듀서, 기자, 프로그래머, 문인 등)을 초청하여 전공 시야를 넓히고, 기업 인사담당자나 졸업한 선배에게 취업 관련 정보 및 조언을 듣는 기회입니다.

학생자치활동

미메시스

모방을 의미하는 미메시스입니다. 매 학기 본인의 단편작을 공모받아 정회원을 선발합니다. 기성 작가 작품을 합평하고 현 시대의 소설 트렌드를 분석합니다. 정회원은 본인이 직접 쓴 단편작을 발표하여 회원에게 합평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소모임 중 유일하게 등단 문인이 매시간 함께하며 소설에 대해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습

기성 작가 작품을 합평하고 현 시대의 시 트렌드를 분석합니다. 본인이 직접 쓴 시를 발표하고 회원들과 함께 합평을 진행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영광 교수님이 직접 참여하여 시 합평을 진행합니다.

아킬레스건

"영화를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같은 영화를 두 번 보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영화 평을 쓰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어느 단계에 있건 당신을 환영합니다. 단편 영화를 감상하고 그 감상평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촬영 기법 등을 분석합니다. 각종 영상 공모전에 참가하여 수상을 노리기도 합니다. 대표 활동으로는 1학기 동안 단편 영화 시놉시스와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회원들이 직접 주·조연 배우와 촬영 스태프가 되어 영상물을 제작합니다. 이렇게 제작한 영상물을 공모전에 제출하는 것을 1년의 최종 목표로 설정합니다.

초대

우리의 세계로 초대한다는 뜻입니다. '제발, 안 돼'라는 연기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무작위로 두 명을 뽑아 한 명은 제발, 한 명은 안 돼, 라는 단어만을 사용하여 연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참가하며 이 테스트를 통해 대략적인 연기력을 가려냅니다. 이후 1학기 동안 기성극 낭독과 분석합니다. 방학 전 각 회원은 창작 대본을 제출하고 회원들의 투표로 선정된 대본을 2학기에 창작극으로 올립니다. 이후 무대·조명·음향 등 각종 역할을 나누고 배우들은 연기 연습을 지속합니다.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는 철학적인 독서, 비평 소모임입니다. 프로이트나 라캉 등 정신분석학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독서와 토론을 통해 인문학적 사고를 함양하고 비평문 작성의 기본을 배우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의견교류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중시합니다.

DRM

DO REAL MUSIC! 노래와 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존 노래를 개사하여 부르거나 비트를 제작하여 랩 가사를 지어 부르기도 합니다. 직접 MR을 제작하여 프로듀싱 하기도 하며 교내외 공연·행사에 참여하여 무대를 꾸밈니다.

미리보는 미디어문예창작전공

미디어문예창작전공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책, 영화, 공연을 감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체험하고, 내면화한다면 작품 창작에 대한 식견이 넓어지고 작품 창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내 연극 동아리, 방송 동아리 등에 참여해 작품을 직접 창작해 보는 경험을 가지는 것 또한 추천합니다. 본 전공에서 배우는 바와 근본적으로 비슷하기에 입학 전 미디어문예창작전공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입학 후 전공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때 당시의 경험이 좋은 예시가 될 것입니다.

[추천도서]

이동진이 말하는 봉준호의 세계(저자: 이동진)

최근 <기생충>으로 새 역사를 쓴 봉준호 감독의 작품세계를 영화평론가 이동진이 고찰하는 내용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일곱 가지 작품을 다양한 시각에서 풍성하게 논하고 있는 작품으로, 좋은 영화뿐 아니라 좋은 평론이 주는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비평과 시나리오 수업을 모두 수강할 수 있는 미디어문예창작전공을 꿈꾸는 학생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추천 영화]

지니어스(감독: 마이클 그랜디지)

유력 출판사에 근무하는 편집자가 모든 출판사에 거절당한 작가의 원고에서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와 함께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작가와 편집자의 관계를 잘 그려내고 있으며, 작품을 창조하는 작가의 고민과 작품을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편집자의 노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Q&A

Q. 문예 백일장 경험도 없고, 전문적인 첨삭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문예 창작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A. 신입생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전공 강의인 '전공필수' 강의가 대부분 이론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기, 합평 위주인 다른 학교의 문예창작과 수업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쓰기에 자신이 없는 학생은 각 분야의 전공필수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강의에서 배운 이론을 활용한다면 문예 창작의 감을 쌓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문화창의학부 내 다른 전공인 '문화콘텐츠전공'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문화콘텐츠전공은 미디어문예창작전공과 같은 학부 아래에서 학생회와 학생 행사를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입니다. 미디어문예창작전공의 전공 수업이 문학, 방송, 미디어 매체와 관련한 이론과 실습을 진행한다면, 문화콘텐츠전공의 전공 수업은 마케팅, 영상, 콘텐츠 제작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문예창작전공의 수업은 이론 수업으로 선수강 과목을 수강한 후 창작 수업으로 이어지는 커리큘럼이지만, 문화콘텐츠전공의 수업은 선수강 과목 없이 실습 위주의 수업이 많아서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에 든든한 주춧돌, 고려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고려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전공 입학을 준비하는 예비 후배님들께

텍스트를 유연하게 다루는 것은 어떤 업무를 하던 꼭 필요로 하는 능력입니다. 고려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전공은 효과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글쓰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곳입니다. 시, 소설, 희곡, 비평 등 순수 문예는 물론이고, 출판, 광고, 영화, 방송 등 다양한 매체에서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실용 문예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론 수업을 통해 텍스트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안목을 익히며, 창작 수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글쓰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쓸 수 있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역량을 기르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미디어문예창작전공의 문을 두드리길 바랍니다.

- 자음과모음 편집부 김정택(10학번)

특별취재

적어두지 않았다면,

고려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전공 입학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우리는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아는 이야기와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

호흡이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야 우리가 숨 쉬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가끔 어떤 이야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순간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이야기는 어쩌면 영영 모르는 세계에 갇혀 자신이 이야기라는 것을 잊고 살겠지요.

고려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전공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 최고의 교수님들께서는 각자의 세계를 누구보다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돌아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며, 다른 방식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학우들의 세계는 동행하므로 여러분의 세계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을 여러분의 이야기.

- 시인 홍지호(09학번)

문화콘텐츠전공

어떤 형태로든지, 향유자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다.
도전, 문화콘텐츠전공!

학과 소개

문화콘텐츠 전공은 매력적인 콘텐츠를 통해 향유자들에게 어떻게 재미를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하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는 웹툰, 자기 전까지 정주행하는 드라마, 이동 중일 때 듣는 음악까지 현재 우리들의 일상 속에 문화콘텐츠는 이미 자연스럽고 대체 불가능하게끔 스며들어 있습니다.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한 문화콘텐츠들을 자신이 생각한 대로 또 원하는 대로 가슴 뛰게 기획한 후,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전문역량을 배우고 펼칠 수 있는 특별한 전공입니다.

문화콘텐츠전공은 2017학년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문화창의학부 내 신설된 학과입니다. 학과 개설 이후 꾸준히 높은 입결과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학과는 현재 가장 유망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죠. 오늘, 문화콘텐츠는 누구보다 유망한 비즈니스이자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비즈니스입니다. 현재 문화콘텐츠전공의 학습 방향은 이론을 바탕으로 배운 전문역량들을 실습수업을 통해 자신만의 실무 역량으로 발전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론만 완벽하게 숙지했다기보다는 그것들을 얼마나 매력적으로 실현시킬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문화콘텐츠전공은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획할 수 있게끔 많은 현장 탐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전공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말로만 실무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닌 실무능력을 배우기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전공은 매 학기마다 해외 탐방(상하이 해외 탐방) 및 국내 탐방(부산국제 영화제 참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기회는 모든 문화콘텐츠전공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어느 전공보다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또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가며 트렌드를 읽는 것이 저희 문화콘텐츠 전공의 모든 것입니다. 누구든 가슴 뛰는 기획력과 그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제작 능력만 있다면 기꺼이 그 발판을 마련해 주기 완벽한 학과, 고려대학교 문화콘텐츠전공입니다.

교육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문화콘텐츠 기본 소양 가장 기본적인 문화콘텐츠 전공에 대한 이론 및 실기 능력	문화콘텐츠론 문화콘텐츠 산업론	문화콘텐츠와 인문지식 I, II	영상제작실습 웹콘텐츠 제작 실습	문화콘텐츠 연출론 문화콘텐츠 현장탐방 문화콘텐츠 현장실습 I, II, III
문화콘텐츠 관련 소양 기본 다지기 후, 문화콘텐츠전공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부수적 이론	소셜 커뮤니케이션론	스마트 미디어론 문화콘텐츠와 공간	공공이슈해결캡스톤디자인 I, II	문화콘텐츠 정책의 이해 문화콘텐츠와 미학 문화콘텐츠 세미나 II
문화콘텐츠 제작 소양 다양한 문화콘텐츠 장르에 대한 창작 활동 (이론 및 실기)	캐릭터의 분석과 창조	스토리텔링의 전략과 활용 창의적 발상의 방법과 개발	문화콘텐츠 세미나 I 영화기획 및 마케팅 관광 및 축제콘텐츠 개발과 운영 소셜미디어 활용전략 문화콘텐츠 프로젝트 I 디지털스토리텔링캡스톤디자인 I, II	문화콘텐츠 프로젝트 II 졸업작품
문화콘텐츠 비즈니스 태도 소양 문화콘텐츠 학과에서 많은 사람들과 협업 시 필요한 능력	문화콘텐츠 향유자의 이해 문화콘텐츠 마케팅	콘텐츠 앵글리시 I 콘텐츠 앵글리시 II 문화콘텐츠 마케팅 케이컬처의 오늘과 내일	콘텐츠 앵글리시 III 글로벌 문화의 이해 I 향유자 경험의 설계와 활용 전략 사회 트렌드의 이해와 분석	프리젠테이션의 전략과 기술 글로벌 문화의 이해 II 문화콘텐츠 큐레이션 마케팅콘텐츠캡스톤디자인 I, II

실습 과정

문화콘텐츠전공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전공과목을 통해 실제 자신의 작품을 제작하고, 전공과 관련된 현장을 탐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졸업작품' 과 '현장탐방'이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기획	콘텐츠 매니저	콘텐츠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좋은 콘텐츠를 편하게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콘텐츠 매니저는 그 목표가 잘 이뤄지도록 전체적인 흐름을 관리/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행사 기획자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거나 지역 진흥을 위한 전시회, 시사회, 축제, 자동차 시승회, 국제회의 등 다양한 행사의 기획 및 섭외, 실행을 합니다. 행사 프로그램에 관한 홍보자료를 준비하고 행사를 선전하여 행사 참가자 조직을 구성합니다.
	게임 기획자	게임의 코어 시스템과 룰을 바탕으로 유저가 직접 플레이하는 형태의 내러티브 콘텐츠를 디자인하고 개발하여 게임에서 플레이어의 경험을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주로 시나리오 작성, 내러티브 콘텐츠 디자인, 연출 디자인, 데이터 입력과 관리 등의 주요 업무가 있습니다.
	영화 기획자	영화의 기획에서부터 개봉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기획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새로운 영화 소재의 발굴을 위해 소설 또는 대본(시나리오)을 검토하고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한 다음, 영화의 기본 시나리오와 인력, 소요 비용, 제작 기간 등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합니다.
	카피라이터	주로 광고대행사에서, 광고 문안 및 대사/콘티/컨셉 도출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직업을 이르는 말입니다.
	광고 기획자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 제작 방향 및 전략 수립에서부터 실제 광고 제작까지의 전체적인 관리와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광고 문안, 광고의 영상 및 그래픽 등을 모두 총괄정리해서 광고를 완성시킵니다.
제작/연출	방송 연출가	방송국 혹은 외주 제작사에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등을 책임지는 총책임자입니다.
	영상 번역가	외국어를 잘해도 영상번역 기법을 익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일입니다. 자막을 넣을 수 있는 공간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번역 시 글자 수를 고려해야 하고, 싱크를 맞추는 기술적인 부분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미국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를 번역하고 자막을 넣는 일까지, 영상번역가가 하는 일은 출판번역, 기술번역과는 많이 다릅니다.
	영화 제작자	한마디로 영화 제작의 초기 단계부터 제작과 완성, 배급, 광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정,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영화의 연출을 담당하는 영화감독과는 구별됩니다.
	유튜버(크리에이터)	유튜버(YouTuber)는 인터넷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에서 직접 기획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 공유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직업입니다.
대학원	대학원	문화콘텐츠를 학문으로서 관심이 있는 경우, 대학원에 진학하여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선배들과 교류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자신의 지식을 펼쳐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GTQ 그래픽기술자격 / 인증기관: kpc 한국생산성본부

Adobe Photoshop 이라는 디자인 툴 제작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증입니다. 응시 자격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내 기능들을 4가지 문제로 풀 수 있게 구성돼 있습니다. GTQ 포토샵 2,3급은 60점 이상, 1급은 70점 이상 점수를 획득 시 합격 기준으로 합니다. GTQ 포토샵 1급과 2급 합격자는 국가공인자격 시험 합격에 대한 우대를 따르고 있습니다.

KBS 한국어능력시험 / 인증기관: 한국방송공사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인하는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으로 시험 결과로 나온 자격증은 공무원 임용 승진, 언론 직종 입사, 기업 취업에 활용됩니다.

전공(학과) 프로그램 및 장학금

국내외 탐방 지원 장학금

문화콘텐츠전공 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탐방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장학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연 3회 정도 진행되며 (국내 탐방 2회, 국외 탐방 1회입니다.) 예를 들면, 매년 탐방을 진행하는 부산국제영화제 및 해외 문화콘텐츠 요소 탐방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장학금은 문화콘텐츠 전공 학생들이 전공지식을 부담 없이 확장 시키기 위해 문화콘텐츠전공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입니다.

콘텐츠 콘테스트 장학금

1학기에 진행되는 1학년 세미나 수업 중 진행되는 콘텐츠 콘테스트 출품작 중 지도교수 평가를 통해 선발된 작품 제출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제출된 작품은 공개 합평을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우수작에 선정된 6개의 작품 제출자에게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 활동은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에게 고려대학교가 지니는 의미에 대한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신입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에 대해 생각하고 그와 동시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장학금입니다.

각종 공모전 장학금

학년 말 공모전 수상 실적을 제출한 학생에게, 학과 내부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장학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이 장학금은 교외 공모전 참가 실적에 대한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실적을 제출한 학생들 모두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방학 동안 공모전 참가 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학금이 되기도 합니다.

학과 웹콘텐츠 제작 및 홍보 장학금

문화콘텐츠 전공 공식 블로그 및 SNS 운영지기인 문랑이를 매년 신규 선발 후, 학년 말에 제출하는 학생에 한하여 소정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문랑이는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내국인 학생 3명과 게시물의 외국어 번역을 담당하는 외국인 학생 1명으로 구성되며 정기적인 업로드하는 것이 업무입니다. 문화콘텐츠전공 내국인 및 외국인 학생 모두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동시에 학과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공유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장학금입니다.

학생자치활동

학생회

새내기 배움터, 교류전(체육대회), 응원제, 고연전 등 학부 및 학교 내 행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및 참여에 도움을 주는 문화창의학부 내 학생자치기구입니다. 학부 및 학과 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교류를 하고 싶은 학우들에게 추천하는 활동입니다.

★ 난 사람들이 좋다! 친해지고 싶다!
학과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 ★

연성(YeonSung)

피울 연(演), 이룰 성(成) — 숨어있는 애니메이션 작품을 찾아 꽃피우다

문화창의학부 애니메이션 소모임입니다. 연성은 피울 '연(演)' 이룰 '성(成)'을 사용해 숨어있는 작품(애니메이션)을 찾아 꽃 피우겠다는 뜻입니다. 매주 소모임 부원들끼리 모여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그에 대한 의견들을 합평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모두가 공유하고 싶은 애니메이션 작품과 생각을 부담 없이 이야기하며 즐길 수 있기에 평소에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소모임입니다.

★ 애니메이션에 관심 있다! 재밌거나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알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 ★

학생자치활동

문란

문화창의학부의 '문' 빛날 '란(欄)' 문화창의학부에서 빛나는 활동을 기대하라

문화창의학부 춤 소모임입니다. 문란의 이름은 문화창의학부의 '문'과 빛날 '란(欄)'을 사용해 문화창의학부에서 빛나는 활동을 기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소모임 부원들끼리 모여 춤을 배우는 활동적인 소모임입니다. 입학한 후, 공부뿐만 아니라 같은 학부 사람들과 친밀하고 재밌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학부 내 행사에서 공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어지는 소모임입니다.

★ 흥을 참지 못한다! 열심히 춤추면서 운동도 하고
중중 무대에 서고 싶다!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 ★

에드부스터(ADBOOSTER)

'AD(광고)', 'BOOSTER(추진)' — 광고, 기획에 대한 활동으로 진로에 추진력을 얻다

문화창의학부 광고기획 소모임입니다. 에드부스터는 ad(광고)와 booster(추진, 부스터)의 합성어입니다. 광고, 기획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 에드부스터에서 다양한 광고 공모전, 대외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앞으로 광고 관련 진로에 관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기 내 꾸준한 공모전 참가 및 기존 광고 분석과 카피 작성을 통해 효과적인 광고 기법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스터디 형식의 소모임입니다. 광고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유익한 소모임입니다.

★ 광고에 관심이 있다! 광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 ★

초대

부를 '초(招)' 큰 '대(大)' Invite(초대) — 무대 위에서 자신을 있는 힘껏 드러내다

문화창의학부 연극 소모임입니다. 초대는 부를 초(招), 큰 대(大) 두 한자가 만들어진 음을 Invite(초대)와 결합시키면서, '큰 것을 부르다', '큰 곳으로 초대하다'로 풀이하여 큰 곳, 인즉 무대 위에서 자신을 있는 힘껏 드러내어 보라는 연극부의 정신을 담은 의미입니다. 연출, 배우, 극본, 무대, 조명, 음향, 홍보 등 연극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소모임에서 준비한 연극을 학교 및 학부 행사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 연극을 좋아하고 무대에 관심이 많다! 무대에 서고 싶다
또는 무대를 만들고 싶다!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 ★

DRM

Do Real Music — 음악을 소비하는 것에서 벗어나 작곡,작사,편곡,공연까지 이뤄내자

문화창의학부 음악창작 소모임입니다. Do Real Music의 약자로 음악을 소비만 하던 것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작곡, 작사, 편곡, 그리고 공연까지 하는 곳.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더 즐겁게 DRM만의 음악을 교내/외에서 활발한 공연을 통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DRM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공연 및 홍보 기획팀을 꾸려서 다양한 무대에 참여하기도 하며 각자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소모임입니다.

★ 음악을 만들거나,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추천! ★

그 외

이 외에도 문화창의학부에는 미디어문예창작전공 학생들과 함께하는 철학비평토론 소모임 '코기도', 소설 창작 소모임 '미에시스', 시 창작 소모임 '시술', 영화 감상 및 합평 소모임 '아릴레스컨' 등 학생들이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소모임이 있습니다.

미리보는 문화콘텐츠전공

문화콘텐츠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독서, 영상 및 디자인 관련 동아리, 교내 방송국 활동을 추천합니다!

먼저 전공 수업에서는 레포트를 비롯해 글을 쓰는 일이 많고, 잦은 팀플에서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표현하기 위해선 독서 활동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영상 및 디자인 관련 동아리를 추천 드립니다. 전공 수업에서는 영상 편집/ 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미리 활용 능력을 습득해두신다면 전공 과제 또는 공모전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국 활동을 추천 드립니다. 교내 또는 교외에서 할 수 있는 방송국 활동을 하면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직접 촬영해보고, 영상을 편집해 결과물을 도출하는 활동은 전공 과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관련 진로를 꿈꾸고 있는 학생이라면 더욱 추천합니다. :))

개인적으로 '프로듀사'나 '멜로가 체질'과 같은 피디, 드라마 작가 등이 나오는 관련 드라마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를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드라마, 영화, 웹툰 같은 콘텐츠를 현재도 꾸준히 즐기고 있고, 일부러 시간을 내 찾아보고도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들이 내면에 쌓일수록 과제를 작성하면서 예시로 작품을 들어 구성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고 더 넓은 시야로 수업 자료를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유명한 작품들부터 시작해 여러 장르를 하나씩 접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A

Q. 문화콘텐츠와 미디어문예창작은 무슨 차이인가요?

A. 두 개의 전공은 하나의 학부에서 같은 학생회와 학과 행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콘텐츠 전공은 영상, 영화, 광고, 미디어 등에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공 수업으로 직접 영상 및 카드뉴스 같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실습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문예창작 전공은 문학, 방송, 미디어 등의 이론적인 학문을 중심으로 배우며 시, 소설, 희곡, 비평 등의 작품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Q. 문화콘텐츠 전공에선 팀플이 많다는데 파워포인트를 잘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잘 해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능은 익혀둔다면 본 전공뿐만 아니라 여러 수업들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Q. '문화예술경영'이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문화예술경영(文化藝術經營, arts & cultural management)은 한정된 자원으로 바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이뤄나가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술경영은 예술가나 예술행위가 관객과 효율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며 경영과는 달리 경제적 가치를 수단으로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확고히 하는데 더 우선적인 초점이 맞춰집니다. 반면 문화콘텐츠의 '문화'는 한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발전 상태를 나타내며, 그 사회의 산출물은 방송, 문학, 게임,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전공에서는 이와 같은 방대한 '사회의 산출물'들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트렌드 리더가 될 예비 문콘인들에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문화콘텐츠전공을 희망하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문화콘텐츠전공이 어떤 학문을 공부하는 과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는 당장 면접 중에 교수님이 “문화콘텐츠가 무엇이나”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나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는 2학년이 끝나가도록 누군가 제 전공에 대해 물었을 때 제대로 답변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 영화, 방송, 게임, 애니 같은 거 다 하는 과야”

제 대답에 공감하는 학생들이 많은 건 그저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영화계나 방송 산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꿈이었고, 정확한 진로는 대학 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디어와 관련된 모든 산업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문화콘텐츠전공이 저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해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학교생활을 하다 보니 ‘영화나 방송 일 관련된 무언가’라는 뭉뚱그린 목표만 물어둔 채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쫓기기 바빴고, 길을 잃은 저는 2학년이 끝나는 해에 진로의 방향성을 잡겠다 선언하고 휴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은 ‘내가 이 전공을 졸업해서 내가 희망한 분야와 어떻게 접목시킬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니 문화콘텐츠란 학문에 대해서 어느 하나 명쾌히 대답할 수도 없을 만큼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문화콘텐츠전공과 학문에 대해 많은 자료조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소에 가장 관심이 많았거나 잘하는 분야를 항목으로 만든 후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나누어 선택의 폭을 좁혀갔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세분화하고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나의 진로와 직결되는’ 전공의 이해도입니다. 전공에 대한 이해가 튼튼한 기반을 만들고 이러한 기반이 ‘나’의 진로를 구체화하는 동기와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문화콘텐츠산업과 학문에 대한 이해를 거듭하고 나서야 단순 ‘미디어 콘텐츠 산업 종사자’라는 진로에서 ‘맞춤형 콘텐츠 기획자’라는 진로로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콘텐츠는 인문학적 상상력이나 사고에서 출발하여 산업적 기반을 갖추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업적 기반이란 콘텐츠에게 부여된 산업적 가치로, 소비자가 ‘이 콘텐츠’를 선택한 이유와도 같습니다. 뛰어난 창의성만으론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없습니다. 콘텐츠 개발의 기틀인 문화 원형 선택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잘 선택하기 위해선 충분한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해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콘텐츠전공을 희망하시는 여러분은 본 전공에서 요구되는 항목과 학문들을 사전 분석하여 진로와 유연하게 접목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콘텐츠전공과의 시너지효과를 통해 미래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인재가 되어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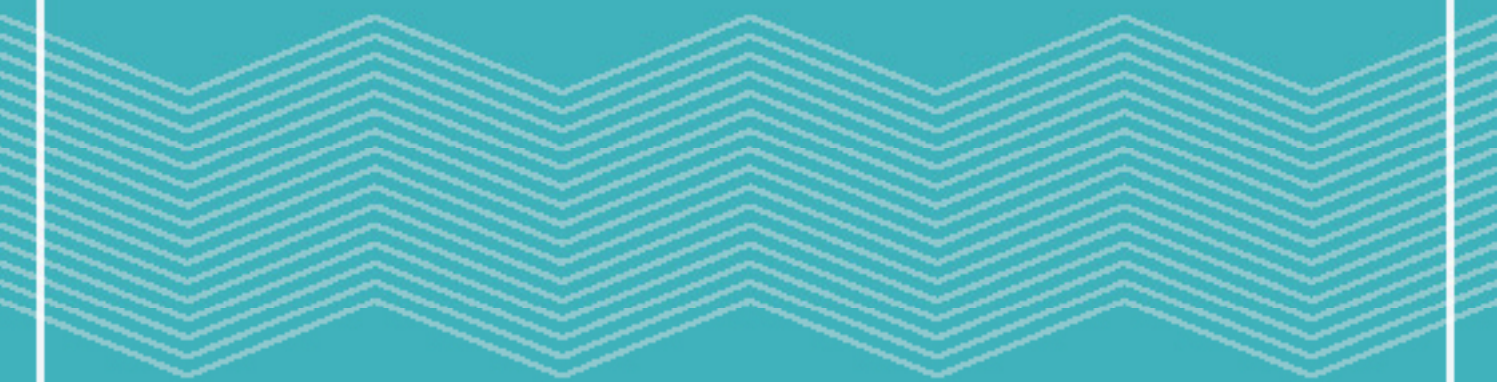
- 문화콘텐츠전공 17학번 대표 안휘윤

06 스마트도시학부

Division of Smart Cities

01 스마트도시학부
Division of Smart Cities

133p



스마트도시학부

급증하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수요에 대응하는 "리빙랩형 스마트도시 전문인력" 양성

학과소개

스마트도시는 도시계획 및 설계에 정보통신기술 및 첨단기술 요소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하는 도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첨단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입니다. 스마트도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 미래산업의 플랫폼**입니다

국내의 스마트도시 분야는 2021년까지 151조 원 규모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한국과학기술정보원, 2016), 해외 스마트도시 시장 또한 앞으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도시 분야는 2018년 3,080억 달러(약 370조원)에서 매년 성장하여(Markets and Markets, 2019) 2025년에는 2조1,000억 달러(약 2,520조원)(Frost & Sullivan, 2019) ~ 2.5조 달러(약 3,000조원)(Grand View Research, 2018)의 대규모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입니다.

스마트도시의 성장과 스마트도시 분야 선점 노력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2017년 11월 스마트도시특별위원회 설치에 이어 범부처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발표하였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스마트도시 발전 전략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2020년 6월 9일에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마트도시법)'의 시행을 통해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위치한 '세종시 5-1 생활권'과 '부산에코델타시티'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하여 다양한 미래기술을 접목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 발전방향 제시 및 관련 기술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전국 각 시도 지자체에서 스마트도시 시범사업과 스마트도시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스마트도시는 정부의 혁신·전력투자 계획에 따른 4대 정책방향·8대 핵심선도사업 중 하나로, 도시개발, 재생 등의 사업에서 도시계획·설계, 교통, 환경, 에너지, 안전, 건축, 서비스, 거버넌스 등의 학문 분야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능동적 인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스마트도시학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인 스마트도시 산업을 주도할 핵심 고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2021년 3월 국내 최초로 학부과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스마트도시학부는 융복합 시대에 전문 스마트도시 인재 양성을 국가 미래 산업의 수요를 고려한 차별화된 교과과정을 통한 고급 인재 배출에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학부 학생들은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 스마트 시설과 도시들을 계획, 설계, 시공, 운영하고 정책 수립에 기여할 융·복합형 전문인력으로서 국내는 물론, 스마트도시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과 스마트도시 산업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교육목표

스마트도시학부에서는 스마트도시의 설계와 운영에 특화된 역량을 가진 스마트도시 산업을 주도할 핵심 고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도시설계, 교통공학, 빅데이터, ICT, AI, 에너지, 환경, 도시경제, 복지, 거버넌스 등 다양한 학제간 융·복합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한편, 문제 해결형 리빙랩 중심 수업과 캡스톤디자인 및 기업체 인턴십 등의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창의·융합/실용/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창의·융합적 역량

ICT·빅데이터·도시계획·설계·교통·에너지·환경·도시경제·거버넌스를 아우르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명을 선도할 창의적 사고력과 융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

실용적 역량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도시 계획, 설계 및 운영을 위한 확고한 이론적 토대와 미래 혁신을 주도하고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실용적 역량을 겸비한 인재

글로벌 역량

세계 스마트도시 계획·설계·운영을 주도하기 위한 외국어 분야에 탁월한 재능과 열정 및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진취적 인재

교육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스마트도시 계획·설계·건설역량	기초미적분학및연습 교양물리학및연습 스마트도시개론 일반미적분학및연습 교양화학	도시및환경계획 기초공학설계및CAD 기초역학 도시생명과학 토지이용계획 도시설계 교통계획 스마트헬스케어	도시공간정보분석 스마트도시설계 첨단교통공학 도시폐기물처리공학및연습 국토및지역계획 스마트구조해석 스마트교통시스템 환경수문및통계	환경생태및영향평가 스마트철근콘크리트 토질및기초 에너지소재화학Ⅰ·Ⅱ 측량학실습
스마트도시 ICT융합역량	컴퓨터언어Ⅰ 컴퓨터언어실습Ⅰ 응용확률통계 빅데이터개론	데이터구조 객체지향프로그래밍 IoT플랫폼실습 인공지능개론	통신및네트워크 머신러닝실습 데이터베이스 스마트IoT	데이터사이언스 ICT응용기술 디지털트윈개론 보안관계
스마트도시 통제·운영 역량		도시와사회 문화콘텐츠와인문지식Ⅰ 도시행정론 스마트미디어론	계량경제학입문 도시및지역개발론 도시경제이론 사회조사방법론	사회연구학 갈등관리와협상 스마트도시관계법규
융·복합 문제해결 역량(PBL)		스마트도시리빙랩Ⅰ	스마트도시리빙랩Ⅱ 프로젝트학기제Ⅰ·Ⅱ 첨단도시설계 캡스톤디자인	첨단교통시스템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학기제Ⅲ·Ⅳ 스마트도시계획 캡스톤디자인

스마트도시학부 졸업생들은 ICT·빅데이터·도시계획·설계·교통·에너지·환경·도시경제·거버넌스를 아우르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명을 선도할 스마트도시 융·복합 인재로서 (1) 스마트도시 건설 및 설계 관련 진로군, (2) 정보통신기술 관련 진로군, (3)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과 운영 주체로서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진로군 등의 다양한 취업처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	스마트도시 건설사 및 설계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대림산업, 한화건설, 대우건설 및 설계 엔지니어링 업체 등
	정보통신기업 및 관련 산업체	NHN, 카카오, NCSoft, 안랩,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SDS, LG CNS, 롯데정보통신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기업	스마트 물류·교통분야 및 부동산, 자산운용 분야 등 데이터 기반 도시 조성, 운영, 관리 분야
	공기업	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공사,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기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각 지자체 시청 등 스마트도시 개발계획 정책 수립 및 운영 관련 공무원
	국책연구소 및 지방연구소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등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기사는 토지의 활용, 물리적 시설을 관리하고 관련 서비스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도시계획, 도시재개발계획, 특정지역계획 등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과 그 집행과정에 참여를 위한 자격을 부여받는 자격증입니다.

교통기사

교통기사는 도시계획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도시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로 원활한 자동차의 흐름과 효율적 교통망 체계 구성, 편리한 교통수단의 최적화된 운영 관리를 담당할 전문가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자격증입니다.

환경기사

환경기사는 수질/대기/토양기사 등으로 분류되며,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운영 관리를 위해 도시 내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의 역할과(수질), 대기오염 물질의 감소/제거를 위한 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대기)하기 위한 전문가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자격증입니다.

건축기사/토목기사/콘크리트기사

스마트도시는 기반시설과 서비스의 계획, 설계가 필요하지만 도시 공간의 건설을 위해 건설-시공-재료 분야에 이르는 전문가의 참여 또한 요구됩니다. 해당 자격증은 국내 건축/건설/토목분야의 계획·시공·감리·감독을 위한 전문가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자격증입니다.

미리보는 스마트도시학부

고려대학교 스마트도시학부는 스마트시티 시대를 맞이해 기존 도시계획, IT, 사회과학 분야 등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었던 학문의 통섭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 연구의 융복합을 추구합니다. 이에 우리 학부는 학부 전임교수님 외에도 교내 다양한 학과 교수님이 참여하시어 스마트도시의 미래를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는 대학원의 세부 과정이나 엄격하게 독립된 학문에서 다루는 분야가 아닌, 능동적이고 개방적 관점에서 도시의 현상과 문제를 인지하고 논의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 인력을 배출을 위한 관련 교과목을 융복합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전공 필수 과목 외, 자신의 가치와 진로 방향에 따른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도시 사업은 수백개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모습은 지역의 환경, 경제, 정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학부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이해를 넓히고 자기주도적 미래를 개척하려는 학생에게 적합한 학부입니다.

[추천도서]

- 스마트시티 더 나은 도시를 만들다 (원제: Smart Cities), 저자: 앤서니 타운센드 외
- Untangling Smart Cities: From Theory to Practice (Mark Deakin, Luca Mora)
- 국내외 주요기관의 스마트시티 연구 및 정책보고서 등

전공(학과) 프로그램 및 장학금

외부강사 초청세미나

스마트도시 분야의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학문에 대한 이해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고학년의 경우 NCS 채용 프로세스 이해와 취업 준비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전담 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합니다.

도시계획기사

전공 관련 기사 및 유관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공모전 장학금

전공분야 관련 대내·외 공모전에 참여하여 수상한 학생과 팀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캡스톤디자인 장학금

캡스톤디자인 과목 수강생이 공모전 형태로 결과물을 계획·설계한 후 교수님과 실무자 등의 심사위원의 평가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학과 멘토링 활동 장학금

전공과목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이 해당 전공과목에서 다른 학생들의 공부를 도와주고 받게 되는 장학금입니다.

스마트 앰버서더

학부와 국내·외 스마트도시의 소식을 공유하고 홍보하여 온·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여학성적 우수 장학금

토익스피킹, 오픽, 토익, 토플 등의 여학성적 우수자 및 점수 증가폭이 큰 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착순 신청 방식)

학생자치활동

GEO-CODERS

지오코더스는 지도교수님의 참여 및 지원과 함께 빅데이터와 GIS를 활용, 데이터를 시각화, 분석 및 평가하여 스마트도시에서 강조되는 공간정보분야의 디지털 트윈을 실현하기 위한 역량 강화 및 친목 도모 프로그램입니다. 관련 전문 프로그램 스터디와 학회 활동 등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는 모임입니다.

UD

여반디자인스는 도시공간의 계획 및 설계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소모임으로 관련 2D, 3D 표현을 스터디하고 결과물을 도출함으로써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토론헬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관련 전문 프로그램 스터디, 답사, 공모전 참여 등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소모임입니다.

Q&A

Q. 스마트도시학부에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스마트도시의 개념은 불과 20여년 전에 등장한 개념으로, 현재까지도 이론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사는 도시를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통적인 계획기술 및 방법론과 최근/미래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융·복합한다는 것,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 도시를 분석, 평가,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실천과 방법을 스마트도시라고 합니다.

Q. 스마트도시학부는 어떤 인재를 원하나요?

A. 학생이 스마트도시학부에서 무엇을 공부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 공원과 기반시설,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부터 완공 후 운영 관리에 이르게 되지요. 현재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건설사, 도시/환경 설계 및 엔지니어링, IT, 물류, 교통 분야는 이미 스마트도시에 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듣게 되는 교과목과 취득 자격증,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의 활용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개발한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창업 또한 우리 학부가 권장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Q. 스마트도시학부는 전공을 어떻게 정하나요?

A.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스마트 도시의 계획과 설계, 데이터의 활용과 분석, 그리고 HW/SW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등 대부분의 것이 컴퓨터를 통하게 되죠. 다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의 선호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각 분야에 맞게 프로그램의 활용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공통적으로는 C언어, 파이썬, CAD, GIS 등의 프로그램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Q. 스마트도시학부는 영어를 잘해야 하나요?

A. 우리 학부는 공과대학이나 과학기술대학에 속하지 않는 독립 학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학기술대학과 같이 수학, 물리, 컴퓨터 관련 교과목이 저학년 전공 필수로 개설되어 있고, 고학년에 인문/행정/문화 관련 교과목이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분야로 진출하는데 있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교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잘 하면 무엇이든 좋지만 관련 교과목들의 일부 낮은 성취도가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재학생이 들려주는 전공과목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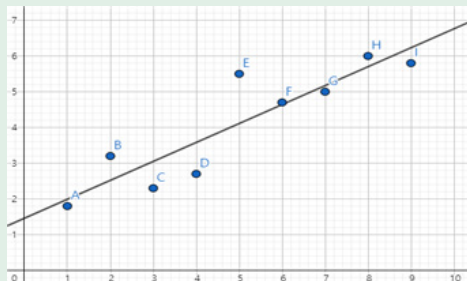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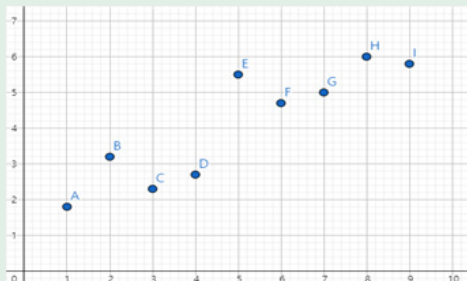
.....	01 과학기술대학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128p
.....	02 약학대학 College of Pharmacy	140p
.....	03 글로벌비즈니스대학 College of Global Business	142p
.....	04 공공정책대학 College of Public Policy	152p
.....	05 문화스포츠대학 College of Culture and Sports	159p

1. 과학기술대학

응용수리과학부 (데이터계산과학전공)

수치해석학

담당 교수님: 황운재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1학기



자,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여러분은 물건을 파는 상인입니다. x 축은 판매한 날짜, y 축은 판매량입니다. 당신은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10일째의 판매량 J 를 예측해야합니다. J 를 예측하지 않고 너무 많은 물량을 준비했다가는 손해를 보고, 너무 적은 물량을 준비해도 판매량이 적어 손해겠죠? 그렇다면 당신이 예측 가능한 가장 적당한 J 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우측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6.8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6.8이라는 값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구한 것일까요? 바로 ‘최소제곱법’을 사용해 도출한 결론입니다. 3학년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수치해석학은 바로 이렇게 데이터들을 통해 수치를 해석하고, 예측하는 학문입니다.

문제만 봐도 느낄 수 있듯이 데이터를 이용한 해석과 예측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꼭 판매량 예측이 아니더라도 기상청의 날씨예측, 대학별 수시 경쟁률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꼭 필요하며 사용하는 분야입니다. 그런 능력과 기술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본인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성 민(14학번)

위상수학연습2

담당 교수님: 이기영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2학기

저는 우리 학과에서 어렵기로 소문난 ‘위상수학및연습2’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과목을 고른 이유는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잘 알려지지 않은 채 단지 어렵다고만 소문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과목이 큰 흥미를 가지고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고등학교에서 중간값 정리에 관해 배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중간값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성립합니다. 그러나 위상수학에서는 이를 일반화하여 그 어떠한 연결된(connected) 공간에서라도 중간값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연결된 공간이라면 예를 들어 원, 원판, 구면 등 어떠한 것이라도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연결된 공간이란 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될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둘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상수학에서는 그 둘을 열린(open) 집합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열린 구간을 일반화한 것이죠.

한편, 여러분은 고등학교에서 최대·최소 정리에 관해 배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최대·최소 정리 또한 닫힌 구간에서 성립합니다. 이 역시 위상수학에서 일반화되는데, 콤팩트(compact) 공간이 그것입니다. 콤팩트 공간이라면 예를 들어 원, 경계선을 포함하는 원판, 구면 등 어떠한 것이라도 됩니다. 콤팩트 공간의 엄밀한 수학적 정의는 좀 복잡하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유클리드 공간에서 끝없이 이어져 있지 않으며 경계를 포함하는 도형이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온갖 희한한 공간과 성질들을 위상수학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위상수학에서의 여러 개념들은 4학년 과목인 ‘위상데이터분석’에서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고 싶으시다면, 위상수학·2를 꼭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 박신환(17학번)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자료구조론

담당 교수님: 노희준 교수님 / 이수학가: 2018학년도 1학기

‘자료구조론’은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작성할 때,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설계하는 법을 배우는 수업으로, 계산 복잡도, 검색 알고리즘, 정렬 알고리즘, 그래프 알고리즘 등의 자료구조 기본 개념에 대해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인데,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되려면 필요한 조건으로는 딱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째,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라 해도 훨씬 빠른 속도로 문제를 푸는 것. 둘째,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

‘훨씬 빠른 속도’란 것은 추상적이며, 이것을 체계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시간 복잡도입니다. 시간 복잡도란,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동안 몇 번의 연산이 실행되었는지입니다. 만약 같은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A는 5번, B는 8번의 연산이 사용되었다면 A가 더 효율적인 연산일 것입니다. 하지만, “겨우 이 정도 차이인데 꼭 자료구조론을 배워야 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알고리즘부터 나중에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며 이때, 주어진 문제가 만약 어렵고 복잡하다면 연산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 효율적인 알고리즘과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의 차이는 더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문제를 푸는 것은 굉장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빠른 속도로 문제를 푸는 것만이 효율적인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은 NO입니다. 실제,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메모리는 무한대가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불필요하게 많은 메모리를 쓰게 된다면, 느려지는 건 둘째 치고 우리가 택배를 보내야 할 경우에 아주 큰 택배 상자 안에 작은 물건을 넣는 것과 같아지므로 굉장히 비효율적이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자료구조론입니다. 앞의 내용이 ‘잘’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면, ‘어떻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검색 알고리즘, 정렬 알고리즘, 그래프 알고리즘 등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정렬 알고리즘을 보자면 정렬은 어떠한 데이터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작업을 말하며, 이때 정렬이 잘 되어 있다면, 원하는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찾을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방을 정리하는 모습이나 휴대폰에 있는 파일을 정리하는 모습처럼 정렬 알고리즘에도 또한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주어진 문제에 어떤 알고리즘이 효율적인지 알게 공부를 한다면, 알고리즘 작성이 굉장히 편리해 질 것입니다.

이 과목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필수적인 과목으로, 사이버보안공공에 들어오는 학생이라면 다 들어 보기를 추천합니다. 이 과목을 듣기 전과 듣기 후에는 본인이 작성한 프로그래밍의 이해도와 질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 김가영(17학번)

현대암호

담당 교수님: 김희석 교수님 / 이수학가: 2018학년도 1학기

처음 전공과목명을 보고 “암호는 나랑 관련없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또, “암호를 공부해서 뭘 하겠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암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 우리의 일상생활은 스마트폰, PC, SNS, 웹서비스와 항상 함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만큼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지털화된 현대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다른 사람과 전화/메시지를 나누고, 쇼핑하고, 게임을 하고, 노래를 듣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안전한 암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암호와 함께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희석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현대암호”라는 과목에서 우리는,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암호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암호의 수학적 원리부터 시작하여,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더 나아가 프로그래밍을 하여 직접 구현해보기까지 합니다. 또한, 암호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암호를 깰 수 있는 DC, LC 등의 암호공격에 대한 실습도 진행하니, 이론부터 실습까지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유용한 과목입니다.

어떤 과목이냐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해당 과목을 가르치는 교육자인데요. 현대암호의 김희석 교수님은 정말 잘 가르치십니다. 원리부터 차근차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을 진행해주셔서 어려운 암호에 대해 정말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격 또한 유쾌하셔서 수업 중간중간 던지시는 농담에 수업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암호에 대하여 궁금증이나 호기심이 생겨 공부해보고 싶은 학생에게 이 수업은 명확한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암호에 관심이 생겼다면, 꼭 이 수업을 들으시길 추천합니다!

- 박찬희(17학번)

1. 과학기술대학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디스플레이융합전공·반도체물리전공)

수리물리학1,2

담당 교수님: 홍석경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1,2학기

‘수리물리학’은 물리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학적식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지루하고 졸릴 것 같은 과목이지만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 확실히 다릅니다. 홍석경 교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해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입니다. 1학년 전공필수 과목인 ‘수리과학입문’에서 처음 뵈 수 있는데, 첫인상은 굉장히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업 첫날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다며 웃으면서 협박을 하시는데, 시험 전날 책도 펴 보지 않은 게 아닌 이상 F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의 큰 장점은 수업방식에 있습니다.

교수님의 수업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유명한데,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학생들이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줍니다. ‘아 이렇게 수업하면 진도는 어떻게 나가지...’ 싶었는데 어느새 예정 진도까지 나가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복습하지 않아도 강제로 복습을 당해 지난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들이 생각나고, 강의해 주시는 내용과 연결되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또한, 교수님은 수업 끝까지 핵심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A는 B다”라는 공식이 있는데 “A는”으로 시작해 학생들의 답답함과 궁금증을 유발 후 예시와 상황을 설명하며 마지막에 “A가 사실 이 B였다”로 끝내 거짓말 살짝 더해 “와...” 소리가 나오며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는 카타르시즘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시험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공정하고 투명합니다. 시험지 채점은 조교가 아닌 직접 전부 채점하시고 틀린 부분도 일일이 체크해서 학생들의 이의를 받습니다. 시험문제는 뜬금없는 내용이 아닌 전부 공부한 부분에서 나와 수업과 필기만 잘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업은 모든 이과 학문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이공계 진학 희망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 박건희(16학번)

전자회로 I

담당 교수님: 홍문표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1학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인 배경과 구조가 같은 친구들입니다. 학과 내에서는 반도체와 다이오드의 기본 이론에 대해 학습을 하고 있는 과목들을 전공필수 과목으로 선정하여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 학과 수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내부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들에 대한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과목이 전자회로입니다.

저는 전자회로 과목을 수강하기 전인 2학년까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물리학과에 입학하여 전공필수 과목들을 이수하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한 학습이 아닌 순수 물리에 대한 학습을 주로 합니다. 그러나 3학년 1학기에 전자회로 I 과목을 이수하며 순수 물리가 아닌 반도체의 기본적인 소자(부품)인 다이오드, BJT, FET 등에 대한 학습할 수 있었으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내부 구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전자회로 과목은 전공선택 과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자연스레 이수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이며 매 학기 비교적 적은 수강생만이 이 과목을 수강합니다. 이후 전자회로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를 비교해보았을 때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과 내에서 지정한 전공 필수 과목들은 순수 물리이기에 이와는 방향성이 다른 전자회로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회로 과목을 잘 따라온 후 전자회로를 이수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이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학과의 이름에 맞는 수업을 이수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자회로를 이수한 이후에 학습하는 내용에 배경이 되어줄 것입니다.

- 안정민(15학번)

1. 과학기술대학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디스플레이융합전공·반도체물리전공)

전자기학 1, 2

담당 교수님: 류승윤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2학기

전자기학은 과거의 맥스웰, 패러데이 등 수 많은 물리학자들이 전하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현상과 자석으로부터 발생하는 자기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전기학과 자기학을 만들었으며 전자기학은 이를 통합하는 학문입니다. 또한 물리학과 학생들이 3학년 전공과목인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위해 2학년 2학기부터 배울 수 있는 전공필수 과목입니다.

전자기학에서는 우선 전기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전하와 전하가 존재할 때 그 주위에 생겨나는 전기장을 배웁니다. 이를 통해 전하란 무엇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계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있고 원자가 존재하기 위해선 중력 이외에 새로운 힘, 즉 전기력이 작용해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기력은 무엇인지, 일정한 전하의 흐름인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을 따라 자기장이 발생하는 이유 등을 배웁니다. 이를 토대로 전기장과 자기장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빛이 전자기파로 이루어져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기는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는 19세기 마이클 패러데이가 발견한 전자기 유도현상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자기학을 배움으로써 전기를 만들어 내는 원리를 알 수 있으며 중력 이외의 우리가 쉽게 접하는 모든 자연 현상을 전자기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을, 더 나아가서 우주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학문이라 생각되어 추천드리며 이 과목은 전공필수 과목이지만 우주를 구성하며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든 전기력에 대해 알고 싶은 학생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양준수(14학번)

1. 과학기술대학

신소재화학과

유기화학I

담당 교수님: 김한규 교수님 / 이수학기: 2015학년도 1학기

이 과목을 추천하는 이유는 신소재화학과의 가장 기초적인 과목이자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유기화학은 3~4학년 전공과목과도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유기물의 구조 및 구조결정 방법, 유기반응의 평형 및 반응속도 등 화학을 배울 때 일반화학 다음으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 다룹니다. 만약 학점을 이수했다더라도 명명법과 반응 메커니즘은 4학년까지 쓰이니 전공 이해를 위해 자주 공부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수업과 시험은 주로 반응 메커니즘과 유기물들을 암기하고, 여러 가지 암기한 메커니즘들 중 어떤 게 우선으로 일어날지 경향성으로 결과물을 예측, 혹은 반응물과 결과물을 보고 어떤 용매를 넣었는지 추측하는 것으로 이루어 집니다. 메카니즘 암기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경향성을 익히기 위해 연습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기화학은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화학분석기사, 위험물산업기사의 ‘일반화학’과 연관되며, PEET(약대편입시험)의 4과목 중 1과목에 해당합니다. ‘화학’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공 관련 대학원을 가서 R&D(연구개발)로 취업하는 것과, 화장품, 약품 등 화학 관련 업체에 QC(품질관리), QA(품질보증)로 취업하는 것입니다. 취업시험 응시 시 화공분야가 아닌 화학분야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유기화학, 분석화학이 질문 및 시험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유기화학은 신소재화학과의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선택에 매우 필수적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진우(14학번)

소재의약화학

담당 교수님: 유병우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2학기

소재의약화학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약이 화합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질병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에 사용되는 약이 무엇인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병을 고치는 화합물의 기본이 되는 구조가 무엇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 약이 얼마나 활성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방법 위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사실 강의의 특징상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응용분야이기 때문에 주로 4학년이 듣는 과목이지만,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 흥미가 있어서 3학년 때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소재화학과의 학생들은 2학년 때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물리화학을 배우며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를 정하기 시작합니다. 4가지 과목 모두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신이 흥미있거나 잘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소재의약화학은 유기화학 분야에 속합니다. 유기화학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자체에 초점을 맞춰 궁극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물질을 합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재의약화학에서 배우는 것도 약 자체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죠. 이런 화합물을 합성하는 기본단어와 여러 가지 반응들 그리고 관련 실험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소재의약화학을 추천합니다.

또한, 교수님의 수업스타일은 피피티나 시각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판서로만 진행하십니다. 물론 필요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서는 직접 화합물 모형을 가지고 오시기도 하는데, 화합물, 반응 하나하나 손으로 그려서 강의하시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면서 강의의 난이도나 내용의 반복을 조절하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직접 손으로 필기하며 이해하는 수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님의 강의 능력이겠죠? 교수님이 판서해주는 것을 이해하며 따라가다 보면 강의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체감할 정도로 집중이 됩니다. 또한 학생에 대한 사랑도 있으셔서 모르는 것을 질문하러가도 성심성의껏 대답해주시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증도 잘 해결해 주십니다.

만약에 유기화학에 관심이 있고, 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유병우 교수님의 소재의약화학을 추천드립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 고민하(14학번)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운영체제

담당 교수님: 구영훈 교수님 / 이수학가: 2019학년도 1학기

3학년 과정의 전공필수 과목중의 하나로, 1학년 전공과정인 C언어, C++를 수강하여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하고 2학년 전공과정인 자료구조와 시스템소프트웨어를 알아야 합니다. 1, 2학년이 듣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학년에 맞게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과목은 전공필수인 만큼 컴퓨터전공이라면 꼭 알아야 할 과목이고 중요한 과목입니다. 시스템소프트웨어란, 하드웨어와 사용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2학년 과목의 시스템소프트웨어에서는 이 프로그램들을 전반적으로 배우고, 3학년 과목의 운영체제에서는 시스템소프트웨어 중의 하나인 운영체제에 대해서 자세히 배웁니다. 운영체제의 종류, 하는 역할과 운영체제 작동 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법 등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과제는 코딩과제가 5개 정도 나오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 C++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고 MSDN 라이브러리¹⁾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제제출 방식이 자신의 코드를 설명하고, Data flow diagram²⁾, 느낀 점, 부족한 점 등을 넣은 PPT를 제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의 코드를 설명할 줄 알고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코딩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IT회사의 코딩테스트 준비나 면접 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윤동련(17학번)

- 1) MSDN 라이브러리: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개발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기능들을 모아서 코딩할 때 쉽게 기능들을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툴
2) Data flow diagram: 프로그램의 흐름도이자 데이터의 이동을 보여주는 그림

네트워크프로그래밍 및 실습

담당 교수님: 윤석호 교수님 / 이수학가: 2019학년도 2학기

네트워크프로그래밍 및 실습수업은 일주일에 2시간, 2시간씩 총 4시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앞선 2시간 동안 네트워크프로그래밍 이론에 대해 수업하고 뒤의 2시간 동안은 c언어와 리눅스를 활용한 네트워크프로그래밍 실습을 진행합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진행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해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네트워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운 뒤 네트워크 통신의 핵심인 소켓에 대해 배우고 실습을 통해 어떻게 통신이 이루어지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간단한 소켓 통신 프로그래밍¹⁾을 해본 뒤 UDP와 TCP²⁾ 각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배운 뒤, 직접 구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론으로만 배웠던 UDP와 TCP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통신이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본 뒤, 중간고사 이전에 배웠던 소켓프로그래밍, UDP, TCP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법을 사용한 서버들에 대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멀티 프로세스, 멀티 플렉싱, 멀티 쓰레드를 활용한 서버에 대해 이론을 공부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각 기법들을 사용한 서버들이 클라이언트와 어떻게 통신 하는지,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기법은 무엇인지, 각 기법들은 어떻게 코딩하는 것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어 네트워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개념이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시고 실습 또한 모든 사람이 따라올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거나, 프로그래밍에 자신이 없는 누구나 관심이 있다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론만 배워 실습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프로그래밍에 자신이 없으나 네트워크프로그래밍에 대해 배우고 싶으신 분들, 네트워크 통신과 다양한 기법들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 전용후(15학번)

- 1) 소켓 프로그래밍: 소켓이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한 쪽 컴퓨터(호스트)와 다른 쪽 컴퓨터(호스트)를 연결해주는 장치로, 이를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
2)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 UDP(User Datagram Protocol): TCP와 UDP는 여러 대의 컴퓨터나, 컴퓨터와 다른 장치 간 데이터 통신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통신 규약인 '프로토콜(Protocol)'의 일종으로, TCP는 연결을 요청하는 신호, 수락하는 신호 등 한 쪽의 컴퓨터(호스트)와 다른 쪽의 컴퓨터(호스트)가 여러 가지 신호를 주고받아 연결하는 프로토콜이다. UDP는 TCP와 다르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지 않고 한쪽 호스트에서 다른 호스트에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프로토콜이다.

1.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데이터베이스

담당 교수님: 김승연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2학기

"컴퓨터 이론의 중추적인 역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라는 과목은 일명 DB라고 불리는, 여러 응용 시스템들의 통합된 정보들을 저장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용 데이터에 대해 배우는 과목입니다. 전공필수과목이 아니지만, 학교가 아닌 개발현장에서는 DB를 빼놓고는 얘기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컴퓨터과목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실습이 뒷받침 되면 훨씬 빨리 익힐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수업은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이론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알고, 실습을 병행하여 빨리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그라운드 요소인 DB만 가지고 개발한다면, 사용자는 쉽게 사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라운드 요소인 웹과 연동하면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선 웹과 HTML에 대하여 배우지 않은 학생도 있었기에 교수님께서 3시간 수업 중 1시간은 웹과 관련된 실습을 진행하셨습니다. 저 또한 웹에 대해 배우지 않아 잘 모르는 상태여서 웹 실습을 통해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고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배운 과목 중에 다른 좋은 과목도 많았지만, 취업을 준비하면서 지원 직무들을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안 쓰이는 곳 없을 정도로, 기업의 거의 모든 파트에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베이스’ 과목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강을 추천드립니다.

- 백민정(17학번)

전자및정보공학과

반도체제작기술

담당 교수님: 이재우 교수님 / 이수학가: 2019학년도 2학기

반도체제작기술 전자및정보공학과 과목으로 3학년 2학기 때 수강하는 과목입니다. 과목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도체 공정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반도체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소자¹⁾에 대한 개념, 동작원리, 전기 및 전자회로의 성질에 대해 어느정도 숙지를 요구하므로 전기회로 I, II, 전자기학 I, 전자회로 I, 물리전자공학 I, II 과목의 이수는 필수입니다.

반도체 공정 프로세스는 웨이퍼²⁾ 준비부터 테스트까지 총 여덟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과목에서는 각각의 공정원리, 방법, 장단점, 최근동향, 관련회사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특정 공정이 아닌 전체 공정을 배움으로써 이수 후 반도체 공정에 대해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됩니다. 효율적인 공정 이해를 위해 다양한 실습과제, Global 엔지니어로의 성장을 위한 수업내용을 3분간 영어로 발표하는 과제, 그리고 최신 반도체기술을 조사하는 과제가 주어지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기대효과
실습과제	엑셀, C언어 등과 같은 다양한 Programming 언어를 이용해서 공정기술 구현 그리고 실제로 현업에서 쓰는 TCAD 툴 ³⁾ 을 이용하여 직접 공정을 설계함으로써 소자를 특성을 확인하는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이론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습함으로써 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영어발표	매주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요약하여 영어로 3분간 발표한 후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대부분 반도체 단어는 영어로 계속 말하지 않으면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요약한 후 발표함으로써 단어에 익숙해지고 공정에 대한 이해도 역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도체기술	소자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반도체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약간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화된 기술 혹은 반도체 시장 트렌드에 대해 조사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최신기술에 대해 알 수 있고 반도체 시장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기업의 주력상품은 무엇이며 향후 반도체 시장의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물리수업을 들으며 반도체에 관심이 간 학생이거나 평소에 반도체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이 과목을 수강할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본 과목 수강을 위해 첫 문단에서 언급한 과목들을 꼭 이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윤성현(14학번)

1) 소자: 전기 회로, 자성 재료, 반도체 장치, 안테나 등에서 널리 이용되는 주요 구성 요소의 하나

2) 웨이퍼: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 실리콘이나 갈륨비소 등 단결정 막대기를 얇게 썬 둥근 판

3) TCAD 툴: Technology Computer-Aided Design의 약자로 설계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물리전자공학1

담당 교수님: 이재우 교수님 / 이수학가: 2017학년도 2학기

전자 및 정보공학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 전자공학 1’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과목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이 과목이 특정 문제를 푸는 형식의 과목도 아니고 정성적인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기에 뜬구름 잡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연코 이 과목을 통하여 전반적인 전공의 이해도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단순히 암기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등의 방식으로 전공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물리 전자공학 1’이라는 과목은 저를 처음으로 머릿속으로 과목의 흐름에 대해 그려보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소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양자역학의 관점, 소자의 관점, 디바이스의 관점 순으로 반도체를 이루는 기본적인 부분부터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이야기 같은 교수님의 수업에서 교수님이 설명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 일까를 생각하며 따라가 보니 많은 내용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업시간에도 교수님은 항상 그 과목에 국한된 내용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큰 숲을 볼 수 있도록 다른 과목과 연관 지어 수업하셨습니다.

특히 2학년 때 수강하는 전기회로 2, 디지털 시스템, 신호 및 시스템 등 각각의 과목으로만 본다면 그저 이 전공 지식이 어디에 활용될지에 대해 감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공 커리큘럼을 이해하고 전공과목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힘이 생긴다면, 전공이해도뿐만 아니라 진로 설정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목을 아직 진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학생이나, 아직 전공과목의 커리큘럼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수강한 2학년 2학기를 시점으로 각각의 전공 지식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 이해하였고 확실한 진로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목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과목을 수강하며 학과 전공 커리큘럼과 진로에 대한 큰 숲을 보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주예(16학번)

1. 과학기술대학

생명정보공학과

캡스톤디자인종합설계

담당 교수님: 이해라 교수님 / 이수학기: 2020학년도 1학기

〈캡스톤디자인종합설계〉는 생명정보공학과 학생이라면 필수로 들어야 하는 전공필수 과목입니다. 이 수업은 1, 2학년 때 배운 전공지식을 활용하여 본인이 관심 있는 Lab 실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진행합니다. 생명 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solution을 만들어 스스로 실험을 design하고 이를 수행하여 결과까지 분석하는 생명정보공학과의 핵심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생명공학에 대한 도전정신, 전문성 및 문제 해결 능력, 생명공학 분야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적인 수업처럼 강의실에 앉아서 딱딱한 책을 보고 필기하는 수업이 아니라, 실험복을 입고 실험실에 가서 직접 실험을 design하고, 교수님의 지도가 아닌 실제 대학원 조교님들과 함께 실험을 진행하며 실험에 대한 기초지식과 자신감, 책임감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명공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원이나,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이 있다면, 〈캡스톤디자인종합설계〉 수업이 목표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기원(18학번)

미생물학I

담당 교수님: 이흥식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2학기

〈미생물학〉은 우리 학과의 전공선택과목 중 2학년 때부터 배울 수 있는 과목중 하나입니다. 생명정보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위한 기초과목이면서 기본과목이 되어주고 학과 전공역량인 개념적 사고, 분석적 사고, 융·복합적 사고, 창의 및 진취적 가치 창출 역량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생명정보공학과에 전공과목들은 서로 겹치는 기본개념이나 기초지식이 많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해당 과목을 통해 생명공학의 기본지식을 습득하면 분자생물학, 생화학, 면역학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미생물학〉에서는 미생물의 구조, 배양, 대사, 분자생물, 생장 및 생장조절 등에 대해 학습합니다. 학습을 통해 미생물에 대한 기본개념과 구조, 생장원리, 유전적 특성, 미생물의 생장통제 등에 대해 습득하고 나아가 미생물의 지식을 고등생물로 확장해나가며 학문을 수월하게 배워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수업은 프린트물을 보며 강의형식으로 진행되며 교수님이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셔서 내용을 습득하기 편합니다. 다른 전공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중간, 기말고사의 점수가 성적에 높은 비율로 반영되며 참여도와 수업태도도 꼼꼼히 챙겨 성적관리를 해야 합니다.

추천 선수과목인 일반생물학은 1,2 둘 다 1학년 때 배우는 전공관련 교양입니다. 미생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기본부터 배우고 싶은 학생이나 고등생물에 대해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는다면 후에 다른 심화과정을 들을 때에 이해를 돕고 수월하게 기초지식을 넘어 갈 수 있어 공부에 흥미를 붙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김지영(18학번)

식품생명공학과

생물유기화학

담당 교수님: 김영완 교수님 / 이수학기: 2018학년도 1학기

생물유기화학은 제가 들은 첫 전공과목이었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모두 알 것입니다. 김영완 교수님은 누구보다 학생을 아끼고 교육자로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수업에 있어서도 열정이 크시고 강의력도 제가 들은 수업 중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 자료를 올려주시지는 않지만, 그러한 이유로 수업시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수업을 수강할 때는 조금 힘이 들 수 도 있지만, 수강을 하고 난 이후를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물유기화학은 모든 전공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전공을 들을 때도 기초적인 부분이 이해되고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전공과목입니다.

시험은 총 3회로 이루어지며,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분량이 많아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과제를 매주 내주시는데, 할 때는 힘들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꼭 후배님들이 수강했으면 하는 식품생명공학과와의 명강의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 송현주(14학번)

식품가공학 II

담당 교수님: 오남수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2학기

식품가공학II는 생명과학, 화학과 같은 순수과학의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이 많아 재미있게 수업을 들었기에 추천하고 싶은 과목입니다. 식품가공학은 식품가공, 저장기법, 식품발효, 화학, 포장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학문입니다.

식품가공학 과목은 식품가공의 과정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발효와 효소 기술을 사용한 가공공정, 과일과 채소의 보존, 쉽게 상하는 식품의 저장기법, 유제품, 식품의 포장기법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해당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식품산업에 대한 전문성, 도덕성, 책임감을 전반적으로 기를 수 있어 식품산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꼭 수강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제영(15학번)

1. 과학기술대학

전자·기계융합공학과

회로이론2

담당 교수님: 권광호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2학기

‘회로이론2’는 제가 수강했던 과목 중 가장 인상깊은 과목입니다. 사실은 공부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기 때문인데, 물론 다른 과목들이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회로이론은 저에게 매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나를 시험하는 듯이 매주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공식들을 이해하고 응용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답지를 보면서 답지와 똑같이 풀었습니다. 어떻게 이 회로를 해석하고 풀어나가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회로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마다 서서히 이해가 되었고 학기말 시험에서는 3등을 하여 최종적으로 A+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힘들었던 만큼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2학년 1학기 때 ‘회로이론 1’을 수강하였었는데, 그때는 B+ 성적을 받았었습니다. 학점이 발표되었을 때 교수님께 찾아가 “다음 학기엔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받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이 과목을 통해 저는 제 가능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고,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자·기계융합공학과는 보통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공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회로이론’은 저희 과에서 기본이 되는 과목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 3학년 과목인 전자회로및연습 I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목에서 ‘회로이론’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기본이 되어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합니다. 회로이론은 주변의 다양한 형태의 기전시스템의 소개를 합니다. (기전시스템이란 어떠한 물체에 대한 회로적 이해와 메커니즘을 뜻합니다.) 그리고 기전시스템에 대한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기전공학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창의적인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도록 관련된 과제들을 수행함으로써 기전 시스템에 분석 및 개발에 대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이준형(18학번)

공업수학1

담당 교수님: 박진성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1학기

공업수학1 과목은 저희 과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전공과목으로 상미분방정식과 연립 상미분방정식의 해, 라플라스 변환, 수치해석 기법, 벡터공간, fourier 변환, 복소수해석 등을 다룹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때문에 어렵고 생소하게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했듯이, 과의 기반이 되는 과목이니 만큼, 갑자기 어려운 전공지식을 필요로 하는 과목이 아닌, 기초를 배우는 과목이라 큰 걱정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형식적인 말일수도 있지만, ‘시작이 중요하다.’, ‘기반이 탄탄해야한다.’는 말은 누구나 들어보셨을 것이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 또한 느꼈을 것입니다. 공업수학1을 배운 뒤로, 회로이론, 전자회로, 고체역학, 동역학 등의 거의 모든 전공과목을 배울 때 공업수학1에서 배웠던 내용이 활용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업수학1을 잘 배워두면 남은 학년이 조금이나마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공업수학1을 배울 때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설명해주실 때 집중해서 듣고, 그날 배운 내용을 가볍게 복습하고, 과제로 나온 연습문제들을 풀면서 한번 더 복습하고, 모르는 것은 동기 혹은 선배들한테 질문해가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과목이 어렵지만 하진 않았고, 배우는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과정이 재밌었습니다. 또 제가 배웠던 내용들이 계속 다른 과목에서도 활용될 때마다 공업수학1을 잘 배워두어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저희 과가 배우는 과목 중 ‘쉬운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과목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기마다 배우는 과목에 충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배워나가다 보면 그 후에 배우게 되는 과목에서 내가 배웠던 것을 활용하면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함수진(18학번)

환경시스템공학과

환경미생물학및실험

담당 교수님: 김성표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2학기

〈환경미생물학및실험〉과목은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첫 전공실험과목입니다. 일반화학, 물리, 생명실험 등과 무엇이 다른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지만, 학과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려주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록 실험이 실전은 아니지만 이론으로만 배웠던 것을 실제로 이행한다는 것은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환경공학은 대표적으로 반응조를 통해 수질을 정화하는 것을 많이 배웁니다. 실험에서는 학생들이 간이반응조를 만들어서 실제로 운전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함을 알려주는 척도를 분석, 대처 등을 진행합니다. 특별한 것은 이 실험을 하루 만에 끝내는 것이 아닌 한 학기 동안 진행하여 장기적으로 운전을 해보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실험시간 외에도 본인이 다루고 있는 반응조를 살펴봐야하며 그때마다 수시로 기록을 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팀원들과 토의하는 등 세심함과 팀워크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학기 동안 한 가지 실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주기 위해, 장기적인 실험을 큰 틀로 매주 미생물에 관한 단기적인 실험도 진행합니다. 덕분에 매주 실험 레포트를 작성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실험에 관한, 경험하지 못했던 수십 장의 결과 레포트를 작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과목은 단순히 전공 지식 말고도 실험실에서 주의사항과 실험 기자재, 복장, 레포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매우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다양한 실험, 실험실 이용지식 등 다방면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며 이후 수강할 예정인 다른 학생들도 좋은 것을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예진(18학번)

환경수문및통계

담당 교수님: 윤재영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2학기

〈환경수문및통계〉과목은 기본적으로는 물의 흐름에 대해서 다루는 수업입니다. 환경시스템공학과와 특성상 물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되는데 다른 과목들은 처리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수업은 물의 순환에 대해서 공부해나가는 과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상현상으로 볼 수 있는 비에 의해 땅 위에서 흐르는 양, 지하수로 흘러들어가는 양, 증발하는 양 등을 산정하여 계산하고 예측해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환경수문및통계〉과목은 학생들이 주로 어려워하는 물리, 화학 분야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입니다. 강의를 영어로 이루어져 처음에는 수강을 기피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교수님께서 모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을 해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수강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 문준하(15학번)

2. 약학대학

약학과

임상약리학 1,2,3

담당 교수님: 김경임, 최수안 교수님 / 이수학기: 2019년(4학년) 1학기, 2020년(5학년) 1학기

임상약리학, 처음 들으면 다소 낯설 수도 있는 학문입니다. 임상, 약료 2가지 단어 모두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뜻을 알고 나면 약사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학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약료(=Pharmaceutical Care)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이때 ‘환자 중심으로, 환자가 언제 어디에서든’ 약물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증진시키는 학문이 임상(clinical)약리학입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을 가진 환자라도 모두 같은 약을 사용하고 동일한 치료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과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약물치료도 그에 맞춰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죠. 쉽게 말해 환자마다 어떤 약이 필요하고, 환자마다 다른 약물 치료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배우는 학문이 “임상약리학”입니다.

임상약리학은 1, 2, 3 총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초 약학을 어느 정도 숙지한 4학년 1학기부터 한 학기에 한 과목씩 공부합니다. 임상약리학 1,2,3의 차이는 학기마다 공부하는 질병이 달라질 뿐, 각각의 질병에 따른 약물 치료 방법을 배운다는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임상약리학1에서는 위궤양, 염증성 장질환 등 소화기계 질환 치료법과 여러 감염증에 따른 항생제 치료법을 배우고, 임상약리학2에서는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 치료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약리학3에서는 대사성 질환인 당뇨병, 갑상선질환 치료법과 여러 가지 암 치료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질병에 대한 약물 치료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약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질환 진행도에 따라, 환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약물을 다른 용량으로 사용하는데, 이 과정을 공부하다보면 논리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또한 실제로 환자에게 치료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마음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환자를 마주할 모든 약사들에게 필수적인 학문이지만, 병원약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이라면 더욱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송지원(16학번)

의약화학

담당 교수님: 변영주, 이기호 교수님 / 이수학기: 2019년(5학년) 1학기

세상의 모든 약은 크고 작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에 작용하는 대부분 약은 생명의 화학 즉, 유기화학적 지식이 없다면 결코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의약화학]은 약물의 작용 메커니즘(mode of action)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약물 구조를 설계하고 합성하는 학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약들이 이 과정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살리실산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합성된 아스피린, 에이즈 바이러스의 핵산 구조를 모방한 지도부딘, 치열한 구조-활성 상관관계(SAR)연구를 통해 개발된 스타틴 계열 약물들... 이처럼 역사적으로 발견된 중요한 약들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발굴되었고 이제는 유기합성법과 생물학, 데이터 사이언스의 괄목할만한 발전 덕분에 더욱 바람직한 신약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약화학]은 약학과 학생들이 5학년이 되면 배우는 전공필수 과목으로, 신약개발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배우고 물질을 설계할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합성연구의 배경을 쌓게 됩니다. 의약화학은 유기화학과 약물학, 생화학 등 다른 학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발전하고 있는 종합과학이기 때문에 약학과 학생들은 3~4학년 때 기초 과목을 잘 배워두어야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3만 가지 이상의 질병이 알려졌지만 약물로 치료 가능한 질환은 이 중 약 1만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인플루엔자 백신, 항암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등 획기적인 신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또 고부가가치의 제약시장이 커짐에 따라 신약개발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약의 개발과정에 관심이 많은 학생, 분자구조 변형에 따른 약리 활성을 개선하는 방법이 궁금한 학생이라면 이 과목에서 많은 것을 배워갈 것입니다. 또 졸업 후 대학원이나 연구소 혹은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분야에서 신약발견(drug discovery)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통찰을 얻고 싶다면 이 과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 한재진(15학번)

약학과

약제학

담당 교수님: 이은희 교수님 / 이수학기: 2017년(4학년) 2학기 ~ 2018년(5학년) 1학기

약제학은 말 그대로 약의 제형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단순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정제, 환제, 코팅제, 캡슐제, 연고제, 좌제, 액제, 시럽제 등 약의 제형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왜 약의 제형이 중요하며, 왜 약마다 다른 형태를 지녀야하는 것일까요? 어릴 때 알약 대신 가루약과 시럽제를 먹어 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가루약이 알약에 비해 쓴 맛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가루로 만들어 주는 이유는 소아의 용량에 맞게 처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럽제는 복용이 간편하고 흡수가 빠르며 단 맛이 나고, 위장관 점막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유소아에게 많이 처방됩니다. 이 외에도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도록 만든 서방정, 위점막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장에서 방출되도록 만든 장용정 등 다양한 제형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같은 성분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약의 제형에 따라 사용 대상, 사용 목적, 투여 방법 등이 달라집니다. 약제학은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의약품을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적용하여 보다 유효하고 안전하게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약학의 중요한 학문입니다.

약제학에서는 이 뿐만 아니라 약이 만들어지는 제조 공정, 약의 주성분에 첨가되어 맛, 냄새 은폐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첨가제의 종류와 역할, 약이 올바르게 잘 만들어졌는지, 정해진 주성분의 양이 오차범위 내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법까지 약의 제형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게 됩니다. 약제학을 배우고 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다양한 약의 제형들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고, 왜 이 제형의 약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약사로서 환자들을 만날 때,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제형이 무엇일까? 처방된 이 제형을 드셔도 될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근간이 되며, 약의 제형마다 복용 시 주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약제학에 대한 지식을 탄탄히 쌓아야 합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에서는 약제학을 4학년 2학기, 5학년 1학기 총 두 학기에 걸쳐 배우며, 약제학 실습은 4학년 2학기, 한 학기 동안만 수강합니다. 약의 성분이나 약이 작용하는 매커니즘, 성분의 유기화학적 구조 등 약학대학에서 배우는 과목의 대부분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추상적인 경우가 많고 직관적인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약제학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먹어봤거나 혹은 본 적이 있는 약의 제형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고, 약제학 실습 시간에는 직접 만들어 보고 잘 만들어졌는지 시험까지 해볼 수 있어서 약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는 게 피부로 가장 잘 느껴지는 학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평소 약의 제형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학생이라면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안재덕(16학번)

약물학

담당 교수님: 박성규 교수님 / 이수학기: 2016년(3학년) 2학기 ~ 2017년(4학년) 1학기

진통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약입니다..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진통제인 아스피린은 버드나무에서 유래한 물질로 고대 그리스에서도 버드나무를 이용해 진통 효과를 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인체 내에서 염증, 발열, 통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에 중요한 'Cyclooxygenase(COX)' 라는 효소단백질을 억제해 프로스타글란딘 분비를 막아 통증을 줄여줍니다. 이처럼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배우는 학문이 약물학입니다. 약물학은 약물을 질병별로 분류하고 질병 메커니즘, 약물의 종류, 약물이 작용하는 원리, 부작용 등을 배우는 학문으로, 3학년 2학기-4학년 1학기까지 총 2학기 동안 배우게 됩니다.

인체는 소우주라 불릴 정도로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인체와 약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기반이 되는 학문이 바로 약물학입니다. 약물학을 통해 배운 질병 및 약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체와 약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나아가 '인류의 건강 증진'이라는 약학의 궁극적 목적에 약물을 응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학은 약물치료 방법을 배우는 임상약학, 약물의 구조를 살펴보는 의약화학 등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는 더없이 중요한 기초학문입니다.

약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 기반을 다지는 학문이기 때문에 누구나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특히 약이 인체 내에서 일으키는 현상에 궁금증을 가졌던 학생, 약의 성분에 대해 알고 싶었던 학생이라면 이 과목을 더욱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양주형(16학번)

3. 글로벌비즈니스대학

한국학전공

한국어의 이해

담당 교수님: 안병섭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2학기

‘한국어의 이해’는 한국학전공 학생의 전공 선택 과목이며, 또한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4영역의 강 의 중 1영역에 속하는 과목입니다. 한국어학의 기본적인 용어 · 한국어학 하위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한국어 연구를 위한 분석 방법 등 다른 전공과목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화과목인 ‘한국어의 뿌리와 역사’, ‘한국어의 말소리’ 등의 과목을 수강하는 데 그 바탕이 됩니다.

‘한국어의 이해’는 강의식 수업과 토론식 수업 방법을 균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의식 수업으로 한 챕터를 마무리 한 후에 토론식 수업이 이루어지며, 토론식 수업은 4명으로 구성된 소집단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토론식 수업에서는 강의식 수업 때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정해진 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 소집단 안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수업 방법과 더불어 기본이 되는 내용을 배울 수 있기에 전공을 처음 접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이 강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 안에 토론 활동이 끝나는 구조이므로 수업 외적인 시간에 소위 말하는 ‘팀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어, 상대적으로 소집단 활동을 어려워하는 학생분들도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유빈(18학번)

한국어평가론

담당 교수님: 김지영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2학기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한국어능력시험을 아시나요? 토픽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에게 한국어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를 보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험입니다. 한국어평가론에서는 토픽과 같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언어 평가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직접 문항을 만들거나 평가합니다.

먼저 언어 평가의 종류와 타당도, 신뢰도, 진정성, 영향, 실용성 등의 개념을 이해하며 이론적인 지식을 배웁니다. 이후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이 한 팀을 이뤄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언어 평가의 기준과 개발 과정을 정리해 발표하는데, 준비하며 실제 유학생과 언어 평가를 고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험 문제를 만들고 평가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모든 발표가 끝나면 배운 내용을 모두 활용해 문항을 개발하고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 평가 자료를 조별로 분석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강의를 추천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다른 강의에서 쉽게 할 수 없는 개발자, 평가자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운 내용을 익히고 암기하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직접 자료를 재구성하고 좋은 언어 평가와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하며, 마지막에는 능동적으로 새로운 평가 방법이나 문항을 제시하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은 기존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언어와 교육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중국인 유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며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간접적으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유학생들과 토의할 기회가 많은데, 유학생들 대부분이 한국어로 무리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토픽 시험을 오래 공부해 온 그들을 통해 실제 한국어 시험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보완점은 무엇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는 내용의 깊이에 비해 학생들의 부담이 적습니다. 발표, 평가 문항 만들기로 중간고사를 대체합니다. 발표 이외에 대부분의 수업 중 활동들도 팀 단위로 진행해 어려운 부분을 혼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뿐인 기말고사 예상 문제도 시험 전에 교수님이 주시는 예상 문제와 연관된 내용을 정리해 암기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재를 읽고 배우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보고 싶은 분, 한국어 시험이 궁금한 분들께 한국어평가론을 추천합니다.

- 강유빈(18학번)

한국학전공

스토리텔링연습

담당 교수님: 이기대 교수님 / 이수학과: 2017학년도 2학기

기존의 문화 콘텐츠 설명방식은 특정 사실에 의거하여 기술하는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문화재를 설명하는 안내판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그저 무미건조한 설명문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를 이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빠른 검색을 할 수 있기에, 더 이상 안내문이 가지는 본연의 가치는 사라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안내판은 객관적 설명문에서 벗어나,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재밌는 설화를 덧붙이는 식으로 보는 사람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를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문화산업은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여러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기에, 기존의 콘텐츠들은 위상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위상을 높이기 위한 더욱 강화된 스토리텔링이 요구됩니다. 즉, 기존의 문화원형을 통해 한정된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재밌는 이야기’를 제작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로 할리우드의 영화산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할리우드 감독이 영화를 제작할 때, 전문 시나리오작가의 스토리를 선택합니다. 전문 작가의 시나리오를 통해 스토리 구성력이 높은 영화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할리우드에서는 시나리오작가의 존재감이 뚜렷하며, 스토리텔링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된 스토리텔링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이기대 교수님의 ‘스토리텔링연습’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본교 국어국문학과와 전공선택 과목으로서 기본적인 전공과목을 수강한 2학년에게 추천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야기를 만드는데 흥미 혹은 특기가 있거나, 창의력이 풍부한 편이라면 1학년이라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수업 스타일이 강의형식의 수업이지만, 팀별 과제 등을 통해 자신의 스토리텔링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스토리텔링연습에서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문화원형의 종류, 그리고 문화원형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OSMU(One source multi use)를 각종 예시를 통해 배우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개념에 대한 설명보다는 주변에서 흔하게 접하는 영화, 드라마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으로 수업이 진행되므로,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는 드라마가 나오면 즐겁게 경험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본 강의의 최종 목표는 한 학기동안 배운 스토리텔링을 적용하는 것으로, 자신이 직접 문화재나 건축물, 혹은 관광지를 정해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보게 됩니다. 기존의 안내판과 책자 속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문화재와 관련된 설화와 역사적 배경을 이용해 새로운 안내판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소 어렵다는 느낌이 들 수 있으나, 완성된 스토리를 강의실에서 서로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스토리텔링 실력이 발전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주예찬(16학번)

3.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중국학전공

중급중국어회화1

담당 교수님: 장용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1학기

매 1학기에만 개설되는 중급중국어회화1은 외국어 강의입니다. 수업 전체가 중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주로 초급중국어어를 이수한 2학년 또는 3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급중국어회화1 수업의 장점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수업을 통해 중국의 문화와 전통, 일상생활 등 다양한 방면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배우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을 배우며 중국에 대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수업은 중국에서 생활하거나 중국인과 대화할 때 유용한 내용을 학습합니다. 교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더 나아가 직접적인 회화표현을 배우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활하기 전에 들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론과 발표를 통해 듣기와 회화 실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어 전공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듣기와 회화 실력을 소통을 통해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수업 중간에 교수님이 한국어로도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중국어회화에 능숙하지 않은 학생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평소 일상생활과 관련한 중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나 중국유학을 가기 전 실생활에 유용한 표현습득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중급중국어회화1 수업을 통해 전공자로서 필요한 중국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회화연습을 하며 중국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완성된 스토리를 강의실에서 서로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스토리텔링 실력이 발전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박수진(16학번)

중국음식문화

담당 교수님: 김효민 교수님 / 이수학기: 2018학년도 2학기

중국학전공에는 정말 다양한 수업들이 많습니다. 중국어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수업부터 일상 회화 수업들, 중국어를 더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시사 수업들, 중국의 정치나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수업들까지, 많은 수업이 있지만 저는 이 중에서도 ‘중국 음식 문화’ 수업을 가장 인상 깊게 들었고 이 수업을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오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중국 음식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는데 요즘은 한국에서도 ‘마라 열풍’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라탕이나 마라샹궈는 대중적인 음식이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중국 음식을 좋아했던 터라 ‘중국 음식 문화’라는 수업을 보고 고민하지 않고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재미있는 수업이었고, 유학 생활 때 먹어봤던 음식들이나 새로운 음식 문화에 대해 알아갔으며 참여하는 게 많았던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의 진행방식으로는 3인 1조로 조를 짜서 진행이 되며, 교수님께서 주신 음식 리스트 중 한 가지의 중국 음식을 골라 그 음식의 유래·설화·문화 부터 조리 방법, 그리고 곁들여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함께 조사하여 매주 돌아가면서 학우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음식들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되기도 했으며, 음식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알고 나니 더욱 맛있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종강 날에는 호연 학사 학생식당을 빌려 조끼리 나눠 앉아 각자 말았던 음식들을 직접 만들고 마지막에는 함께 모아 놓고 뷔페처럼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렇듯 ‘중국 음식 문화’라는 수업은 중국 유학 생활을 한 저에게도, 중국에 가본 적이 없는 학우들에게도 또한 신선하고 재밌는 수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처럼 독자적인 음식 문화가 많은 나라는 적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내에서도 중국학전공만의 특색을 살린, 다른 과에는 절대 없을 수업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이 과목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중국 음식 문화’ 수업은 언어가는 지식도 많았고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었으며 교수님과 학우들에게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제게 제공해준 뜻 깊고 알찬 수업이었습니다.

- 장우정(17학번)

영미학전공

영미인물사

담당 교수님: Conrad Brubacher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2학기

Conrad 교수님은 현재 영미학전공의 유일한 외국인 교수님으로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해외 유명 대학인 토론토 대학교 출신으로, ‘석탑강의상’을 수상하실 정도로 강의능력도 탁월하실 뿐 아니라 학생들의 영어 회화 향상과 더 나은 강의를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학생들과 소통을 아끼지 않는 교수님 중 한 분이십니다.

강의는 교수님과 학생들이 서로를 소개하고 알아가기 위한 ‘ICE BREAK’ 시간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강의 이후 교수님께서 매 강의 시간마다 학생들의 영어회화 향상을 위하여 매시간 무작위로 학생들을 소 그룹으로 배정하여 간단히 영어 회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강의를 진행 합니다. 이후부터는 영어권에 속한 유명 인사를 선정하여 그 인물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하고, 해당 인물에 대한 퀴즈를 진행합니다. 팀별로 발표도 진행하는데요, 각 팀은 한국의 유명 인사를 1명 선정하여 팀원 당 5분씩 총 15분 동안 그 인물에 대한 발표를 영어로 진행합니다. 학생들의 영어 회화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발표 점수는 팀별 및 개인별로 평가가 됩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Conrad 교수님 강의의 핵심인 ‘I5 Project’가 진행됩니다. I5 프로젝트는 교수님이 정해주신 4명이 한 팀이 되어 4명의 인물들을 선정하고, 매주 20분씩 1명의 인물을 서로에게 발표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매주 2시간 정도 진행이 되며, 나머지 1시간은 사전에 정해진 TED TALK 동영상을 보고 유인물을 작성하여 그 유인물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기간에는 I5 Project 방식으로 ‘자기자신’에 대해 20분간 팀원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본인 스스로에 대한 정보 조사 및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나를 알고 미래를 살아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강의입니다.

- 곡진석(14학번)

영미권 생활의 이해

담당 교수님: Conrad Brubacher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1학기

제가 추천하는 강의는 영어영문학과외의 외국인 교수님이신 Conrad 교수님의 ‘영미권 생활의 이해’입니다. 우선 Conrad 교수님의 수업은 전부 영어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두시고 선택을 하면 되지만, 영어를 못한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은 모든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시고, 학생들을 평가할 때 그 학생의 평소 영어실력을 기준으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고려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방식 자체가 절대평가이기에 성적에 대한 걱정 역시 비교적 덜 한 과목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수업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을까요? 영미권 생활의 이해는 과목명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과 미국 지역 사람들(영어권 국가)의 생활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고자 하는 수업으로, 역사·문화·인물 등 영미권 국가의 사회 전반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흥미로운 것을 꼽아보자면 바로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 국가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즐겨입고, 어떤 운동을 좋아하고 즉, 어떤 것에 빠져있는지 알아가는 시간이지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수업을 같이 듣는 동기들과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해보고, 영어로 작문도 해보면서 영어회화실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영어권 국가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수업이 바로 영미권 생활의 이해입니다.

신입생과 고교생 친구들 도움이 되셨나요?

- 박세익(15학번)

3.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영미학전공

셰익스피어

담당 교수님: 박용남 교수님 / 이수학기: 2018학년도 1학기

〈질문하라, 그리고 그 답을 찾아라!〉

영문학도가 아니더라도 셰익스피어 『햄릿』의 유명한 독백(soliloquy)인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이라는 구절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며 햄릿은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또한, 극의 1막 1장에서는 질문 형식의 대사가 무려 15번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첫 대사 역시 “Who’s there?”이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극의 배경인 한밤중에 두 초병 근무자가 근무 교대를 하는 장면으로부터 나오는 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문학을 배우는 입장으로써 이것을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문학적으로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거기 누구야?”하는 말은 곧 ‘너는 누구인가?’, 나아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이렇게 셰익스피어는 의도적으로 질문의 형식을 가져옴으로써 ‘나’라는 사람을 철학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정한 것입니다.

현대인은 아주 경쟁적이고, 치열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답인가?’, ‘내가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공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이며 행복이란 무엇인가?’. 때로는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를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어쩌면 나를 객관적으로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 여유어진 ‘성숙한 나’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박용남 교수님의 〈셰익스피어(SHAKESPEARE)〉는 4대 비극을 중심으로 셰익스피어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그 현대적인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문학 속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녹아 있습니다. 고전을 읽으며 간접적으로 많은 사람을 체험하고 생각해 볼수록 우리는 더 입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영미학 전공의 기본으로써 대표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전공자라면 꼭 수강하기를 권합니다. 본 강의는 4학년 과정으로 추천되지만, 1학년부터 4학년의 다양한 학년으로 구성되며 저 또한 1학년에 이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따라서 셰익스피어 문학을 접해 인문학적 통찰을 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학년에 관계없이 유익한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고전 중의 고전인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교수님의 깊은 해설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학생, 세계적인 작품에 기반한 인문학적 통찰을 통해 철학적 사고를 하고 싶은 학생, 바쁜 현대인의 삶에 지쳐 힐링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이 수업을 추천합니다. 교수님께서 본 강의의 제목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 하셨습니다. 제목과 같이 〈셰익스피어〉를 통해 그동안 잊고 있었을지도 혹은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 옥다솜(18학번)

3.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글로벌경영전공

기술경영론

담당 교수님: 김재영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2학기

기술경영론의 가장 큰 부분은 팀별 활동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사용하는 과학 및 공학 기술에 비추어 경영 원리를 구분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를 서로 생각해봄에 자신만의 생각을 펼쳐보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기술경영론 수업은 위와 같은 부분을 이해 할 수 있고, 기업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의 모습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조직적인 차원에서 각 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부문별 고유 기능을 기술적 관점으로 다가가는 역량을 키우고, 작은 사회라고 볼 수 있는 대학사회에서 팀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얻어갈 수 있습니다.

수업방식은 팀별로 기업체를 선정하여 그 기업이 가지는 고유의 기술력은 무엇이며 소비자들에게 비춰지는 직접적인 마케팅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활동을 가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이전과 기술경영과의 연계성을 따지며 팀원들과 개개인별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발표안을 만드는 활동을 가집니다. 또한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주관하시는 교수님이시기에 학교 내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겪어보고 싶은 학우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기에 방향성을 잡을 수 있으며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방식은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을 체크해주시됩니다. 객관식과 단답형 주관식으로 진행되며 시험의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따로 내주시는 과제는 없으며 팀별활동으로 진행되는 발표가 과제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 중간중간 유명 기업의 잘 된 광고를 시청하게 해주시고 이를 가지고 광고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에 대해 학생들과 생각의 공유를 하게 됩니다. 광고가 가지는 내재적 전달력과 힘의 의미를 가지고 기술경영론과 연결되는 부분을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디테일적인 부분은 수업의 질을 높여주며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에 좋은 부분으로 작용되어 집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 현재 유행하는 상품은 무엇이며 그에 맞는 기술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계적으로 어떤 사회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아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과거의 기술경영법이 어떠했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가야할 필요성이 있고, 미래를 대비할 때 앞선 데이터를 바탕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술경영론 수업은 이러한 부분을 알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최민호(14학번)

서비스경영

담당 교수님: 김진민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1학기

서비스 운영 관리는 기업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산업의 핵심 요소입니다. 해당 강의는 매 시간마다 그룹별로 각 챗터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분석하고 이어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통해 해당 챗터의 서비스경영과 관련된 이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론 수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서비스경영은 3학년 전공 선택 과목으로, 전공필수 과목인 생산운영관리가 추천 선 수강 과목입니다.

수업에 대한 평가방식은 중간 레포트(개인), 케이스 분석, 기말 발표(그룹)으로 진행이 되며, 개인 레포트는 각 그룹별로 하나의 주제를 정한 뒤에, 그에 맞는 각각의 기업에 대한 레포트를 작성합니다. 또한 기말 발표에서는 앞서 언급한 조원 각각의 기업의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업과 각자의 준비를 통해서 찾은 여러 내용들을 하나로 합쳐서 퍼즐을 맞추기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 내내 조원들과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 받아야하고, 수업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하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혹시 자신이 수업을 통해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싶거나, 그룹 프로젝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서비스 경영 수업을 추천드립니다. 서비스경영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자신이 하는 만큼 얻어가고, 결과 또한 그렇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 윤정현(15학번)

소비자행동의이해

담당 교수님: 송수진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2학기

〈마케터가 되고 싶다면! 마케터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소비자 행동의 이해’〉

마케팅에 관심을 두고 마케터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릴 교과목이 있습니다. 송수진 교수님의 ‘소비자 행동의 이해(영강)’ 인데요. 소비자 행동의 이해 교과목은 마케팅적 측면에서 소비자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목입니다. 소비자 행동(Consumer Behavior)이란 ‘소비자가 스스로 욕구충족을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탐색, 구매, 사용, 평가, 처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요. 소비자 행동의 형태, 특성,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본 교과목을 통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이 아직 크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 다음 소비자 선택과정의 유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1. 어떤 소비자가 한 가게에서 쇼핑을 할 때 에어팟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에어팟을 살펴보면 디자인이 세련되고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무선 이어폰을 살펴보지만 디자인이 별로라고 생각했고 거리를 걸으며 에어팟을 사용해 음악을 듣게 되면 멋진 인상을 줄 것이라고 몇 분 동안 생각한 후 에어팟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례2. 그는 친구의 에어팟이 성능이 좋고 디자인도 아름답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동생은 버즈를 가지고 있는데 성능은 좋지만 디자인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가게에서 그는 에어팟과 버즈가 가격이 대략 같은 것을 보고 에어팟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례3. 가게에 방문하여 그에게 가장 중요한 특성 - 음질, 디자인, 노이즈캔셀링, 페어링, 배터리 수명에 대해 여러 무선이어폰 브랜드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속성 및 품질 수준에 대해 각 제품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런 평가해 기초해 그는 에어팟을 선택했습니다.

소비자가 행할 수 있는 세 가지 일반적인 선택과정의 유형으로 사례1은 감정적 선택, 사례2는 태도에 기초한 선택, 사례3은 속성에 기초한 선택입니다. 본 교과목 수강은 위와 같은 소비자 행동의 개념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송수진 교수님의 수업은 강의와 토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매 수업마다 이론과 개념에 대한 교수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학습 후, 팀을 구성하여 팀원들과 함께 교수님께서 제시해주신 주제에 대해 토의를 진행합니다. 팀원들과의 토의를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추후 다른 팀들과 공유하며 소비자 행동의 개념에 여러 측면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교과목은 영강으로 진행되므로 교환학생 수강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교환학생들의 참신한 의견들을 접해볼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 본 과목은 마케팅 과목을 이수한 후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박근영(18학번)

3. 글로벌비즈니스대학

디지털경영전공

웹어플리케이션

담당 교수님: 김정환 교수님 / 이수학기: 2020학년도 1학기

‘웹어플리케이션’은 학생들이 2-3학년 때 주로 수강하게 되는 전공필수 과목인 IT기반구조, 시스템 분석 설계에서 이론으로 배운 Web을 직접 구현해보는 ‘실습’ 과목입니다.

학과 전공을 살려 취직하기를 마음먹은 학생들은 database,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파이썬¹⁾을 배우면서 조금 더 실무적이며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한 갈증이 있을 것인데 ‘웹어플리케이션’은 대기업·중견기업 프로그래밍 언어로 주로 쓰이는 자바 스크립트(java script)²⁾, 수요가 많은 프론트엔드³⁾ 개발자의 역량을 총망라하여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2학년 때 이론으로만 배웠던 client⁴⁾, server⁵⁾, 웹언어⁶⁾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구현되는지를 직접 실습해봄으로써 이론이 체화되고, 또한 개인의 관심도에 따라서는 별도로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의 능력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학습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웁니다. 이런 부분에서 ‘웹어플리케이션’ 과목은 한 마디로 ‘실무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과목으로 볼 수 있는 전공필수 ‘데이터베이스의 이해, 시스템분석설계, IT기반구조’는 과목명만 봐서는감이 오지 않고 진입장벽이 높아 보이지만, 수업 자체는 초반에 웹(web)⁷⁾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세 과목과 동시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덧붙이자면 앞서 언급한 과목 3개만으로는 (전공을 살려 취직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을 스스로 취득하기엔 무언의 공포감이 있었고 IT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추상적으로 느껴졌는데 ‘웹어플리케이션’ 과목을 수강하면서 IT에 대한 전반적인 공포감이 줄었으며 전공필수 과목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약하자면, 전공을 살려 취직하고 싶거나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더할 나위없는 과목이라 생각이 들며 나아가서는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한다고 첨언합니다.

- 진혜빈(15학번)

- 1) 파이썬: 컴퓨터와 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 즉 프로그래밍 언어로 비전공자들도 쉽게 배우는 수준의 언어
- 2) 자바 스크립트(java script):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로 파이썬에 비해 배우기 어려운 언어이지만 중견, 대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 3) 프론트엔드: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직접’ 접하게 되는 tool을 다루는 영역. 예) 홈페이지 제작
- 4) client :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용자 컴퓨터를 뜻함. 예) 개인 컴퓨터, 개인 스마트폰, 개인 태블릿
- 5) server: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컴퓨터를 뜻함. 예) Google, Naver, Amazon
- 6) 웹언어: 웹(web)을 만들기 위해 사람이 컴퓨터와 소통하는 언어를 뜻함 예)HTML

비즈니스프로그래밍

담당 교수님: 박경욱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2학기

비즈니스프로그래밍 과목은 파이썬(Python)이라는 컴퓨터 언어를 이용한 코딩 수업으로, 코딩 도구를 다루기 위한 코딩 언어 및 코딩 기법 전반에 대해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경영과 관련된 실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파이썬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들을 배웁니다. 따라서 비즈니스프로그래밍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경영전공에서 강조하는 경영과 정보시스템 지식을 균형 있게 배울 수 있는 기초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딩 언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매주 실습을 통해 파이썬의 작동 방법을 익히고, 개별과제 및 팀 과제를 통해 기업경영에 있어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해 보는 연습을 합니다.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모르는 내용들은 바로 질문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코딩 개념이 전혀 없는 수강생들도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코딩은 우리에게 있어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으며,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문·이과생의 구분 없이 코딩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즈니스프로그래밍’을 성실하게 수강한다면, 코딩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쟁력을 지닌 개발자이자 경영인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김은식(15학번)

디지털경영전공

디지털 비즈니스의 이해

담당 교수님: 권소연 교수님 / 이수학기: 2017학년도 1학기

아기들이 착용하는 기저귀와 어른들이 주로 마시는 맥주가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아시나요? 언뜻 보기에 맥주와 기저귀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맥주와 기저귀가 마트에서 같이 놓여 있을 때, 맥주와 기저귀의 판매율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필수전공과목인 ‘디지털비즈니스의 이해’ 라는 수업은 우리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녹여져 있는 사례들을 통해서 정보시스템의 이론들을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 놓여 있는 물건들은 아무 이유 없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기까지의 동선과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배치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의 다양한 ‘비즈니스’ 사례를 통해 이론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으며, 앞으로 전공에서 어떤 것들을 배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기에 적합한 과목입니다. 디지털 비즈니스의 이해는 영어로 진행되는데, 사례 중심으로 재미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에 들어와 첫 영어강의로 수강하기에 좋은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경영전공에서는 다양한 시스템 개발 관리, 디지털 시대에서의 정보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기업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기술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디지털비즈니스의 이해’ 는 이러한 심화된 전공과목을 배우기에 앞서 우리가 사는 디지털 시대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을 여러 사례를 통해 배워보면서, 기업의 프로모션을 직접 분석하고, 냉철한 전략을 세우는 ‘분석가’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추 수 있는 수업이기에, 꼭 수강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 강예원(17학번)

정부행정학부

4. 공공정책대학

행정과 리더십

담당 교수님: 오종록 교수님 / 이수학기: 2018학년도 1학기

〈행정과 리더십〉은 행정 분야의 리더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배우는 과목입니다. 리더십의 유형과 그 유형의 장단점은 물론이고, 이러한 리더십이 행정과 관련된 단체, 조직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사례를 중심으로 배우게 됩니다.

평가는 과제, 팀 프로젝트, 지필고사로 이루어집니다. 과제는 각 챕터에 있는 내용을 읽고 인상 깊었던 점을 사례를 들어서 작성하고 블랙보드¹⁾에 제출하고 발표하는 방식인데,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특정 학생을 지정하여 질문을 던지시고, 학생이 그 자리에서 2~3단어나 문장으로 답변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원하는 사람과 팀을 짜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팀원들끼리 따로 준비를 할 수도 있지만, 교수님께서 남는 수업시간 동안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기말고사 전 주에는 영어로 2~3분 정도를 발표해야 하는데, PPT 양식을 교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PPT 꾸미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팀 프로젝트 점수 중 발표자료는 팀 점수, 개인이 발표하는 것은 개인점수로 들어갑니다. 지필고사는 TRUE/FALSE 유형과 4지선다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행정과 리더십〉 과목을 통해 리더십에 관한 이론, 사례를 배우는 것도 유익하지만 내가 경험하고 리더의 자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되고, 현재 내가 경험하고 존재하는 집단에서 실제로 ‘리더’가 되어, 그 리더십을 적용해 보며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수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예로 2018학년도 과 부 학생회장을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리더십을 학생회 임원들에게 적용해 보고 나의 리더십은 어떤 스타일인지 깨닫고 좀 더 발전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강의를 추천합니다.

- 정민영(14학번)

1) 블랙보드: 고려대학교 강의 사이트

헌법

담당 교수님: 표시열 교수님 / 이수학기: 2017학년도 2학기

〈헌법〉 과목은 어렵게 느껴지는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목입니다. ‘헌법’은 ‘모든 법의 어머니’라고 이야기 하곤 합니다. 이 과목을 통해서 우리 학부에서는 법에 대한 기초 개념, 행정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 법과 정치에 대한 사고를 간략히 배우고 있습니다.

〈헌법〉 강의는 2학년 혹은 3학년이 주로 수강하는 과목으로써 PPT와 헌법책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님의 배경지식과 실제 사례를 더해 이론을 재밌게, 그리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법을 어렵고 다가가기 느끼지만, 이 수업을 통해 학우들이 법을 친숙하고 어려운 과목으로만 생각하지 않을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수업은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다양한 논문과 사례를 찾아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리걸 마인드(Legal mind)¹⁾’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 조항을 통해 사법적인 영역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포괄하고 있는 사회현상과 행정의 다양한 영역을 배우기 때문에 행정학도라면 한번은 들어봐야 할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강의를 통해 단순 전공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행정적, 헌법적’ 사고를 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으며, 이는 공직 진출을 위한 헌법 과목을 공부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에서 헌법적 지식을 요하고 있기에 공직 진출을 위한 필수 과목인 헌법을 대학 수업에서 친숙하게 익히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김민석(14학번)

1) 리걸 마인드(Legal Mind): 법적 사고, 법적 사고력, 법률적 사고방식으로 해석(번역)할 수 있으며 쟁점에 대한 균형 있는 판단을 위한 소양

정부행정학부

행정이론

담당 교수님: 심광호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2학기

정부행정학부는 학기당 많은 전공과목이 개설되고, 좋은 강의가 매우 많지만 그중 한 과목을 선정한다면 심광호 교수님의 ‘행정이론’ 강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행정이론’ 강의는 행정학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단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이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개념들로 채워나가야 하는지, ‘행정’은 무엇이며 사회에서 어떤 구실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보아 사회 혹은 형성된 시장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기초적으로 습득하는 과목입니다. 이와 더불어 학문의 기초가 되는 이론을 배우는 과정이 담겨 있기에,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개념’, ‘이론’, ‘신뢰성’과 같은 단어들의 정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는 학습했던 이론과 개념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사고력을 더하여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학습했던 내용을 단순암기식으로 평가를 보는 것이 아니기에 본인 스스로가 강의에 몰입하여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없다면 어려움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개개인의 의견과 판단의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개념을 습득하는 과정에서의 차이점도 확연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이론’ 강의의 끝자락에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조를 이루어 방법론 비평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방법론 비평서는 학기 중 선정했던 특정 논문의 내용을 다시 살피어 개념 설정과 연구 방법을 다시금 검토하여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토대로 정리 및 비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평서 작성을 통해 한 학기 동안 학습했던 이론과 개념의 밑바탕을 토대로, 이것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으며, 활용된 논문들은 실제 정부 관료들에게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혹은 정책형성 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행정이론’ 강의는 학년에 구분 없이 정부행정학부 학부생이라면 꼭 수강해야 할 좋은 강의임에 의심이 없습니다. 단순히 전공과목의 목적이 공직 진출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자로서의 역량을 향상하는 데에 더욱 큰 의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이론’ 강의를 통해 학부생들이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점을 느끼고 배워 간다면 공직 진출 및 여러 가지 분야의 학문을 학습할 때 더욱 큰 학습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장제웅(16학번)

4. 공공정책대학

공공사회학전공

사회문제론

담당 교수님: 전명수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1학기

〈사회문제론〉은 사회문제에 관한 주요 이론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원인과 성격,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살펴보는 과목입니다. 공공사회학과와 세 가지 전공역량 중 미래 비전 역량에 해당하는 이 과목을 통해 사회 변동에 관련된 사회학 이론을 토대로 하여 다가올 미래를 전망하고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주로 1~2학년의 학생들이 사회학에 입문할 때 수강하는 것이 좋으며, 전공필수과목인 〈사회학개론〉과 함께 수강하거나, 그 이후에 수강할 때 효과적입니다. 강의 내용 대부분이 현대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빈곤, 성차별, 교육, 고령화, 청소년, 범죄, 종교, 부정부패 등 주요한 쟁점이 되는 문제들에 정면으로 대결하여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안되었습니다.

수업은 발표를 통해 현대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원인과 성격을 분석하고,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공 지식을 쌓는 것은 물론, 의사소통능력이나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사회문제론〉을 수강한 이후에는 관심 분야에 따라 〈사회계층과 불평등〉, 〈한국사회론〉, 〈가족복지론〉, 〈여성복지론〉, 〈빈곤정책〉, 〈사회복지정책론〉, 〈시민사회론〉을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깊은 전공적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서지훈(18학번)

사회조사방법론

담당 교수님: 김근태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1학기

〈사회조사방법론〉은 영어로 진행되는 '영강' 과목입니다. 영강이라고 하면 어려운 강의, 이해하기 힘든 강의 등 약간의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지만, 교수님께서 최근까지 해외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영어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잘 진행되고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어렵지 않은 단어를 사용해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30분~1시간 정도는 한국말로 이제까지 한 내용을 다시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매 수업시간마다 PPT자료를 올려주시는데, 개념과 그 개념에 대한 예시, 관련문제가 나와 있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공공사회학과에 개설되어있는 다른 강의들은 대체적으로 자료조사만 하면 되는 과제가 주어진다면 이 강의는 말 그대로 사회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제를 설정해서 설문 조사지를 만들어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그야말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SPSS, STATA와 같은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는데 교수님께서 프로그램 사용방식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고, 전공 과목 중 유일하게 통계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강의입니다. 특히, 사회학 전공자라면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이 강의는 팀을 꾸려 '조사대상 선정, 설문지 작성, 사회조사, 결과지 분석' 과 같은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김지나(18학번)

통일외교안보전공

남북한관계사연구

담당 교수님: 임재천 교수님 / 이수학기: 2018학년도 2학기

임재천 교수님의 <남북한관계사연구>는 강의명 그대로 일제강점기 말의 한국과 북한의 정부가 수립되어가는 과정에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과 같이 최근의 북한과의 관계까지 다루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소개하자면 우선, 교수님께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재밌는 설명을 해주셔서 머릿속에 생생하게 수업내용이 기억난다는 것입니다. 수강을 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사건은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입니다. 시대적으로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점차 권력을 세습하고자 하는 시기에 김정일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으로 판문점에서 미루나무 제거 작전을 하고 있던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의 공격으로 사망하고 이에 미국의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하였고 이에 체제의 위협을 느낀 김일성이 미국에 유감을 표명하며 북한에서는 이후 1년간 준전시상태를 유지했다는 내용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남북한관계사연구는 과제가 다른 과목에 비해 많은 편이지만, 그 만큼 과제를 통해 배울 것이 많은 수업입니다. 저도 과제를 싫어하는 성격이나 수업교재를 요약하고 비판하는 과제를 통해 수업내용에 대한 복습을 할 수 있었고 수업 교재에 대한 학생의 비판을 토대로 한 교수님과의 토론을 통해 다양한 방면으로 사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과제로는 조별 발표 과제가 있는데, 조별 발표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피드백을 제공해주셔서 학생 대부분이 수준 높은 발표를 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얻어가는 것이 많았던 수업이었습니다.

- 김경욱(17학번)

국제관계이론

담당 교수님: 김장욱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1학기

글로벌 시대에서 대한민국은 남북 분단 현실, 미군의 주둔, 4대 강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 등의 요인으로 특히나 국제사회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국제적 시야를 가진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한 인재가 되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관계이론을 통해 크게 국제관계의 접근법, 국제관계의 역사, 21세기 국제질서, 국제정치와 안보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국제관계에 대한 의미와 기존의 이론을 습득하면서 세계적 학자들의 관점과 우위의 관점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강의를 통한 기초지식 습득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배운 이론을 토대로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세 번째로 토론과 발표를 통해 수강생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고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통일외교안보 전공 특성상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제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 이론 및 현대 국제관계 현상들은 특히 관심있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국제관계이론 수업은 통일외교안보전공의 관점에서 국제관계의 흐름과 국제관계이론의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기에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전공공부는 이론과 역사, 실재를 복합적으로 파악할 때 효과적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국제관계이론을 중심으로 맥락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사례와 주요이슈 및 쟁점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에 적용하는 점이 이 강좌의 가장 흥미로운 점입니다.

더욱이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국제관계이론의 관심을 고취하고 향후 통일외교안보 전공자로 갖추어야 할 국제관계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 및 관련 이론의 습득은 전문성을 배양하고 습득한 이론을 바탕으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와 창의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강좌는 통일외교안보 전공자에게 국제사회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안경과 같은 존재입니다. 후배님들께서도 열심히 학습하셔서 글로벌 시대를 읽는 인재가 되길 희망하는 바람에서 ‘국제관계이론’ 수강을 추천드립니다.

- 정하은(18학번)

4. 공공정책대학

통일외교안보전공

남북한통일정책론

담당 교수님: 유호열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1학기

해당 강좌는 유호열 교수님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통일에 관한 배경과 내막에 감추어진 진실을 적나라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깊이 있는 강의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수반되는 수업이었습니다. 조별과제로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고, 지인들에게 설문을 시행하여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조별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여 각 조가 어떻게 조사하였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교수님의 지인 중 한 분인 외부 전문가를 수업 시간에 초청해 특강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독일 통일 전문가셨는데, 한반도 평화 통일의 롤 모델로 동서독 통일을 꼽는 만큼 독일의 사례를 엿보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통일 이야기를 접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재 사정, 북한과의 공존 및 향후 관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어떠한지 제대로 파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및 북한에 관련된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만큼 북한은 대한민국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대상이고 따라서 통일 역시 언제나 화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한통일정책론’은 이처럼 통일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통일을 꼭 해야만 하는지 등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강의인 만큼, 꼭 수강해보시길 바랍니다!

- 김우성(18학번)

경제통계학부(경제정책학전공)

Global Economy I

담당 교수님: Jim Kapsalis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2학기

〈Global Economy I〉은 전공에서 배운 경제이론을 기반으로, 세계 경제 이슈에 대해 교수님과 학생이 토론하는 방식의 수업입니다. 세계 금융 위기, 세계 디플레이션, 미중 무역분쟁, 세계 곡물 시장, 중국의 경제성장, 중국의 미국 증권 등 다양한 경제 이슈를 교수님께서 IMF, WTO, FED 등 기관의 Report(보고서)를 활용하여 설명해주시고, 학생은 토론을 통해 경제 이슈에 경제이론을 적용합니다.

이 수업의 장점은 Melbourne University에서 국제경제를 연구하신 교수님과 세계 각지에서 온 교환학생 덕분에 경제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 회화 능력(Global Leadership)도 함양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정치인이 모여 세계 경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연구하는 World Economic Forum에서 출간한 Global Risk Report를 활용하여 세계 경제 이슈를 Risk(위험)을 Likelihood(가능도)와 Impact(충격)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경제 이슈에 적용된 경제이론과 해결방안을 Report로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Risk(위험) = Likelihood(가능도) x Impact(충격))

경제학도로서 전 세계의 경제 이슈를 자신만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Global Economy I〉을 수강할 것을 추천합니다.

- 정기문(16학번)

한국경제의 이해

담당 교수님: 이충렬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2학기

경제정책학전공의 전공필수 과목의 명성에 걸맞는 수업이 바로 ‘한국경제의 이해’입니다. 3학점 수업이며 교재가 필요치 않고 교수님의 ppt로 수업이 진행되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한국 경제의 흐름을 따라가며 수업이 진행됩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 몰랐던 사실을 하나씩 알려주시는데, 그 정보가 너무나 유용하고 유익합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느 고속도로가 언제 개통되었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건설이 어떻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은행들은 어떠한 과정으로 통합되었고, 최근에는 어떠한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는지 등 재밌는 스토리텔링으로 설명해주십니다.

경제정책학전공의 전공필수 과목인 만큼 다른 어떤 경제 지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 수업을 기반으로 거시적인 우리나라 경제적 성장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담깁니다. 특히 교수님이 동북아 경제를 굉장히 깊게 알려주셔서 아세안 국가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등 전 세계 곳곳을 다녔본 교수님이 직접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보며 그 나라의 성장 과정을 알게 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곳을 확신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성공한 롯데리아 지점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 기억에 남는데, 이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상세히 소개할 수 있을 만큼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첫 발돋움부터 지금까지의 성장까지 한 수업에서 그려볼 수 있는 이 수업은 1학년 때 일찍 들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들으며 여러분 또한 경제학의 매력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백현주(18학번)

4. 공공정책대학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데이터분석소프트웨어초급

담당 교수님: 최보승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1학기

통계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SAS의 전반적인 기본지식을 알려주는 강의입니다. ‘데이터분석소프트웨어초급’ 강의에서는 SAS에서 사용되는 기본 언어에 대해 다루고, 그 기본언어를 통해 은행에서의 고객데이터관리를 실습해보며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실제 은행업무 현장에 계셨던 최보승 교수님이 은행 고객리스트 데이터를 통해 실질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정보와 함수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을 알려주시며 현장에 계셨던 만큼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내용과 보다 이해하기 편한 설명을 통해 강의를 해주시고 학과 전공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가장 통계를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방식으로는 시험을 중간/기말로 보지 않고 총 4회에 걸쳐 시험을 진행함으로써 전공에 소홀히 하지 않고 한 학기 내내 집중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중간에 진행되는 퀴즈는 학습한 내용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함축적으로 담은 내용이 주를 이루어 퀴즈를 통해 그날 하루에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시험은 오픈북으로 진행되어 실제 우리가 실무작업을 하는 환경처럼 인터넷에 있는 자료와 주변 자료를 충분히 응용해 사용할 수 있게끔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가장 실무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학과에서는 방학중에 SAS 초급 자격증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데이터분석소프트웨어초급’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과 특강 내용이 거의 동일 하여 자격증 취득에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관련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듣기를 추천합니다.

- 김용환(15학번)

데이터마이닝방법론

담당 교수님: 전수영 교수님 / 이수학기: 2020학년도 1학기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은 수집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빈도수나 요약통계량을 계산하는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서 전반적인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특정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통해서 분석모형을 선정하고, 분석모형은 다양한 함수(알고리즘)를 통해서 실제 모형으로 생성되며, 생성된 모형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의 평가결과가 나타나면 우리 실생활에서 의사결정 및 미래 예측에 활용됩니다.

‘데이터마이닝방법론’ 과목은 학부 수준에서 데이터마이닝 기법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교수님께서 데이터마이닝의 주요 기법들간의 연관성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시기 때문에, 데이터마이닝 교과목의 교재 또는 데이터마이닝에 관심 있는 학부생들을 위한 입문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본 강의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수과목으로 학부의 회귀분석, 수리통계학, 다변량 통계분석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학부 수준에서는 기초적인 R 사용법에 대하여 1-2주 정도 선행을 마친 상태에서 본 교과목을 수강할 것을 권장합니다.

- 이주상(17학번)

국제스포츠학부(스포츠과학전공·스포츠비즈니스전공)

스포츠경제학

담당 교수님: 김차용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2학기

‘스포츠경제학’은 국내 스포츠 산업의 현황과 스포츠라는 산업의 특성을 경제학적으로 조망하는 방법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수요 공급의 이해와 가격 설정 및 스포츠 제품의 탄력도를 분석하거나, 스포츠 이벤트 효과를 분석하고 스포츠 마케팅의 효과 측정해 봄으로써 스포츠 산업 현장의 경제적 특성 및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포츠 경제학’은 스포츠 전공자가 서비스 산업현장(스포츠산업)에서의 경제흐름의 특성과 가치는 물론, 국내 및 해외 프로 스포츠, 스포츠용품, 시설, 관광 등 전반에 걸친 경제적 효과와 그 가치에 대해 다룹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크게 스포츠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학생들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전반에 자리잡고 있어 분리될 수 없는 학문입니다. 1학년에 수강하여 경제라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앞으로 스포츠 비즈니스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을 비교적 쉽게 수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스포츠 경제학 과목을 들어보니 경제는 비즈니스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기본적인 과목입니다. 이러한 기본과 기초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더 어려운 전공 과목을 배우게 된다 하더라도 금방 한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스포츠학부에 입학하여 스포츠 비즈니스전공으로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고자 하는 학생분들이라면 제일 먼저 스포츠 경제학을 수강하여 경제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지식을 넓혀 나간다면 진정한 ‘국제 스포츠 리더’로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 김동규(14학번)

근골격기능해부학

담당 교수님: 신말순 교수님 / 이수학기: 2017학년도 2학기

전공선택으로 구분 되어 있는 수업이지만 스포츠과학전공자라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과학에서 기초가 되는 기능해부학¹⁾을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2학년 대상과목이지만 ‘운동해부학’을 들었다면 1학년 때 미리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과목을 추천하는 이유는 스포츠 전공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전공서인 뉴만(kinesiology)²⁾을 기초로 기능해부학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해부학³⁾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인체의 기능과 움직임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수업입니다. 이를 토대로 퍼포먼스나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대상은 스포츠과학전공자이며 이 뿐만 아니라 트레이닝을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이나 스포츠의학에 관심있는 학생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장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미리 듣고 공부하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홍혜림(17학번)

1) 기능해부학: 인체구조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

2) 뉴만(Kinesiology): 저자 Donald A. Neumann 이 쓴 책으로 근육뼈대계통의 해부학적 세부설명을 담은 도서

3) 운동해부학: 운동을 일으키는 근육과 골격 등 이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운동 기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학문

5. 문화스포츠대학

국제스포츠학부(스포츠과학전공·스포츠비즈니스전공)

전공실기 I, II, III(흑호)

담당 교수님: 김상호 교수님 / 이수학기: 매 학기

저는 전공과목 중 실습수업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론 수업을 통한 지식을 지식으로만 두지 않고 실습을 해보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실습수업 중에서도 소모임을 통한 전공실기 강의를 좋아합니다.

전공실기(I, II, III)란 국제스포츠학부 정식 소모임인 ‘흑호’ 활동을 하면서, 3학기 이수 시 전공필수 3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국제스포츠학부만의 독특한 커리큘럼입니다. 학생이 주가 되어 방송 댄스를 배우고, 무대를 기획 및 제작하는 과정을 배우고, 본인의 끼를 나타낼 수 있으며, 흑호 외에도 정식 소모임으로 인정된 소모임이라면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공실기 I, II, III(흑호)는 일반적으로 주 2회의 모임을 갖습니다. 1회 2시간 연습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소모임장의 리더로 강의를 진행됩니다. 춤이라는 특성상 안무를 외워야하는 부담감은 있지만, 소모임장을 비롯해 선배들의 노하우를 전수 받으며 배워간다면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흑호는 오디션을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춤을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이나 몸치인 학생들도 전공실기 과목, 흑호 활동을 통해 댄서로 거듭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재미 외에도, 전공실기 과목은 스포츠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스포츠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자세가 불안정할 경우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공실기(I, II, III)를 하다보면 안무캐치 능력이 향상되어, 스포츠 자세를 터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교내행사, 교외행사 무대를 경험하는 것이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무대 위에서의 행복은 그것의 몇 배 이상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학우들과 서로 의지하며 학생들이 주가 되어, 수업을 기획 및 계획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 분명 여러분의 인생에 큰 경험이 될 것입니다.

- 박재덕(15학번)

문화유산융합학부

동양도자사

담당 교수님: 김윤정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2학기

동양도자사는 중국 도자사를 중심으로 동양의 도자기를 영어로 배우는 과목입니다. 시대는 중국의 고전시기부터, 청나라까지이며, 도자기의 역사·형태·번조 과정의 발전 또한 접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교수님께서 기초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선 수강 과목 없이도 수업을 따라가는데 무리 없습니다. 수업의 진행은 영문 논문과 자료를 해석하는 훈련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도자사 용어를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중국 도자사를 영문으로 표기 한 과목이기 때문에, 처음 수강을 할 때는 막막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파생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금방 적응 할 수 있습니다.

매주 교수님께서 공유해주시는 영문 자료와 해외 박물관의 소장목록의 해석을 하는 과제가 있고, 평소 관심을 가지던 시기의 중국 도자기에 관한 레포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해당 기간에 치르게 됩니다. 본래 이 과목은 3학년 2학기때 수강하는 것을 권장하는 과목이지만, 필자는 2학년 당시 수강하였고 교수님께서 워낙 설명을 처음부터 잘 해주셨기 때문에 수강에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평소 도자사와 중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수강을 추천드립니다. 형태와 관련된 설명 뿐 아니라, 제작 과정의 변화까지 세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자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당대의 도자기를 직접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보고 그 촉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 없이 해당 과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 서혜은(18학번)

융합전시실습

담당 교수님: 김선희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2학기

‘융합전시 실습’이란 새로운 형태의 융합전시가 등장하는 오늘날, 융합전시의 정의, 발전방향과 디지털 기술의 활용가능성, 그리고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이슈를 탐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수업입니다. 강의 및 토론, 분석 리포트, 답사 및 기획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답사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전시자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전시를 제공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은 융합전시에 대한 실질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람자의 요구와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관람객이 다양한 융합전시를 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전시기획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수업과 답사의 내용을 참고하여 문화유산을 활용한 전시를 기획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3학년 과정으로 배정되어있지만 저 또한 2학년 때 수강하여 무리 없이 수업을 들었을 정도로 기획해보고 싶은 전시가 있다면 학년과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미래의 관람객과 전시에 대한 상상을 하며 새로운 형태와 컨셉의 전시를 직접 기획해보며 이를 통해 상호 피드백하고 다양한 방면의 아이디어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일방적인 정보전달의 강의에서 그치는 것이라 아니라 직접 기획하고 상호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실무적인 부분까지도 직접 접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필드에서 다양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의 피드백과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문화유산과 기술에 대한 융복합 역량을 키울 수 있었던 인상 깊은 수업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전시의 형태에 관심이 많거나 관심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전시라는 매개체로 풀어내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 서혜정(18학번)

5. 문화스포츠대학

문화유산융합학부

문화재GIS실습

담당 교수님: 안형기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2학기

이 강의는 문화재GIS개론 수업의 연장선으로, GIS 분석의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실습하는 강의입니다. GIS란 지리정보체계란 뜻으로 지역에서 수집한 각종 지리 정보를 수치화하여 컴퓨터에 입력, 처리하고 이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제공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GIS는 현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든 자료를 취급하므로써 광범위한 활용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GIS 기술로 인해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범죄를 예방하기도 하고 현재 GIS 기술은 4차 산업 기술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주요 기술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수입니다. 도시 전체를 전산화하여 데이터로 전환하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기술을 바로 문화재에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이 강의는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화재와 관련된 기본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GIS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발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GIS 프로그램을 이용한 지도 작성 및 분석을 함으로 전문성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 GIS를 이용하여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안목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새로운 혁신이 가능할 것이지만,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데이터의 관리와 사용이 필요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 단순히 이론적인 분야를 떠나, 전문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 김재이(17학번)

미디어문예창작전공

시나리오기법

담당 교수님: 박유희 교수님 / 이수학기: 2018학년도 2학기

“네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펼쳐 봐!”

미디어문예창작전공에 입학한 학생들은 저마다 한 가지씩 쓰고 싶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남들은 생각하지 못할 재미난 이야기를 뽐낼 생각에 잔뜩 들뜬다. 그러나 생각보다 내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전공과목은 드물다. 소설을 쓰자니 약 16,000자의 분량을 채울 생각에 눈앞이 아득하고, 시는 정말 재능있는 자만 쓸 수 있다고 떠들고, 비평은 내 이야기를 오롯이 펼칠 수 없으며, 희곡은 창작극이 아닌 낭독극을 펼치기에 이야기를 선보일 기회조차 없다. 사람들에게 내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바람은 어느덧 바쁜 일상에 치여 날아갈 뿐이다.

잠시 그 흐름을 멈춰보자. 우리에게 시나리오가 남아있으니 말이다. 우리 과에는 ‘권 유희’라고 불리는 교수님이 계신다. 200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영화평론 부문에서 영화 <올드보이>로 등단하셨다. 전공필수인 영상 문학의 이해부터 전공선택인 시나리오 기법, 미디어의 이해, 문화와 장르 등 다양한 과목을 담당하신다. 그중에서도 시나리오 기법은 실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A4 1장 정도로 전체 줄거리를 요약하면 되니 16,000자의 부담도 없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풀어내기만 하면 되니 시처럼 각종 기법을 활용할 필요도 없고, 다른 작품을 매개로 삼지 않아도 되며, 창의력을 마음껏 뽐낼 수도 있다.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야기에 기승전결을 담는 것이다. <시나리오 기법> 강의에서는 시퀀스를 나누고, 그 시퀀스를 알맞게 배열하는 방법을 배운다. 게다가 매력적인 인물과 영화적으로 중요한 기법을 실습하며 체화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영화적 기법이 아니라 창작의 전 범위를 아우른다. 그러므로 이 강의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다른 전공에서도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미디어문예창작전공에 발을 들였다면 권 유희의 수업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고 싶지는 않은가? 아직 늦지 않았다. 망설이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있다. 당신도 개척자가 되어보는 걸 추천한다.

- 오수민(17학번)

비평세미나

담당 교수님: 이해원 교수님 / 이수학기: 2018학년도 2학기

<비평세미나> 수업은 전공선택 과목으로서 <비평의 이해>를 수강한 학생이 비평적 소양을 더욱 향상시키고 싶을 때 듣기 좋은 과목입니다. 강의는 작가의 작품을 논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수강했을 당시에는 김수영의 작품과, 한강의 작품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각 작가에 대한 진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작가의 작품 중 한 가지에 대해 A4 한 장 분량으로 감상문을 쓰는 과제가 있습니다. 개인 발표로 이어지지만 큰 부담은 가질 필요 없으니 편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면 됩니다.

진도가 시작되면 2인 1조로 조를 정해 순서대로 발표할 논문을 정합니다. 논문은 별책본 내에 첨부된 것으로, 김수영과 한강에 대해 다른 비평가가 논평해 놓은 것을 15분 이내의 분량으로 요약 발표하면 됩니다. 발표가 끝나면 다른 조에서 온라인으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답변을 합니다. 질문은 논문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생각해 볼 부분, 또는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견 제시를 위해 논문을 비판적으로 읽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기말 과제로는 A4 7매 분량의 비평문을 제출합니다. 주제는 자유이며, 자신이 선호하는 문학 작품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비평문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교수님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찾아뵈었는데, 주제 선정부터 논리 전개까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아낌없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비평가를 희망하거나 제대로 된 비평문을 쓰고 싶은 학생분들은 꼭 <비평세미나>를 수강하기를 추천합니다. 논리적인 구조로 글 쓰는 방법을 배우고, 이해원 교수님의 세심한 피드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평적 성장을 경험할 것입니다.

- 김소현(17학번)

5. 문화스포츠대학

문화콘텐츠전공

영화의 기획 및 마케팅

담당 교수님: 최영희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2학기

왓차플레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과 같은 OTT(Over The Top)¹⁾이 널리 보급된 현시대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친근한 콘텐츠는 영상입니다. 예능, 드라마, 다큐멘터리, 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영상들이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여기에는 영화 또한 빠질 수 없습니다. 영화의 명장면이나 명대사, OST 등을 패러디하거나, 인용하는 등 OSMU(One Source Multi Use)²⁾의 기본원천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영화를, 문화콘텐츠인이라면 단순히 관람해서만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는 기획, 제작, 유통의 모든 과정을 거쳐 소비되는 형태의 영화입니다. 즉, 우리가 보는 모든 영화의 첫 단계는 기획입니다.

높은 건물을 쌓기 위해서는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고, 밑동부터 제대로 신경써야하듯이, 성공하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성공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주제를 정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스태프를 섭외하는 등 모든 준비의 과정을 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기획의 이론적인 설명과 더불어 기획을 직접 하게 됩니다. 훌륭한 기획을 바탕으로 성공한 영화작품들을 분석하고, 분석의 과정을 통해 영화를 바라보는 안목과 이해가 높아졌다면, 직접 소재를 찾아 자신만의 영화를 기획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시, 웹툰, 소설, 노래, 다른 영화나 드라마, 일상 등 어디에서든 소재를 찾을 수 있고, 그것을 영상화할 수 있는 능력은 문화콘텐츠인의 기본 역량이며, ‘영화의 기획 및 마케팅’을 통해 이를 연습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전 학년이 수강 가능하며, 제작 단계에서 팀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영화 기획 이론과 기획서 작성이 병행되는 수업이니만큼, 평소 영화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이여야 수강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친밀한 문화콘텐츠가 된 영화를 통해 모든 문화콘텐츠의 제작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나아가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수업은 문화콘텐츠인들이 앞으로 발전시킬 기획능력의 발판이자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 이예희(17학번)

1) OTT(Over The Top): 인터넷으로 영화, 드라마 등 각종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

2) OSMU(One Source Multi Use): 하나의 원형 콘텐츠를 활용해 영화,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 장난감, 출판 등 다양한 장르로 변용하여 판매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

관광 및 축제콘텐츠 개발과 운영

담당 교수님: 안남일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1학기

안녕하세요! 새내기 여러분!

문화콘텐츠전공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열의를 갖고 우리 전공에 입학한 만큼 축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문화콘텐츠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축제’ 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관광 및 축제콘텐츠의 개발과 운영’ 수업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수업은 축제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다루는 수업으로 수강신청부터 문화콘텐츠 전공 학우들에게 인기가 엄청 났습니다. 수업 방식은 필기 50%, 실기 50%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간고사 때까지는 교수님의 이론 수업이 중점을 이루다가 그 이후에는 원하는 학우들과 팀을 맺어 축제를 선정한 다음 분석하고 발표하는 수업입니다.

놀랍게도 실습을 중요시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관심이 있어 하는 축제에 대해 꼼꼼히 분석하고 그를 통한 아이디어 발상에서 높은 비율로 평가를 매깁니다! 팀플은 원하는 학우들과 팀을 정하여 축제를 선정한 다음, 해당 축제가 어떻게 개최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심층적인 분석을 한 후에는 그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새로운 축제를 기획하는 과정도 한번 더 거치게 돼요! 심층적인 분석을 하니 저희가 몰랐던 새로운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저희만의 해석으로 축제를 감상하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에 관심이 있고 평소에 즐기는 축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재해석해보고 싶다는 새내기분들에게 아주 강추하는 수업입니다!!

- 김용휘(18학번)

미디어문예창작전공

소셜미디어 활용전략

담당 교수님: 김정우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1학기

〈소셜미디어 활용전략〉 이름만 들어도 뭔가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지요? 살살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목소개: 소셜미디어의 특성과 그 특성을 잘 활용한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소셜미디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전략적 활용의 방법을 습득한다." ... 라고 학과 홈페이지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들으면 도대체 어떤 과목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때문에 수업을 직접 수강한 학생의 입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 활용전략 수업은 쉽게 말해, 우리가 접하는 콘텐츠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직접 제작하며 기획능력 및 제작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전공 수업입니다. 2019학년도 1학기에는 수많은 소셜미디어 중 '카드뉴스'가 그 주제였으며 한 학기 동안 카드뉴스라는 소셜미디어의 활용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수업 초반에는 교수님의 이론적인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의 이론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질 때쯤, 실습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제작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학기 수업 중 총 4차례 각각 다른 주제로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이 모든 과정은 팀별로 이루어집니다. 각 조는 수업 시간에 자신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소셜미디어에 대한 PT를 진행하고, 그 후 교수님에게 다양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이 전공수업의 장점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시험이 없는 수업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격주마다 이루어지는 PT는 종종 시험을 보는게 낯것다는 생각을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기에 조금은 부담되는 전공 수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수업을 듣고 나면 소셜미디어를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으며, 팀별 활동을 통해 무언가를 같이 만들어 내는 재미에 대해서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힘든 만큼 얻는 것도 있고 교수님의 솔직하시고 날카로운 피드백을 들으면서 배우게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전공 수업에서 발표를 도전해보고 싶다!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면서 소셜미디어에 대해 배우고 싶다! 수강 후 남는 것이 있는 전공수업을 듣고 싶다!하는 학생분들이라면 '소셜미디어 활용전략'을 꼭 수강해보세요!

- 황지원(17학번)

웹콘텐츠제작실습

담당 교수님: 윤해웅 교수님 / 이수학기: 2019학년도 2학기

당신도 할 수 있다! 도전 유튜브버 되기?!

웹콘텐츠제작실습은 웹콘텐츠 제작을 위한 웹기술을 검토하고, 실제 제작 방법 학습, sns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급증하는 현재의 추세에 맞는 웹콘텐츠 제작, 특히 유튜브 제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 수업입니다. 따로 준비해야하는 교재와 시험이 없고 팀플로만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스토리텔링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 다양한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론 수업을 진행합니다. 지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론수업을 바탕으로 조를 편성해 직접 유튜브버인 것처럼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제작하는 팀플을 시작합니다. 어떤 영상을 올릴지 컨셉을 정하고, 스토리보드를 직접 짜서 영상을 만들어서 발표하기까지! 팀원들과 함께 하나의 완전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이론 수업이 끝나고부터는 작은 발표들이 있지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매 발표마다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교수님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만든 영상을 보고 뿌듯해하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만약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기획에 힘을 싣고 다른 친구와 함께 조를 이루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영상 제작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이 수업 완전 추천 드립니다! :)

- 송승연(17학번)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 30019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입학팀 | 전화 044-860-1900 홈페이지 <http://oku.korea.ac.kr>